금주의 법구-〈장로게경〉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배운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4월 8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46호 2017년 5월 3일 수요일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불자들의 염원이 한데 모아졌다. 1년간 정성스럽게 봉축장엄등을 만든 불자들은 4월 29일 진행된 연등회 제등행렬에 참가해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했다. 사진은 제등행렬서 한마음선원 학생회 아버지들이 청년회원들과 함께 만든 부처님 등을 즐겁게 끌고 가고 있다.

'인간 평등' 메시지, 10만 연등에 담다

4월 29~30일 연등회 봉행… '차별 없는 세상' 발원

남녀노소 30여만 명 종로 운집
장애인 · 외국인 참가자 늘어나
전통문화마당엔 힐링체험 각광
"환한 얼굴이 세상 밝히는 등불"

길거리를 수놓은 10만 연등불빛 아래 만중생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너와 나 둘이 아닌 '동체대비' 평등사상이 사회 곳곳에 전해졌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봉축위)가 4월 29~30일 서울 종로 일대서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는 예년보다 더욱 다양한 계층의 참가자들이 몰려 화합을 기원해 눈길을 끌었다.

29일 저녁 봉축행사의 가장 큰 볼거리인 연등행렬에서는 남녀노소, 장애인 · 비장애인, 외국인 등 30여만 명의 참가자들이 등을 환히 밝히며, 하늘 위 · 하늘 아래 모든 존재가 존귀함을 강조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다시금 떠올렸다. 특히 장애가족을 돕는 승가원과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연화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등 각종 복지단체 · 사찰을 비롯해 미얀마 · 네팔 · 스리랑카 · 베트남 · 태국 등 세계불교단체가 함께해 '더불어 사는 사회'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

올해 연등행렬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장엄등과 캐릭터등, 개인등 등 다양한 등이 길거리를 장엄했지만 그 중에서도 부처님 얼굴에 영상모니터를 달아 아기사진을 번갈아가며 보여준 조계사 장엄등이 압권이었다. 아울러 부모들이 유모차를 끌며 연등행렬에 동참해 미래세대 포교 위기에 처한 한국불교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연등행렬에 이어 종각 특설무대서 열린 회향한마당은 부처님 탄생을 찬탄하는 축하공연과 화합을 도모하는 강강술래, 대동율동 등이 펼쳐져 환희로 가득 찬 사바세계를 연출했다. 불자국악인 남상일 씨의 사회아래 울려 퍼진 연등회의 노래와 대미를 장식하는 꽃비는 행사장 일대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같은 날 오후 동국대 대운동장서 개최된 어울림마당에서는 각 사찰 어린이 · 청소년 · 청년 연희단 30여 팀이 다채로운 봉축율동을 뽐냈다. 이후 거행된 봉축법회서는 모든 이들의 행복을 염원하는 대규모 의식이 펼쳐졌다.

이 자리서 봉축위원장 자승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마음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고자 서로 맞잡은 손으로 등불을 높게 들고 힘차게 걸어가고 있다. 심성으로 밝힌 빛은 내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바로 곁에 이웃이 있다는 것을 느끼며 서로 기대고 어우러져 있음을 깨닫게 한다"면서 "환한 얼굴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가장 밝은 등불이 돼준다. 이를 통해 행복과 여유를 나누는 것이 더없는 덕행을 이루는 것임을 배우고, 진솔한 마음으로 내가 곧 삶의 주인임을 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온 국민이 행복하고 온 국토가 평안한 가운데 지구촌의 평화를 이끌어 가는, 무한생명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모두"라며 "모두가 행복하고 상부상조하며 상호 존중하고 감사하는 평화로운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사부대중은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이 대표 봉독한 발원문서 "나와 남을 구별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애착심을 버리고,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화합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과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는 각각 기원문을 통해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사회 어두운 곳에 자비광명을 밝혀 서로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것을 서원했다.

30일에는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130여 불교관련 체험부스가 설치된 전통문화마당이 펼쳐졌다. 올해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정목 스님 토크콘서트와 참선 · 명상 · 심리상담 등 다양한 힐링체험이 각광받았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마련된 청춘마당에서는 애니메이션과 컬러링, 불교 티셔츠 제작 등이 새롭게 선보였으며, 사찰음식코너에서는 7개 사찰이 각기 다른 사찰음식을 만들어 체험객들에게 제공했다.

〈봉축 화보 A16 · 17면〉

글=윤호섭 기자 · 사진=박재완 객원기자

[커버스토리] 차별금지법, 차별 없는 세상 첫 걸음

우린 모두 부처일진데 누굴 차별할 수 있는가



그림 · 최주현

얼마 전 한 한국인이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백인 남성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어깨를 부딪쳤단 이유만으로 한국인은 백인으로부터 피가 철철 나도록 수차례 맞아야만 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분노의 감정이 샘솟았는가? 이 이야기는 사실 뉴욕이 아닌 지난해 7월 1호선 양주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때린 사람은 백인이 아닌 50대 한국인 남성이고, 맞은 사람은 한국인이 아닌 미얀마 노동자다. 맞은 사람이 한국인이 아니란 사실에 분노가 사그라졌다면 그것이 바로 차별적 감정이다.

우리 사회에 차별이 얼마나 만연한지는 오래 생각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키가 작아서, 외모가 잘나지 않아서, 장애가 있어서, 출산한 여성이라서, 조금 여성스러운 남성이라서, 국적이 달라서 등 차별받는 이유가 수두룩하다. 이 중에서 당연히 차별받아야하는, 또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이 있을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탄생게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 외쳤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이 그대로 존귀하다는 인본주의의 천명이다. 차별적 신분제도인 '카스트'가 지배한 인도사회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평등사상을 깨친 것이다.

이러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현재 한국불교는 '차별 없는 세상'을 발원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자승 스님은 봉축사에서 "세상의 풍요를 위해 땀 흘린 노동자의 옷깃에서,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기업가의 열린 미소에서, 자연과 더불어 뿌린 대로 거두는 농민의 손길에서, 상처받은 이웃을 얼싸안은 시민들의 아름다운 품에서 우리는 부처의 세상을 본다"며 "가정과 일터, 거리와 사회에서 차별을 없애고 모든 이들을 부처로 대하는 것이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이제는 불자들이 답할 차례다. 차별 없는 세상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차별 있는 세상의 '적'으로 남을 것인가.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차별치 않는 세상을 만들어갈 열쇠는 우리 모두가 쥐고 있다. 본지는 봉축 특집 '차별금지법, 차별 없는 세상의 첫걸음'을 통해 그 답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련 특집 기획 A3~5면〉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2017년 봉축특집호 섹션 A32 · B20 · C16면 발행

선지식에게 듣다 – 활성 스님 A7 | 특집 · 리더십, 위기서 빛나는 해법 A11~13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우리도 부처님같이

종정 진제 법원 총무원장 자승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뜻으로 푼 금강경, 이젠 소리로 전해요"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5주기 추모다례재 봉행

"글을 외워서 배우라는 게 아니거든요. 외워가지고 그 외운 거는 다 버리더라도 그 뜻을 읽다보면 때에 따라서 어떠한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면 생각이 나거든요." - 대행 스님

추모 영상 속에서 '경전의 글자를 외우는 데 치우치기 보다 그 뜻을 새겨야 한다'는 대행 스님의 생전 법문이 흘러나오자, 법당에 모인 대중들 사이에서는 눈물을 삼키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숙한 분위기도 잠시,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대중들은 힘차게 금강경 독송을 이어갔다.

여러 방면에서 근현대 한국불교를 선도해 왔던 대행 스님의 열반 5주기를 맞아 4월 26일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에서는 본원과 부산, 대구, 광주, 태국 등 국내외 지원에서 온 300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다례재가 엄수됐다. 특히 이날 다례재에서는 대행 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음반이 봉정됐다.

다례재는 예불에 이어 음반 봉정, 고불문 봉독, 헌향 및 헌다 헌화, 추모영상 상영, 금강경 독송 등으로 진행됐다.

"첫 소절을 시작하면 부산했던 마음이 어느새 집중이 되면서 독송하고 있는 저를 볼 수 있어요."

다례재 중 상영된 추모영상에서는

〈뜻으로 푼 금강경〉 음반 제작
3천여 대중 합송, 가르침 되새겨
"법음 온누리에 퍼지길" 기원

대행 스님이 부처님 가르침의 뜻을 글자로 알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법문과 함께 뜻으로 푼 경전을 접한 불자어린이들의 소감과 매일 출퇴근 차량에서 금강경을 독송하는 것으로 수행을 삼는 선원 신도들의 사연이 소개돼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이 〈뜻으로 푼 금강경〉 음반을 대행 스님 진영에 봉정하고 있다.

은 고불문을 통해 "은사이신 대행 선사께서 뜻으로 풀이한 우리말 금강경을 조계종 의례위원장 인묵 스님의 독송으로 음원을 만들어 널리 세상에 전하게 되었음을 고하옵니다"며 "뜻으로 새겨 실생활에 활용하게 하고자 스님께서 지혜의 눈으로 풀이 하셨으니, 소리로 만들어 전달함에, 이 법음이 온누리에 두루퍼져 마음 속 무명번뇌는 보리심으로 깨어나고 삼독심은 대자비로 화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뜻풀이 금강경 음원을 녹음한 조계종 의례위원장 인묵 스님의 선창을 따라 대중들은 1시간여 동안 금강경 합송을 진행했다. 독송 소리가 선원에 울려퍼지는 가운데 선원 신도들은 대행 스님 진영에 차례로 헌화를 했다.

인묵 스님은 "평소 대행 스님의 구법수행과 포교원력을 많이 들어왔던 차인데 이렇게 인연이 되었다. 뜻풀이 금강경에 담겨있는 스님의 깊은 뜻을 잘 드러내지 못했을까 송구한 마음도 든다"라며 "사실 우리말 경전에 음운을 붙이는게 쉽지 않았다. 음반이 나오게 많은 이들의 정성이 있었고, 큰스님의 가피가 있어 나오게 됐다. 눈으로도 보지만, 음성을 통해서도 금강경의 깊은 지혜를 많은 사람들이 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내빈으로 참가한 청암사 회주 지형 스님은 "대행 스님께서는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다. 스님이 금강경을 뜻으로 푸신지 20년이 돼가는데 이제 이렇게 녹음이 돼서 나와 어디를 갈 때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좋으실 듯하다"며 "스님의 가르침을 잘 새겨 한마음선원을 시작으로 온 세계에 평화와 자비광명이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다례재에서 봉정된 '대행 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은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 e-book 및 Mp3 음원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노덕현 기자



자신의 근본 알아차리게
이해 쉬운 용어로 해설

대행 스님의 번역은 경전이 갖고 있는 본의(本義)를 깨달음의 눈으로 살펴 그 가르침의 핵심에 닿을 수 있게 풀어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1987년 한마음선원에서 출간된 의식법요집 〈신행요전〉에는 뜻으로 푼 반야심경과 천수경, 예불문의 상당부분이 우리말로 실려 있었다. 이후 대행 스님은 1990년대 초반 금강경을 뜻으로 푸는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스님의 열반 5주기를 맞아 조계종 의례위원회 위원장인 인묵 스님의 독경으로 〈뜻으로 푼 금강경〉이 음원으로 제작됐다. 아이들도 따라 읽으며 어릴 때부터 자신의 밝은 근본을 알아차리게 이끄는 스님의 우리말 경전은 어렵고 혼탁한 시대에 빛이 되어 길을 밝혀준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봉은사대책위, 서울시와 실무협의체 구성

현대차 GBC 관련 협의 추진

현대자동차 글로벌신사옥(GBC) 건립과 관련해 서울광장서 400여일간 정진법당을 운영해온 조계종 봉은사역사문화환경 보존대책위와 서울시가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봉은사역사문화환경 보존대책위(위원장 지현 · 원명)는 "서울시와 사전협의 끝에 4월 17일 실무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함에 따라 서울광장에 설치한 정진법당 기도정진을 잠정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광장 정진법당 잠정중단
현대차와 우호적 관계 노력

이날 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와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1200년 역사의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시의 진정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게 됐다"면서 "보존대책 수립을 위한 사업협의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GBC 건립과 관련한 의견 등 우호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제반 사업협의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어 "봉은사 역사문화수행환경 보존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서울시와의 합의에 따라 정진법당을 401일 만에 잠정중단하게 됐다"며 "서울시와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될 실무협의체 속에서 발전적인 담론이 형성되고 봉은사 역사문화환경이 바르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대책위는 4월 21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서 '한전부지 개발과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현대차 GBC 건립사업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다시 제기했다. 발제자로는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제정 스님, 김봉석 변호사, 이병인 · 홍석환 부산대 교수가 나섰다.

이병인 부산대 교수(조계종 환경위원회 부위원장)는 'GBC개발 환경영향평가 종합 진단'을 주제로 발표하며 GBC 환경영향평가상의 문제점으로 △환경영향조사 미비 및 누락 △예측과 평가 축소 및 부실 △환경영향범위와 평가항목 누락 △저감방안 제시 미비 △주민 참여의 문제 △사후환경관리도 매우 형식적 등을 지적했다.

윤호섭 · 박아름 기자

신흥사 주지 후보에 우송 스님 선출

4월 30일 산중총회 열어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후보에 現 주지 우송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신흥사는 4월 30일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후보인 우송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경쟁후보로 나섰던 前건봉사 주지 영수 스님은 26일 교구선관위에 후보 사퇴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주지후보로 선출된 우송 스님은 25대와 26대에 이어 27대까지 주지소임을 소화하게 됐다.

우송 스님은 1979년 신흥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쌍계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제방 선원서 수선안거 했으며,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 신흥사 부주지 등을 역임한 뒤 2009년부터 신흥사 주지를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미황사 괘불, 목포에 나투다

해양문화재硏, 6월 4일까지 전시회 개최

미황사 괘불이 목포에 나투셨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해남 미황사 괘불의 역사적 의미와 해양문화와의 관계를 재조명하는 테마전 '바닷속 영혼을 구원하는 부처, 괘불'을 오는 6월 4일까지 개최한다.

목포 해양유물전시관에서 진행되는 전시회에서는 웅장한 불교 회화 속에 담긴 바다 속 영혼의 극락왕생과 당대 중생들의 염원을 '미황사 괘불탱'(보물 제1342호 · 사진)을 통해 조명한다.

미황사 괘불은 영조 3년(1727년)에 조성된 높이 11.9m, 너비 4.84m 규모의 장대한 크기를 자랑한다. 미황사는 해마다 10월 괘불재를 열며 괘불을 1년에 단 하루 공개해왔다. 올해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미황사(주지 금강)가 뜻을 모아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테마전'으로 소개하게 됐다. 전시기간 중인 5월 10일에는 특별행사로 미황사가 주관하는 '수륙재'도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 대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바다 속 수중문화재는 수많은 애환을 간직하고 있다"며 "테마전을 통해 바다에서 희생된 넋과 선조들의 염원을 조금이나마 기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불교신행 혁신운동史 이념 · 역사 살펴본다

포교원 · 불광硏 13일 연찬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과 불광연구원은 5월 1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신행 혁신운동의 이념과 역사'를 주제로 봉축기념 공동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2500년 불교사에서 변곡점이 된 주요 신행혁신운동의 이념과 역사를 살펴본다.

연찬회에서는 총 4편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1주제는 김재성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붓다와 초기불교의 신행혁신'으로 신 중심의 인도 종교상황에서 보여준 초기불교의 혁신과 신행 내용에 대해 발표한다.

2주제는 신상환 고려대장경연구소 연구원이 '대승불교운동과 신행혁신운동'을, 3주제는 신규탁 연세대 교수가 '중국 선종과 신행혁신 운동'을 발표할 예정이다. 끝으로 4주제는 김성순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연구원이 '정토종의 이념과 신행혁신 운동'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박경준 동국대 교수, 참여불교를 전공한 정경일 박사, 중국 근대불교사를 전공한 김영진 교수가 나선다. 노덕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 이사장 석도선
고 문 석암도

승정원장 석벽봉 승정부원장 석화담 승정 석혜암 · 석대원
원로원장 석법령 원로부원장 석일두 원로 석일우 석지허 석지관 석도명 석광운 석보우

총무원장 석도선 부 원 장 석대공
총무부장 석도흥 호법부장 석성보 감찰부장 석성도 조사부장 석담월 사회부장 석청암
규정부장 석운담 의전부장 석성담 교무부장 석보현 문화부장 석성원 포교부장 석도명
교육부장 석정허 총무국장 석성덕 사서국장 석성일 봉사국장 석성호 포교국장 석혜성
포교국장 석법정 포교국장 석성우 사회국장 석원각 수행국장 석보각 종무국장 석심공

비구니회회장 석혜담 부회장 석효성 부장 석용정 국장 석지현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강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경기중앙종무원장 석재현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영주중앙종무원장 석문교 광주중앙종무원장 석일공 충남중앙종무원장 석문공
안산중앙종무원장 석덕진 천안중앙종무원장 석함월 시흥중앙종무원장 석지일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일지 태백중앙종무원장 석일현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울산중앙종무원장 석법운

■ 종단법인 운영이사
남산. 체법. 일두. 성만. 성우. 선화. 성덕. 청강. 일현. 도명. 청암. 혜천. 의공. 법수.
학산. 법광. 혜림. 자운. 혜화. 심공. 원공. 보우. 법현. 일타

■ 종단법률자문위원 변호사 : (明眞)김진우 / 법무사 : (雲虛)이익렬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석도선

■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이종길)
부회장 진불심(이순임)
총 무 대각심(김경숙)
임 원 혜명심(박현숙)
임 원 원명화(윤영아)

■ 종립예술원
원 장 묘 각(이재인)
부원장 보연화(유희연)
국 장 불심화(정형숙)
무 용 무애심(박순애)
연 출 원각심(도지연)

■ 법사승 임원
경남원장 도혜 충북부장 상학 대구국장 혜련
울산원장 법광 대전부장 정민 재무국장 덕운
충남원장 보인 경기부장 덕산 종무국장 도연
경북원장 성인 전남부장 혜명 국제국장 혜월
법사원장 명성 재무부장 자운 부산국장 혜성
청도국장 지천
포교국장 청운
포항국장 혜림
구미국장 혜진
화순국장 보정

■ 총본산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2리 58-1번지 대표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 총무원 : 서울 서대문구 홍제 3동 279-26 2층 대표전화 02)3217-4611 / 팩스 031)963-1688

"다문화 사회일수록 必要 아닌 必須"
〈필요〉 〈필수〉

① 시대적 요청 차별금지법, 왜 필요한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는 가운데 10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9대 대선후보자들에게 보낸 차별금지법 관련 질의서 답변을 공개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공론이 '필요(必要)에서 당위(當爲)'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불어 닥친 '동성애 논란'에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도 4월 27일 긴급 기자브리핑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10대 인권과제'로 발표함에 따라 차별금지법 제정이 19대 대통령과 20대 국회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이번 동성애 논란 뿐 아니라 차별의 대상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국민적 자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지난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사건을 접하며 한국사회 내 고질적인 네포티즘(친족중용주의 혹은 족벌주의)에 환멸을 느꼈고, 이에 대한 반발로 출신·성별·학력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나섰다. 또한 여성혐오, 노인혐오, 장애인 학대 등 일련의 사건을 접하며 차별범죄에 언젠가 자신도 노출될 수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광서 서강대 명예교수는 "한 명이 차별을 당하면 당사자와 가족, 연인, 주변인들까지 함께 고통을 받게 된다.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 되는 것"이라며 "시대가 발전할수록 차별을 차이로 인정하는 사회가 돼야한다.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지 못하면 인권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차별과 관련한 법이 있다. 하지만 구속력이 약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 새로운 사회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만큼 이들을 모두 포괄해 보호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가족 형태, 종교,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영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UN인권이사회는 2007년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후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권고 및 의견 표명을 해왔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 당장 차별을 근절시킬 수는 없어도 불합리한 차별은 부당한 것이며 차별할 시 처벌받을 수 있단 인식을 사회적으로 심어줄 수 있고, 점진적으로 차별금지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차별에 대한 법적책임 근거를 마련하면 강제력이 커진다. 법안이 공포되면 사람들에게 법을 위반해선 안 된단 인식을 심어준다"며 "시간이 흐르면 차별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의식들이 사회에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국민적 관심·요청 확산
잇따른 족벌주의·혐오범죄 등 접하며
'나도 차별받을 수 있다'는 자각 형성

외노자, 결혼이주민 등 新구성원 증가
모두 포괄할 차별금지법안 필요성 증대
불교, 신도교육 등 적극 계도 나서야

또한 박 교수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세부적인 처벌규정도 마련된다. 이후 판례가 쌓일수록 사회적 구속력이 커질 것"이라며 "차별범죄에 대한 판례가 인권 의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사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요청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있어 왔다. 이미 국민의 59.8%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2013년 종교자유정책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나타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2007년 이후 수차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보수 개신교 집단의 강력한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성소수자로서 '차별'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토대를 마련한 것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시정명령권, 이행강제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Q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차별은 단일한 분야를 이유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이며 '장애인', '장애인'이며 '특정 종교 종교인(신도 포함)', '남성 또는 여성'이며 '저학력' 등 복합적인 분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현상과 더불어 국민들의 사회적인 의식이 성속함에 따라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별적 법안 구성이 아닌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요청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있어 왔다. 이미 국민의 59.8%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2013년 종교자유정책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나타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2007년 이후 수차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보수 개신교 집단의 강력한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성소수자를 차별금지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보수 개신교 집단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란 반박과 더불어, 특정 교리에 입각해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높다.

박 교수는 "나와 다른 집단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느낄 순 있으나 그 정도가 과도해 범죄로 이어진다면 법적 제재를 가해야한다"며 "중간지대가 넓을수록 안정된 사회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생성돼야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특정대상에 대한 보호제도가 아닌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해 모두의 인권을 신장하자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상대를 인정, 배려할 때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신교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류상태 목사(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는 "보수 개신교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2000~3000년 전 기록된 성경에 따른다. 당시엔 성소수자 뿐 아니라 여자,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차별이 정당한 것처럼 적혀있다. 당시 의식 수준이 반영된 것일 뿐 신의 말씀이 아니다"며 "하나님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인류애를 펼치셨다. 현재 보수 개신교 집단은 왜곡된 시각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가운데 불교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갑시다' 란 2017년 종무기조 아래 차별금지법에 대한 지지를 공식 천명한 조계종이 더욱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한단 요청이다.

박 교수는 "조계종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이웃종교보다 포용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란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요사찰 신도교육 주제로 '차별 없는 세상' '차별금지법 필요성' 등을 삼고 재가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종단 소임자 및 주지 스님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아름 기자

"차별 존재하는 한, 누구라도 받을 수 있어"

Interview 조계종 사회부장 정문 스님 '차별금지법, 왜 필요한가요?'



Q 차별금지법은 왜 제정돼야 하나요?

A 대한민국이 다문화, 다종교 사회로 변했습니다. 신분제가 있던 군주 국가에서 모두가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로 변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사회적 적폐와 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촛불을 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문화 다종교 사회의 평화와 화합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 영역에서 일어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Q 그렇다면 불교계는 왜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할까요?

A 부처님은 당시 인도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부정하셨습니다. 계급을 가리지 않고 제자로 받으시며 "사람의 고귀하다. 천함은 혈통이나 신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의 행위가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한국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평등과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목소리를 내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Q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만연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A 법은 그 시대, 사회의 요구에 따라 제정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다문화, 다종교 사회가 된 우리나라에서 고질적 차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그 초석이 될 것입니다.

법이 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이상이 실현되기 위해선 차별금지법이 제정 후에도 사회 개선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합니다.

법이 있음으로 인해 공적 규제가 발생하고 이로서 '차별'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토대를 마련한 것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시정명령권, 이행강제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Q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차별은 단일한 분야를 이유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이며 '장애인', '장애인'이며 '특정 종교 종교인(신도 포함)', '남성 또는 여성'이며 '저학력' 등 복합적인 분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현상과 더불어 국민들의 사회적인 의식이 성속함에 따라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별적 법안 구성이 아닌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Q 마지막으로 불자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또 궁극적으로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차별 없는 세상은 불자들이 염원하는 불국토의 한 모습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후 계급제 등 당시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거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부처를 이룰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법문을 듣다 보면 모든 생명을 '부처'로 대하라는 요지의 설법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차별은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소중한 한 생명이자 한 인격체로 맞이할 때, 다름을 '틀림'이 아닌 '차이'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 할 때 우리 사회는 평등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차별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그 누구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별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대한불교 총화종

불기 2561 (2017)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같이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종 정 전남정

부 종 정 이남은. 최만재 총무원장 김혜각

종회의장 백만우 종회부의장 정경옹 교 육 원 장 김법만 호계원장 이만오
감찰원장 김혜암 포 교 원 장 김기태 문 화 원 장 이지수 선 원 장 신본원 복지원장 김지산

사회부장 성조향 호법부장 박지광 재무부장 김지오 교무부장 윤해원 조직부장 빈성혜
조사부장 김지현 문화부장 양혜원

서울북종무원장 이혜인 경기동,남종무원장 김법만 기 서 종 무 원 장 김혜암
대 전 종 무 원 장 김해송 울 산 종 무 원 장 백만우 강원1교구종무원장 정혜산
경남동종무원장 이광덕 경남서종무원장 김월광 강원2교구종무원장 허승효
전남,광주종무원장 김현산 제 주 종 무 원 장 김청해 부 산 종 무 원 장 박지광

유 발 승 회 장 이지수 유 발 승 총 무 전지명

외 임원 및 종도 일동

봉 축 사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혜각**

함께 행복을!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오늘은 저희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부처님께서 이땅에 오신 거룩한 날입니다. 부처님 자비광명이 충만한 기쁜날입니다.
오늘 참 좋은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부처님 가피력으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 성취하시도록 합장기원합니다.
우리는 원래 모두 부처님입니다. 더불어 재미있게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부처님께 발원합시다. 자비와 지혜충만하신 부처님!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사바세계가 극락세계로 이루어 지도록 세상을 바로보고 자기를 바로보는 크나큰 진리속에서 우리 함께 길이길이 부처님 가피력으로 더불어 함께 모두 행복을 찾읍시다.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93번지 2층
전화 02)743-0066, 8338 / 팩스 02)743-8448
www.chonghwajong.or

#논란_중심 #성소수자에게_듣는 #차별금지법

"아웃팅 당해 사회적 매장 되도 가해자 처벌할 수 없어"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최소한 인권 보장받지 않을까…"

"동성애자라고 밝히면 난잡한 성생활로만 생각해"



② 성소수자 불자모임 회원들이 말하는 '차별금지법'

이번 19대 대선에서 성소수자 인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4월 25일 대선후보 4차 TV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동성애를 반대하느냐"고 질문했고 문 후보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후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동성애는 찬반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하자 문 후보는 "동성애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차별은 안 된다"고 정정했다. 이 과정에서 홍 후보는 문 후보에게 "동성애 때문에 대한민국에 에이즈가 얼마나 퍼져있는지 아느냐"고 재차 물어 논란을 가열시켰다.

이에 대해 여론은 즉각 "성적 지향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러한 상황 속 19대 대통령과 20대 국회 임기 중 차별금지법 제정에 성소수자를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반쪽짜리 법안'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보호 대상에 성소수자를 포함시키는 것을 두고 다년간 갈등을 빚어 왔다. 성소수자 포함 여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의 핵심 관건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수 개신교 집단이 성소수자를 차별금지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펼치는 반면, 시민사회계에선 성소수자를 반드시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불교계도 시민사회계와 궤를 같이한다.

이 가운데 직접 당사자인 성소수자들을 만나기 위해 4월 22일 서울 독산동의 여래심리상담연구소를 찾았다. 30~50대 남자 성소수자 5명(이하 A~E)은 이날 그들만의 삶과 불교, 또 현재 뜨거운 찬반 논란이 펼쳐지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다양한 생각을 털어놨다.

혐오범죄 · 아웃팅 등 당해도 구제법 X

"동네 사우나에서 젊은 남학생이 아저씨에게 일방적으로 맞는 걸 봤어요. 정황을 들어보니 학생이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아저씨를 (성적으로) 건드렸나 봐요. 그런데 정말 무서웠던 건 주변에서 방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게이인 그 학생이 맞아도 된다는데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거죠. 지금 생각해도 무서워요."

조선시대 혹은 인도 카스트제 아래서나 발생할 법한 이 이야기는 성소수자 A씨가 직접 목격한 실화다. 사건의 발단은 분명 아저씨를 성추행한 학생의 잘못이다. 그런데 왜 아저씨는 학생을 경찰에 고소하지 않고 폭력으로 해결했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하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말리지 않고 학생을 향해 손가락질 했을까. 또 학생은 폭력을 당하고도 왜 신고할 수 없었을까.

알려지지 않은 차별 · 혐오범죄 '심각'
아웃팅 당해도 구제법 없어 신고 못해
"똑같은 사랑, 性으로만 봐 괴로워"
차별금지법, 최소한 인권 보장 기대

이처럼 성소수자들은 성적지향이 다르단 이유만으로 각종 차별과 혐오범죄에 속절없이 노출돼 있다. 성소수자란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해도 이들을 구제할 법이 없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폭력 중 하나는 '아웃팅(Outing)'이다. 아웃팅은 커밍아웃과 반대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적 경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아웃팅을 당하는 것은 2차, 3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단 점에서 성소수자들에게 매우 두려운 일이다. 직장에서 아웃팅을 당한 후 편견어린 시선을 견디지 못해 그만둔다거나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를 법적으로 고소한다 해도 아웃팅 당한 성소수자의 물질적 · 정신적 피해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것도 큰 문제다.

"감추고 싶은 비밀을 강제로 밝혀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건 범죄 아닌가요? 저희에겐 성소수자임을 밝히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근데 아웃팅을 당해서 불이익을 받아도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 C

물론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명제는 아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차별이 부당하단 인식을 심어주고 차별할 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저희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는 이유는 최소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단 기대 때문입니다. 지금은 게이란 이유로 차별 · 폭력을 당해도 보호받을 법적 장치가 없으니까요." – E

편견, 오해, 시선 폭력 가장 두려워

"제가 게이란 걸 어디에서도 말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가 가장 힘들어요. 고질적인 원인부터 시작되는 불안과 우울감이 큽니다. 이성 간 사랑하듯 우리도 똑같이 사랑할 뿐인데 동성애자라고 하면 에이즈, 난잡한 성생활 등 성(性)적으로만 바라봐요. 그런 편협한 사고로만 저희를 바라보는 게 가장 힘듭니다."

E가 언급한 것은 대부분의 성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다. 학계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명백히 검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가 에이즈 발병의 주된 원인이란 편견을 갖고 있다.

성소수자 법회 지도법사 효록 스님은 "심지어 내 주변에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라 일러줘도 '아님 말고' 식"이라면서 "우리가 대수롭게 넘어가는 일이 성소수자들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시선의 폭력'도 견디기 힘든 일 중 하나다. 공공장소에 '성소수자 출입금지'란 말이 쓰여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연인과 손을 잡고 걷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결혼과 같은 사회 관습에 따르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도 일종의 시선 폭력이다.

2000년 10월 인터넷 카페 개설 후
조계사서 한 달에 1번 예불 · 세미나
現 지도법사 효록 스님 체계적 지도
심리상담, 순례 등 신행 활동 다양

C는 "주변의 눈치 때문에 결혼한 성소수자도 많이 봤다. 결혼이 의무가 아닌데도 결혼하지 않으면 우리를 죄인처럼 바라보는 것 같다"면서 "한국사회에 당연한 것처럼 정해진 문화적 관습에 따르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

17년간 佛法 아래서 '서로 위로'

불교는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졌다. 이들이 성소수자기 때문에 불교를 믿기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같은 처지에 있는 성소수자 불자들과 만나는 일은 그 자체로 치유가 된다. 17년간 이들이 성소수자 불자모임을 지속해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다.

"다른 사찰 신행모임에도 따로 참여하고 있어요. 주로 경전공부나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곳에서도 배우는 게 있지만 이곳(성소수자 법회)에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성소수자로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성소수자인 나에게 필요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죠." – A

성소수자 불자 모임은 2000년 10월 시작됐다. 인터넷 다음카페 회원들이 오프라인 상에 모여 조계사에서 한 달에 1번 함께 저녁 예불에 참여한 것이 시초다. 회원들은 예불 뿐 아니라 불교 경전, 수행법 등 공부하는 세미나도 함께했다.

그러다 2015년 4월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의 소개로 현재 지도법사 효록 스님을 만났다. 자신들끼리 불교공부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효록 스님을 만난 후엔 법회 뿐 아니라 심리 상담 등 신행 · 수행 활동을 병행하며 더욱 체계가 잡혔다고 한다.

"효록 스님은 수행과 심리상담 공부를 함께하신 분이라 저희에겐 정말 최적이에요. 불교적 가르침 뿐 아니라 저희가 겪는 심리적 고통에 대해 상담도 해주세요. 둘 중 하나만 탁월하거나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저희들을 지도하기 쉽지 않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B

C도 효록 스님 칭찬에 입을 모았다. C는 "우린 정신과를 가더라도 성 정체성을 감출 수밖에 없다. 일반 의사들에게도 심리 치료를 받기 쉽지 않은 현실"이라면서 "효록 스님은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을 통해 얻은 지혜를 알려주시니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불교가 자신들을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하는 이들.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모습은 영락없이 우리와 다름없는 부처님 제자였다. 이들 앞에 하루빨리 제2, 제3의 효록 스님이 나타나 더 큰 부처님 가피를 전해줄 수 있길 기대해본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 조계종

계율청정종단

■ 종 정
종무원장 : 혜인 사서실장 : 천산 율 원 장 : 혜일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중앙선원장 : 도일

■ 원 로 원 : 성민,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춘담

■ 총 무 원
부원장 : 동안, 도불 서봉금산
총무부장 : 법성
재무부장 : 혜만
교무부장 : 혜일
사회부장 : 정덕
문화부장 : 지운
총무국장 : 남산
재무국장 : 정일
교무국장 : 지성
사회국장 : 법일
문화국장 : 수옥
문화재관리국장 : 진각
교육원장 : 상산
교육부원장 : 덕산
교육부장 : 태산
교육국장 : 진산
교육원장 : 정산
포교원장 : 법진
포교국장 : 호산
기획원장 : 혜타
기획실장 : 대덕화
호계원장 : 천불
호계부장 : 태산
규정부장 : 영암
규정국장 : 지산
호법부장 : 성산, 지호
호법국장 : 법성
감찰원장 : 정오
감찰부장 : 백산지견
감찰1국장 : 수산
감찰2국장 : 금산
감찰3국장 : 인산
비구니 회 장 : 지성
부 장 : 혜승
교수사 : 덕산
총 무 : 금산
부회장 : 혜산, 해원
재 무 : 도은, 정해
교 무 : 본각, 수정
교 육 : 법신, 성담
문 화 : 남산, 진화
포 교 : 보명, 홍산
강 원 : 각원, 현타
복 지 : 화광
감 찰 : 서호, 보현
불 화 : 혜담, 인산
의 식 : 련성, 지해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 상산
경기종무원장 :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 일봉
경기남부종무원장 : 승현
인천종무원장 : 혜원
강원종무원장 : 광덕
충북종무원장 : 학산
충남종무원장 : 혜덕
경 남 종 무 원 장 : 백산 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 천산
경남서부종무원장 : 지명
경남창원종무원장 : 지원
경 북 종 무 원 장 : 덕운
부 산 종 무 원 장 : 서봉 금산
부산북구종무원장 : 수산
전남광주종무원장 : 지각
전 북 종 무 원 장 : 법성
제 주 종 무 원 장 : 청호
울 산 종 무 원 장 : 법철
일본오사카종무원장 :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 : 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 해산

■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 혜인 편집인 문화부장 : 태산
편 집 기 자 : 나윤하 문화국장 : 용산
사회부기자 : 이근진, 유현석 사회국장 : 황산
이 사 : 혜원, 정산, 각원, 덕산,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 종단 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예술문화협회
주식회사 엠디엠삼성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 총림
서울총림 해인사
삼화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 신도회사업본부
사업부 : 대덕화, 이창훈, 김생수, 김정환, 권오경

■ 전국신도회
고 문 : 설주성
중앙신도회장 : 홍창석
수 석 부 회 장 : 윤근
여 신 도 회 장 : 김준자
서울신도회장 : 서우연
부산신도회장 : 허민
강원신도회장 : 김현재

■ 청년회
회 장 : 손정일
홍보처장 : 이근진
총무계장 : 유현석
기획대리 : 나윤하
중국담당 : 임가현
기획실장 : 심원일

학교법인 삼화학원

■ 불교조계종대학림
학 장 : 혜일 부학장 : 일봉
교 수 : 해운, 진산, 태산, 덕산, 현조, 혜승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 불교조계종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 남경중의약대학
교 장 : 혜인
부 교 장 : 손영진
한국총장 : 홍창석
교학처장 : 조영일
학생처장 : 손 정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총무원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6길 (논현동 2-14 2층)
총무국 :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총 무 원 장 실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02)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02)511-1080
인터넷주소 :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jogaejong.or.kr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E-mail 주소 : namkyounguniversity@naver.com

"법 제정, 한국사회 인권 지표 상향의 척도"

③ 전문가들이 바라 본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종단 행보에 교계 전문가 및 활동가들은 환영을 표했다. 다만 대사회적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선 구체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종단 내 차별 요소를 해소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불교계 불교계 역할에 대해 정호 스님(이주민), 효록 스님(성소수자), 류상태 목사(종교), 이용권 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장애인),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장(여성)에게 의견을 들어봤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정호 스님



"인종, 피부색 등 차별 묵인 갈등 범죄 촉발 원인"

이주민 200만 시대, 한국 땅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주민들을 한국사회는 얼마나 포용적인 자세로 맞이하고 있을까. 모두에게 '차별 없는 세상' 이면 좋으련만 이주민에 대한 욕설, 차별적 발언을 일삼는 뉴스가 끊이지 않는걸 보면 이주민 인권 감수성이 아직은 부족한 듯하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이하 마주협) 상임대표 정호 스님은 "한 흑인 이주노동자가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했을 때와 미국에서 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 같은 흑인도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과 미국에서 온 흑인이 차별받는 세상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는 유럽이나 북미에서 온 이주민과 동남아, 저개발국가에서 온 이주민을 대하는 한국사회의 이중 잣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호 스님은 "이주민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게 익숙지 않고 대중매체를 통해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면서 의도치 않게 이주민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등이 차별과 혐오의 근거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호 스님은 이러한 이주민에 대한 차별 뿐 아니라 한국사회 내 산재한 전반적인 차별을 해소키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호 스님은 "사회구성원과 시스템의 차별에 대해 묵인, 방치하는 것은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범죄를 촉발할 수 있다"며 "한국사회 인권지표를 상향시키는 척도로써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조계종의 역할에 대해 정호 스님은 "마주협을 비롯해 종단 내에는 여성, 장애인, 종교 등 관련 단체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을 종합해 토론회를 열고 정책을 생산, 사부대중을 대상으로 차별금지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등 실시해야한다"며 "이를 위해선 개별 단체들에 대한 종단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소수자 불자 모임 지도법사 효록 스님



"성소수자 인식 부족, 승가교육 실시 필요"

"성소수자 불자 모임은 많지만 부처님 법을 전해주고 마음을 위로해줄 지도법사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스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승가교육이 실시돼야겠지요."

현재 성소수자 불자 모임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는 효록 스님은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아쉬워했다. 관심이 없으니 지도법사로 나서는 스님이 없는 게 당연한 귀결이란 지적이다.

효록 스님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는 불교가 보듬어야할 대상이란 인식을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조계종 교육원에서 인권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 승가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효록 스님은 종단 지도층의 역할이 절실하다고도 말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면 이를 교계 내에 적극 홍보하고 구체적인 행동방향을 세워야한다는 것.

효록 스님은 "조계종이 2015년과 2016년 각각 성소수자와 그 부모님들을 초청해 법회를 열었다. 조계종의 개방적 태도에 성소수자들이 매우 기뻐했다"면서 "하지만 법회 당시 종단 지도층 스님들이 나와서 성소수자를 격려하는 법문을 해주셨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선 더욱 적극 나서야한다. 종단 지도층 스님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대외적으로 큰 홍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상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종교 갈등 증폭 미… 범종교 연대 절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청하는 범종교계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조계종 뿐 아니라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 표명 자체가 사회적으로 큰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류상태 목사(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종교계가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뿔뿔이 흩어진 목소리를 한 곳에 집중시킬 때 더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단 의견이다.

류 목사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일부 보수 개신교 집단을 제외하면 개신교 내에서도 의식있는 진보 교단이 있다. 이들과 조계종, 가톨릭 전부가 연대해야한다. KCRP(한국종교인평화회의) 등 종교 지도자 모임이 대외적으로 활동하며 차별 금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웃종교끼리 뜻있는 일에 연대할 때 진정한 차별 없는 세상을 이룩하고, 종교간 차별도 해소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국사회 내 종교차별과 관련해 류 목사는 언제든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잠재된 폭발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하루빨리 제정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종교 충돌을 예방해야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 갈등이 전쟁으로 비화된 경우가 많았던 점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종교 갈등이 아주 심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 불교가 자비의 종교로서 이웃종교를 배척하지 않는 것이 갈등 완화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웃종교인으로서 깊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종교차별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다종교, 다문화 사회로 가는 시점에 언제든 갈등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이 시급히 제정돼 종교차별 문화를 철폐해야합니다."

이용권 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장애인 신도 분리 차별적 감정 출발"

"현재 사찰 구조를 보면 일반 신도 법회에 장애인 불자가 참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반 법회'와 '장애인 법회'를 구분지어 놓기 때문이죠. 이런 분리 구조로부터 장애인들은 차별을 느끼게 됩니다."

이용권 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키 위해 불교계 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장애인 복지와 관련 주목받고 있는 탈시설화(脫施設化)의 일종이다. 탈시설화란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폭행과 인권유린 등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며 필요성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관장은 "분리로부터 느끼는 차별적 감정이 장애인들에겐 엄청나다. 현재 불교계에서도 모든 사업, 법회 등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해 실시하고 있는데 이제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일반 신도들의 인식 개선 교육과 사찰 내 장애인 시설 확충이 선행돼야한다며 사찰 내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등 확보해야한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관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불교계가 나서야하는 이유는 너무 당연하다.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신도들에게 널리 홍보해야한다"며 "또한 대사회적으로도 확장시키기 위해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행동강령' 등 구체적인 실천도 병행돼야한다"고 말했다.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장



"여성차별 철폐해야 대사회적 확장 가능"

"한 스님이 남성불자에겐 정중히 높임말을 쓰면서 저에겐 다짜고짜 반말을 하시기에 '왜 제 일행에겐 높임말을 쓰면서 제겐 반말을 쓰십니까'라고 여쭌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여성은 태생적으로 근기가 낮다. 수행을 더 해야 한다. 요즘 여자들은 기가 너무 세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아직도 그때 당황스러움이 잊히지 않습니다."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서 종단 내에 차별금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우선과제라고 설명했다. 종단 내에 산재한 차별적 분위기를 먼저 해소하고 대사회적으로 실천할 때 더욱 효과를 얻을 수 있단 것.

옥 소장은 "종단 내 여성차별 현실이 암울하다. 종단 주요 교역직은 비구 스님만 가능하도록 규정된 종헌종법 뿐 아니라 교리적으로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 또 스님이 법문 시간에 '여성이 육아와 집안일을 도맡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정도"라면서 "요즘 여성들이 절에 와서 이 얘기를 들으면 과연 절에 오려고 하겠냐"고 지적했다.

특히 옥 소장은 여성 차별을 철폐하지 않을시 한국불교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현재 신도 비율이 여성이 높기 때문에 여성차별 실태가 지속된다면 여성 불자 수가 급감할 것"이라는 게 옥 소장의 설명이다.

옥 소장은 이러한 종단 내 노력을 펼친 후 대사회적인 실천에 나설 때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저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것보단 실천을 통해 보여주는 게 더욱 좋겠죠. 예를 들면 불교계 내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지지 서명운동을 펼친다거나, 승가 내에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해 공론을 모으는 겁니다. 교계 내에서 이런 움직임이 대사회적 움직임을 촉발할 것입니다."

Buddha's Birthday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社團法人 大韓佛教 禪教宗

宗 正 眞性 法雲

理事長 湖月 華嚴 元老議長 海月 龍岩

總務院長 三柱

總務部長 光恩 教務部長 法光 財務部長 智雲

全 宗徒 一同

입종을 환영합니다

불조의 혜명을 잇고 초대법왕 일붕존자님의 유지를 받들어 한국불교를 선도해 나아가고자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본 종단과 함께하고자 하시는 대덕스님들을 환영합니다.

■ 입종서류 : 주민등록초본, 반명함판 사진, 법당사진, 수계증간부스님 추대장 및 위촉장
■ 입종문의 : 총무원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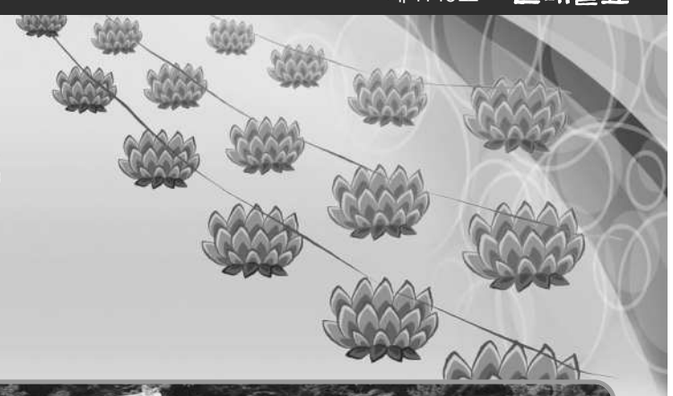
■ 총무원 : 대전 중구 대흥로 88 다솜타워 7층 전관 / 전화 042)242-1080 / 팩스 042)252-1081



佛紀 2561年 丁酉年 | 전면광고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 A6

탐욕 · 성냄 · 어리석음 · 두려움 있으면 바른 법을 이어받지 못하며
명예가 떨어지는 것이 보름 지난 저 달이 이지러짐 같네. 〈선생자경〉



한국불교태고종

종정 혜초

승정원 원장 남파
부원장 법장

원로회의 의장 덕화
수석부의장 지족
차석부의장 금용

중앙종회 의장 설운
수석부의장 법담
차석부의장 시각

호법원 원장 지현
부원장 상묵

총무원 원장 도산
부원장 백운
교육부원장 묵원
총무부장 도안
교무부장 도진
재경부장 진성
사회부장 법전
규정부장 도법
홍보부장 자우

종도일동

■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 112)
전화 02)739-3450~4 팩스 02)739-3470



대한불교진각종



총기 46년
불기 2561년

불교총지종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종.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종령 효강 대종사
통리원장 인선

중앙종의회 의장	수현	중앙교육원장	화령
사감원장	안성	동해중학교 이사장	인선
총무부장	우인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법경
재무부장	원당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안성
교정부장	법일	부산경남교구 교구장	정인화
사회부장	지정	충청전라교구 교구장	지정

중앙종의회 의원 · 총지종 유지재단 · 전당건설 위원회 · 통리원 임직원
법장원 · 밀교 연구소 · (재)사회복지재단 · 각 사원 주교 및 스승
총지종보 및 종보 통신원 · 각 교구 신정회 일동 · 만다라요양원 · 바라밀지역아동센터 · 초록어린이집 · 잠원햇살어린이집 · 일원어린이집 · 포레스타7단지어린이집

자성일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불교총지종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역삼동) | Tel. 02)552-1080~1083 | Fax. 02)552-1082 | www.chongji.or.kr

(사)대한불교 무량종

종정 정혜안 사서실장 보인
원로원장 양지은

총무원장 보공 교육원장 보산 감찰원장 보문 포교원장 보아
중앙종회의장 법우 부의장 자운. 법용 사무총장 보성

총무부장 보련 재무부장 보혜 교무부장 정운 사회부장 보월 호법부장 정목
총무국장 보림 재무국장 보영 교무국장 무진 사회국장 보정 포교국장 보륜

■ 총 림 : 부산시 사하구 괴정 2동 314-7 은암천불정사 / 전화 051)292-4586
■ 총본산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삼화실로 748-8 칠보정사 / 전화 055)883-7771.7790

대한불교 삼론종

종정 혜승

승정원장 향운 승정 혜공. 인봉. 은곡. 진봉. 지운. 지심. 명산. 명재. 해불

총무원장 지민 종회의장 지경
종회부의장 천장
총무부원장 혜관
총무부장 성우 교무부장 근혜
재무부장 혜인 규정부장 경월 사회부장 도일
사정원장 명산 사정부원장 혜원
포교원장 보명
문화원장 지향 문화부원장 지학
수선원장 지화 수선부원장 성덕
기획원장 성각
교육원장 남륜
중앙신도회장 김상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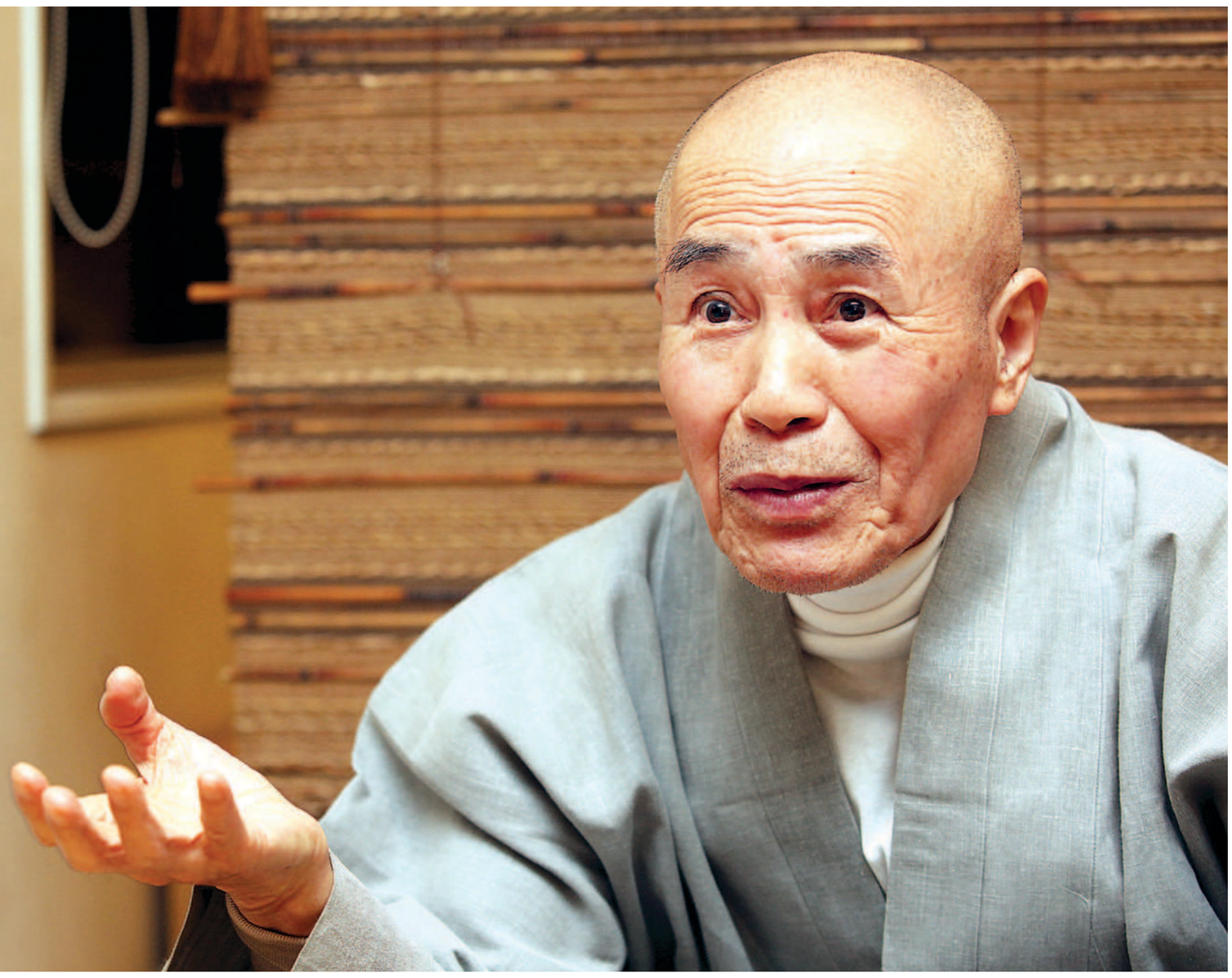
서울경기종무원장 천장 경남울산종무원장 해산
충북종무원장 지허 대구경북종무원장 혜송
충남종무원장 성현 전라남북종무원장 도암
강원종무원장 혜인

중앙종회
종회의원 해불 도암 지화 일선 지향 성각 일천 정연 어산 보광 지연 자원 성덕 성현 혜인 근혜 묘현 마애 성화

종도일동

■ 총무원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음성로 773-66 / 전화 043)878-0109 / FAX 043)878-0103

“幻 좇는 시대 방편 아닌 근본적 진리를 보라”



선지식에게 듣다

(사)고요한소리 회주 활성 스님

현대사회는 빠르고 번잡하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살아남고,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 경쟁과 소유는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삶의 처세술이 된지 오래다.

반대로 우리는 경쟁과 소유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약육강식의 순환에서 벗어나 탈세속의 삶을 꿈꾼다. 얼마 전부터 한국사회를 강타했던 힐링 열풍은 경쟁과 소유에 지친 삶을 위로받고 싶었던 현대인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다.

문제는 현실의 삶과 이상적 가치의 간극이 크다는 점이다. 현실에서는 생존 경쟁을 위해 살아가는 데 자신의 내면에는 이로부터 벗어나고픈 욕구가 강하게 상존하고 있다.

문제가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나의 괴로움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모른다. 문제의 해결은 이 고통의 근원은 무엇인지를 알아내 벗어나는 데 있다. 감로수 같은 선지식의 법(法)이 필요한 시대다.

오직 불교 중흥 위해 정진

지리산에서 오로지 수행만을 정진해 온 활성 스님은 숨겨진 선지식이다. 활성 스님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기자 생활을 하다 경봉 스님을 만나 “한 생, 안 난 셈치고 살라”는 말을 듣고 출가했다. “불교 중흥의 동량이 되라”는 뜻으로 ‘살리는 소리(活聲)’이라는 법명을 받은 스님은 “주지 소임 살지 않고, 재 안 지내며, 상좌 안 둔다”는 원력을 세우고 오로지 수행에만 매진했다.

출가 이후 세간에 나와 활동한 것은 봉암사 산문 막기, 10.27법난 해결, (사)고요한소리 창립 등 세 번에 불과하다. 세 번의 외출 모두 부처님과 종단, 출가 사문에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불교 중흥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다.

특히, 불전 원전 번역 단체 (사)고요한소리 창립은 부처님 원음을 살려 대중에게 전하기 위한 활성 스님의 평생 불사이다. 중흥과 보은의 원력이 담긴 (사)고요한소리는 창립 이후 30년 동안 부처님 원음을 전하며, 초기불교 대중화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지난 4월 15일 열린 (사)고요한소리 창립 30주년 법회에서는 처음으로 활성 스님의 대중 법문이 이뤄졌다. 은둔 선지식의 대중법문을 세간이 주목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시 만나기 어려운 스님과의 언론 인터뷰 역시 처음 시도된 것이다.

삼독심을 부추기는 사회

어렵게 허락받은 인터뷰, 지체할 틈이 없었다. 곧장 물었다. “평소 ‘중도(中道)’를 강조하시는데 현대사회에서 ‘중도’는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구현될 수 있습니까.”

잠시 생각하던 스님은 천천히 그리고 고요히 말했다. “지금 사회는 탐·진·치(貪瞋癡) 삼독심(三毒心)을 부채질하는 사회죠. 경쟁적으로 누가 더 탐욕하고 진심(瞋心)을 강하게 내서 성공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 앞에서는 중도의 가치를 내세우는 사람도 돌아서면 탐·진·치를 추구합니다. 이렇게 탐·진·치의 추구가 상식이 된 사회에서 단순하게 ‘중도’만을 외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실천할까요?”

어리석은 질문에 돌아온 현답(賢答)과 같은 반문이다. 문제는 탐·진·치 삼독심을 권장·장려하는 사회 구조와 풍토다.

우리는 더 많이 욕망하고, 이를 위해 성내고 싸우며, 자신의 문제와 고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삼독의 악순환은 우리를, 사회를 잠식했다.

활성 스님은 문제 해결은 방편과 근본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했다. 방편적 접근은 사회 정책을 바꾸거나 윤리·도덕관을 바로 세워서 대중들을 계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 사회는 “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스님의 처방전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철기 문화가 시작되는 시점에 나투셔서 법을 설했습니다. 철기 문화가 시작되는 지점에는 많은 것이 변했지요. 부족 국가가 왕조 국가로, 청동기서 철기로, 모계 사회서 부계 사회로 등 혁명적 변화들이 이뤄집니다. 변화는 위기도 함께 내포합니다. 부처님은 철기 문화가 도래한 사회에서 인간이 헤매지 않도록 길을 정해준 것입니다. 앞으로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미증유의 변화와 위기에서 필요한 것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적 접근입니다.”

탐·진·치는 왜 권장되는가

근본·진리적 접근, 이를 위해서는 우리사회는 탐·진·치를 왜 권장하게 됐는지를 살펴야 한다.

스님은 문제의 근본을 찾아갈 수 있는 깊이가 있어 “불교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 즉 오온(五蘊)에서 문제가 시작됨을 역설했다.

“중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통해 존재를 인식하는지 봐야 합니다. 바로 ‘색·수상·행·식’입니다. 부처님은 상(想)을 신기루로, 식(識)을 마술사로 비유했습니다. 상을 통해 세상을 보니 모든 것이 환(幻)인 것입니다. 마천루가 높이 올라가는 것을 발전으로 생각하고, 자본주의·공산주의 등 이데올로기에 휩쓸립니다. 이것 모두 상에서 비롯된 문제들입니다. 실체를 바로보지 못하고 환을 통해 모든 것을 보고 인식하니 문제는 해결이 아닌 악화만 될 뿐입니다.”

환을 좇는 사회, 우리는 탐·진·치의 신기루만을 향해 간다. 이에 대한 스님의 이어진 비판은 조용하면서도 매서웠다.

“현대사회를 한번 보세요. 경제적으로는 탐욕이 권장되고, 정치적으로 진심(瞋心)이 넘칩니다. 사실 정치는 증오를 동력으로 합니다. 종교는 어떨까요? 맹목적 신심, 즉 치심(癡心)을 권합니다. 전 세계에서 테러를 자행하는 IS가 그 예입니다. 이런 문제를 불교적으로 보면 원인은 ‘상’에 있습니다. 색·수·상·행·식에 집착이 붙으면 오취온(五取蘊)이 됩니다. 오취온의 문제를 파악하면 그때부터는 해결의 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온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 그 길이 ‘중도’이다. 현 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진리적 접근은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에 있다는 것이다.

“원인이 파악됐다면 이를 희석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처(處, 𑀆𑀬𑀢𑀦 āyatana)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를 육처(六處)라고 합니다. 처는 입(入)으로도 번역됩니다. 그럼 무엇이 들어올까요. 바로 상과 수, 식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처가 아닌 도(道)를 닦아야 합니다. 도는 향상일로의 삶입니다. 부처님이 제시하는 것이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고 그것을 파악해 잠재우고 그것과 대치되는 더 좋은 지혜를 열어라’입니다. 그러면 해탈이 가능해진다고 설하십니다. 중도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상놀음을 멈추고 중도를 실천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중도는 팔정도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탐·진·치 부추기는 현대 사회
想이 만든 신기루, 문제의 시작
방편 아닌 근본적 접근 필요해
팔정도 실천하는 ‘中道’가 해법
도래할 융섭의 4차산업 시대엔
포용성 있는 불교가 강점 있어
부처님오신날, 불자에게 메시지
“三寶 공경하고 오직 지족하길”

중도는 팔정도

다시 한 번 우문(愚問)을 던졌다. 중도와 팔정도를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스님은 곧바로 대선국면을 예로 들며 이야기를 풀어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국민이 대통령 후보 자격을 논하는 데 있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국민들은 거짓된 사람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네거티브 공세를 하지 말라고도 하죠. 이것은 팔정도의 정어(正語)를 실천하라는 국민의 주문입니다. 바른 말, 포용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삼독심의 사회에서도 이렇듯 바른 길을 찾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누가 보아도 올바른 삶이 곧 팔정도의 실천임을 강조했다. “사회가 혼탁할수록 맑아지려는 자정 욕구도 커집니다. 전쟁보다는 평화가 좋고, 거짓보다는 참이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를 들어 전쟁을 막으려는 것은 살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는 정업(正業)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런 바른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따라가면 됩니다.”

비관도 낙관도 말라

오로지 수행에만 매진한 활성 스님은 현재 한국불교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했다. 스님은 한국인의 특이한(?) 민족성을 먼저 이야기했다. 한국은 불교가 토착종교인 샤머니즘을 융섭·승화하고, 불교 사회를 거쳐, 500년의 유교 왕조를 경험했다. 이후 근대기를 맞이하며 가톨릭과 개신교가 한국사회에 들어와 현재는 어엿한 주류 종교로 자리매김했다.

이를 두고 스님은 “우리 민족은 세계사적 보편가치를 열심히 수행하여 이를 유전자 안에 축적시킨 특이점을 가진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한국 국민은 내재된 창발성으로 세계를 선도할 것이고, 불교도 한 몫을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불교를 전망해야 한다”고 했다.

“불교세가 강하냐, 약하냐를 논하는 것은 안목이 좁은 것입니다. 불교는 모든 것을 포용·융섭하는 종교입니다. 통합·융섭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불교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힘센 장님과 눈 밝은 앉은뱅이가 있는데, 이런 앉은뱅이가 힘센 장님에게 올라타면 길을 잘 다닐 수 있을 겁니다. 힘센 장님이 바로 ‘청맹과니 과학’이고, 눈 밝은 앉은뱅이는 불교입니다. 비관도 낙관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른 안목을 갖고 공부하며, 자기 본분을 잘 지키면 됩니다.”

인터뷰 말미,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자들에게 메시지를 부탁했다. 겸연쩍이 웃어 보인 스님은 ‘삼보예경’과 ‘지족’을 당부했다.

“이 시대에 부처님의 은혜는 정말 사무치게 큽니다. 부처님은 깨달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신 분입니다. 진리를 법으로 펴신 분입니다. 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승가입니다. 이를 불·법·승(佛法僧) 삼보(三寶)라 합니다. 요란한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삼보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진심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지족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탁악세에 부처님 법을 만나 수행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지족합시다.”

글=신성민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사)고요한 소리 창립 30주년 행사서 만난 활성 스님이 연등 앞에서 환하게 웃어보이고 있다. 숨은 선지식인 스님은 처음으로 이날 대중법문을 설했다. 언론사 카메라 앵글 앞에 선 것도 처음이었다.

함께, 더 나누니 여기가 연화장세계

난치병 어린이 돕기 후원행사
조계종복지재단 '더 나눔'

17회 진행해 온 3000배 철야정진
'다함께 나누는' 후원행사로 확대
가수 양하영 · 장윤정 등 축하공연
BBS불교방송 5000만원 등 후원

"난치병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할거예요. 빨리 커서 후원도 하고 싶어요! 친구들이 힘내서 병을 꼭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김희성 · 김포 고창초5)

철없는 어린이도, 지팡이를 짚은 노인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먼 나라에서 온 다문화 가정 자녀들도 난치병 어린이의 쾌유를 발원하는 간절한 마음은 모두가 같았다. 다함께 만들어가는 차별 없는 세상이기에 더욱 아름다운, 그곳이 바로 연화장세계였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은 4월 23일 장충체육관에서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돕기 콘서트 '더 나눔'을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조계종복지재단이 17회째 진행해 온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3000배 철야정진'의 확대 후원행사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단 취지로 마련된 만큼 정재계 인사와 봉사자들, 시민들 5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1부 행사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함결 스님의 개회 선언에 이어 치사, 축사, 홍보대사 가수 양하영 씨의 공연, 모연금 전달식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자리엔 정세균 국회의장,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김종욱 서울시 정무부시장, 문재인 · 안철수 대선후보 부인 등이 참석했다.


4월 23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개최한 난치병 어린이 돕기 콘서트 '더 나눔'에서 다문화 가정 어린이가 두 손 모아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발원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며 마음이 맑아지고 우리 삶에 웃음이 넘치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더 나누는 것으로 다함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단 마음가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자리는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 된 실천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사회적 모범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경제 양극화와 소득격차가 심화될 경우 우리 사회 갈등은 깊어지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기에 조계종이 주도하는 이번 행사는 매우 고마운 일"이라면서 "더 나눔 행사는 불교가 세상 속에서 중생과 함께하며 아픔을 보듬는 실천적 자세로써 종교의 의미를 돌아보게 한다. 무엇보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해 온 종사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고 격려했다.

특히 이날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은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더 나눔' 후원 기금 5,000만원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측에 전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2부에선 '희망 그리고 발원'을 주제로 열띤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가수 장윤정 · 박완규, 홍보대사 김성녀 씨 등의 무대에 5000여 관객은 연꽃 야광봉을 흔들며 큰 박수로 화답했다.

가수 장윤정 씨는 "의미 깊은 나눔행사에서 노래하게 돼 기쁘다"면서 "이 자리에 '내가 나눔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의심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을 놓으셔도 될 것 같다. 오늘 오신 것만으로도 큰 나눔 실천"이라고 축하했다.

가수 박완규 씨는 "5월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 간에 국민들을 위해 다 나눠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난치병 어린이 돕기 후원 참여 하나은행 162-910021-37504, 우리은행 1005-003-175922, 농협 053-01-266838. 예금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군생활, 나를 위한 수행 시발점으로 삼기를"

마이산 탑사, 군부대 위문법회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가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육군 9585부대 호국 충무정사를 방문, 불자장병들을 위한 위문법회를 봉행했다.〈사진〉

4월 23일 진성 스님과 진안 광명사 송운 스님, 마이산 탑사 나누우리 밴드봉사단은 호국 충무정사를 방문해 불자장병들을 위한 봉축법회를 열었다. 이날 법회는 마이산 탑사, 진안 광명사, 대구 혜인정사의 후원으로 불자장병 7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삼귀의, 반야심경 독송, 법문, 위문공연의 순으로 진행됐다.

진성 스님은 장병들이 군생활 동안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적용할 수 있는 명상법을 지도한 후 수행십과를 주제로 한 법문을 통해 "군생활이 바로 나라를 지키는 일이요, 남을 위한 헌신적 봉사는 나눔의 시간이다. 군생활을 나 자신을 위한 수행의 시발점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이산 탑사 나누우리 밴드봉사단은 신나는 최신 음악에 맞춰 신명나는 난타공연으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고, 진성 스님은 봉사단과 함께 우리 귀에 익숙한 색소폰 연주 실력을 선보여 장병들의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이어 각급 부대별 장병들의 장기자랑도 이어졌으며 진성 스님은 장병들을 위해 피자, 통닭, 음료수, 과자 등 간식을 제공해 군생활의 노고를 치하했다. 진성 스님은 또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 사용해 달라며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진안 광명사 송운 스님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충무정사 법회를 지원하겠다"며 "장병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등 푸짐한 간식을 준비해 장병들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육군 9585부대 충무정사는 한때 많은 불자장병들이 찾는 법당이었으나 최근 부대규모가 축소와 지역 불교계의 무관심으로 법회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불청 천만불자 CMS모연 본격 시작

1구좌 당 1000원, 기부금은 포교기금으로 활용

대한불교청년회가 천만불자 모연사업을 본격 전개한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성권)는 4월 28일 서울 종로 베이징코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연초에 밝힌 천만불자 모연사업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불청 천만불자 모연사업은 불자인구 1000만명 회복과 복원, 청년불자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목표로 2018년 12월까지 CMS구좌를 통한 기부금을 받는 사업이다.

1구좌 당 1000원으로 모연된 기금은 구체적으로 대불청 회원 가족 조사 및 데이터 자료 정리, 사찰 홍보와 청년불자 데이터 수집 정리, 불자 포교 프로그램 및 수행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에 사용된다.

김성권 대한불교청년회장은 "불교는 불자 1000만명 선이 무너지고 젊은 세대의 감소가 두드러 지고 있다"며 "젊은 청년불자 포교 및 양성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이번 모연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스님들이 하지 못하는 사회 곳곳에서의 포교를 청년회가 담당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불청은 이날 법회에 사용 가능한 의식절차를 담은 '법회' 앱도 공개했다. '법회' 앱은 스마트 법요집으로 삼귀의, 찬불가, 반야심경, 청법가 등 모든 법회 집전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한편, 대불청은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경북 구미 청소년수련원에서 제36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우리는 미래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 "아자! 화이팅!" 서울 태릉선수촌 컬링장에 난데없이 아이들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계사 동자승들이 4월 26일 평창동계올림픽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컬링 선수단을 찾아 응원전을 펼친 것이다. 8명의 동자승들은 컬링 선수단에게 '컬링 선수 힘내세요 파이팅!'이라고 쓴 그림과 연등을 선물하며 선전을 기원했다. 이후 동자승들은 컬링 연습장에서 춘천시청 소속 컬링 선수들과 스위핑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노덕현 기자**

선암사 템플스테이관 준공식 개최

"불교문화 통한 힐링 제공할 것"



선암사는 4월 26일 경내 템플스테이 운영관 앞에서 준공식을 열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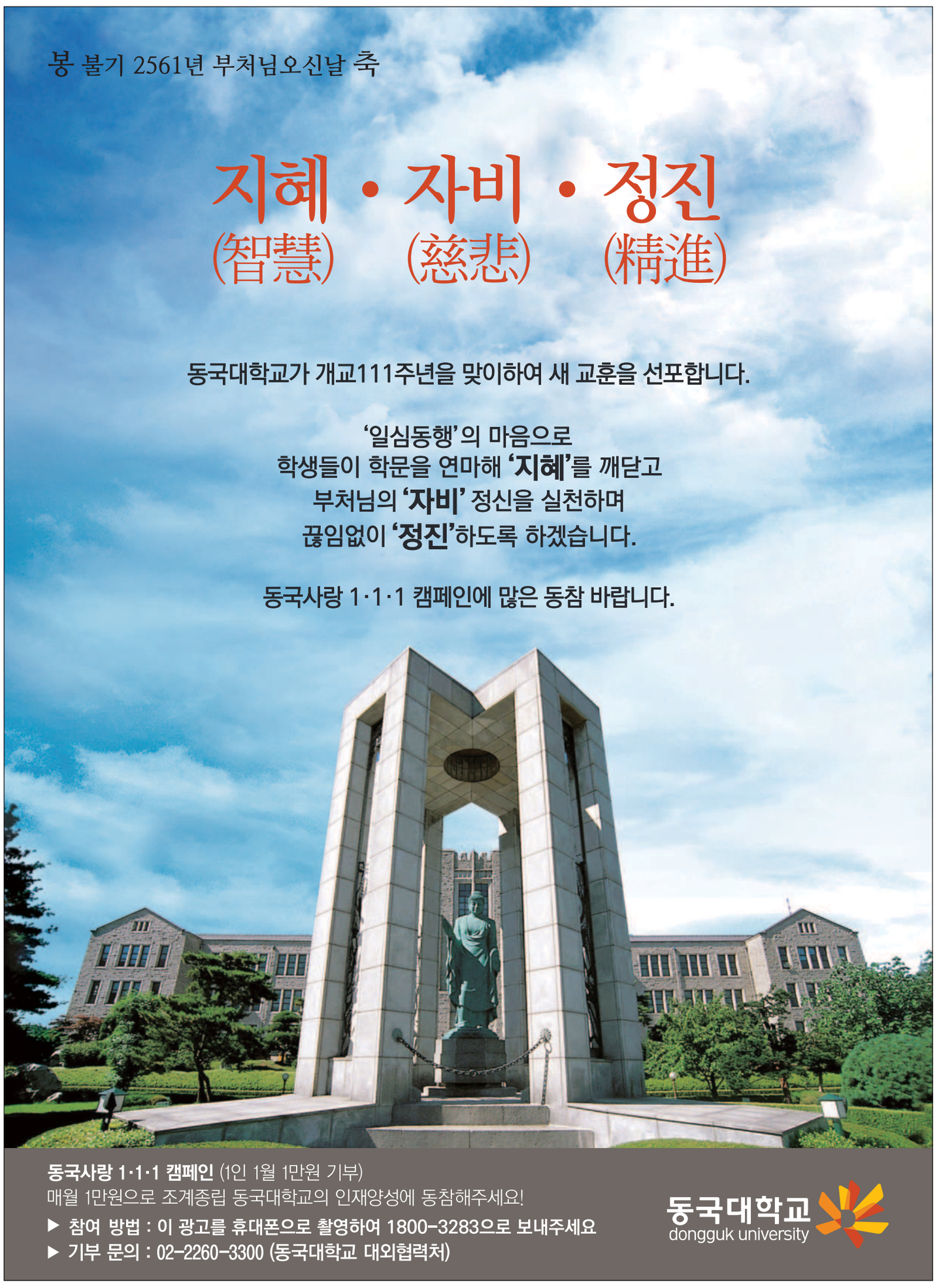
천년고찰 백양산 선암사가 템플스테이 운영관 준공식을 개최했다.〈사진〉 앞으로 선암사는 템플스테이 운영관을 통해 불교문화를 국 · 내외로 알리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선암사(주지 원범)는 4월 26일 경내 템플스테이 운영관 앞에서 준공식을 열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 자리에는 성주사 회주 흥교 스님,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선암사 주지 원범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정산 스님을 비롯해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나성린 前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준공식은 내빈 소개에 이어 경과보고, 축사, 주지 원범 스님의 인사말씀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템플스테이관 준공에 도움을 준 나성린 前 국회의원 외 1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주지 원범 스님은 "선암사는 원효 스님이 창건 하시고 그 후 선풍을 잇는 큰 스님들께서 주석하셨던 곳"이라며 "하지만 처음 주지로 부임했을 당시 이곳에는 해야 할 불사 숙제가 많게 느껴졌다. 오늘 템플스테이 운영관 준공식을 열면서 또 하나의 숙제를 푼 것처럼 생각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선암사 템플스테이관은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로 연면적 1018㎡ 건축면적 311㎡ 현대식 한옥형 건물이다. **하성미 기자**



봉축 맞아 병원·소외계층에 컵등 보시 '훈훈'

김해 길상사, 4월 21일 컵등 및 라면 전달식

2010년부터 사랑의 컵등 제작
지역 병원 및 상가 14곳 전달
직접 복지사각 지대 찾아나서
100가정에 라면 200박스 후원도


김해 길상사가 4월 21일 사랑의 컵등 나누기와 라면탑 쌓기를 통한 소외 이웃돕기를 실천했다.

김해 길상사(주지 혜수)가 부처님의 사랑을 실천해 봉축의 참된 의미를 전했다.

4월 21일 길상사 공양간은 두유와 떡을 곱게 담아 포장을 하는 바쁜 손길로 분주했다. 한편에는 라면탑이 높게 세워져 있었고, 2000개 컵등도 보였다. 전부 실버캐슬요양병원, 조은금강병원, 도립병원 등 총 14곳 병원과 상가에 전달할 선물이다.

이날 전까지 길상사 법당은 기도할 공간 빼고 모두 컵등으로 가득 찼었다. 신도들이 마련한 라면탑도 의미가 특별하다. 그동안 동사무소 혹은 구청을 통해 소외계층에 라면을 전달했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길상사 신도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신도들은 발품을 팔아 100가정을 직접 선정해 라면 총 200박스를 전달했다. 일회성 나눔이 아니라 소외계층의 환경을 계속 돌아보며 함께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다.

신도들이 선물을 들고 병원으로 출발하기 전 주지 혜수 스님은 신도들에게 나눔에 대해 당부 했다. 혜수 스님은 "환우들께 나눠 드릴 때 눈을 마주하며 진심을 담아 완쾌하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며 "주는 사람이 행복을 더 느껴야 한다. 받아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참다운 공양으로 올리라"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중생 교화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부처님의 제자라면 이 뜻을 오늘 나눔으로 잘 배우고 익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의 당부를 마음에 새긴 듯 병원에 도착한 불자들은 환우들의 병실에 들어가 컵등을 이동식 링거대에 걸어주고 떡과 두유를 전달하며 미소로 합장했다. 환자들도 어느 절에서 찾아왔느냐며 봉축을 맞아 이렇게 와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길상사는 사랑의 컵등을 통해 김해 지역 환우들에게 2010년부터 부처님의 희망과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 컵등이 인연이 되어 길상사를 찾고 3년 전부터는 함께 환우들에게 컵등을 전달하는 특별한 불자가 생겼을 정도다.

장경숙(49 · 김해 구산동) 씨는 "2010년 암 선고를 받고 중앙병원에 입원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 하던 중 2011년 길상사에서 컵등을 받고 큰 위로가 됐다"고 웃어보였다.

이어 장 씨는 "병원을 퇴원하면 길상사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이뤄졌다"며 "2015년도에는 암이 재발돼 심적으로도 고통스럽고 불면증도 겪었다. 하지만 길상사에서 컵등을 만들며 많은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니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했다.

장 씨는 "정말 열심히 컵등을 준비하고 만들었다. 병원에서 환우들을 만나는데 마음이 남달랐다. 나도 아프지만 다른 환자분들을 위해 진심으로 쾌유를 기원했다. 큰 가르침을 얻는 시간이었다"고 마음을 전했다.

주지 혜수 스님은 "나눔은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눔을 통해 배우는 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라며 "신도들이 봉축을 맞아 참된 하심으로 나눔공양 올리고 행복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 각지서 연등으로 장엄 봉축 물결 '넘실'

기장불교聯 연등문화축제 개최
사상구불교聯 제1회 봉축점등식



부산 사상구불교연합회는 4월 20일 부산서부터미널 르네상스호텔 앞에서 '불기2561년 봉축연등점등식' 을 봉행했다.

4월 23일 **기장불교연합회**(회장 정오)는 기장중학교에서 연등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연등문화축제는 2000여 기장군민들에게 베푸는 나눔 법석으로 각종 문화 체험 및 풍물패 한마당, 기장불교연합회 포교국장 성타 스님의 달마 퍼포먼스로 문을 열었다.

이날 기장불교연합회는 박형건(기장고 · 3) 학생 외 13명에게 연등장학금을 전달하고 불교 인재 동량으로 성장할 것을 당부했다. 연등장학금은 기장불교연합회 소속 사찰에서 십시일반 모았다.

이어진 문화공연에서는 초청가수 공연과 TV, 자전거, 가전제품 등 푸짐한 경품으로 연등문화축제를 찾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기장불교연합회는 부산지역구불교연합회 가운데 유일하게 매년 연등문화축제를 개최해 왔다. 이러한 기장불교연합회의 숨은 저력은 바로 '연합'과 '화합'이다. 아무리 작은 사찰이라도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부산불교연합회와 조력하고 부산불교 전체를 위해 활동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회장 정오 스님은 "연등축제에서 등불을 켜는 것은 바로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부처님께서는 중생 모두가 부처라고 가르쳐 주셨다"며 "모두가 부처임을 안다면 극단도 없고 치우침도 없는 평등과 화합의 장엄세계 일 것이다. 오늘 그 장엄의 날을 발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사상구불교연합회(회장 성문)는 4월 20일 부산서부터미널 르네상스호텔 앞에서 '불기2561년 봉축연등점등식' 을 봉행했다. 사상구 봉축연등점등식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역 사찰들이 화합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봉축 한마당이다.

이날 탑등 주변에는 행인들이 발길을 멈추고 모여들었고 퇴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시민들도 함께 부처님오신날을 기뻐했다.

점등식에는 사상구불교연합회 고문 천강 스님, 고문 경오 스님, 전 회장 유정 스님, 회장 성문 스님, 수석 부회장 성림 스님을 비롯해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이상갑 사상구불교연합신도회장, 송숙희 사상구청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부산무형문화재9호 영산재 시연으로 문을 열어 점등 및 봉축사 봉행사, 격려사, 축사 순으로 진행했다.

회장 성문 스님은 "이곳에 모인 모두가 동체대비 보살도를 실천해 탐진치에 빠진 중생들을 행복의 길로 이끌길 바란다"며 "우리 모두는 부처님이 나투신 이유를 바로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사랑하신 중생들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젊음을 상징하는 부산 중구 남포 거리에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장엄등과 조형물을 비롯한 1,500여개의 연등이 불밝았다. 특히 이번 중구 지역 점등식은 지난 4월 7일 중구불교연합회 창립 후 연합회가 합심해 개최한 광복로연등문화제여서 의미가 더욱 깊다.

중구불교연합회(회장 종호)는 4월 22일 부산 남포 거리 광복로 입구 안전지대 앞에서 광복로연등문화제 개막점등식을 개최했다. 회장 종호 스님은 "앞으로 저희 중구불교연합회는 연등 문화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해마다 발전하고 중구 대표 슬로건인 '꿈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중구' 로 성장하는데 일조하도록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성미 기자**

분황사 원효성사 열반대재 추모법회



경주 불국사 말사 분황사(주지 성요)는 제1331주기 원효성사 열반대재 추모법회를 4월 25일 경내 7층 탑전에서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요식에는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관장 종상 스님, 승가대학장 덕민 스님, 주지 종우 스님, 이상욱 경주부시장, 박승직 경주시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은 경모사를 통해 " '보살도의 정수는 실천과 더불어 함께함' 이라는 이치를 행으로 보이신 성사님의 가르침은 이 시대 우매한 중생들의 이정표다. 갈등을 그치고 화합의 실마리를 여는 단초"라며 "나와 남을 구별하는 다툼 속에서 화해의 눈을 뜨게 하는 지혜의 높은 뜻을 기리며, 저희들은 중생구제의 서원을 다시금 새겨 보살행을 실천할 것"이라고 추모했다.

분황사 주지 성요 스님은 "성사님은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동사섭으로 민중을 교화하셨다. 그 가르침을 자각해 깊은 경외심으로 합장예배 올린다"고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영천불교聯 봉축법요식 · 연등행렬장엄



영천불교연합회(회장 태관)는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법요식 및 연등행렬 행사를 4월 22일 영천금호강변공원에서 봉행했다.〈사진〉

이날 봉축법요식 증명으로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과 고문으로 은해사 관장 돈명 스님,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교구장 돈관 스님 등 사부대중 3000여명이 참석했다.

영천불교연합회장 태관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이웃에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것, 오늘 자신을 있게 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열반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다 불공"이라며 "부처님과 그 가르침, 그 제자들에 귀의하여 한마음으로 정진해 나아가면 낙숫물이 반석을 뚫는 것처럼 마침내 위대한 깨달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해사 교구장 돈관 스님은 "중생의 어리석은 집착과 인연은 해탈의 근본이며, 탐진치가 모든 것의 참된 모습을 깨닫는 큰 근본임을 알려주는 것"이라며 " 아름다운 꽃과 나무는 만물의 진실 된 모습을 보이는 오늘은 부처님오신날이다.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모든 생명이 진리의 참된 모습으로 태어나는 날"이라고 법문했다.

이어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과 묘각사 덕진 스님, 영지사 성천 스님은 이희명 선화여자고등학교장에게 장학금 4000만원을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정읍 내장사, 역대 조사 다례재 봉행



정읍의 명찰 내장사(주지 도완)는 창건주 영은 대종사를 비롯해 내장사에 주석하며 법을 펼친 석전 · 학명 대종사 등 역대 조사들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다례재는 조계종 24교구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해 재곤 스님, 범여 스님, 대우 스님 등 24교구 원로스님들과 내장사 주지 도완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도완 스님은 "원근 각지에서 찾아주신 대덕스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내장사에서 법을 펼친 역대조사님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더욱 수행과 전법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내장사는 백제 무왕37(636)년 영은조사에 의해 창건된 이래 학명 스님, 석전 박한영 스님, 매곡 스님 등 역대고승대덕들이 주석하며 법을 펼친 천년고찰이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승병장 희묵스님 등이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장소이기도 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기2561 (2017)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같이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
영산불교 현지사

초대 교조 광명만덕 큰스님
제2대교조 자재만현 큰스님

장로원 의장 광영
불교대학학장 일도
교정원장 성광
포교원장 행원
교육원장 대원
감찰원장 일도
춘천총본산 주지 정대
부산분원 주지 보문
고성분원 주지 성범
대구분원 주지 일성
제주제2본산 주지 남전
대전분원 주지 범행
서울분원 주지 지원
일본분원 주지 성도

영산불교 현지사 사부대중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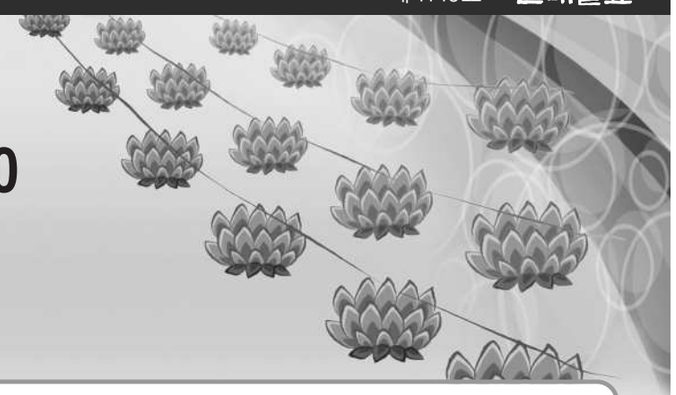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메일 hyunjigung@hanmail.net
• 춘천본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 033-243-1787
• 제2본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11 ☎ 064-783-5355
• 부산분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이센타워 ☎ 051-554-5150
• 대전분원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 고성분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길 7 ☎ 033-681-5515
• 서울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길 18 ☎ 02-453-5953
• 대구분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중앙대로 29길 20 ☎ 053-654-5557
• 일본분원 일본국 야마구찌켄 이와쿠니시 오츠죠 3-3-10 ☎ 81-827-31-1661
• 영산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佛紀 2561年 丁酉年 | 전면광고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 A10

인욕(忍辱)이야말로 가장 높은 고행 긴 고통도 능히 참는 것이 지고의 적멸 다른 중생을
해치는 이는 출가자가 아니며 중생을 괴롭히는 이는 사문(沙門)이 아니다. 〈법구경〉



大韓佛教 佛入宗

宗 正 勉哲

元老院長 正 觀
總務院長 鏡 岩

호법원장 **지 철** 교육원장 **지 학** 종회의장 **법 진**

총무부장 **보 성** 역경부장 **혜 광** 재무부장 **묘 훈** 사회부장 **봉 산**

법화사상연구소 소장 **혜 광** 법화불교 교육대학 학장 **혜 광**

■ 총본산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옥전길 125 송화사 / 전화 043)653-4800 / 팩스 043)653-5858
■ 총무원 :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30 안길4 / 전화 043)653-4848 / 팩스 043)642-6660

대한불교 원융종

圓融宗 四大綱領

圓 融 無 碍 一O相 眞理體得 圓 通 融 和 道義社會建設
圓 滿 融 通 人格完成 圓 融 會 通 理想世界實現

종 정 성관
총무원장 진 호

종도일동

■ 총무원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180-6 (구로동)
전화 02)853-0531~2 팩스 02)853-0533
■ 총본산 : 원융사 전화 02)853-0430~1 팩스 02)857-5094

맑고 향기롭게!! 정토구현의 선도 교단!!
지계청정 지관쌍수 화합대중

원 융 교 단
대한불교 조계산문 무문총림
총본산 무문총림 영평사

증명대법주 **법 원** 대법주 **보 당**
부대법주 **정 림** 개산주 · 법인 이사장 **마 정**

사무총장 **석의현**

조계선림 제1본산 법주 **혜 조** 조계선림 제2본산 법주 **보 당**
조계선림 제3본산 법주 **법 인** 조동선림 본산 법주 **정 림**
임제선림 본산 법주 **원 돈** 정토선림 본산 법주 **법 천**
금오선원 원장 **석장현** 용봉학림 강주 **석혜조**
영산율원 율주 **석혜안** 행자교육원 원장 **석대허**

■ 서울사무소 : 서울 중랑구 용마공원로5길 28-27 / 전 화 02)496-3952~3 FAX 02)496-3951
■ 총림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길 79-42 / 전 화 031)676-3960 FAX 031)676-2960

(사) 대한불교승가종

종 정 월인 습득

원로원장 **혜공** 재무원장 **무착** 종회의장 **혜륜**
포교원장 **도안** 총무원장 **법수** 총무부장 **도일**

원로위원 **법일**
범음범패 교육원장 **법수** 승가종총본산 승가사 주지 **선견**
승가종 법사대학장 **원해** 월인문도회 문장 **법종**
비구니 범음교육원장 **법관**

서울종무원장 **정행** 부산종무원장 **봉선** 대구경북종무원장 **지운**
대전종무원장 **법지** 울산종무원장 **도성** 경남종무원장 **월곡**
강원종무원장 **부르나** 전남종무원장 **선궁**

장병위문 수계법회(2016년 4월16일 육군훈련소 합동수계법회) **동참 스님**

정광 선웅 도광 묘전 묘경 법등 법성 법관 법전 무구 선호 선봉
도성 도안 효득 선경 무찰 불전 선오 자용 지명 보우 법지 법종

■ 종정 주석사찰 서래암 : 부산 금정구 안뜰로7번길 43-1
전화 051)552-8554. 556-0278. 팩스 051)556-8551
■ 총본산 승가사 :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길성리 / 전화 055)754-1942

(사)대한불교 금강종

종 정 **무학당 송천**
총무원장 **법산당 영봉**

종 정 예경실장 **청명**
총무원장 사서실장 **정휴**

승정원장 **무상** 원로원장 **월서**

교육원장 **정산** 포교원장 **덕산** 감찰원장 **정대**
고시원장 **혜신** 참선원장 **법일** 복지원장 **법영**
문화원장 **덕일** 비구니원장 **지명** 홍법원장 **서암**
국제교류원장 **정무** 사정원장 **혜광** 보건원장 **정일**

중앙종회의장 **일타** 중앙종회부의장 **일각. 현우** 중앙종회사무총장 **정견**

서울특별시교구원장 **반야지(서원암)** 대전광역시교구원장 **정 무(감로사)**
대구,경북교구원장 **정 일(광원사)** 울산광역시교구원장 **덕 일(도성암)**
충청도교구원장 **정 견(백련암)** 경상남도교구원장 **덕 산(광천사)**
전라북도교구원장 **월 서(삼불사)** 전라남도교구원장 **혜 신(남해사)**

■ 총본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와룡로 99-74 (일성사)
전 화 : 042)935-2279
■ 총무원 :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253번길 75, 101동 1002로(내동, 탑스빌A)
전 화 : 042)524-2149 / 팩스 : 042)526-2149
HP 010-5381-0779. 010-3550-5153

사단법인 대승불교본원종

종 정 **대 화** 총무원장 **만 혁** 종회의장 **대 운**
부종정 **법 용** 사 서 **해 인** 부의장 **자 광**
사 서 **경 산** **지 명**

원로원

원로원장 **대원**
원로의원 **대월. 관곤**
대봉. 보명

각원장

교육원장 **무공**
감찰원장 **대능**
연수원장 **대광**
포교원장 **성준**
문화원장 **보경**
의전원장 **두산**
염불원장 **광수**

총무원

총무부장 **법성**
교무부장 **자관**
재무부장 **성문**
감찰부장 **도일**
사회부장 **정오**
복지부장 **지연**
포교부장 **용담**
조직부장 **원광**

교구종무원

부산경남교구종무원장 **지명**
대전충남교구종무원장 **지천**
경북교구종무원장 **자광**
충북교구종무원장 **대월**
강원교구종무원장 **진묘**

종회의원

원각. 자관. 용담. 부용. 현문. 심공. 수혜. 해인.
대광. 법성. 지선. 진묘. 지명. 혜은. 혜원. 관공.
성문. 성인. 지호. 시원. 성준. 이지혜장.
권진광명. 신청련행. 김법륜해. 김한명화.

■ 총무원 : 서울 종로구 평창동 417-3 / 전화 02)391-4376 / 팩스 02)379-2746

양극단 보듬고 품어야 진정한 '통합'

특별기고 지도자의 자격을 말하다



대통령 탄핵 · 세월호 참사 · 사드 배치 등 국민은 특정 사안을 두고 양쪽으로 찢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이웃이다. 그렇기에 51%에 기대어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49%를 보듬을 수 있는 바른 지도자가 필요하다.

임진왜란과 〈징비록〉

지금 이 나라는 대통령 선거로 난리법석을 떤다. 정말 훌륭한 대통령을 뽑아야 하지만 어떤 사람이 진정 훌륭한 대통령이냐 하는 물음엔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언제는 나라가 위기가 아닌 적 있었던가.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긴장하고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

나는 지금 유성룡(1542~1607) 선생이 쓴 〈징비록(懲毖錄)〉을 생각한다. 임진왜란(1592년 발발)의 지옥 같은 전쟁을 종군일기와 같은 기록으로 남겼다. 얼마나 비참한 전쟁이었는가. 수십 일 만에 한양 · 개성 · 평양의 세 도읍을 잃었고, 온 국토는 피폐해졌으며, 임금은 서울을 떠나 임진강을 건너 평양으로 피난을 가야했다. 그때 온 백성은 왕의 피신을 슬퍼하며 거리에 누워 울었다.

지도자의 판단이 거칠고 예단과 예지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준비도 없이 파죽지세로 국토를 유린당하고, 백성은 굶고 싸움에 지쳐있었다. 이러한 전쟁의 패망이 다신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서애(西涯) 선생은 〈징비록〉을 썼다. 징비란 단어는 〈시경〉에 "내가 지난 일의 잘못을 징계해서 후에 환란이 없도록 조심한다"는 말에서 유래했다. 자신이 겪은 환란을 교훈삼아 후일에 닥쳐올지도 모를 우환을 경계하기 위해 쓴 글이다. 저자는 자신의 잘못부터 조정내의 분란, 임금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 등 임진왜란을 둘러싸고 일어난 모든 일을 가감 없이 기록했다.

특히 서두에 조선조 초기 성종 때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신숙주와의 대화를 소개한다. 죽음을 앞둔 신숙주에게 성종은 다음과 같이 물었다. "그래, 경은 나에게 남길 말이 있소?" 그러자 신숙주는 대답했다. "앞으로도 일본과 친하게 지내도록 하십시오." 그로부터 성종은 일본에 사신을 보냈으나 대마도에서 풍랑을 만나 선물만 보내고 돌아온 일이 있었다. 그 후 일본에서는 사신이 10여 차례 왔으나 우리는 가지 않았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사신을 보냈으나 우리는 1590년이 되어서야 보내게 된다.

서애 유성룡 선생이 일본과 잘 지내라고 말한 신숙주의 유언을 맨 먼저 쓴 뜻은 상대방 나라의 정보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교훈을 후대에 전하고자 함에 있다.

1590년 황윤길을 상사로, 김성일을 부사로, 허성을 서장관으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사신을 보낸다. 몇 달 만에 히데요시를 만나고 1591년 봄에 돌아온 황윤길과 김성일 일행은 부산에서 조정에 글을 올렸다. 그때 황윤길은 머지않아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부사인 김성일은 "신은 그런 기색을 느끼지 못했나이다"라고 정반대의 보고를 했다. 그리고 "황윤길이 공연히 인심을 현혹시키고 있사옵니다"라고 첨언까지 하였다. 이렇게 되자 조정의 의견이 둘로 나뉘게 되었다. 그래서 서애 선생이 김성일에게 다시 물었다. "그대 의견이 상사와 전혀 다르니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어쩌려고 그러오?" 그러자 김성일이 이렇게 답했다. "저 역시 일본이 절대 쳐들어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황윤길의 말이 너무도 강경해서 잘못하면 나라 안 인심이 동요될까봐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조정에는 동인이 지배하고 있던 터에, 일본의 침략을 인지한 서인 황윤길의 의견은 묵살되어 전쟁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만약 당시에 동인, 서인 모두 일본의 침략을 인지하여 미리 대비를 했다면 임진왜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유비무환 정신 갖고 대비해야
치우치지 않는 正中 자세 중요
바른 생각, 바른 행동 펼치고
아량과 관용 있을 때 참 지도자

그러나 서애는 기를 느끼고 정읍 현감으로 있던 이순신을 불러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 임명할 것을 주청하여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배 12척을 가지고 일본 130여 척의 수군을 이길 수 있었다. 나는 이 일을 보면서 지도자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낀다.

지금 우리는 안보가 제일 중요하다. 사드배치만 하더라도 '해야 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 등의 논쟁이 필요한 것인가. 일본이 침략한다고 하는 보고, 침략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당쟁으로 소비하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이 지도자인가?

세계 속의 한국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이에 강대국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 참다운 지도자라면,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대망을 가졌다면 국가안보에 관해서는 대승적으로 하나의 길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한심하고 참담한 마음이 든다.

지도자의 자격은?

지도자란 기상천외한 생각을 가지고 기발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말을 잘 하고 상대방을 코너에 몰아넣어 항복을 받아내는 사람 역시 아니다. 이기면서도 지고 지면서도 이기는 사람이 참다운 지도자다.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국민들 속에서 오직 국민만 절실히, 간절히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지도자다. 오직 국가와 국민, 그리고 나와 너의 평화를 화두로 갖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다. 마음이 하늘같이 맑고 바다같이 넓은 은은한 사람이 지도자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있어야 한다.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 글을 보고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한다.

나는 지도자의 요건은 먼저 모든 사태를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본다. 〈징비록〉에도 임금과 조정의 대신들이 똑바로, 올바르게 보지 않았기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고 적고 있다. 대원군의 쇄국정책이나 구한말의 우리 모습은 모두 똑바로 현실을 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적, 민족적 비극을 초래하였다.

정의 · 정직과 같은 덕목은 모두 정견(正見)에서 나온다. 정견은 앞 · 뒤 · 위 · 아래 어디에도 치우지지 않는 정중(正中)의 견해를 말한다. 모양이 둥글다, 모나다, 아름답다, 추하다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눈과 고운 소리 · 탁한 소리 등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 향기나 감촉 등에 빠지지 않는 견해 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 지도자가 무슨 도인이냐' 혹은 '수신하는 사람이냐' 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도 상식에서 출발한다. 상식은 우리 모두가 '아 그렇다!' 하고 공감하는 사회적 공동의 통념이다. 이것이 곧 바로보는 견해다. 더구나 지도자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을 바꿔서도 안 된다. 그러나 말을 바꿀 때는 왜 바꿀 수밖에 없었는지 사정을 말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하는 분들이 잘못을 변명할 때 '정치는 생물이다' 라는 말을 금과옥조인양 많이 사용한다. '정치는 생물이다' 라는 말은 정치는 죽은 물건이 아니라 살아 있다는 것이다. 살아 있다는 것은 그저 존재해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서 움직인다는 뜻이다.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된다. 변명은 이미 죽은 것이다. 살아있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 아무렇게나 살아 있으면 죽은 것만 못한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이기에 사람의 덕목을 유지하면서 정치를 해야 한다. 근래 네거티브라는 말이 많이 쓰인다. 이것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일이다. 인간의 인격적 가치를 말살시키는 행위이다.

다음은 바르게 생각(正思)하는 일이다. 이 생각이 바른 생각인지 거짓 생각인지는 본인의 양심에서 판정된다. 자기가 자기 생각을 반성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셋째는 바른 언어(正語)이다. 말은 그 사람 인격의 기준이 된다. 상대방을 칭찬하고 존중하는 말을 쓸 때 대립과 투쟁이 없어진다. 모든 갈등은 언어로부터 일어난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언어를 써야 지도자의 품위가 생긴다. 지도자가 풍기는 편안함, 친화력, 응집력은 바로 진실한 언어로부터 우러나온다. 마음으로 백성을 품는 사람은 언제나 주옥같이 빛나는 말을 한다.

끝으로 바른 행동(正業)이다.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 내공이 쌓인 태도는 바른 행동에 있다. 어디서나 바르게 걷고 정중한 태도, 봉사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바른 행동이다. 선을 보고 함께 행하고, 악을 보면 분노하여 악을 응징하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의 행동은 참으로 아름답게 보인다.

우리는 대승(大乘)적 지도자를 원한다. 그리고 결단력이 있는 지도자를 그리워한다. 세계 속의 한국, 남북대치 속의 우리,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징비록〉의 지옥 같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생각하면서 유비무환의 정신을 키워야 한다. 우리는 전쟁을 남의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전쟁은 미국, 중국, 일본 그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다. 세계 10대 무역국인 대한민국이 같은 민족인 북한의 핵 위협으로 삶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다. 북한의 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울 때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진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으로 인해 미국은 국소타격, 일본은 재무장을 외치고 있다. 중국은 사드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하고 있다.

우리의 지도자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본인이 가진 지도자의 자격이 얼마인가 반성하면서 부족한 것을 채우며 새로운 민족의 미래를 보여주는 국민통합의 길을 가야한다. 51%의 국민이 준 권한을 전부 집행하려 하면 안 된다. 49%의 국민을 보는 지혜가 통합의 길이다. 상대방을 적이 아니고 동지로서 포용하려는 아량과 관용이 있을 때 참다운 지도자가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불교적 지도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팔정도(八正道)의 가르침처럼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행동하면 그것이 지도자다. 모두 한 품으로 안아서 하나가 되자.



송 석 구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
(前동국대 총장)

불기 2561 (2017)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같이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대 한 불 교 원 효 종

종 정 설제 정광
원로원장 창해 자문위원장 금봉 종회의장 태일
총무원장 우석 총무부원장 보원 규정원장 성암
상벌위원장 일륜
원로위원 혜초 수경 혜봉 성호 법진 서응
종회부의장 자안 보광
종회의원 법진 자광 법원 현수 지광 향봉 수월 자성 일륜 성죽 마명 청암
선거관리 위원장 석불 선거 관리위원 현수 무공 정운
종학원장 옥천 고시원장 자광 의전실장 석해 포교원장 선운
문화원장 효산 복지원장 범일 교육원장 행광
부산교구원장 석불 울산교구원장 지광 대구교구원장 석해 경남교구원장 월함 전북교구원장 경오
제주교구원장 법원 전남교구원장 마명 대전충남원장 자성 경북교구원장 성죽 강원교구원장 성암
(사)대한선불교원효종 이사장 청암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우석

봉 축 사

자리이타의 자비광명으로 다함께 봉축합니다. 부처님오신날 우리 불자들의 마음가짐은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부처님을 향한 대자대비의 일념으로 등을 밝히는 것입니다. 맑고 밝은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와서 다시 윤회에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진 현재를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산다면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탐욕과 번뇌를 벗어버리고 자비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 주소 : 경주시 충현로 3길 4-1 TEL : 054)743-0700

특권의식 버리고 중생 헤아려야 지도자…

[좌담] 진정한 불교적 리더십이란

박근혜 前대통령의 파면 이후 '리더십'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급작스레 진행되는 선거 일정에 각 정당과 대선후보자들은 정책공약을 내세우기 바쁘고, 국민들은 어느 후보자를 지지할 것인지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참다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중도적 리더십' '포용의 리더십' 등 불교적 사상이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4월 21일 '이 시대 필요한 불교적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본지 회의실서 좌담을 열었다. 좌담에는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성태용 前건국대 철학과 교수가 참여했고, 진행은 김주일 本紙 편집국장이 맡았다.

정리=윤호섭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지안 스님 조계종 고시위원장

"사무량심 · 사섭법 바탕으로 나와 다른 의견도 품을 때 화합의 정치 이룰 수 있다"



성태용 前건국대 철학과 교수

"도덕성 전제된 능력 갖추고 역사의 큰 방향성 이해해야 양극화 현상 해소 가능하다"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下心 없으면 권력 중독 쉬워 소통의 테크닉이 뒷받침돼야 불교정치철학 中正主義 가능"

Q. 중도 · 포용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선을 앞둔 지금, 국민은 어떤 덕목을 갖춘 지도자를 뽑아야 할까요?

성태용 교수 =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도덕성을 갖추고, 역사의 방향성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급한 역사를 살아오다보니 지도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지 않았는데, 도덕성에 기반을 둔 능력이 아니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도덕성을 전제하고 능력을 따져야 합니다. 전임 대통령 누구라고 짚어 얘기할 순 없지만 '잘 살게 해주겠다'는 말만 듣고 대중이 대통령을 뽑는 게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꼭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도자는 우리 역사가 지향하는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 역사의 큰 방향은 민주화, 그 다음 평화통일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안보문제와 평화통일을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가운데 안보인 것이지, 적대를 부추긴 양극화 속 안보가 아닙니다. 양극화 속 안보는 과거 비민주세력, 독재세력들이 써먹던 방식입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양극화를 막고 민주화를 지향할 것, 그 다음 큰 흐름에서 평화통일이라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근본적인 안목이 있을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안 스님 = 우선 사심(私心)이 없어야겠죠. 요즘 정치하겠다고 나오는 분들 대부분 갑이 되려고 합니다. 갑이 되려 하지 말고 같은 을로서 어울릴 줄 알아야 해요. 또 친화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안을 줄 아는 것이 이 시대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봅니다.

방영준 교수 =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 · 리더십이라는 용어에 불편한 감정을 갖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게 아나키즘(anarchism, 무정부주의)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리더십에는 '신비주의적' '권위주의적' '민주적' 등 수식어가 많습니다. 근데 리더십에 아무리 그럴듯한 수식어가 붙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갑의 성격을 띤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권력의 아편에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곤 하죠. 그래서 하심(下心)이 기본이 될 때 공감할 수 있는 바탕도 생기는 법입니다. 어느 후보자가 하심을 가졌는지 잘 판단해야겠죠.

Q. 소통도 매우 중요한 덕목일 것 같은데요.

지안 스님 = 오늘날 사회는 극단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보수 속에 진보가, 진보 속에 보수가 있다는 등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부처님 가르침인 중도(中道)죠. 아울러 대승불교의 보살정신, 즉 사무량심(四無量心)과 사섭법(四攝法)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도자는 특권의식을 버리고 오로지 중생을 위한 마음을 내야 합니다. 또 이념갈등으로 국민들의 간극이 더 벌어지면 안 됩니다. 반성해야 할 부분이죠. 중도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태용 = 편 가르기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는 옳고 그름이 아닌 네 편, 내 편만 따집니다. 소통은 억지로 같으려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르지만 다투더라도 큰 틀에서는 함께 공동선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라면 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신적 장애 중 하나가 남북분단을 오래 겪으면서 갖게 된 '상대방을 말살해야 한다'는 의식입니다. 다르면 적이라는 의식을 깨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를 소통의 구조로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덕목입니다. 원효 스님의 화쟁사상이 이와 비슷합니다. 교리는 다르지만 모두 부처님의 한 가르침을 지향하는 것과 같죠.

방영준 = 소통은 말로는 쉽지만 이 능력을 기르는 것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소통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분법적 사고를 편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깬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심의 자세로 들어가고, 소통의 테크닉을 갖춰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히틀러 같은 인물이 다시 나오면 안 된다는 전제 하에 굉장한 소통교육을 합니다. 민주시민 의식교육을 유치원 단계서부터 아주 치밀하게 하는데요. 예를 들면, 대화를 5분 나눌 때 내가 2분밖에 말을 못 했어도 친구에게 3분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선토론을 보세요. 전혀 민주시민 의식교육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겁니다.

성태용 = 아직도 목소리 크면 이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 한 사람으로서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하고 걱정스럽습니다.

Q. 정치에 '색깔론'이 여전합니다.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안 스님 = 편들기 좋아하는 게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사회현상이죠. 제 상좌가 어느 날 아침공양을 마치고 저에게 "스님, 이번 대선에 어느 후보를 지지하십니까"하고 묻습디다. A후보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바로 누구편인지를 묻는 겁니다.

자(慈) · 비(悲) · 희(喜) · 사(捨) 사무량심에서 '사'는 '버릴 사'자입니다. 또 대승에선 중도를 설명할 때 쌍차(雙遮, 구분하는 것을 차단)라는 표현을 쓰죠. 하지만 정작 대중은 내가 지지하는 것에 박수를 보내면서 그 반대는 싫어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도 남은 인정 안 해줍니다. 내가 나를 잘 알아야 해요.

그리고 이념적인 색깔에 빠진 건 감염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 상태를 가장 경계하죠. 깨달음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단견(斷見)과 상견(常見)을 배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대중은 이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태용 = 색깔론은 대중을 이용하기 제일 좋은 수단입니다. 벗어나기 위해선 국민이 자각해야 하거든요. 편 가르기를 해서 이득을 보려는 정치행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은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를 엄중히 심판할 수 있다는 걸 정치인들에게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또 이제 국민들은 "투표를 잘못해서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말할 만큼 많은 일을 겪으며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에게 색깔론을 펴서 이득 보려는 마음을 접어달라고 주문하고 싶네요.

아울러 지도자들은 겸허하게 대중에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말이죠. 그리고 국민들도 색깔론을 펴기보다 "어떤 세상에 살고 싶다"고 외쳐야 합니다. 이것은 색깔을 무조건 없애자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공동의 지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것이 없습니다. 서로가 바라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비교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정착돼야겠습니다.

방영준 = 한국 정치의 색깔론은 굉장히 아픈 상처와 연결됩니다. 6.25전쟁인데, 이 전쟁은 단순한 땅따먹기가 아니라 마르크스 계급론과 연결되죠. 즉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계급론적 성격의 아픈 전쟁입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 전체가 분단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 근대화의 파행성을 겪습니다. 재벌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노동을 억누르면서 성장했죠. 이 속에서 색깔론이 잉태된 겁니다.

이 아픔을 정치가 치유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않고 집권 도구로 이용해왔죠. 국민이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물론 이데올로기를 떠나 살 순 없습니다. 신념체계이기 때문인데요. 종교도 하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것은 칼과 같아서 강도가 가지면 흉기가 되고, 어머니 손에 쥐어지면 맛있는 반찬을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를 관리하는 능력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LEADER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5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의식

부처님 당시의 상좌부 출가의식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와 종교법인 세계불교 법왕청에서는 400여 군소종단을 불문 어느종단 스님이든 출가 법납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어도 먹물옷 다시금 여미며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가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대승적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정부의 종교성과 미얀마 연방승가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법왕이신 우꾸마라 종정큰스님을 대화상을 모시고 구족계를 내려주실 三師 7尊證 大元老 큰스님들과 500여 증명 존증아사리들의 독경속에 상좌부 불교승려로 거듭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법석, 국제불교 금강계단을 마련했습니다.

구족계 계첩을 미얀마 연방승가회에서 정식 수여함

- 일 시 : 10월 11일 출발 6박 7일 일정
- 신청기간 : 7월 31일까지
- 참가서류 : 사진 부착된 이력서 1통 여권
- 참가신청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우. 03158
- 장 소 : 미얀마정부 종교성내 양곤승가대학 5일간 입교함
- 문 의 : 011-229-6061

주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 세계불교법왕청 / 후원 : 미얀마 연방정부 종교성. 미얀마 연방승가회

“서로 달라도 큰 틀의 共同善 지향해야”



불교적 리더십과 이 시대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 2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눈 패널들은 야외로 이동해 못다 한 이야기들을 이어나갔다. 패널들은 대중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되 공동선을 추구하며 의견을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Q. 대중으로부터 박근혜 前대통령의 자질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된 바 있습니다. 실패한 리더십, 그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안 스님 = 작은 모임이라도 리더가 되면 전체를 잘 보살펴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근대에 성공했다고 평가할 만한 정권이 없지 않습니까? 이는 자신에게 맞는 코드만 찾고 전체를 보살피는 균형 감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치 지도자 대부분이 그렇다는 점이 많이 아쉽죠.

박근혜 前대통령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대중을 잘 이끌어가야 하는데 전체를 살피는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죠. 강을 건널 때 맨 앞의 소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뒤따라오는 소들도 물에 빠지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인품에 대해 대중이 잘 몰랐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태용 = 박 前대통령 재직 시 ‘불통’이라는 대중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불통 대통령’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았죠. 〈주역〉에 보면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는 괘’가 있고,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는 괘’가 있습니다. 둘 중에는 하늘이 밑에, 땅이 위에 있는 괘가 좋습니다. 이 의미는 하늘이 땅 밑으로 자기를 낮추고, 땅은 위를 받들어 교차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소통의 궤입니다.

박 前대통령은 뭔가 자기 존재에 관한 특별한 의식을 갖고 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중 위에 군림하면서 소통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역사의 진행방향과는 반대노선을 타지 않았나 싶습니다. 역사의 흐름은 어느 방향성을 갖기 때문에 남북관계도 경색이 아닌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양극화가 아닌 소통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죠.

방영준 = 박 前대통령의 실패 원인은 너무 리더흉내를 냈다는 점입니다. 불교에서 하심을 강조하는데 이게 부재했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상심(上心)의 오만’이라고 평가합니다.

Q. 그렇다면 부처님 생애에서 본받을만한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안 스님 = 부처님을 ‘삼계도사(三界導師)’라고 표현하죠. 길을 안내해주는 길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처님은 참 특이한 분입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 출가하는 과정에 권력 · 명예 · 부를 버리고 떠나죠. 세속적인 가치에서 볼 때는 모순으로 와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모순 속에 합리를 찾아냅니다. 부처님은 도그마(dogma)가 없어요. 세간으로부터 “세력을 규합해 정치적 단체를 만들려 한다”는 모함도 당했는데요. 부처님은 대중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이 당신들에게 도움이 되면 잘 참고해서 살아가는 데 이롭게 해라. 그러나 당신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하진 않는다”고 말이죠.

심지어 자이나교도가 부처님을 따라 개종을 하려 할 때도 말립니다. 자기 가르침을 따라 개종을 하면 환영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시대 정치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물론 출세간적인 의미를 담아놓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성태용 = 우선 부처님은 종교적 태생이 좀 다릅니다. 우리와 종자가 같죠. 신의 아들이라든가 하는 권위를 갖지 않고, 대중 위에 군림하지도 않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을 겁니다. 대개 어떤 종교든 특수한 창시자로 나타나는데 불교는 똑같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리더라는 점에서 불교적 리더십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부처님의 목표가 뭐였을까요? 중생의 성취,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평화 그 자체가 목표지 이것을 어디에 이용하겠다는 게 전혀 없습니다.

스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하자면 자이나교도 시하 장군의 개종을 부처님은 3번이나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장군이 뜻을 굽히지 않자 조건을 붙여 허락합니다. “지금처럼 자이나교 교단에 계속 보시하고, 공양을 올려야 한다”고 말이죠. 자신의 아랫사람을 만들려는 목적이 전혀 아닌 겁니다. 평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개인을 도구로 삼지 않고, 그들의 완성 통해 사회를 완성시킨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는 파시즘(fascism)의 위험한 논리와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로서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다른 것이죠.

방영준 = 여러 사례를 말씀해주셨지만 부처님의 생애는 어느 경전보다도 많은 교훈을 전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애 자체가 보물창고이고, 현대적인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죠.

Q. 부처님께서 보이신 삶을 현대사회 지도자에게 적용 가능할까요?

지안 스님 = 리더십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방편을 새롭게 써야하는 부분은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사회가 전체적으로 향상돼야 한다고 보는데요. 불교는 어떤 면에서 중생 전체의 성숙을 위해 충고해주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과학문명이 발전하고 지성인들도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계 · 정 · 혜 삼학(三學)의 학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력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합니다.

1960년대 인도 대통령이었던 라다크리슈난(Radhakrishnan)이 부처님에 대해 쓴 글을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수행된 인격을 흠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종교가 자본주의에 물들어 세력 확장에만 신경 쓴다는 것이죠. 종교의 순수한 본래 정신이 많이 상실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방편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불교가 먼저 앞장서고, 좋은 방편을 모색해야겠죠.

성태용 =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일치시키려 했던 게 플라톤인데요. 그가 주장한 철인정치를 독재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서 철인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모두 포기한 채 오로지 국가만을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현실에서 추구하기 어려운 이상일 겁니다.

지적인 측면이나 인격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탁월하게 성취된 지도자를 바라는 건 무리일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현실의 정치인에게 바라야겠죠. 자기가 부족한 것을 충분히 남에게 빌려다 쓰고, 그러면서도 올바른 방향성을 위해 쓸 수 있는 능력만 가져도 좋겠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전공 · 기술자처럼 다 알 수도 없고 부처님처럼 깨달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 적어도 하심 하고 대중을 포용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중심이 있다면 이 시대 지도자로서 적합하겠죠. 여기에 탁월한 식견과 도덕성을 겸비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쉽진 않을 겁니다.

이와는 별개로 불교는 개개인의 완성과 전체의 완성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견지하고, 이를 지도자들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공익광고 중에도 전체주의를 나타낸 것들이 있습니다. 입대하는 청년에게 ‘나를 위한 헤어스타일에서 나라를 위한 헤어스타일’이라는 문구가, 성금을 내는 아이에게 ‘나를 위한 저금에서 나라를 위한 저금’이라는 문구가 붙습니다. 이게 파시즘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암암리에 드러나는 걸 불교가 나서서 경계하고, 이 같은 지도자가 나오는 걸 막아야 합니다.

지안 스님 = 지도자는 남들보다 특별한 기술 같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설사 내가 지도자로서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당사자가 순수하면 주위에 실력 있는 사람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순수 인간본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가 엄청난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기대할 필요까진 없을 듯합니다.

방영준 = 부처님이 몸소 보인 리더십의 본질이 그 어떤 시대보다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기산업사회 들어서 포스트모더니즘, 탈중심적 사회, 탈권위적사회와 같은 것도 전부 리더십과 연계됩니다. 그래서 불교적 리더십을 현대화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연기적 사유와 중도를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종단은 물론 불교학자들 모두 연구해야 합니다. 2600년 전 불교적 리더십은 구닥다리가 아니고 제일 새로운 것이기도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이 시대 불교적 리더십은 왜 필요하고, 이것이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지안 스님 = 제가 승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교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불교가 인본주의라는 말을 드러내지 않아도 이 사회를 통합해나가는 데 가장 나은 종교인 것 같습니다. 부끄럽게도 시대에 따라서는 호국불교라는 전통을 어용적 표현으로 남용해 정권 눈치나 살피기도 했는데 그래선 안 됩니다.

부처님은 카스트제도를 부정하고 사회개혁을 도모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사회정의를 잘 실현하고, 연기법 · 중도 등의 가르침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적 리더십은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는 생각이 만연한 이 사회를 소통의 구조로 변화시키는 에너지입니다.

방영준 = 불교 정치철학의 핵심은 중정주의(中正主義)입니다. 혼란한 이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근본 가치죠. 이제는 불교가 부처님의 사상을 법당에서 사회로 어떻게 퍼트릴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성태용 = 서로 평등한 존재로서 구성원 하나하나를 존중하고, 개인의 완성으로 사회를 완성한다는 부처님의 기본방향은 민주적인 이념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아울러 불교 종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포살자자 등 대중화합을 도모하는 여러 방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야말로 현대사회가 지향하는 정치적 방향과 잘 어울리는 종교라는 게 전제돼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보배들을 현대적인 리더십으로 펼쳐내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불교운동을 하면서 불교적 리더십이 대한민국의 훌륭한 리더를 만들어 내는 리더십이 되도록 다함께 분발해야 합니다.

불기 2561 (2017)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같이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봉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축

총무원장 취운 사정원장 혜관 비구니종무원장 덕산
호계국장 금강 사회국장 성군 감찰국장 자공
교육국장 향광 비구니종무국장 덕심

지장사(광영) 금정사(덕심) 법성사(법룡) 당포사(종철) 칠성암(사우) 운고사(운고)
동방사(법운) 불현사(도명) 용연사(취암) 보문선원(보문) 천광정사(취운) 동방원(법운)
불심정사(혜관) 약불암(혜각) 대왕정사(혜월) 미정사(운선) 미륵정사(미정) 쌍암사(덕산)
칠성암(무설) 무심사(보명) 보우선원(성군) 보광정사(자공) 약불암(무여) 은진정사(고경)
쌍암사포교원(향광) 백련암(문정) 화성암(성화) 극락정사(석도) 금강사(금강) 천운사(선봉)

종단승려, 신도일동

■ 입종 상담 및 접수 안내 ■
① 대상 : 승려 또는 승려나 포교사가 되려고 하시는 분
② 문의 :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51)514-8765
H·P 010-4983-1494

■ 총본산 / 총무원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361 천광정사 (051-514-8766)
■ 사정원 :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59번길 30-8 불심정사 (052-275-5539)



佛紀 2561年 丁酉年 | 전면광고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 A14

삼보에 항상 신심을 일으켜서 대승의 오묘한 경전의 모든 선한 공덕을 닦아 물러서는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아주 빨리 깨달음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소실지갈라경〉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종 정 법호 서호
부종정 법두 수암

승정원장 법상 심곡
원로원장 법두 수암
총무원장 법웅 정관

포교원장 법봉 교육원장 해진
문화원장 법경 월명 복지원장 법수 청운

기획실장 진명 총무부장 원도 총무국장 무경
사회부장 정광 사회국장 월행 교육부장 심공

부산교구종무원장 원도 경남동부종무원장 법경 경남서부종무원장 진명

사단법인 대한불교금강조계종에 입종하실 종도님을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원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조산1길 58-6
■ 전 화 : 055)532-4414 / HP 010-3507-2837

(사) 대한불교본조계종

원로위원 혜산. 대호. 법우
종 정 회암 사서실장 중현(거석)

총무원장 융호 수석부총무원장 법전
고시원장 범산 법규원장 혜공 중앙선원장 보륜 문화원장 구달
감사원장 효현 복지원장 대경 호법원장 청암 교육원장 중무
법사원장 마생 포교원장 혜산 감찰원장 동행

중앙종회의장 대호 부의장 청오
중앙종회의원 혜철. 반야. 현덕. 정주. 인덕. 대공. 천묵. 무경. 혜일. 자원. 도명. 성법. 영진. 선인. 무진. 불광. 고운. 지현. 천묵. 법향. 지환. 보호. 명진. 해련. 혜경. 정일. 지공. 성무. 명덕. 무심. 도인. 청공. 마월. 독견. 덕용. 덕보. 서암. 지혜. 보덕. 미손. 원아. 회명. 여여심. 대안. 법진. 무경

총무부장 도현 재무부장 정현 교무부장 경덕 사회부장 독성
복지부장 덕화 문화부장 자은 조직부장 무진 규정부장 석정
조사부장 광덕 호법부장 법장 포교부장 법묵 교육부장 법향

서울교구원장 무경 경기교구원장 진성 대전교구원장 법우 강원교구원장 정일
부산교구원장 도관 대구교구원장 중무 경북교구원장 지환 충북교구원장 동행
충남교구원장 여진 경남교구원장 경덕 전북교구원장 보명 전주교구원장 보현
제주교구원장 효관

종단고문변호사 김창규. 황보윤 한국종교예술방송 사장 산수 스님

종 도 일 동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84번지 성라원 정안사 전화 02)745-1163, 010-8928-9587

(사)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인 운남
종회의장 법보 일봉
감찰원장 법운 성연

연수원장 법신 노정 교육원장 법기 무여
포교원장 법천 덕일 기획실장 법장 원해 고시원장 벽산 혜암

서울종무원장 심우 경기동부종무원장 혜암 경기서부종무원장 경심
강원종무원장 영명 충청종무원장 혜능 전라종무원장 덕운
군산종무원장 덕일 경북종무원장 탄영 경남동부종무원장 진공
경남서부종무원장 일봉

총무부장 진공 사회부장 진성 호법부장 진각 교육부장 진산
재무부장 성각 연화부장 정혜 문화부장 공덕 교무부장 진문

■ 총본산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250번지 흥도사
■ 총무원 : 경남 창원시 회원구 양덕1동 산 30-4번지 천연암 / 전화 055)253-1074

(사) 대한불교염불종

종 정 월담성인

종회의장 혜안 성묵
원로의장 무초 정락
총무원장 만공 호조

미국종무원장 용월 도황 경기종무원장 호암 대인 경북종무원장 성묵
포교원장 수미 길상 문화원장 정견 사서실장 조능
교육원장 조해 호법원장 조구

총무부장 조반 호법부장 조관 기획부장 조초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충북 제천시 수산면 봉화재길 5 화엄사
전화 043)652-0331 팩스 043)653-0332

(사) 현대불교조계종

종 정 벽운 해광 대종사
부종정 성주 부종정 혜원

총무원장 동화 종회의장 성해 원로원장 효덕 교육원장 해인
포교원장 도선 예술문화원장 원욱 비구니원장 정철

각지역 종무원장 및 종회의원

법인. 성문. 법진. 고암. 성광. 혜원. 시광. 현광. 광운.해초. 해원. 자은. 덕행. 자은. 덕행. 상락. 해일. 청정. 혜선. 명진.무명. 정봉. 묵현. 해광. 원각. 법연. 고암. 진국. 삼관. 농해. 수월.자명. 수경. 연담. 도헌. 성수. 진광. 도관. 진각. 우하. 대산. 진오.대현. 종진. 진허. 혜연. 정관. 화림. 승주. 도연. 연화. 도영. 지한.단운. 혜명. 여의주. 대덕화. 보리심. 천모성월. 길상화. 미서경

적극적으로 입종을 환영하고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종도일동 · 총무원 보광사 신도일동

■ 총무원 :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86-100 식장산 보광사 / 전화 042)284-3929
총무원장 동화 010-8552-7108 / 총무부장 법연 010-7122-1369

(재) 한국불교여래종

종 정 만덕 대승정
부종정 법수 대종사

원로원장 능엄 종회의장 월명 총무원장 명안

포교부원장 도 혜 호법부원장 성 현 종찰부원장 혜 안
총무부장 법 성 재무부장 혜 광 교육부장 법 혜
복지부장 이순희 사회부장 박창석 복지국장 허진호

인왕문회장 성 현 비구니회장 묘 선 문도회총무 묘 각
여래실상연구원장 김용표 법패단장 일 공
여래구도봉사회 혜 안

■ 총무원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1길 24(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앞산) 금강대약사사
전화 043)731-2261



佛紀 2561年 丁酉年 | 전면광고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 A15

고귀한 님은 만나면 좋고 함께 지내면 언제나 행복하다.
어리석은 자들을 멀리 여의면, 언제나 행복을 얻으리 〈법구경〉

문화관광부 허가 2009-2호 / 제2014-9호 / 등기번호 230121-0003919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종 정 승천 진성 대종사
총무원장 야숙 여몽

총무부원장 석담 성우 총무부장 서광 보원 교무부장 현진 영현 재무부장 현경 대암
호법부장 현수 대선 사회부장 서법 자광 포교부장 성담 해선 비구니부장
사무처장 이민숙 사무국장 장백선

불조의 혜명을 받들어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정진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승가의 길을 함께 가시고자 하시는
제방의 스님들과 인연있는 불제자님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수희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입종서류 : 주민등록초본, 반명함판 사진 3장, 사찰(법당)사진
■ 문 의 : 총무원 - 인천 서구 가정동 494-26 원각사
전화 032)578-2122.010-5002-7392(총무원장)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총 무 원

불.법.승

(宗) 대한불교 삼보종

단기4350(불기2561) 정유년
대한민국 통불교 불국운동

1世宗正 滅空大宗師 法主 正覺大宗師

副 宗 正 회천 元老院長 금산 元老副院 정공
總務院長 법장 護法院長 호신 宗會議長 대행
副 院 長 법경 文化院長 법등 教育院長 홍인
監察院長 법도 布教院長 법륜
宗會議員 법융.법성.법공.해곤.계월.해봉.(外 21名)
教區院長 수산.법인.보산.불광.해원.용현.법융.지훈.
법송.지원.도연.청광.정륵.수원.해국.(16교구)

總務部長 평산 教育部長 도오 規正部長 도철 護戒部長 청파
教務部長 도찰 布教部長 혜수 財務部長 법진 教化部長 법보
總務局長 지일 社會部長 도능 文化部長 진각 布教局長 도원
弘報局長 강천 電算室長 진행 企劃局長 청붕 司書局長 도율

法務部법사단장 법성 藝術局長 보인 事務長 목련해

■ 삼보조계종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호계로 499번길4 / 전화 055)338-0089. 080-333-9009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종 정 혜봉
원로위원 법준. 고산. 경호. 대명. 보현. 광명

총 무 원 장 송산 총무부원장 도현. 보성
총무부장 덕광 교무부장 무연 재무부장 도은 사회부장 현무

중 앙 종 회 의 장 수운 부 의 장 호경
중 앙 종 회 의 원 혜언. 혜광. 수진. 법우. 혜가.
혜공. 이타. 무상. 묘각. 청산

중앙사정원원장 정화 규정부장 백파
중앙포교원원장 혜일 부 원 장 보단
중 앙 교 육 원 장 공덕 중앙선원장 현법
중앙복지봉사원장 무량 부 원 장 무봉

서울교구종무원장 청산 부산교구종무원장 삼자 경기교구종무원장 혜언
경 남 종 무 원 장 혜광 경북대구교구종무원장 수진 강원교구종무원장 연각
전북교구종무원장 법우 전남광주교구종무원장 혜공

비 구 니 회 회 장 법인 국 제 교 화 원 장 공덕 용인소년의집원장 무봉

종 도 일 동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211-5 / 전화 031)262-1577 / 팩스 031)263-1353

대한국불교조계종
나 눔 실 천 승 가 회

총무원장 **호산 성보**

승가회 종도 일동
사부대중 일동

대한국불교조계종 총본산 불광사

■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53-1
전화 055-232-7819

(사) 여래불교조계종

종 정 무여 현산
원로위원 혜 산 법 경

총무원장 법 성 교육원장 보 광 포교원장 성 관

중앙종회의장 민 호 종회부의장 보 성
중앙종회의원 혜 견. 덕 광. 진 성. 성 도

총무부장 설 오 재무부장 법 오 교무부장 비 선
감찰부장 혜 각 포교부장 해 암 사회부장 문 성
문화부장 덕 평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 44길 15-1 여래사
전화 031)871-5659 팩스 061)334-3358

대한불교現조계종

총무원장 성종스님 포교원장 성수스님
호법원장 법운스님 문화원장 도우스님
종회의장 대경스님 교육원장 성법스님
재무원장 해원스님 사회원장 도현스님
사업원장 범장스님

제2교구 서울 법정스님 제3교구 경기도 보덕스님
제4교구 해원스님 제5교구 부산 법운스님
제6교구 경남 성수스님 제6교구 경남함양 도찬스님
제7교구 전북 법화스님 제8교구 마산 경우스님
제9교구 울산 도현스님 제10교구 경북 법화스님

■ 총본사 용문사 :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70-16 / 전화 062)531-3888



연등회 어울림마당을 알리는 율동이 동국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연등행렬이 출발하기 전 연희단의 춤사위는 불자들과 시민들의 흥을 돋웠다.


1년간 정성껏 준비한 봉축율동을 선보이는 불자들의 모습이 신나 보인다. 맑은 날씨와 함께 펼쳐진 이날 어울림마당은 환희로 가득했다.

웃고 춤추니 여기가 차별없는 불국정토

불기 2561년 연등회는 그야말로 인종과 국적, 나이와 장애를 모두 뛰어넘는 어울림 마당이었다. 10만개의 연등이 도심을 수놓고, 그 불빛 아래 모든 사람들은 한마음이 됐다.

먼저 동국대에서 열린 어울림한마당에서는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나투신 모습을 봉축율동으로 찬탄하는 환희 가득한 행사가 진행됐다. 이어 동대문부터 서울 조계사까지는 '차별없는 세상' 구현을 위한 연등회 제등행렬이 펼쳐졌다. 행렬 선두에는 부처의 가르침을 수호하는 사천왕상과 지혜를 상징하는 코끼리 등을 본 딴 거대한 장엄등이 앞장을 섰으며, 한반도와 무궁화 등, 각종 캐릭터 등도 선보였다. 연등회의 대미를 장식하는 회향한마당에서는 5000여 시민들은 연등회의 마지막 일정인 문화공연을 즐기고 함께 춤추며 아쉬움을 달랬다. 이날의 환희심 넘치는 현장을 화보로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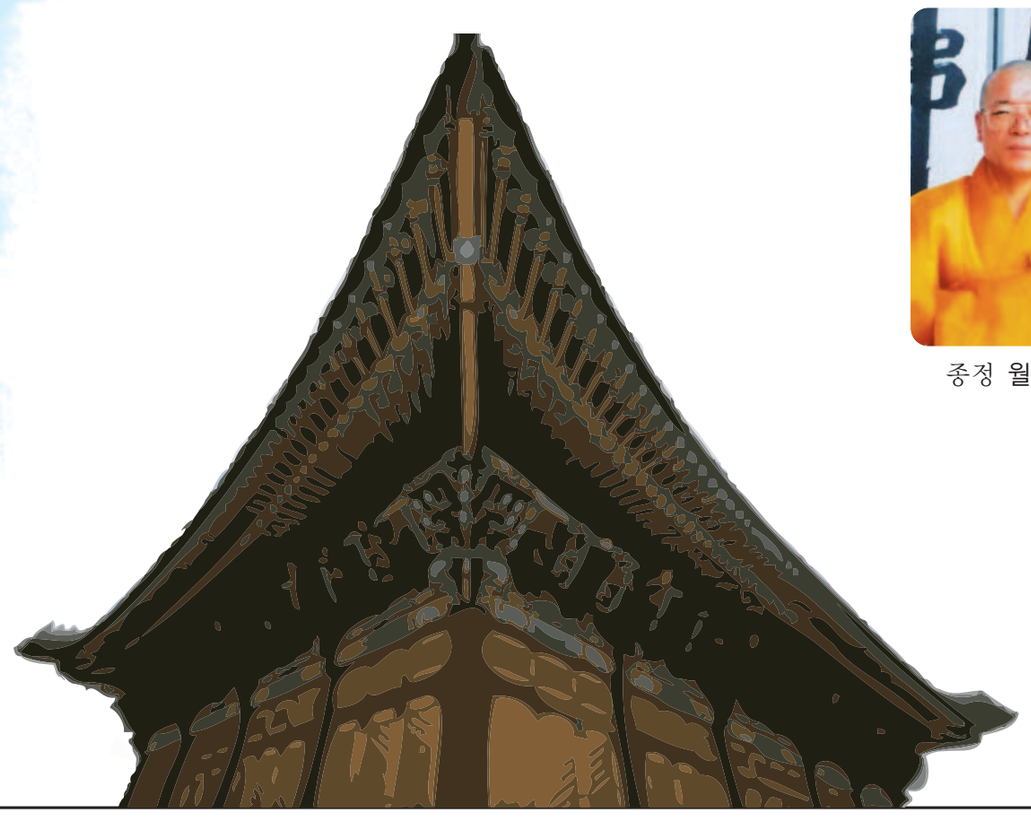
글/사진=윤호섭 · 박아름 기자, 박재완 객원기자


연등회 어울림마당에서는 어린이 연희단원들이 귀여운 율동을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얼쑤!' 한바탕 신명이 가슴을 벅차게 한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춤사위를 펼치는 불자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불기 2561 (2017)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같이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社團法人 大韓佛教 法音宗



종정 월산 청암

종 정 월산 청암
종회의장 무 위 성 주

총무원장	원담	덕봉	교육원장	송담	금강
포교원장	혜담		감사원장	보각	
호계원장	원공	지산	문화원장	용담	진법
총무부장	운담	만공	교육부장	지현	
교무부장	지국	도호	기획부장	추담	
포교부장	청곡		문화부장	혜원	
규정부장	청화		사회부장	보현심	
국제부장	금강심		재무부장	청연화	

총무원 : 부산 북구 구포1동 599-7번지
TEL : 051-336-0408 FAX : 051-338-0409
재무 : 010-2889-2354 총무원장 : 010-9506-7242



동대문부터 조계사 앞까지 펼쳐진 연등회 제등행렬에는 30만명이 참여해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했다. 화려한 연등과 함께 풍물소리와 춤이 종로 거리에서 펼쳐졌다.



4월 30일 조계사 앞길에서 열린 전통문화마당서 관불의식을 하는 어린이의 모습이 해맑다.



회향한마당에서 꽃비가 내리고 외국인과 시민들의 가슴은 환희심으로 가득찼다.



이번 제등행렬에는 태국불자들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 불자들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태극기등과 독일등 등 다양한 각국 연등을 든 스님과 외국인의 모습이 흥미롭다.



행렬에 참여한 젊은 부부와 어르신. 연등회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함께한 어울림 마당이었다.

불기 2561 (2017) 부처님오신날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부처님 오신날 연등 밝히는 것을 스승으로 삼으소서

봉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사)호국불교조계종 축

중앙종회의장 일봉 (포항 남구 오천읍 관음사, 011-508-3100)
교 육 원 장 봉덕 (거창읍 증산길 봉덕암, 010-8582-1308)
중앙비구니회장 창회 혜명 (부산진구 부암동 백광사, 010-4751-3806)
대구종무원장 의광 (대구 서구 평리동 약사사, 016-9886-0860)

(社)護國佛教曹溪宗 총무원장 유심 성도 jogyejong.kr

입종을 환영합니다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함께하실 종도님을 환영합니다. 불조의 혜명을 바르게 전하는
청정수행에 함께하여 참 승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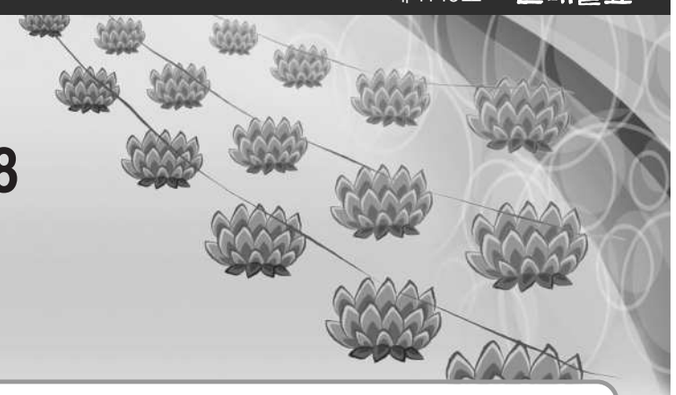
총무원 : 부산 중구 중앙대로231번길 16 부산역앞 관음정사 전화 051)468-5657 / 팩스 051)442-5659 / 모바일홈페이지 http://m/jogyejong.kr
부설단체 051)442-5658 / 수산대학병원시신 및 장기기증모임 / 한국대승불교실천연합



佛紀 2561年 丁酉年 | 전면광고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 A18

몸을 절제하고 말을 삼가하고 그 마음을 거두고 성냄을 버려라.
도의 길을 가는데에는 인욕이 가장 으뜸이니라. 〈법구경〉



社團法人 대한불교 대원종
社團法人 정통불교 조계종

종 정 정허당 신풍　　총무원장 비상 대광

원로원장 정봉　　부원장 법경
원로위원 법교 대경 지성 대원
연수원장 청암　　부원장 범수
감찰원장 범왕　　부원장 도암
포교원장 도안　　부원장 혜성
호법원장 법경　　부원장 대원
교육원장 도연　　부원장 연화
불교예술원원장 도연　　부원장 소현
비구니회장 대광　사무처장 성원　종정사서실장 소원 성원
대원신풍불교(승가)대학학장 신풍　부 학 장 대광

총무부장 성원　규정부장 이현　교육부장 소원
재무부장 도하　사회부장 법수　홍보부장 도언
기획실장 대각

부산교구종무원장 도이　전남교구종무원장 법정
경남동부교구종무원장 도각　강원교구종무원장 각오
서부경남종무원장 법조　충남교구종무원장
진주하동산청지회장 영암　경 북 종 무 원 장 혜정
대 원 종 법 사 단 장 수안　대원종신도회회장 신우연
대원종전국신도회총무 김임숙　신풍사신도회회장 이정민(청암)



▸신규사암 등록하실 스님 항상 환영합니다. 행자승 모집합니다.
역학(철학, 사주관상, 성명학, 풍수지리)
대원승가(불교)대학 및 불교의식 교육생 모집합니다.
▸지역교구 종무원장 하실 스님 초빙 환영합니다.
▸역학 철학 풍수지리 속성 개인지도.
▸신규사찰 등록 환영 사찰이나 포교당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 총무원 : 경남김해시 진영읍 진남로15-6(구 주소 진영읍좌곤리2-18번지) 대한불교 대원종 총무원 신풍사 종정 정허 신풍
총무원 055)346-2908 / 무료전화 080-3030-5959 / 팩스 055)346-2909 / 큰스님 直 010-8548-8608
대한불교 대원종 홈페이지 DW108.com / E메일 asp8990@naver.com

※본 종단은 승려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려제명 및 종단에서 발행한 제반증서 무효처리(폐기소각처리)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公益法人 大韓佛教 華嚴宗

總務院長 華 應　　中央宗會議長 大 烋

宗務處長 梁威燦

大本山 藥 師 寺 (약사추모관운영)
신 도 일 동

財團法人 華 嚴 僧 伽 奬 學 財 團
公益法人 大 韓 佛 教 華 嚴 宗 奬 學 會

理 事 長 韓 相 湖 (華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 48(간석동 12-3) TEL 032)429-4441 / FAX 032)429-4445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길 32-5(청진동 삼선빌딩 406호)
TEL 02)730-0798 / FAX 02)730-0799

(사)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송 청파　　원로위원 법성. 혜암

교육원장 동담 백천　기획실장 대비　종 회 의 장 대공 동곡
감찰원장 동암 원효　사서실장 동판　사 무 국 장 동근
고시원장 도진 동영　총무부장 동봉
포교원장 동우 영산　　종 회 의 원 일동
사회원장 덕진 도광
복지원장 동춘 태산

종도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등본3통, 사진(3×4), 이력서3통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459-2번지 시례마을
전화 055)336-0108, 335-0178 팩스 336-7070
핸드폰 011-595-6522 / 010-8939-6522

한국불교 전통조계종

불기 2561 (2017)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같이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종정대행 총무원장 혜 봉

전 종도 일동

입종을 환영합니다

【구비 서류】
• 사찰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앞.뒤사본, 반명함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1매 (사찰등록 하실분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분은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필히사본첨부
• 도첩은 본종단에서 수계를 받은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입종후 승려증 (법사 포교)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간부 추대장 발급

■ 총본산 : 경북 포항시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연봉사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 溪 宗

종 정 홍 산 현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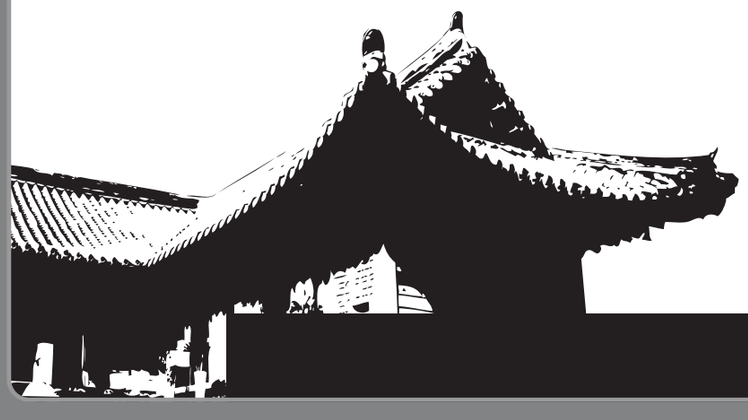
종 도 모 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법인 허가번호 제 2014-4호 / 법인설립 허가일 2010.4.30

특허청 특허출원번호 42-0005848 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전국 337개 종단이 가입한 최고의 법인단체)

회 장 월 하 성 철

한중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광
금강불교조계종 이사장 활안
무궁화무한월드 회장 애무린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대한불교조계미륵선종 총무원장 설송
생활불교범행종 총무원장 지광
대한불교금륜조계종 종정 지광 등운
대한불교승가회 총재 무공
환국불교조계종 종정 아산
한국거창배왕석예술문화연구원 위원장 석호
마애삼존불상무량정토성지순례봉찬회
우리불교우리절용암산미륵사 총무원장 청송
고려대장경진흥원유지재단 이사장 장수
대한신불교천우종 종정 일강
대한불교단체총연합회국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철
한국불교조계종 종정 정암
대한불교조계선종 이사장 지암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서울지부지회장 청산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부산지부지회장 구암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대구지부지회장 지영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인천지부지회장 석수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광주지부지회장 만봉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대전지부지회장 태대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울산지부지회장 월정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강원지부지회장 월광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경기남부지부지회장 일오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경기북부지부지회장 광명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경남지부지회장 청광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경북지부지회장 설송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전남지부지회장 동화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제주지부지회장 경흥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충남지부지회장 정섭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강원지부지회장 병대
한국불교약불조계종 종정 불광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인
대한불교대선종 총무원장 대봉
법사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해동
달마선원예술문화진흥원유지재단 이사장 청광
대한불교신인종 종정 보인
대한불교천우종 총무원장 지암
환단도 이사장 태대
한국불교천신종 종정 정암
백산소도삼신문화재단중앙본부 이사장 일광
전통사찰조계종 총무원장 진상
해동불교임제조계종 총무원장 벽송
대한불교해탈종문화재단 종정 대광
환국불교환인종 종정 아산
대한불교마야종 종정 정암
정토불교조계종 종정 일오
한국종교무교천왕종 종정 송월
한국도교본산수성궁 회장 금란
세계불교달마조계종 종정 태일
대한불교호국조계종 종정 무량수
대민불교조계종 종정 일공
국제대성황문화재단 이사장 환인
대한불교구생종 총무원장 원당
한국불교조계종종단연합회중앙본부문화재단 이사장 월정
진언불교 종정 도성
법행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광
선한국불교조계종총무원총본산법천사
불교대학,불교출판사,무차회,보리회 총무원장 법천
대한불교승정원문화재단 원장 현각
금산문화재단 이사장 길주
대한불교유마종 총무원장 무허
한국생활불교보림종 총무원장 운장
천지신명봉양회 회장 성덕
대한불교종단단체사암총연합회 회장 도광
한국무교총본산 회장 일강
한정연무교총연합회 회장 일광
무궁화어머니재단 회장 뮤린
한국고건축진흥원예술문화재단 회장 광선
한국불교조계교종 종정 법성
대한선불종 종정 명조
대원불교유심종 종정 법일
한국범종교단체연합회 종정 청산
지역복지교정협의회 종정 인산
대한불교달마선종 종정 현광
원사불교조계종 종정 도호
대한불교해탈종총본산소원사문화재단 회장 동환
대한불교태선종연합 종정 태선
한국불교동방조계종 총무원장 법성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현묵 혜승
세계불교약사종 종정 인산
대한불교전법조계종 총무원장 일웅

한국불교원각종 종정 혜철
월드불교법왕청 종정 청암
대한불교가야조계종 종정 혜산
대한불교팔만종 종정 운월
대한불교연화종 종정 동원
대각불교조계종 종정 혜남
용화세계미륵종 종정 월단
대한불교불광종 종정 청원
법왕불교조계종 종정 보문
세계불교지장선원종 종정 혜봉
사회복지재단황손보살의집 원장 지영
해탈불교조계종 종정 대광
박정희 육영수추모제례진흥회 재단 회장 대광
법천불교종단연합회 회장 법천
해동불교화엄종 총무원장 영관
대한불교약사법사종 총무원장 약산
한국불교원효종 종정 법민
대한불교구화종 종정 구화
세계불교승가회 회장 원당
동도해인대법국미륵진법강원 회장 해인
목멱사랑회 회장 재연
중앙불교조계종 종정 우담
한국고건축예술문화진흥원 회장 태인
대한불교대각종 종정 만청
선법륜종 총무원장 월암
대안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월
현대불교미륵종 총무원장 원공
세계불교화엄종 종정 월담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한국불교내외종 종정 청담
대한불교관음성종 총무원장 관행
미타불교조계종 종정 월산
대한불교조계종봉정선원 총무원장 법기
한국전통불교천부종 총무원장 서광
한국불교미타종 이사장 원상
대한불교금강여래종 총무원장 연화
법신불교정법종 총무원장 법통
대한불교반야종 총무원장 지법
대각교단대한불교현수종 총무원장 금화
정통불교조계종 종정 신풍
한국불교현조계종 총무원장 도현
대한불교법인종 종정 만오
대한불교선조계종 종정 기복
세계선불교조동종 총무원장 공산
대한불교약사여래종 총무원장 법환
대한불교천왕종 총무원장 해인
임제불교조계종 종정 지암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총무원장 연화
세계불교종단연합회 회장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불
선종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명
대한불교반야수교원 총무원장 월성
천지대학일월용봉신선도문화재단 이사장 선학
세계불교대각종 종정 보각
한국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현
삼신신앙봉천재단 재단장 진순
참좋은인연문화재단 이사장 밀허
한국불교천불종 총무원장 혜담
통일불교조계종 종정 벽암
한국불교나한종 종정 대보
한국불교법인선원덕선사 이사장 도운
세계평화불교연맹 이사장 혜승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한국불교승가종단연합회 회장 지암
현대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동화
임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암
대한불교연합조계종 총무원장 혜일
대한불교신조계종 총무원장 금당
해동대한불광종 종정 법경
한국불교청동불상예술연구원 원장 청담
대한불교임제선원문화재단 주지 법현
대한불교조계종금강회 주지 청광
대중불교조계종문화재단 종정 향덕
세계불교국제연맹재단조계종 총무원장 향덕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무원장 원광
대한불교일월여래종 원장 해월
대한불교원조계종 총무원장 만오
세계평화재단 법황청 총무원장 태산
한국전통범종연구소 소장 광식
대한불교밀인수증회 주지 덕천
한국불교미술원보응문도회 사장 규진
한국불교환인종 종정 정안
대한불교전국비구니진흥회 이사장 일경

세계불교만불종 종정 일월
세계불교세심종 총무원장 범행
대불조계종 총무원장 대명
대한불교대각조계종 총무원장 부건
한국전통불교천불종 총무원장 만봉
대한불교여래종 종정 혜담
한국법화종 종정 법천
대한불교일월조계종 총무원장 장원
동방선도총본산 도령 이지영
용화사 월대도 도주 용화
해동불교금강종 총무원장 해원
대한불교법운종 종정 지암
대한불교연지조계종 종정 황봉
한국불교종단단체협의회 회장 성철
한국도교삼청관문화재단 도장 대도
세계불교승가회한국본부 회장 보각
대한불교본조계종 총무원장 불광
천지불교태극종 종정 법성
대한불교통합조계종 총무원장 해봉
한국불교금강종 총무원장 진공
대한불교조계종국제승가총연맹 종정 혜산
대한불교용산조계종 종정 철산
한국불교화엄지장종 총무원장 영암
반야의세계진법불교조계종신선둥지문화복지재단 종정 진표
대한대승불교조계종 종정 성범
석가불교조계종 종정 대각
대한호국무불천지종 종정 청산
유신불교조계종 종정 금강
대한불교조계종통합불교연합 이사장 영월
환국신앙천신교 종정 법안
세계불교법황청 종정 법열
대한불교염불종 종정 만공 호조
세계불교선종 총무원장 제성
정법대승불교조계종 종정 고림
한국불교조견종 총무원장 성문
대한불교법인통합조계종 총무원장 지현
조선불교조계종 종정 중천
한국전통민속문화협회강원도교구 교구장 만오
대한용화불교칠성산신종 총무원장 천공
대한불교보현종 총무원장 영사
세계불교법사종 종정 청하
21세기디지털불교미륵대도 종정 대광대사
대한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현송 고림
대한불교승가조계종사회복지협력봉사단 총무원장 월암
(사)대한불교단체총연합회복지재단 이사장 도광
대한불교대조계종 총무원장 대공 법해
대현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청각
불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운봉
대한불교법음종 종정 청암
세계불교조계종 종정 자현
생사참사랑실천회(웰다잉) 회장 보성
한국고미술문화재진흥협회 회장 무산
문화예술불자연예인협회 협회장 운봉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각성
대성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거목
실천생활불교진흥원 원장 경산
대한불교불조계종 총무원장 혜암
대한불교서각종 총무원장 법운
강원율사율원승가교육원 원장 월성
대한불교조계종승가회 회장 정인
포항시불교사암승가연합회 회장 법진
대한불교연화조계종 총무원장 일경
한국불교염불선종 총무원장 영운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보현종영사복지재단 원장 영사
한국전통문화총연합회 충남교구 교구장 태극
한국전통문화총연합회 강원도교 구교구장 신명
대한불교유가종 총무원장 법륜
대한불교원각회보리원 원장 각화
대한불교반야선종 총무원장 도우
한국대중불교불이종 총무원장 도원
한국불교선조계종 총무원장 법성
마하야나불교조계종 회장 청송
한국전통승복양공진흥회 회장 여래심
대한불교연화종 용남사 주지 법성
한국불교태극조계종 총무원장 해도
대한불교용화조계종 종정 능견
자비실천운동본부 본부장 해광
종단세계선불교 총무원장 안심
대한불교국제중도선 원장 동천
대승불교삼론종 종정 석봉
한국불교효예종 총무원장 법진
한국불교성지종 종정 원담
마하야나승가조계종 종정 청송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원봉

문무대왕대제보존진흥협회 회장 운담
중생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문
대연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연
대한불교해인삼보종 총무원장 해인
법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무허
화쟁교단분황종 종정 현불
한국불교염불선종 총무원장 영운
대한불교근본조계종 총무원장 성공
홍지문화재단 원장 홍지
사회복지법인 산촌마을사람들복지재단 이사장 인봉 동인
한국불교의식문화교육진흥협회 총무원장 일관
국제고미술교류진흥협회 회장 성철
대한불교삼계조계종 총무원장 해공
대한불교일붕조계종 총무원장 진공
한국불교선화종 총무원장 법산 호원
육영수생가보존회등육영수여사탄신승모제례보존회
대표 법성 동방
국제불교조계종직할제1교구본사 청일사 총무원장 성철
한국불교대각종 총무원장 대각
국제불교금륜종 총무원장 청광
한국불교금륜종 총무원장 청광
한국고미술국제진흥원 이사장 도현
대한불교선화조계종 총무원장 혜원
사회복지법인세계불교복지재단자비원 원장 강현자
지장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공
한국불교조계종사회복지실천자비원 원장 명진
대한불교승가문화예술진흥회 회장 현불
대한불교칠불종 총무원장 혜선
대한불교천불종 총무원장 지선
대한불교조계종금강회원응사 회장 진해
대한불교칠여래종 총무원장 진성
대한불교묘법연화종 총무원장 만오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전국불자총연합회태승사복지재단
재단장 혜원
대한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연운
한국불교조계종총본산태승사 총무원장 혜원
행복세상만들기운동본부 본부장 혜봉
세계불교선불종 총무원장 무성
한·중고미술국제진흥원 원장 도현
사회복지법인수암사마야복지재단 총무원장 운산
한국불교전법조계종 총무원장 도현
한국전통민족불교소원사 총무원장 소원
자비실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보륜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신풍
한국불교천불종 총무원장 천불
대성불교정토종 총무원장 성각
마니산천부단복원추진위원회 회장 대경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덕공
사회복지법인화정토원복지재단 회장 원오
대한불교혜명조계종 총무원장 혜명
한국전통불교조계종 종정 태함
호국불교선미륵종 종정 효진
한국불교동산조계종 총무원장 원덕
세계불교법사종 종정 고산
행복나눔종교치과문화재단 재단장 성해
대한불교보법종 총무원장 법성
행복나눔치과문화재단 재단장 성해
한국초능력협회 회장 혜봉
사회복지법인금조복지재단 이사장 일경
대한명리사협회 회장 지공
대한불교전국호국무예봉사단총연합회 회장 박주석
사회복지법인대체의학자연치유국제문화교류복지재단
이사장 혜승
불교조계종대선불교대학 학장 현묵
한국불교마야조계종 총무원장 해공
대한불교수암조계종 대표 수암
한국불교불광종 총무원장 안개 지공
천상의전상조극락정토원 대표 정관법사
한국불교천지조계종 총무원장 성진
범종단환경보호연합회 이사장 혜봉
한국,네팔 문화교류협회 회장 정관 일해
대한불교전법조계종 총무원장 현도
전국교정,교화 불교법사단 단장 법성 성주
대금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금오당 금강
대한불교대승조계종 종정 동연당 도우
향토불교승가연합회 대표 조향
대한불교태선조계종 은산 덕호
대한불교천안종 회령
대한불교금강조계종 금봉
대한불교천기종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법천 청운
대한불교약불조계종 오영 법사
국제불교인력컨설팅공사문화재단 총무원장 금오당 금강
(무순)

"중생정재의 합리적 관리와 통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한 국 불 교 종 단 연 합 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81, 909호 (두산위브파빌리온 수송동)

전화 : 02)2198-5022(代), 2198-5023~4 팩스 : 02)2198-5025 H.P : 010-4167-3666 E-mail : jonggyo119@hanmail.net http://kntga.or.kr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프리토킹 프로그램

각설하고 覺說何故!



• 주제별 대본없이 진행하는
프리토킹 강사~진귀장자

공개강좌 일정표

1차 공개강좌	주 제 : 사 성 제	‖ 일시 : 2017년 4월 16일 일요일 오후 2시
2차 공개강좌	주 제 : 법화사상	‖ 일시 : 2017년 5월 21일 일요일 오후 2시
3차 공개강좌	주 제 : 반야사상	‖ 일시 : 2017년 6월 18일 일요일 오후 3시
4차 공개강좌	주 제 : 유식사상	‖ 일시 : 2017년 7월 16일 일요일 오후 3시
5차 공개강좌	주 제 : 화쟁사상	‖ 일시 : 2017년 8월 20일 일요일 오후 3시
6차 공개강좌	주 제 : 화엄사상	‖ 일시 : 2017년 9월 17일 일요일 오후 3시

※ BTN 방송안내 : 본방 :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밤 11시, 재방 :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밤 11시

※ 강좌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가능합니다. • 문 의 : 1899-9532

NAVER 깨달음산문 검색

깨달음 山門

번뇌를 여의면 얻을 법이 없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마음은 본래 청정하여 뚜렷이 밝고 두루 비춘다.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자기 마음으로 잘못 알기 때문이다. 온갖 번뇌를 여의기만 하면 얻을 법이 없다. 부처라 하는 것은 본래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심을 깨닫고 보면 그것이 곧 부처인 것이다."

이상은 황벽희운(黃蘗希運:?~850) 선사의 〈전심법요(傳心法要)〉에 나오는 말이다. 〈전심법요〉는 황벽 선사가 배휴의 청으로 심법(心法)의 종지(宗旨)를 전해 준 법문이다. 이 법문이 설해지고 기록되어 전하게 된 데에는 황벽 선사와 배휴의 특이한 인연이 있었다.

〈전등록〉 권 12에 수록된 〈배휴장〉에 의하면 한때 황벽선사가 황벽산 대안정사에 이름을 숨기고 지낼 때였다. 어느 날 배휴가 이 절을 찾아와 도량을 둘러보다가 불전(佛殿)을 참배하고 벽화(壁畵)을 감상했다. 배휴는 그 절의 주사(主事)에게 물었다.

"저 그림은 누구의 초상화 입니까?" "고승의 초상화입니다." "영정(影幀)은 여기 있는데 고승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사가 대답을 못하자 배휴가 다시 물었다.

"이 절에 참선하시는 스님은 없습니까?"

"근자에 와 계시는 한 스님이 참선을 오래 하신 분 같습니다."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이리하여 배휴가 황벽 선사를 만나게 되었다. 배휴는 아까처럼 "고승의 영정은 벽화로 남아 있는데 고승은 어디에 있느냐"고 다시 물었다.

황벽 선사가 갑자기 큰 소리로 "배휴"하고 불렀다. 배휴가 "예" 하고 대답하자 황벽 선사가 다시 "그대는 지금 어디 있는가?"하고 물었다.

이 순간에 배휴가 심법(心法)의 종지(宗旨)를 깨달았다고 한다. 이러한 인연에 의하여 배휴는 나중에 황벽 선사의 재가 제자가 된다.

배휴가 종릉(鍾陵)의 관찰사로 재임하던 때(842) 황벽 선사를 수부(首府)로 모셔다가 용흥사(龍興寺)에 머물게 하고 조석으로 도를 물었다. 그러다가 완릉(宛陵)의 관찰사로 전임이 되어 선사를 다시 개원사로 모신다. 거기서도 예를 갖춰 도를 묻고 황벽 선사로부터 들은 법문을 적어 둔다. 그 것이 바로 〈전심법요〉다. 다시 말해 〈전심법요〉는 배휴가 황벽 선사로부터 들은 법문을 메모해 두었다가 10년이 지난 857년 편찬해 공개한 것이다.

종릉에서 기록한 것과 완릉에서 기록한 두 가지를 합하여 황벽어록인 〈전심법요〉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앞의 것 〈종릉록〉만을 전심법요라고 하기도 한다.

황벽 선사를 단제(斷際)선사라 부르기도 한다. 여기에도 일화가 숨어 있다. 황벽 선사가 행각을 하다가 염관제안 선사를 방문하여 먼저 법당에 들러 참배하고 있었다. 이때 한 사미가 와서 물었다.

"구도자는 불 · 법 · 승 그 어디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하는데 스님은 무엇 때문에 예불을 하십니까?"

"내가 불 · 법 · 승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관례적인 의식에 따를 뿐이다."

"의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황벽 선사가 사미의 뺨을 한 대 때렸다. 그러자 사미가 말했다.

"어째서 이렇게 무례하고 거치십니까?" 황벽 선사가 꾸짖었다.

"너는 네가 서 있는 곳을 아느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거칠다 곱다 함부로 떠드는가?"

그리고는 두 번을 더 때렸다.

이때 맞은 사미가 폐불사태를 유발한 당 무종 다음에 왕위에 오른 선종(宣宗)이었다. 무종의 위해를 피해 절에 와 사미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선종이 어느 날 궁궐에서 황벽 선사에게 뺨맞은 것을 기억하고 왕자에게 손을 댄 행실이 거친 추행 사문이란 호를 주려고 하자 이를 알고 재상으로 있던 배휴가 간하였다.

"선사가 폐하를 세 번 때린 것은 폐하의 삼세의 윤회를 끊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종이 호를 바꾸어 단제라는 호를 내렸다. 묘하게도 나중에 그의 법을 이어 받은 임제(臨濟) 선사에게도 세 차례 방망이로 때린 인연이 있었다.

분별 · 차별없는 한마음이 참모습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⑱ 무득무설분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 得阿 耨羅三三菩提耶. 如來 有所說法耶 須菩提

(수보리 어의운하. 여래 득아뇩다라삼먁삼보리야 여래 유소설법야 수보리)

言. 如我解佛所說義 無有定法名阿 耨羅三 三菩提 亦無有定法如來可說. 何

(언. 여야해불소설의 무유정법명아뇩다라삼먁삼보리 역무유정법여래가설. 하)

以故 如來所說法 皆不可取 不可說 非法 非非法 所以者何 一切賢聖 皆以無爲

(이고 여래소설법 개불가취 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이자하 일체현성 개이무위)

法 而有差別 (법 이유차별)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었겠느냐. 또 여래가 어떤 법을 설명한 일이 있느냐."

수보리가 사뢰었다. "제가 알기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정한 법이 있는 것이 없어서 이름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이므로 다만 정한 법이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래께서 말씀해 주셨나이다. 왜냐 하오면 여래께서 말씀하신 법은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이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오면 모든 성현께서 함이 없는 법으로 차별이 있기 때문이옵니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는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으로 '아'는 없다(無)는 뜻이고, '뇩다라'는 위(上)라는 뜻으로 위가 없으니 아래도 없습니다. 위는 스스로 있지 못하고 아래로 인하여 있으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위는 스스로 없지 못하고 아래가 없을 때 없으므로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이 상, 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므로, 좌(左), 우(右)도 역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 하가 없으니 좌, 우도 없으므로 일체의 분별 대립이 없다는 뜻이며, '삼'은 바르다(正)라는 뜻으로 분별망념을 여읜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바르다는 뜻이며, '먁'은 두루하다, 평등하다(等)는 뜻으로, 상하와 좌우가 없고 모든 생각과 행위가 바르기 때문에 일체가 두루하고 평등하여 차별이 없는 이 마음을 '보리' 또는 깨달음(覺)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이므로 오직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망념을 여의면 모두가 부처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든 분별망념에서 벗어나라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말씀하셨으나, 이 말씀을 들은 중생들은 망념에서 벗어나는 그런 아뇩다라삼먁삼보리가 있다고 또 다시 집착합니다. 부처님의 팔만사천법은 중생들이 분별망념의 집착에 대응한 임시방편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함이 있거나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이며, 모든 이름은 마음의 다른 이름 즉 마음의 별명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여래께서 말씀하신 법은 참마음의 별칭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할 수 없고,' 여래의 말씀은 티끌수와 같은 우리들의 망념에 대응한 방편이기 때문에 방편으로는 참마음을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뇩다라삼먁삼보리가 아닌 것이 진공이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가 아닌 것도 아닌 것이 묘유로,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본래 이름은 마음이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는 마음의 별칭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오면 모든 성현께서 함이 없는 법으로 차별이 있기 때문이옵니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와 같이 무위법(無爲法)으로 차별이 있는 성현들도 역시 방편입니다. 성현은 보살 10지에 속하며 무색계의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처님과 수보리 존자가 주고받는 말씀의 진정한 뜻은, 티끌만한 분별과 차별, 계급이 없는 한마음이 우리들의 참된 모습일 뿐 성현도 차별이 있으므로 또한 방편이라는 뜻입니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사람이 신을 만든다

사람은 귀신을 만든다 생각으로 만들고 행동으로 죽인다.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살펴보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 무수한 신(神)을 만들고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神)의 존재를 지우거나 잊으며 멀리했다.

배화교로 알려진 조로아스터교는 불(火)를 숭배하며 이란을 중심으로 중동은 물론 유럽전역과 아시아에 까지 그 추종세력을 넓혀왔으나 이젠 역사의 유적지로만 남아 전설이 된지 오래이다.

마니교는 기원 후 3세기에서 7세기동안 그 절정기를 이루며 선(善)과 악(惡), 영성(靈性)과 물질성의 대립을 벗어나 빛의 세계를 주창해 왔으나 역사의 그림자만 남긴 채 아득히 사라졌다.

지역과 인종에 따라 문화와 풍속에 젖어 토테미즘(Totemism)과 샤머니즘(Shamanism)의 신앙이 그 무게와 색깔을 달리하며 우후죽순처럼 자라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또 다른 윤회를 거듭해왔다.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길(路)을 만들고 신(神)을 만들며 생활문화의 행복과 자유를 추구해 왔던 것이다.

명칭과 신분이 다를 뿐 사람이 모여 사는 세계 곳곳의 마을에는 수호신이 있고 접신의 매개체인 주술신앙의 무당이 자리해 그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원불멸의 인간이 존재할 수 없듯 영원불멸의 신(神)도 없는 것이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 욕구에 의해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신(神)은 시대상황의 변천과 문화융성의 발달에 의해 사라지고 잊혀지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어떠한 신(神)도 신(神)의 이름도 신(神)의 모습도 사람에 의해 태어났고 사람에 의해 이름도, 모습도 지어지고 그려졌던 것이다.

예전 어린 시절에는 삼신할머니 귀신이 있어 길(吉) · 흉(凶) · 화(禍) · 복(福)과 아이의 잉태와 수명을 점지해주는 것으로 믿고 의지해왔다. 그러나 요즘엔 그런 풍습과 무속신앙은 색을 바래며 잊혀지고 있다.

예전의 화장실 문화는 수세식이 아닌 옹기항아리를 땅에 묻어 볼일을 아슬아슬하게 처리해 왔던 것이다.

전기불도 없는 측간(厠間)에서 어두운 밤의 볼일은 두려운 일 일수밖에 없을 터이다. 하여, 변소간을 지키는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의 이름이 측신(厠神)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화장실이 아파트 문화로 생활의 주거 공간인 안방 한 켠에 자리 잡게 되었다. 거기다가 비데까지 설치되 화장실은 두려움의 대상에서 미니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변소를 지킨다는 측신은 비데의 물소리에 놀라 사라진지 오래이다.

예전 초가집의 부엌에서 밥 짓고 국 끓이는 땔감은 나무였다. 젖어있을 수 있고 땔감의 질량에 따라 불길의 타는 속도가 달랐다. 하여, 밥이 죽이 되거나 떡이 설익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부엌을 지켜주는 신(神)이 있다고 믿게 된다. 이 부엌신이 조왕신이다. 조왕신의 조화에 따라 밥이나 떡이 설익을 수도 익을 수도 있다는 믿음에서 생겨난 민속신(民俗神)인 셈이다. 그러나 이 조왕신의 믿음과 존재는 방안에 설치된 싱크대 문화에 밀려 사라진지 오래이다.

몽골이나 티베트에서 우리네 성황당 같은 돌무더기 쌓아둔 곳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가정의 평화와 가족의 건강,

수많은 무속신은 이젠 퇴색했는데 불교엔 아직도 삼재 · 사주가 남았다

자신의 미래에 밝은 빛의 충만을 발원하기 위한 장소이다. 누구나 이 돌무더기를 지나며 돌 한 개를 던져 믿음을 키우고 소망을 빌었던 것이다. 그러나 성황당의 돌무더기 쌓아올림도 민속신앙보다 재미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삼신할머니의 역할이었던 아기 잘 출산하는 일은 산부인과 의사 몫이고 변소 지키는 측신의 두려움은 방안 화장실의 비데문화가 두려움은커녕 편안함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조왕신의 할 일은 전기밥솥이 편리하도록 대신하며 조왕신의 존재를 까마득히 잊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신비롭게도 깨달음의 종교인 사찰 주변에서 아직도 머물고 자리하고 있는 신(神)의 무리가 많다는 일이다.

사찰의 종교의식에 낄 수없는 운명론 쪽으로 흐르는 삼재풀이, 전생의 빚, 관상, 사주풀이, 부적 등의 떳떳치 못한 행위 등이 더디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는 신본주의(神本主義)가 아닌 마음 중심의 종교이다.

구원을 약속하는 종교가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 부처되는 종교이다. 더 이상 신(神) 쪽으로 기울지 말길.

불기 2561 (2017)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같이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경건한 신심으로 두손 모아 거룩한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붓다선 명상지도자 1급 자격증 수강 안내

우리는 정법을 수행하고자 하는 청정승가를 위해
석가모니를 완성한 성불의 비밀 "붓다선"을 전법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수행자의 동행을 환영 합니다

- 수강일정 : 5월 30일 개강(매주 화요일 오후 2 ~ 5시. 5개월간)
- 수강과목 : 앗딴누수행(쌍깝빠. 와짜. 깜만따. 아지와. 아누맛자명상)
  : 싸마타수행(아나빠나싸띠. 와야마명상)
  : 위빳싸나수행(까야. 웨다나. 쌋따. 담마명상)
  : 아리야쌋짜수행(둑카. 싸무다야. 니로다. 막가명상)
  : 위뭇띠수행(9차제정명상) ※수강료는 무료. 선착순 16명 모집
- 강의장소 : 견불선원 (성남시 수정구 수정북로 40-1)
- 전 화 : 070-7717-2276

세계승가회

승왕 뿐냐싼또

총 재 수밋다 회 장 수완나 대장로 현지
비서장 싯달라 기획실장 설원 나란다대 총장 견원
교학처장 도원 연수국장 대원 교육국장 인원
문화국장 청원 포교국장 성원 인권국장 다원
홍보국장 법일 심리상담국장 연우

홈페이지 - http://www.worldsangha.org

붓다선 힐링명상 :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 8시 (견불선원)



佛紀 2561年 丁酉年 | 전면광고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 A22

건강이 최상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상의 재보이고 신뢰가 최상의 친지이고
열반이 최상의 행복이다. 〈법구경〉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사부대중 일동

한마음선원 부설

한마음유치원

TEL 051-403-6701
www.한마음유치원.kr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동삼동)
TEL 051)403-7077
FAX 051)403-1077
www.hanmaumbusan.org

한국불교태고종

천 불 정 사

주 지 선묵 고담
총무국장 심 일
신도회 회장 이정민
신도회 총무 김영애
거사회 회장 이경철

외 신도 일동

■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230-9 (장전동)
TEL 051)583-9233

(사)부산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총 재 경선
부 총 재 범수 목종
사무총장 효산
협 회 장 백명숙
사무처장 천용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문화로27, 1206호
전화 051)513-4306
팩스 051)513-4307

대한불교조계종

황령산 **홍 제 사**
황 령 선 원

선원장 혜 국
주 지 성 문

사부대중 일동

· 매월(음) 초하루 - 초사흘 신중기도
· 음력 보름 인등 기도

사회복지법인 화엄도량

노인요양시설 효 림 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304번길 34(전포동)
TEL 051)802-0130 / FAX 804-1037

삼천배 참회기도 근본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감 로 사**

주 지 혜 총
부주지 경 성
총 무 경 원

사부대중 일동

■ 부산시 부산진구 진남로 432(전포동)
TEL 051)809-0926 / FAX 803-0188

(감로사에서 지원하는 복지기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용호재가노인복지센터
꿈나무아동발달센터
용 호 어 린 이 집

무료급식 (매일 200여명)
노인대학 (매일 200여명)

■ 부산광역시 남구 이기대공원로 7
TEL 051)628-6737-9

持戒念佛萬日修行道場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부산분원 **관 음 사**



늘기쁜마을 관음사

cafe.daum.net/gwanumsa1

■ 부산 사하구 제석로 79번길 33
051)294-9300

보건복지부지정 장기이식등록기관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원범

부본부장 자인, 목종, 심산, 고담, 해암, 이동권, 이승표, 이욱태
감 사 성림, 문연주
기획이사 마나
재무이사 성관, 김법영
홍보이사 혜산
자살예방이사 하림

이 사 일 동

생명나눔부산 자살예방센터 051)442-0429

■ 부산 동구 고관로 67, 3층 (수정동, 대성빌딩)
TEL 051)853-0429 / FAX 051)853-0439
www.bslisa.or.kr / www.bsmy-life.or.kr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 장 자 승 (조계종 총무원장)
부 회 장 원 행 (조계종 종회의장)
춘 광 (천태종 총무원장)
홍 파 (관음종 총무원장)
이 사 장 홍 파 (관음종 총무원장)
부이사장 인 구 (보문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향 운 (원효종 총무원장)

여성부
회 장 백명숙 (대일심)
부 회 장 박동희 (만월심)
총 무 방정자
재 무 조원숙
감 사 남영희
운영위원 김경수, 김동희, 김예영, 정지연, 박정옥, 옥영숙, 우정해, 김명애
국제협력부장 서경순
문화홍보부장 김민경

■ 서울사무소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5-19 불교대학 3F
전화 02)702-1708
부산사무실 : 부산 부산진구 동천대로 24 종로학원
전화 051)818-3427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

회 장 박영근
상임고문 박수관
고 문 허인구 김재운 김재진 박민식 조효식 최칠관 설동근 이윤희 박홍대 권청길 이시영 장남인 이상수 박순곤
부 회 장 공정근 김선오 김수현 김종백 신재철 최삼섭 양재생 박형주 배상진 배영호 최금식
감 사 강갑균 최상곤
사무총장 안천일
재무총장 정연식
총무이사 이현수
친목이사 이남현
홍보이사 정종원
기획이사 김성규
섭외이사 김선일
사업이사 장병주

이사 회원 일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71, 9층 (부전동, 정산빌딩)
TEL 051)334-0108
FAX 051)867-4397

(부산시청 뒤) 청정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여여선원**

(부설-자선단체)
사단법인 세상을 향기롭게

선원장 정여스님(前범어사 주지)

영 도 대 흥 사 주지 정여스님
대연동 붓다선원 주지 도경스님
삼랑진 여여정사 주지 도명스님
김 해 여여정사 주지 도명스님
해운대 여여선원 주지 도우스님
양 정 바라밀선원 주지 효산스님
사량도 관음낙가사 주지 효원스님
울산 여여선원 주지 효암스님
기장 여여힐링선원 주지 효운스님
금 정 보현선원 주지 효범스님

여여선원 신도회 명예회장 김경환
신도회장 이향순

■여여선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94 7층(인재빌딩)
TEL 051)853-5486~7, FAX 051)863-6422
■(사)세상을 향기롭게 : TEL 051)702-9944

Since 1999

부산불교복지기관의 상호교류와
불교사회복지 역량강화에
부산광역시불교복지협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사) 부산광역시 불교복지협의회

대표이사 정여
상임이사 원광
이 사 범산. 정현. 명현. 성문. 심산. 김수현
감 사 이륭우. 이혜정
사무총장 윤기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양정동) 불교회관 3층
전화 051) 753-9907
홈페이지 http://www.bswia.org/

화합과 번영의 21세기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가
수행과 정진에 앞장서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신도회

BBS부산불교방송 북항신사옥 건립 원만 성취와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를 200만 부산불자가 기원합니다

명예회장 이윤희
회 장 박대성

외 회원 일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 (양정동) 불교회관 401호
TEL 051)861-8800
FAX 051)867-0504

사상구불교연합회

고 문 청강(옥천사). 혜지(낙은사). 경호(법성사). 성비(영수사)
직전회장 유정(운수사)
회 장 성문(선관사)
수석부회장 성림(관음사)
부 회 장 지관(약수암). 대둔(용운사). 만용(성불사)
총무국장 법경(광명사)
포교국장 은적(관음사)
사회국장 향공(견강암)
감 사 진각(흥덕암). 혜산(봉덕사)

사상구불교연합회 회원일동

사상구불교연합신도회
이상갑 회장 외 회원일동

■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804번길 32-123 (선광사)
TEL 051)303-4848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산 선 암 사

주 지 원 범

원효신도회, 원효봉사단회
원효불교대학, 원효거사회
원효합창단, 원효청년회
원효다도회

사부대중일동

고품격 추모문화를 추구하는 선암사추모관
· 선암사 직영으로 신뢰 높은 운영관리
· 천년고찰 선암사와 영구히 존재
· 매월1회 발복과 극락왕생 기원합동천도재
· 설, 추석, 백중 합동제사
문의 및 접수처 ☎ 051)803-7576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산로 138 (부암동)
TEL 051)803-7573 / FAX 803-7521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대광명사

대광명불교대학
해운대백병원 불교법당

주 지 목 종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로데오아울렛 3층)
TEL 051)742-7610~7611
www.daekangmung.com



佛紀 2561年 丁酉年 | 전면광고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 A23

일체의 흙과 물은 다 나의 먼저 몸이요, 일체의 바람과 불은 다 나의 본체이거니
산 것을 풀어서 살려주라. 〈범망경〉

마음 편한 절
관음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용두산 미타선원

주 지 종호
사부대중 합장

"가장 행복한 공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행복공감 평생교육원



부산시 중구 광복로 77번길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 첫 번째 하차 점)
전화
051)253-8687~8
www.mitazen.net

연제구
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무관(금용암)

연제구불교사암연합회
회원일동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연제불교
부산의 행정중심구의 연제불교

■ 부산 연제구 성지곡로 111(거제동)
금용암
TEL 051)501-5300

동래구불교연합회

고 문 도문, 석봉
회 장 자관
직전회장 대원
수석부회장 법광
부 회 장 효문, 법관
감 사 혜민, 무상

총무국장 안국
포교국장 법천
교육국장 도화
사업국장 일공
재무국장 성화
총무부국장 도법

동래구불교연합회 회원 일동
동래구불교연합 신도회장
박종원외 회원일동

■ 부산 동래구 복천로 5번가길 46(자비암)
TEL 051)552-3320

부처님 빛이 온 누리에



불교전문 편집회사
대한기획

도서출판
불교서적 · 용품
부다가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40(양정동) 1 · 4F
대표전화 | 051)865-4383
E-mail | daehana@korea.com

금정구 불교연합회

고 문 경선(범어사)
계전(국청사)
월인(승가종 종정)
동원(연화종 종정)

회 장 고담(천불정사)
수석부회장 지홍(보광정사)
사무총장 동암(금용사)

기획국장 석산(안국선원)
사회국장 혜공(구룡암)
포교국장 현수(홍법사)
사업국장 명지(달오선원)

금정구불교연합회
회원사찰 주지 일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230-9 천불정사
TEL 051)583-9233

동래 읍성
마안산 자비암

주지 청암 자관

신도 일동

■ 부산 동래구 복천로 5번 가길 46
TEL 051)552-3320

대한불교진각종
부산교구청

교구청장 효원
종무국장 법연
신도회장 대원(문연주)
유가합창단장 대행화(정영희)

부산교구신도회
신교도 일동

■ 부산 동구 구청로 18-1
TEL 051)464-0668

해 남 사

사부대중 일동

■ 울산 중구 기상대길 13
TEL 052)244-9647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기도도량

운 수 사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219번길
173(모라동)
TEL 051) 313-3300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선찰

만 덕 사

(부산지방문화재3호 만덕사지)

주지 금산 박혜명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만덕로
63-13(만덕동)
TEL 051)334-3009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사

문수불교문화원

회주 법흥 주지 지원
신도회장 이금강심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336번길 41(용당동)
TEL 051)624-3754, 7848
FAX 051)623-9253

심신치유 MBSR명상교육도량

시 선 원

지도법사 우현 조원경

MBSR은 마음챙김 명상에 근거한 과학적인
스트레스 관리 행복명상 프로그램입니다.

■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308 11층
TEL 051)746-7611
cafe.daum.net/sisunwon

송광정사

주지 진각 (교육학박사)

서울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부산경상대학교 사회복지외래교수
부산경상대학교 사회복지동문회장

■ 부산 연제구 연수로222번길 15
TEL 051)867-8438

사단법인 향기로운 문화동행

문화사찰 청량사

주 지 보혜
회 장 이교탁 외

신도일동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임밖길 12
TEL 051)723-1851

언제나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봉사 일번지

사단법인 미소원

대중일동

현대북스

(편집, 디자인)

■ TEL 051)244-1251

부산불교거사림

회 장 공병수

임원 및 회원일동

• 법회안내 : 매월 둘째주 화요일,
마지막주 화요일 (월2회)
• 법회장소 : 연산동 부산불교신도회관
6층 (법계정사)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43 (연산5동)
TEL 051)442-1280

김해 바라밀선원

늘 깨어있는 도량

■ 경남 김해시 분성로3번길 235번지
TEL 055)327-2601

지장불교 근본도량 공덕원

주지 능후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69번길 8
TEL 051)625-3886

대한불교조계종

불 광 사

라오스 후원단체
'라오의 산들바람'
주지 보광
사부대중일동

■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천로 77번가길 72 (초읍동)
TEL 051)809-1420
FAX 051)819-1425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포교당

기장 동림사

청소년문화포교전문도량

주지 효산 성타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한국화 · 문인화 · 채색화 그림교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143-12
TEL 051)508-2917
H · P 010-6609-8011

명상 나에게 이르는 길

샐리 켐튼(명상 강사 · 저널리스트)

〈12〉 명상 후에 할 일

명상 통해 얻은 통찰 일상서 실천하자

우리는 보통 명상이 끝나고 나면, 잠시 동안 한 시간 정도의 명상을 정리하고 마음을 모으면서 생각을 가라앉힌다. 때로는 평화를, 때로는 지복을 느낀다. 또는 자신의 각성을 일상의 깨어 있는 상태로 되돌리기도 한다. 명상을 깊이 하고 나서 마음이 불안하거나 지나치게 민감하다면, 명상 상태에서 너무 빨리 나와 일상 의식으로 돌아갔기 때문일 것이다.

명상 후의 시간을 중요시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우리가 명상의 결과를 잘 갈무리하고 내면의 고요를 일상 속에서도 이어가는 법을 터득하는 때가 바로 명상이 끝난 직후의 짧은 시간 동안이기 때문이다.

명상 중에 경험하는 체험은 모두 지나간다. 그것이 달콤하든 고통스럽든, 기분을 살리든 꺾든, 왔다가 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을 통해 '하나의 경험이 오면, 이를 누릴 줄도 알아야 하고 놓을 줄도 알아야 함'을 배우게 된다. 명상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루 종일 명상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다. 명상 상태와 평상시 의식의 상태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명상 중에 일어난 일은 잊어버리더라도, 내면으로 들어가 있던 동안 진행되는 명상은 일상에서도 밑바닥에 흐르며 의식의 연금술을 행한다.

깨달은 존재는 일상생활에서도 내면의 체험을 이어갈 줄 안다. 여기에 깨달은 존재와 일반 수행자와의 차이가 있다. 영성을 추구하는 삶에서 내면의 세계와 외면의 세계를 융합하는 능력은 대단한 경지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면세계와 외면세계를 융합할 것인가? 첫째, 명상일지를 기록해 의도적으로 명상 체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둘째, 지난 명상 체험을 다음 명상에 이어가거나, 아니면 명상과 명상 사이에서 바로 앞 명상의 체험을 되새기고 심화할 필요가 있다.



명상 직후에 묵상하기

카슈미르 시바파의 경전인 〈프라티아비기아 흐리다얌〉에는 명상 직후의 시간에 명상의 체험을 음미하고 반추하는 법이 나온다. 명상 시간에 쌓았던 기운을 음미하면 기운은 하나로 통합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명상을 마무리하는 방법이다.

먼저 명상을 하기 전에 스톱워치를 맞춰서 명상이 끝나기 10분 전에 울리도록 한다. 스톱워치가 울리면 몇 분 동안 조용히 그대로 앉아 있거나 팔과 다리를 자연스럽게 벌린 채로 편안하게 눕는다. 이 시간이 자신의 체험을 다시 기억해내기에 좋다.

지금 이 순간, 느낌이 어떠한지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본다. 가슴에서는 무엇이 느껴지는가? 몸에서 특별히 느껴지는 감각이 있는가? 마음속에 무엇이 보이는가? 당신의 기운은 어떠한가? 몸은 긴장을 풀고 있는가? 생기가 넘치는가? 졸리는가? 이 모두를 하나하나 느껴보라. 명상을 하던 시간으로 되돌아가보라. 그때의 특징, 기분, 결을 떠올려보고 특별했던 부분을 살펴보거나 명상의 순서를 되짚어보라.

그러고는 각성의 빛으로 명상 직후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각성의 빛으로 품에 안는다. 이제 편하게 일상의 의식 상태로 되돌아오면서 명상의 느낌을 각성해본다.

처음에는 몇 분 동안 각성을 유지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수련을 하다 보면 완전히 일상의 의식으로 되돌아가도 명상 후 각성이 지속되는 시간이 늘어난다. 명상 상태의 사진이 당신 안에 있다. 그 사진을 새롭게 찍을 때마다 사진의 모습은 더욱더 선명해진다. 명상 체험을 거듭해서 반추하다 보면 그 체험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체험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체험 기록하기

명상 직후의 시간이 명상일지를 기록하는 데 가장 좋은 때다. 명상을 하고 나서 눈을 뜨자마자 명상 체험을 떠올리며 기록하면 명상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느낌을 생생하게 글로 옮길 수 있다. 명상 체험은 대단히 정묘한 데가 있어서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눈을 뜨기도 전에 사라진다. 하지만 정묘한 깨달음들을 잘 붙들고 있다면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몇 달이나 몇 년 후에 다시 명상일지를 읽어보면 그 기록이 우리를 다시 경험의 세계로 돌아가게 하는 보물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명상 체험을 기록할 때 관건은 매우 정묘한 부분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언어를 찾는 것이다.

명상서 느끼는 환희심과
현실 속 고통의 괴리감에
입문자들은 아쉬움 호소
체험 기억하는 습관 필요

명상은 언어가 도달하지 못하는 신비의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을 표현하는 데 환상이나 소리, 정신의 현현 등의 말이 자주 등장한다. 모든 것을 통섭해서 사랑으로 넘치는 현존이나 각성의 장막을 넘어 앞으로 전진하는 느낌이나, 위축되고 답답한 상태에서 밝고 맑은 상태로 승화하는 상태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내면에 나타난 반짝이는 별을 설명하는 것이 훨씬 쉬울 수밖에 없다. 기운의 변화와 미묘한 느낌을 표현할 길이 없을 때도 있다. '감미로움' '내면의 꿀단지' '깊은 공간' '지복' 등 지나치게 자주 등장하는 한정된 단어로만 표현하고 싶지 않다면 내면의 체험을 새롭게 표현하는 방식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영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언어를 찾는 노력은 우리 마음을 체험에 붙박아 놓기 때문에 대단히 소중하다.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지만, 언어로 분명하게 표현한 내용은 현실이 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당신이 쓰는 언어가 아름다운지, 다른 이들에게 의미가 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명상 일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록하는 게 아니다.

나는 명상 상태를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명상 상태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기억하고 기록하기를 좋아한다. 만트라를 염송했는가? 호흡을 지켜보고 있었던가? 상황 전환을 일으키는 기법을 생각했는가? 아니면 그것은 순수한 은총이었는가? 아무 일도 없었는가? '아무 일도 없는' 느낌은 어땠는가? 한순간만이라도 생각과 분리되었는가? 생각과 생각 사이에 틈새를 알아차렸는가? 기운의 변화를 느꼈는가? 통찰이 떠오르거나 위안의 느낌을 받았는가? 떠나지 않는 걱정이나 불안에 민감하게 반응했는가? 나의 각성이 날카로워지거나 밝아진 순간이 있었는가? 이들 모두는 기록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일단 명상 체험을 기록해 놓으면 묵상을 하거나 더 깊은 체험으로 들어가는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내 명상일지를 보면, 당시의 체험들은 대단히 미묘한 데가 있지만 묵상할 수 있는 요소가 적지 않았다. 또 그런 체험 속에서 자아에 대한 시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깨달음이 올라왔다.

자신의 정묘한 세계-실제 감정도 하나의 기운이라거나, 생각의 이면에 있는 공간이 '참나'라거나, 숨 쉬는 자는 당신이 아니라 우주라고 느끼는-를 깨달으면 작은 '나'에 대한 집착을 놓기가 쉬워진다. 명상을 하는 중에 작은 깨달음이나 통찰이 올 때마다 의식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간다. 기억이 그곳에 있다. 그것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기억이다. 그 기억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의식을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명상 체험은 다음 명상수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명상의 길 따라가기

명상과 요가의 훌륭한 기법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이 자연스럽게 얻은 체험에서 비롯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수행자가 내면에서 올라오는 가르침을 듣거나 통찰했을 것이다. "나는 누구인지 자문하라." "호흡의 흐름을 따라가라." 혹은 내면의 소리나 환상이 저절로 올라와서 수행자를 깊은 경지로 인도했을 것이다. 나중에 그 수행자는 이전에 경험했던 명상의 길을 이번에는 혼자서 되짚어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닦인 수행의 길이 여러 수행계의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성자나 스승이 되어야만 자신의 경험이나 기법을 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날 명상 중에 당신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는데, 그때 의식이 레이저 광선처럼 머리 중앙의 한 점에 모인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다음 명상 시간에 머리 중앙에 의식을 모으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을 지켜보는 수련을 할 수 있다.

또는 '위대한 힘이 나를 호흡하는' 체험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다른 명상 시간에 그 통찰이 떠올라서 '위대한 힘이 나를 호흡하는' 수련을 본격적으로 한다. 자신의 호흡을 알아차리며 위대한 힘이 자신을 호흡하는 느낌을 떠올려본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위대한 힘의 현존을 느껴본다. 위대한 힘의 현존을 기억하고 거기에 파장을 맞춘다. 거기에 마음의 문을 연다. 그 속으로 들어간다. 그 안을 탐색해본다. 한 명상가는 어느 날 명상을 하다가 우주의 모든 힘이 자신의 호흡과 함께 들고나는 체험을 했다고 한다. 내 경우를 예로 들면, '신이 나를 호흡한다'는 다라나를 몇 년 동안 수련하다가 어느 날은 정말로 명상 중에 그 체험을 할 수 있었다.

각각의 명상 체험은 새로운 명상의 길을 인도한다. 삶에 생기가 없을 때, 자극이 필요할 때, 혹은 모험을 하고 싶을 때 명상일지를 넘겨보라.

명상에서 얻은 통찰을 계속 유지하는 수련을 하면 일상의 깨어 있는 시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미 눈치 챘을 것이다. 합일, 깨어있음, 내면에 현존하고 있음이 당신의 각성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떠오르고, 분노나 슬픔을 치유하고, 분리감이 들 때나 마음이 산만할 때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그때 비로소 내면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도 진정으로 변할 것이다. 그때 명상가들은 명상에서 배운 기술을 다른 데에도 응용할 수 있음을 자각하기 시작한다. 말하자면 정좌 명상에서 배운 것을 실제로 현실 생활에 실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글은 〈명상 나에게 이르는 길〉(한문화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원융불교복지승가회

봉 축

회 장 도현
부회장 효진, 도언
감 사 동호, 원담

사무총장 원표 사무처장 경덕

고문 : 화엄 원로위원 : 원덕 자문위원 : 보문


회장 도현

거송스님 : 사)해동 호국 조계종 총무원장(용주사)
경덕스님 : 사)대한불교 총화종 대해사 주지
대범스님 : 사)위양 조계종 교육위원장(현성사)
도명스님 : 사)삼보 조계종 사업 본부장(청학정사)
도언스님 : 사)법왕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약천사)
도현스님 : 사)한국불교 현조계종 총무원장(보현사)
동원스님 : 사)한국불교 달마조동종 총무원장(각명사)
동월스님 : 사)대한불교 보문조계종 총무원장(백화사)
동호스님 : 사)대한불교 육조 조계종 총무원장(성덕사)
명성스님 : 사)불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상원사)
법륜스님 : 사)한국불교 법륜조계종 총무원장(해광사)
법성스님 : 사)전국불교 법성종 총무원장(법성사)
법원스님 : 사)대한불교 연화조계종 창종주(도솔사)
보문스님 : 사)한국불교 법왕종 총무원장(원월암)
성수스님 : 사)대한불교 현 조계종 포교원장(반야암)
성종스님 : 사)대한불교 현 조계종 총무원장(용문사)
영봉스님 : 사)대한불교 조동종 청광사주지
원담스님 : 사)세계불교 일화종 주지(서산사)
원덕스님 : 사)호국선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연주사)
월성스님 : 사)대한불교 반야수교원 이사장(천불사)
일웅스님 : 사)대한불교 전법조계종 총무원장(청룡사)
자승스님 : 사)대한불교 자황종 총무원장(자황사)
정일스님 : 사)대한불교 선교종 자광사주지
철암스님 : 사)한국불교 명예의전당 이사장
화암스님 : 사)대한불교 선교종이사장(화엄정사)
효진스님 : 사)호국불교 선미륵종 종정(선암사)
[가나다순]

※ 원융불교복지승가회와 뜻을 함께하실 회원스님을 모십니다.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11길 30-3 | ● 사무총장 원표 010-7771-2577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어리석은 사람은 한평생 어진 사람을 가까이 섬겨도 숟갈이 국맛을 모르듯 참다운 법을 알지 못하고, 슬기로운 사람은 잠깐동안 어진 사람을 가까이 섬겨도 혀가 국맛을 알 듯 곧 참다운 법을 안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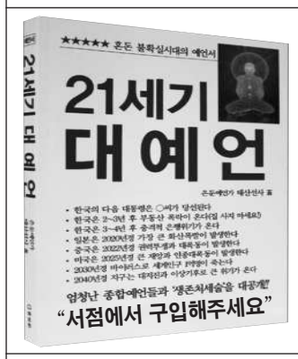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허리선생 혜경」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역학 · 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저렴한 천도재로 영가가 천도되게 맞춤 천도 합니다
천도재·49재·점안식
이 인연으로 극락왕생 하소서
010-2168-2800
011-850-0176



法帥寺 양산 통도사 부근
스님의 혜안으로 살피는 현재, 미래의 알고자 하는 일과 미래의 새로운 길, 시험, 진학, 합격운을 알고자 하시는 분, 원인 모를 병고, 귀신병, 빙의로 고생하시근 분 퇴마, 퇴치, 매매, 묘탈, 결혼, 이사, 하시는 사업 영업이 잘 되지 않는 분, 현재 겪고 있는 불행한 일 사고, 재앙을 천도제로 막아 줍니다.
055-382-2108

관 상 (손금)
– 스님 특별 비법 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묘터,질병,재판,이혼수를 얼굴만 봐도 알수 있다
– 일반인,무속인,철학원,스님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역학, 구궁, 오행,
당사주, 신살
배워서 상담하실
분들 전화주세요
010-4234-2536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후천 극락승천 성불시대 왔다
도통 문 열려 천지인합일
세상 완성. 무극천기와
佛수기 전수받아 도통,
불(미륵불)대신통 道완성 성불함
17개 시.도 지부개설가능자 환영
일월천불도선원
063-352-2888
010-4775-8960

범음범패 교육
스님, 일반, 남·여수시모집
바라, 나비춤, 사물 다루기,
살풀이, 극락무, 천도재,
49재, 점안식, 사찰행사
010-3653-5151
010-5598-5078
무상 합장

불교 범음범패 학인모집
염불, 사물, 천수바라,
나비무, 법고, 양고장 및
송주, 정근북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구, 용회사)
010-7579-8200
금륜사 주지 법현 도광

늦깍이로 스님 되실 분
경북 문경에 위치한 사찰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시봉하며 공부도 하고 스님이 되고자 하시는 분 연락주세요.
010-8819-8988

비구, 비구니 부전
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운전경험 有)
010-9421-073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경주)
010-4749-6577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원)
010-3618-6061

스님이 안계신
어려운 절에서
무보시로 무료봉사
하기를 원합니다
(60대 비구승)
010-4882-3838

기도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010-3840-435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파주)
010-5257-7750

부전스님
모십니다
학인 또는 염불 못해도
상관 없음
(서울)
010-9087-6287

문두루 기도비법?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27년 전통의 길상불교예술원
(탱화, 단청, 불상 갤러리 운영 전문)
불교미술을 배워서 전문적으로 불교예술원을 기획, 운영하실 인연을 기다립니다.
경북 경주시 보문로 402-31
(붓다의허브정원 : 탱화 불상 갤러리박물관)
010-5595-8533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전통 구들 무료 교육
본 연구원에서는 각 종단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전통 구들 교육을 무료로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지도강사 : 구들 치수화를 발표한 구들장인 관요 **문재남** 원장
■ 참가대상 : 전통구들에 관심이 있는 스님
■ 참가인원 : 선착순 30분
■ 교육방법 : 이론 및 실기
■ 신청기간 : 2017년 5월 13일까지
■ 일 시 : 2017년 5월 18~19일 (음력 4월 23~24일)
목, 금 – 1박 2일 10시 부터 ~ 17시 까지
■ 장 소 : 경남 양산시 명동 1003번지
(양산시 덕명로 319-15)
■ 주 관 : 나무와 흙 건축시공학원
■ 준 비 물 : 간편복, 필기도구. 세면도구
■ 주 최 : 나무와 흙 총동문회
■ 후 원 : 한국대승불교조계종
■ 숙 식 : 개별 부담
■ 연 락 처 : ☎ 055-366-2006
다음카페 cafe.daum.net/woodnsoil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이름으로 운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 오늘운, 금년운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배울 분 모집 010-5792-0199
한국명품이름연구원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大醫王 부처님의 기도치료법을 널리 펴고 싶습니다



총 782P 두권 구입 값 43,6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 인류최초로 기도치료법을 가르쳐 주신분은 부처님이십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포교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협(정보석)

불기 2561 (2017)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같이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대한불교 승가회

총재 무공
회원일동

■ 주 소 : 경남 사천시 곤명면 경서대로 2821-46길 신해사
■ 전 화 : 055)855-1772

신해사 말사 금천암
주 지 도현 합장

창원시 무료급식(점심) 단체 지정사찰

사단법인 **樹山慈悲禪院**

이 사 장 法 相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50번길 5-4
전화 : 055)277-7626, 011-558-7626, 010-6586-3088
팩스 : 055-277-9101 / 이메일 jebs0314@hanmail.net

하나는 여럿을 위하여!
여럿은 하나를 위하여!
의료생협 **자비요양병원**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7번길 6
전화 : 055)288-6300
팩스 : 055)265-0051

요양급여 1.2.3등급 수용
복지시설 (중풍,치매,노인성질환)
사단법인 **자비마을**
(보건복지부 인가시설)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50번길 5-4
전화 : 055)237-4564
팩스 : 055)237-4563

행복의 등불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명곡한의원**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4번길 20
전화 : 055)288-6500
055)237-7589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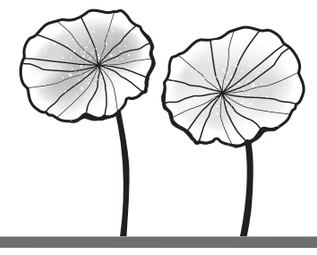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탐욕에 비유될 만큼 격렬한 불길은 없으며 분노에 비견할 만큼 강한 악력(握力)은 없으며 어리석음에 견줄 만큼 촘촘한 그물은 없으며 애욕보다 더 빠른 물결은 없다.

- 법구경 -



인천시 추천 사찰 안내

- 토지 182㎡(약 55평) 2층 건물
- 2층 법당 1층 요사채 마당
- 지하철 인근 주차가능
- 양도가액 : 4억(조정불가)
- 서울&경기 지역 매물 접수처(H.P 010-3426-9393, 카카오톡: hyeonjong01)

서울. 경기 사찰 & 포교원 매매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44 101호 / www.010-3426-9393.com

010-3426-9393 / 02-449-0284

논산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법당.공양간.산신각
- 토지 40㎡
- 마을에위치 교통편리. 남향이며아늑한 암자
- 양도가액 : 1억 3천만원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 분석과 입지 분석
- 계약 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 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 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 위치 : 서울
◎ 부지 : 1100평 ◎ 면적 : 200평
◎ 법당 : 40평 ◎ 법당 : 50평
◎ 요사 : 80평 ◎ 요사 : 2동
◎ 양도가 : 6억5천 ◎ 양도가 : 25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내 돗대산 기도사찰
- 토지 : 270여평, 종각, 요사채 30평
- 법당 23평, 주지실, 산신각, 용왕당
  ※ 국제의료관광특구지정
- 사찰주변 1,500세대 아파트
- 최근 2,000세대 아파트 추가분양
- 양도 : 10억 8천만원

직통 010-9906-3631 혜관

사찰(급)안내

- 충주 부근 목조 사찰 양도
- 토지2,500㎡,목조법당.황토요사.목조산신각등
- 면소재지. 50년된 안정된 사찰
- 위치좋음. 조용한사찰
- 가액 : 4억2천만원(현금2억구입)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 해도동
- 약 40평, 삼존불, 후불탱화, 소불
- 인등, 연등, 집기일체,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공양간, 방1개
- 명리, 철학 호조건, 본절 소임 관계로 양도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2077-4293

전망좋은 암자 안내 및 세 놓습니다

- 위치 :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연명
- 삼존불 각단탱화, 스님방사, 산신각
- 가액 : 1억 전세 1,000만원 월 30만원 전세 500만원 월 40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643-5235
010-7475-0474

인천시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시 서구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위치
- 3층 / 3층 283㎡ (약 86평)
- 상담실 법당 주방 공양간 등
- 가액 : 보 1000만, 월 70만원 시설비 4000만원

010-3426-9393(포교원전문)
02-449-0284

삼 보 사 찰 안 내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 위치 : 사하구 / 위치 : 서울 / 위치 : 김해
- 대지 : 750평 / 대지 : 120평 / 대지 : 2,000평
- 법당 : 50평 / 법당 : 25평 / 법당 : 30평
- 요사 : 3층 20평씩 / 요사 : 30평 / 요사 : 60평
- 양도액 : 25억 / 가액 : 12억 / 가액 : 25억

오랜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사찰,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은데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을 많이 주시면 빠른 시일에 성사 시키겠습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삼사순례지 소원성취하는 절

- 이름 : 당산목 : 영신목(靈神木)
- 나이 : 일천삼백살(1,300세) • 무게 : 칠톤(7천 kg)
- 고향 : 전북남원 지리산

※ 소원을 들어주는 신령하고 영험한 영신목
"소원을 이루는 절" 용두산 위 불 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탑동길 92-45

종무소 : 055)224-0023
주지승 : 010-4547-0023

지리산 암자 안내

- 위치 : 경남 함양 마천(지리산)
- 대지 510㎡ 법당 약10평정도
- 건물앞 바로 계곡 공기 물 산세 최고 2층에 앉아 흐르는 물 바라보면 지상낙원임
- 기도도량으로 보살님 법사님 환영
- 둘레길에 위치하며 등산객 많음
- 버스종점 위치 좋음
- 가액 : 2억 3천만원

010-3283-7733

토 굴 안 내

- 위치 : 원주시 부론면 소재
- 여주IC, 문막IC에서15분거리
- 대지180평,전75평,건평30평
- 난방 : 심야보일러
- 대문까지 포장도로,주차장시설
- 스님 토굴용으로 최적
- 가액 : 1억 6천만원

010-7345-1674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노원구 상계동 4호선 당고개역 1분거리
- 지하1층, 지상1층 다락 지상 49.26㎡, 지하 24.03㎡ 마당 있습니다.
- 상계 제2구역 재개발구역
- 종교부지
- 가액 : 5억 5천만원

010-3763-28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 (댐 부근)
- 총 730평, 법당 50평 중 방2, 화장실1, 주방1, 요사채 방사4개, 부엌1,화장실2, 욕실1
- 산신각, 용왕당, 독성각, 할매당 각1
- Y자형 계곡, 사시사철 계곡물 철철, 계곡에 가재, 갈겨니(피라미), 다슬기 바글바글
- 앞뒤 산에 송이 버섯 다수, 법당은 동향 요사채는 정남향
- 서출 동향수 완벽, 대형버스 진입
- 종찰로 들어가야할 입장이기에 부득이 안내 합니다
- 가액 : 3억 5천만원 (절충사절)

010-4466-3575 (주인 직)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소재
- 부지 : 60평
- 법당 : 35평, 청기와 단청(2층)
- 요사채:35평(1층)
- 가액 : 3억 3천만원
- 특징 : 도심 번화가에 위치한 신도구성이 잘된 포교도량입니다
- 위치 : 경북 영천시 소재 (갓바위 인근)
- 부지: 500평(종교용지)
- 법당: 40평, 청기와, 단청(2층)
- 요사채:2동 60평
- 가액 : 4억 7천만원
- 특징 : 도심 인근에 위치한 기도정진할 도량입니다.

동진사찰공인중개사 서울) 010-5848-0455
대구) 010-4942-0455 / 제주) 010-5122-8080

*전국소재 사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서동 시장인접
- 2층건물중 2층 (옥상사용),35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는 상담후 결정

010-4879-3858

사찰안내(토굴)

- 위치 : 경북 구미 시내
- 대지75평, 요사채, 법당 40평
- 방3,주방,욕실,화장실2, 창고1, 총평수 248㎡(75), 대문2
- 현재 8년 운영중 스님이 대불사를 하였음
- 스님, 보살, 법사가능
- 가액 : 보증금 100만원,월35만원 시설비 600만원

010-2499-3001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읍에서 사오분거리
- 부득이한 사정으로
- 사찰도량 총 1,420평, 목조 법당20평, 관음전 종각 요사채
- 방10개, 공양간, 창고, 외부 화장실 등등 대형 주차장 등
- 대출 7,500안고 2억 3천 5백원

010-4628-56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북천
- 총부지 : 임야 2,000평
- 건물 : 법당 16평, 요사 30평, 조립판넬구조
- 자연경관 수려하고 공기좋고! 이명산, 지방문화제 마애불있고 북천 코스모스축제 하는 곳
- 가액 : 2억 1,000천 대출 7,500백 안고 1억 3,500백

010-7188-7723

암자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지리산하
- 법당, 산신각, 용궁전, 요사채
- 사용도지세 1년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9036-21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 종교부지, 임야, 대지 약 5,700평
- 대웅전, 약사전, 삼성각, 노천불
- 요사채 및 황토 찜질방
- 가액 : 12억(아주 싼가격 급 양도)

010-3470-9738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산세 좋고 물 좋은 조용한 사찰기도하기 좋은 사찰
- 주변 사용 가능한 국유지 많음
- 대웅전, 산신각, 기와단청, 요사채2동
- 면적 34,000㎡, 건물 약 170㎡
- 가액: 6억 5천만

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박춘식)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연산동)

010-5346-4138
051-861-2233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남 보령시 동대동
- 연 450만원,

보증금 500만원

- 신축건물 2층

트인 전망

010-5438-0138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 정선읍 사찰
- 부지 약 1,700평

대웅전1, 삼성각1, 부처님 진신사리 있음

- 대형돌탑 높이 9m30, 둘레 10m3, 108돌탑, 요사채2, 정자각1, 심야전기 보일러, 태양광열설치, 대형주차장완비
- 집기일체 법회 바로 가능
- 읍내거리 10분
- 가액: 17억

033-562-0448

암 자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 송지면 소재
- 대지 110평(바닷가 접)
- 법당, 해수관음, 5층석탑, 용왕단
- 즉시법회 가능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7,000만(답사후 절충)

061)337-3357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산밑에 예쁘게 단청이된 사찰안내

- 위치 : 경상남도 창녕
- 토지 : 약 530평
- 건물 : 법당1동, 칠성각1동, 산신각 1동, 요사채, 약 40평 1동
- 가액 : 2억 8천 5백만원 (조정가능)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삼안동 삼안공원 앞
- 3층 건물중 1층 33평
- 삼존불, 후불탱화 , 신중탱화, 방, 도시가스, 냉장고, 냉 · 난방에어콘
- 주위 환경 좋음
- 시설 집기 일체700만원
- 가액: 보1500만원 월4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10-8352-4111

법인설립허가번호 : 제 2012-43호

불기 2561 (2017) 부처님오신날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특허청 업무표장특허등록 제 42-0005657호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 비상종단개혁회의는 지난 3월 한국불교조계종 종단 통일가사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비상종단개혁회의장 겸 총무원장 장 운 운 산

비상종단개혁회의 전국최고위원회 위원장

녹원, 무산, 월성, 락현, 덕산, 각원, 만해, 초연, 혜산,
법경, 무봉, 부자, 천무, 진여, 보성

사무총장 도광 / 사무국장 무진 / 총무원중앙법사단장 청산

공고

본 종단은 종단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종단의제 통일가사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종단의 정체성과 조직체계 개혁 수행을 결합한 종단운영을 새롭게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본 종단은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낡은 체계를 청산하고 미래의 새로운 이상향의 패러다임을 창출하기 위해 이미 2016년 총무원에 비상종단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수행종단의 종풍을 진작시키고 수행과 장애복지,의료재단,사회복지가 이웃과 함께하는 본 종단에 많은 성원과 수희동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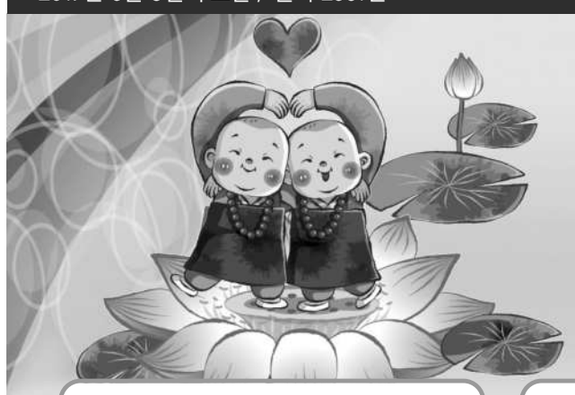
2017년 부처님오신날

※ 사회복지, 장애복지, 의료재단의 생활화 구현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02)720-8270 FAX 02)720-8271 http://jogyejong.or.kr / E-mail:jonggyo119@hanmail.net

총본산 :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본산 (천년고찰 수암사)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145길 95



佛紀 2561年 丁酉年 | 전면광고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 A27

몸을 절제하고 말을 삼가하고 그 마음을 거두고 성냄을 버려라.
도의 길을 가는데에는 인욕이 가장 으뜸이니라. 〈법구경〉

대한불교조동종 부종정 주석사찰

영악산 연화정사

회주 덕준 원봉
주지 자인

신도일동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로 14번길 157
TEL 031-643-6441
010-3370-6441

대한불교조동종 종회의장 주석사찰

왕방산 금불사

주지 행허 보경

신도일동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왕방로 271-18
TEL 031-544-1195
010-6712-8485

대한불교 조동종 문화원장 주석사찰

금산 미륵암

주지 청운

신도일동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TEL 055-867-0776

대한불교 조동종

두리봉 행운사

회주 덕룡 법공

주지 행천 수임

총무 지현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정지골길 15
TEL 회주 010-3781-0218
주지 010-9189-3346
총무 010-3055-0218

대한불교 조동종 경남교구원장 주석사찰

자 비 암

주 지 청 정
신도회장 김정순
총 무 김경주
관음회장 박춘옥
부 회 장 주숙자
관음회장 최진욱
홍보부장 김상곤
사 무 장 정 욱
재 무 박정은
봉사회장 최정달
총 무 이두남

신도일동

■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성호남1길 22
TEL 055-241-1176
010-8522-3037

(사)한국불교선화불교종

성 원 사

주지 혜정

신도일동

■ 충북 영동군 용산면 율리 2길 2-17
TEL 043-742-7098

대한불교 승가무량회

회장 도암
총무 성군

승가회 종도일동

대한불교승가무량회 총무원

■ 전북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 19-18
TEL 회장 010-8505-9512
총무 010-5061-8300

한국불교 법륜조계종

총무원장 삼화당 법륜

해광사
주지 혜선

종도일동 신도일동

한국불교법륜조계종 총본산

■ 충남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 47번지
TEL 041)841-8480
010-4022-8471

대한불교조동종 감찰원장 주석사찰

봉제산 우암사

주지 행성 덕성

신도일동

■ 서울시 강서구 초록마을 3길 14
TEL 02-2698-6100

대한불교조동종 종회의장 주석사찰

약수산 명덕사

주지 행봉 해륜

신도일동

■ 강원도 홍천군 남면 명동길 35번길 120
TEL 033-432-7345

대한불교조동종 충북교구원장 주석사찰

대산 금어사

주지 도선

신도일동

■ 충북 괴산군 청정면 도경로 좌솔길 173-57
TEL 043-833-0069, 010-2081-1566

한국불교 태고종

팔봉산 하남사

주지 성각
원주 법연

신도일동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신기궁항길 88-14
TEL 055)884-4642, 884-4686
주지 010-3571-6300/원주 010-4538-0716

삼화불교 조계종

봉래산 영선사

회주 정오
주지 홍산
총무 혜언

신도일동

■ 부산시 영도구 영서4가 산 32번지
TEL 051)416-8502
회주 010-3871-5330
주지 010-3867-5330

대한불교조계종 죽림정사 제주분원

대 원 암

주지 법산

신도일동

■ 제주시 월대 5길 23
TEL 010-3781-9979

대한불교 조동종

보 리 사

주지 덕찬 지명

신도일동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473번길 54
TEL 031-829-4882

대한불교 조동종

대 성 사

주지 도혜

신도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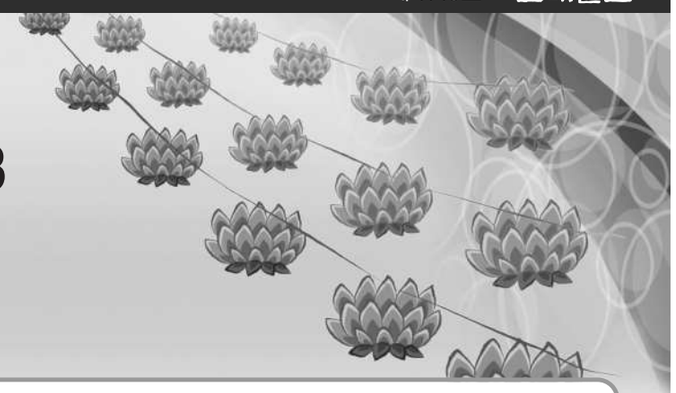
■ 강원도 영월군 남면 영월로 184-50
TEL 033-372-4544, 010-3023-6177



佛紀 2561年 丁酉年 | 전면광고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 A28

남으로부터 과분한 이익을 받게 되면 본래 깨끗했던 마음을 허물게 되나니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이익되는 일에 빠지지 마라. 〈증일아함경〉



봉 法 **대한불교 법성종** 축

종 정 철허 만원 (봉은정사)

총무원장 능허 혜운 (흥안사)
규정원장 조허 혜윤 (금강사)
교육원장 구법 보현 (보광사)
사서실장 백봉 성관 (대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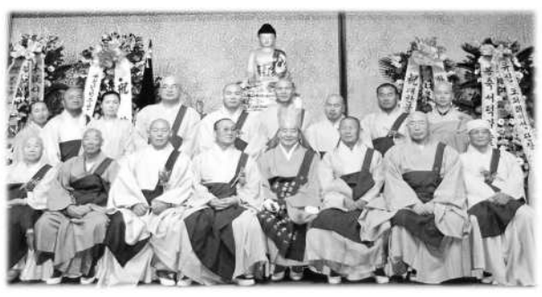
종회의장 일허 혜승 (선운사)
원로원장 설봉 성인 (대덕사)
포교원장 혜선 (효암사)



종 정 **철허 만원**



총무원장 능허 혜운



대한불교 법성종 총무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31길 5-44 | 전화 02)762-2459 | 팩스 02)742-2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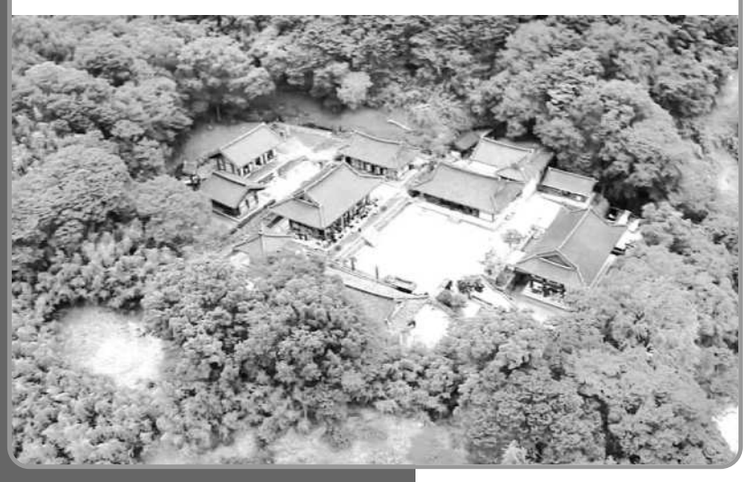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 무등산

證心寺

주 지 연광

사부대중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6번지
전화 062)226-0108 / 전송 062)222-5997
www.jeungsims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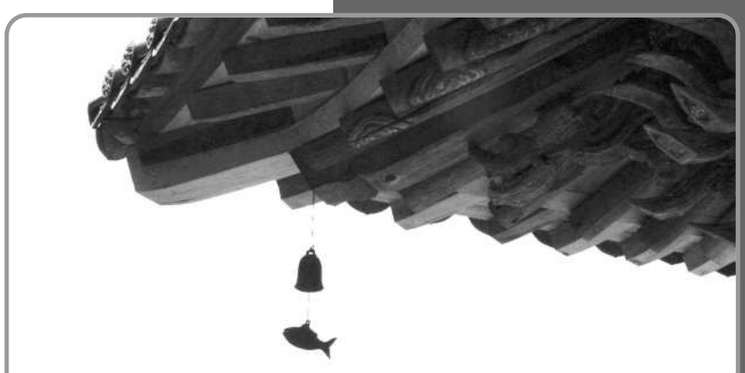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불 갑 사

주 지 만당

사부대중일동

■ 주소 : 전남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로 450
전화 : 061)352-8097



성각사(聖覺寺)

주 지 광운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772-3
전화 : 062-574-4348
팩스 : 062-573-4348

봉 축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한국불교선조계종

종 정 지선 대종사

명예종정 **혜원대종사**

부종정 법경
부종정 법정
부종정 월현
장로부원장 정광

장로원장 정인
종회의장 법륜
행정원장 정운
사정원장 지산
교육원장 도현
호법원장 황산
문화원장 혜관
포교원장 보덕
비구니원장 진언
비구니부원장 보월

총무원장 법성
총무부장 도원
재무부장 법일
문화부장 해운
규정부장 청담
사서실장 법안

사)한국불교선조계종 전종도 일동

■ 총본산 :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길9(팔달동) 성불사
전화 053)322-0567 / H·P 010-6537-0567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날

학교법인 광동학원

(광동고등학교, 의정부광동고등학교, 광동중학교)

이 사 장 황일면
교 장 이천기
교 장 양승순
교 장 김석희
법인사무국장 정용수
수석교법사 유동호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광동1길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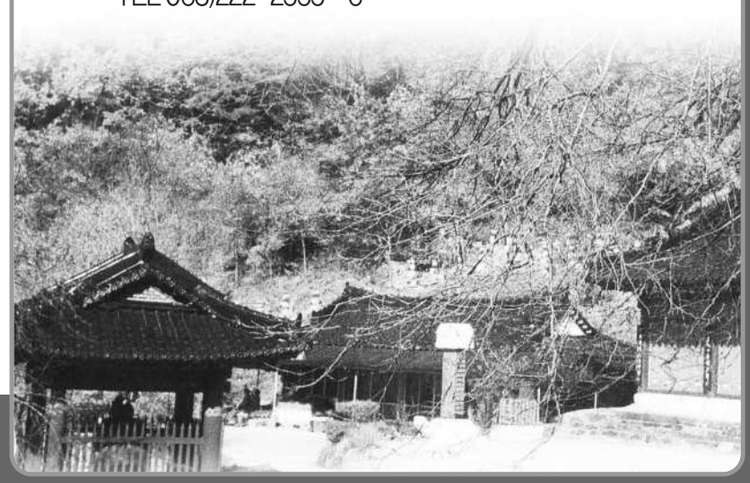
한국불교 화엄종
극 락 도 량

경각산 구이정각사

주 지 벽송

사부대중일동

■ 전북 완주군 구이면 불제로 824-35 (덕현리 산176)
TEL 063)222-2555~6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허공이 우주 전체가 인간의 근본 마음에 직결이 돼 있다


그림 · 최주현

이 자리에, 정기법회에 이렇게 앉게 된 것이 아주 먼 옛날 같습니다. 너무 철새처럼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아주 먼 옛날에 같이 앉았던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군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것은 첫째, 지난번에 알래스카로 해서 또 뉴욕으로 해서, 롱아일랜드로 해서 또 오하이오 주로 해서 또 산호세로 해서 L.A.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너무 다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서울엘 와도 내 둥지가 아니고 전체 어디든 가도 내 둥지가 아니더군요. 그런 반면에 여길 가도 내 둥지 저길 가도 내 둥지더군요, 또. 그러다 보니깐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한 비눗방울과 같이 그 방울이 한데 모여 떠다니다가 흩어지고, 흩어지다 깨지고, 깨지다 다시 모이는 것이 역력하게 보이는 듯했습니다.

반면에 때에 따라서는 보기가 너무 역겹고 가엾고, 그 뼈아프게 가슴에 흐르는 눈물은 한이 없었습니다. 또 한편 우주의 모든 인류가 찰나 생활로서 그렇게 즐거운 거 또 나쁜 거, 빠른 거 또 빠르지 않은 것에 아랑곳없이 찰나찰나 그냥 초를 다투며 돌아가더군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한국에 계신 여러분은 좀 더 여유 있게 이 공부를 자나 깨나 하시니 여러분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참 감사하구나! 모두들 정신력을 길러서 우리 조그마한 국토를 지키고 또 지구의 주인으로서 지구의 수명을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다 가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를 가서 보니까, 이번에도 합창단이 행사가 있어서 거기 가게 됩니다마는, 한국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허덕거리고 물질세계로만 치닫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무심(無心)으로써 정신적으로 해탈하는 데에 노력을 더 기울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뉴욕에 가니까 뉴욕은 뉴욕대로, 또 롱아일랜드에 가니 그곳은 그곳대로 지도법사를 모시고 폭력 문제나 또는 마약 중독자들이라든가 이런 미국 사람들에게 그 길을 인도하고 있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고 성과가 좋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감사했고요, 또 뉴욕의 신도님들이 이 공부를 하려고 너무나들 노력을 하시는 걸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하이오 주에 들렀는데, 그 주립대학에서 한 80명이 이 공부를 하고 있고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 과정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천주교나 기독교분들도 있고요. 또 부부들이 살기 때문에 부부가 다 한데 합치니까 아주 자리를 메웠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날이 법회 날이요 또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질문이 "부활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더군요. 그 질문 하나하나가 너무도 진지했습니다. 그때 대답한 거 한마디만 얘기하죠.

"부활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더군요. 그래서 "사람이 살기 이전부터 생명은 있었으니, 초초마다 부활절이 아니겠느냐." 그랬죠. "여러분이 생각을 일으키는 대로 부활절이지 딴 데 부활절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 오신 날도 항상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인등을 켜는 것이고 바로 부활절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겠느냐? 불교라는 것은 어느 종교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돌아가는 끝없는 진리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佛)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을 말하고, 교(敎)는 여러분이 좋은 말씀을 하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풀 한 포기도 불교 아닌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서 그분들이 박수들을 치고 이랬죠. 그러고 나서는 산호세로 갔습니다.

산호세에서 신도들하고 법회를 보고, 또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강당에 섰습니다. 그곳 법회에는 샌프란시스코의 경찰국장 또 한미 연합회에서도 나왔고 또 샌프란시스코의 그 종교 출판사의 뭡니까? 무슨 국장? 편집국장! 편집국장도 나왔더군요. 너무나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식으로 인사하는 것을 지켜보려니까 아, 몸을 붙들고 이리 뺨을 맞추고 저리 뺨을 맞추고 그러는데 '아휴 참, 인사도 참 가지각색으로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허허허. 사랑을 한다면 입을 맞추고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인사한다는 표현이 이렇게 거창할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그 강당을 주선한 분들을 비롯하여 목사 또 천주교의 신부님 또 그 교인들, 불교인들을 막론하고 거기 전부 운집을 했더군요. 신문사의 기자는 물론이고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생각이 나는 것은 글쎄,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국의 스님들은 왜 그렇게 싸움들을 잘하느냐고요. 허허허. 그거 질문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깐 말입니다, 아니, 그쪽에서는 왜 사람까지 죽이느냐고 하려다가, 허허허, 그것 역시 둘로 갈라지는 대답이기 때문에 대답은 안 했습니다. 단 이렇게 대답했죠. "화산이 왜 폭발하는 줄 아느냐? 돌과 돌이 한데 부딪치면 불이 번쩍 일어나듯이, 만약에 그 양쪽 돌이 부딪치지 않으면 불이 안 일어난다. 그런 반면에 화산이 폭발해서 얼마나 세계적으로 연구 자료가 됐고, 또 개발이 됐고,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 자료가 됐느냐. 연구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과학이 발전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송장이나 그렇지 어떻게 우리 산 사람들이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그것이 발전하는 거다. 우리 한국의 스님들은 서로 부딪치는 데에서 번쩍번쩍 불이 나는, 그 불 자체를 연구할 양으로 그렇게 한다. 허허허. 그러니깐 발전의 길이지 그건 싸우는 게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럭하고 보니까 참, 모두들 웃으면서,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려고 했는데 그걸로써 고만 그냥 합류화돼 버리고 말았죠. 서로들 얼굴들을 쳐다보고 웃고 즐기고 손바닥을 치고 야단들 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광경과 모두들 바쁘게 돌아치는 여러 한국분들을 보고 그럴 때, 그래도 여기가 여유가 있고 살기가 좋구나 하는 느낌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참, 자식과 부모 사이, 부부 사이 이런 것이 너무 각박하고 서로 얼굴을 대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할 그런 여유도 없는 속에서 그래도 잘 버티고 살아나간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 부인들이나 남편들은 얼마나 여유가 만만할까. 그런 데서도 이 공부를 못하신다면 정말이지 아마 억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래의 집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몸이 바로 여래의 집이며, 바로 거기가 부처님 계신 강당이며, 바로 그거를 이리로 옮기고 저리 옮기고, 변소에 가도 자기 집을 자기가 끌고 다니는 운전수이기 때문에 너무나 배울 점이 많지 않은가. 또 우리 생활이 마치 찰나찰나 프로펠러가 돌아가듯 그렇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딱 붙어서 물러서지 않아야지,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다가 떨어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눈 꽉 감고 그냥 너하고 순응해서 같이 돌아간다는 그런 믿음과 바로 거기다 일임하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 올바르게 항상 거기다가 입력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 또 중용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거기다 놓고 돌아간다면 바로 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하게…, 우리가 요 핵심만 말을 하죠. 아니, 얘기를 하다 딴 데로 샜네요.

아까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얘기 했죠? 거기서 이제 또 L.A.로 갔습니다. L.A.에 갔더니 청년회의 회장이 말하기를 "각 절에서 어떻게 스님이 비구니인데 '큰' 자가 들어가느냐." 하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럭하고 목을 조이고 들어오니까, "스님네들 머리 속에 시스템을 다시 해야만 되겠다."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러고선 '큰' 자를 크게 해서 붙였더군요. '환영'이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있으면서 가만히 낌새를 보니까, 각처의 절에 나가는 청년 불자들이 한데 모인 모임입디다. 모임인데 청년 불자들만 강당을 세우지 못해서 아주 애를 쓰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 A30면으로 계속

불기2561(2017)년 丁酉年 부처님오신날 모든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그득하시길 두손 모읍니다

봉

禪의 향기가 그득한 …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본찰
미륵산 용 화 사
종정 석 연화

부처님오신날 및 산사음악회
• 봉 축 행 사 : 오전10시 • 산사음악회 : 오후1시
– 우리것 보존협회 대북 기증식 기념 –
아리랑문화재단(총재 송해)소속 연예인 공연 / 불자 장기자랑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지차골길 30 (용암리)
• 전 화 : 033)761-7008, 766-2556
• FAX : 033)766-2557

중국 숭산 소림사 한국문화원
서울사무소 02)766-6800

창원 용 화 사
•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14 (봉곡동, 성우프라자 9층)
• 전 화 : 055)277-2270

(사)한국불교 종단 총연합 진흥회
이사장 석 연화

▪ 임 원 진
회 장 법붕 부 회 장 법성 부총재 고명, 법혜
원로원장 도선
원로위원 은곡, 효진, 원덕, 도현, 법원, 혜일, 경덕, 혜일, 해일, 소운, 혜상, 오연, 영암, 자운, 무영, 지성, 대경, 무각, 혜국, 해주, 해운, 혜광, 관연, 반야

▪ 참여종단
대한불교동산조계종 대한불교대각조계종 세계불교평화종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총화종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대한불교화엄조계종 대한호국불교조계종 대한불교연화조계종 해동호국불교조계종 대한불교연화종 대한불교법상종 한국불교정토종 한국불교화엄종 한국불교전법조계종 대한불교본조계종 대한불교삼보조계종 한국육조선원 호국불교선미륵종 대한불교삼승종 대한불교대승법상종 (사)대한불교원융종 (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사)한국불교현조계종 (사)대선불교연합조계종 (사)한국불교극락조계종 (무순)

▪ 참여단체
나라사랑국민연합 세계예술교류협회 한국민속예술연구원 전국의용소방연합회 한국사회체육진흥회 한국풍수지리학회 세계평화유지군월남참전유공자회 세계족심도협회 911재난방송 경기예봉국악단 (무순)

• 주 소 : 서울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501
• 전 화 : 02) 766-2556 / FAX : 033) 766-2557

축

세계불교 승왕청
세계승왕 석 연화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지차골길 30 (용암리)
• 전 화 : 02)766-2556
• FAX : 033)766-2557

세상살이 돌아가는 이 자체는 내 근본에 가설이 돼 있다

☞ A29면에서 계속

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무척 기대했답니다. '저 스님이 오시면은 강당 세울 뭐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기대요. 그것이 유리알처럼 환히 들여다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속으로만 웃으면서 '아, 저렇게라도 하려고 하는데 참 감사하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하루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 설법을 해야 하니까요. 하루 있는 동안에, 가는 날 거기 있는데 어느 사람이, "어머니가 지금 생명이 위태합니다." 사진을 가져와서 "이분입니다." 하고 울었습니다. 딸이 울 때에 그것이 남의 자식 같지도 않고, 그것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애들을 기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할 때 애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가엾은 생각이 드는 반면에, 나는 가슴에서 채 오기도 전에 "얘, 울기는 왜 울어?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 응. 이끌어 주는 내가 있잖아?" 우선 급하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닌데요.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말아요." 그럭하니깐 그 말에 안유가 됐는지 주소나 사진이나 이름을 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을 했죠. "부처님 법에는, 부처님의 그 마음 성품은 체가 없어서 오고 감이 없기 때문에 주소도 필요 없고, 사진도 필요 없고, 이름도 필요 없다. 만약에 이 자리에 네가 있고 내가 있다면 부처님의 골수에 그 무진, 무한의 능력으로써 바로 너의 어머니를 건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선 웃음도 안 나오는 걸 기생처럼 웃었죠. 왜 기생처럼 웃음 안 나오는 걸 웃었느냐 하면은 그 사람을 볼 때 얼굴은 핼쓱하고 너무 참혹했습니다. 어머니가 숨도 못 쉰다는 겁니다. 죽음 직전에 도달했으니깐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무슨 잘못되고 잘되고, 업이 있고, 인과가 있고, 뭐 너는 믿고 안 믿고, 모르고 알고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안 되겠구나. 무조건 주지 않는다면 이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요. 우리가 무조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무조건이 아니라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데가 어딨습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딨고 말이에요. 죄가 있다면 모르는 게 죄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무조건, 무조건이다. '무조건이다' 라는 그 한생각만 둥글게 가지고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서 그날을 지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렇게 오시는 분, 저렇게 오시는 분, 오시는 분들이 차례차례로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내놓고 간 돈과 내놓겠다고 적어 놓고 간 돈 이런 것이 저녁 나절에 보니깐 모두 한 3만 5천, 6천 불이 되더군요. 그래서 그걸 청년부 회장한테 전했습니다. 이것을 보태서 청년들 강당을 세우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요.

다 털고선 나오니깐 일 불도 남지 않더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기 (대중 가운데 한 사람을 가리키시며) 저 사람 L.A.서 삽니다, 지금 저 사람더러 "나 용돈 좀 줄 수 없나?" 이러니까 "있습니다." 그러고 2,400불을 주더군요. 2,000불만 달라는데 400불을 더 보태서 줬습니다. 그래서 사진 기사가 왔는데요, 거기는 여기처럼 그렇질 않아서 사진 기사가 아, 하나도 생기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리로 저리로 뛰어야만 되는 그런 이치가 너무도 애처로워서 그냥 누가 오란 말도 안 했는데 왔지만, 누가 달란 소리 없어도 용돈 쓰라고 줬죠. 참 바빠서 집안 식구들 다 보기도 어렵지만 오늘은 일찌감치 저녁에 먹을 걸 좀 사가지고 들어가서 식구들이 같이 오순도순 얘기도 하면서 음식을 좀 해 먹으라고 500불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깐 마음이 아주 개운하더군요. 그러면서 내 이렇게 말을 했죠. "나는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주기도 하고 그러지마는 내가 준 거는 하나도 없다. 나 괴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주고받고 이럴 것도 없고, 여러분이 나를 준 사이도 없고 내가 여러분을 준 사이도 없으니 그 도리를 알라." 하고요. 이러면서 그 이튿날 법회를 하러, 아니 그날 저녁인가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잘 잊어버리니까요.

그래서 법회를 하러 가니깐요, 아이, 청년부의 청년들이요, 그 덩치들도 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여기 한국처럼 거기는 플래카드를 어디다가 걸어 놓을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어서 이어서 서 가지고 그걸 쭉 붙인 겁니다. 아, 들어가다 보니까 이 배에다가 전부 해서 목에다 걸고 떡 그냥 섰습디다. 배에다가 간판을 모두 붙이고요. 허허허. 그러니 얼마나 우습습니까? 누가 하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으면 그냥 갈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 공부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지 않나 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아주 그 알 양으로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강당엘 들어가니까 아이, 이게 웬일입니까. 글쎄, 우리가 번역한 반야심경을 하지 않습니까? 모두들 그거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주 대단히 감개무량했어요. 반야심경에는 팔만대장경과 끝없는 진리가 포함돼서 들어 있는데 아, 그것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 사유(四無四有)의 그 돌아가는 불바퀴가 그대로 거기에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양으로 아주 그거를 천천히 읽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군요. 얼마나 감개무량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질문도 받고, 저는 뭔 질문을 받고 뭔 대답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끝났습니다. 지금 아마득합니다, 아주.

그렇게 끝이 나고 거기 L.A.에서 안양으로 바로 오다 보니까 아, 여기 한국에 도착했는데 글쎄, 그 생각이 왜 납니까? '아유, 한국을 가도 내 둥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둥지겠지. 여기 가나 저기 가나. 그 둥지도 역시 마찬가지지.' 하면서 그래도 한국의 둥지로 오니까, 아주 날아다니다시피 하고 그렇게 급하게 다니던 내가 가슴에선 아주 안도의 숨을 쉬는 그런 게 완연히 나타났습니다. '내 둥지 네 둥지 없다고 하면서도 여기서 난 게 내 고향이지 딴 데 있나.' 하면서 참,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핵심적인 문제…, 수박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죠. 수박 가장자리가 퍼렇고 허옇고, 속이 뻘건 거를 말할 게 아니라, 핵심적인 그 안에 있는 것을 심어서 싹이 나게 해서 우리 스스로 자기 열매를 맺게 하고, 자기 나무에서 그 열매가 무르익게 하고 무르익으면 그 맛이 만 가지 맛이 나게 하고, 그 만 가지 맛이 나면 거기에서 그 씨의 그 밥이 아닐까요? 그러니 자기가 실험하고 자기가 체험해서 맛을 알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지마는 다시 한 번 거론할까 합니다. 문제는 핵심이 거기 있으니깐요.

항상 말했죠. 오신통 그것은 여러분의 시스템이 돼 있는 그런 기구와 같다고요. 영원한, 끝 간 데 없는, 자유스럽게 돌릴 수 있는 기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에 부르던 오신통이라는 이름은 한문을 잘 아는 분들이나 어른들이나 알지 지금 애들은 모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금 현대 용어로 붙인 겁니다. 즉 말하자면 누진통(漏盡通)은 레이더망으로 쳤고 또 숙명통(宿命通)은 그 자기가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지켜보는 그 둥우리의 컴퓨터로 쳤습니다. 가장자리에 이렇게 그 네 군데로 줄을 이어서 붙어 있는 것은 천이통(天耳通), 즉 말하자면은 무전통신기죠. 또 사진기는 천안통(天眼通)입니다. 천체망원경으로 비유했죠. 그거는 스스로 사진이 찍히고 스스로서 볼 수 있고, 스스로서 보는 것도 천차만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타심통(他心通)이라는 것은 탐지기인데 천차만별로 생각을, 마음을 조절하고 마음을 낼 수 있고, 또 마음 내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모두가 탐지기 하나면은 그 여러 가지 과목이 거기에서 다 나갈 수 있는 그런 탐지기죠. 그리고 신족통(神足通)이라는 것은 팩스로 이름을 붙였다면, 그것은 오고 감이 없이 턱턱 나옵니다. 지금 지원에도 다들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탁 넣기만 하면 여기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오고 감이 없이 그렇게 오고 가는데, 그거는 우리가 물질로서 그렇게 빠르게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는 체가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같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근본적으로 자기 한마음 주인공에 그 시스템이 돼 있고 또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고 광대무변하기도 하지마는 그것은 무한의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걸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정립을 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레이더망이 위에, 머리에 탁 있으면 이 중심, 기둥이 있다면, 그 아래로는 바로 그 기둥을 싸고 있는 컴퓨터가 붙어 있고 그 기둥을 싸고 있는 데에 또 붙어 있는 팩스 또 그 천체 무전통신기인 탐지기가 붙어 있고, 망원경이 붙어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같이 돌아가죠. 이 심봉, 기둥은 돌아가지 않지만 말이에요. 그건 능력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것이 어째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것은 사대(四大), 즉 지수화풍이 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수화풍이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는 모두가 지수화풍 아닌 게 없고, 여러분도 지수화풍으로써 사대가 뭉쳐진 거죠. 그럼으로써 거기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이차적으로 대두되고 있죠. 그게 있기 때문에 누진통까지 여섯 가지의 시스템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내면은, 즉 말하자면은 지배인이 말을 하면 직원들이 다 돌려서 재료를 자동적으로 내놓듯, 그렇게 그 시스템이 돼 있다 이겁니다.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반면에, 현실에서 이렇게 찰나찰나 닥치는 고통과 고난과 그 괴로움, 병고, 액난, 그 애고(哀苦) 등의 문제들은 어디서 그렇게 나오느냐는 얘깁니다. 한편 숙명통(宿命通)이라는 컴퓨터는 과거에 살던 일생뿐만 아니라, 전체에 살던 자기가 한 것대로 인과가 바로 거기 입력이 돼 있는 겁니다. 인으로 인해서 과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속에 인과로 뭉쳐진 그 생명들과 의식들이 바로 그 컴퓨터에 다 들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고 지낸 것이 다 거기 들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자꾸자꾸 나옵니다.

'난 부처님을 믿으러 다니는데 하나도 해결이 안 되더라.' 이런 생각은 좀 더 삼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자꾸 자기한테서 나오는 그 모든 고를 모르더라도 무조건 거기에 다시 일임하고 놓는 것이 바로 입력입니다. 되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인과나 유전성, 영계성 또는 세균성, 업보가 전부 무너지고 말아 버리죠. 없어지죠. 입력을 되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깐 그릇은 항상 넣어도 넣어도 비고, 넣어도 비고 이렇게 되니까, 자기를 밝게 얼른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릇이 꽉 차서 못 발견하던 것을 그냥 얼른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이것저것 거죽에서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이 나오고, 타심통에서도 마음 난다는 것이 수많은 생각으로 나오는 것을 어떻게 다 탓을 하리까? 어떻게 배울 수 있으리까? 그러니 무조건 나오는 것은 다섯 가지고 여섯 가지고 간에, 오온의 진리가 전체 자기로 인해서 생긴 거고, 또 상대가 생긴 거니 무조건 안팎에서 일어나는 것을 거기에 다가 놓을 수밖에 없다.

그건 또 왜냐? 허공 이 우주 전체가 인간의 근본 마음에 직결이 돼 있고, 세상살이 돌아가는 이 자체는 내 근본에 가설이 돼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삼세가 그냥 하나로 뚫려 있다 이겁니다. 뚫려 있으니 벽도 없고 봇장도 없고, 뚫려 있으니 걸리지 마시고 돌아가는 데 모든 것을 거기에 놓고 일임하고 또 거기서밖엔 해결을 못하고…, 거기에 감사하십시오. 이런다면은 정말 우리가 노래하듯 일체제불의 마음은 내 한마음이 되고, 일체 법은 내 한 생활의 법이 되고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체 몸은 내 한 몸이요, 그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따로 있지 않기에 바로 컵은 컵이고, 접시는 접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접시에는 접시의 물건을 담게 돼 있고, 천차만별로 그릇이 돼 있죠. (다음 호에 계속)

일체제불의 마음은 내 한마음이 되고
일체 법은 내 한 생활의 법이 되고
일체 몸은 내 한 몸이요, 그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위 법문은 1990년 5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大韓佛教傳統曹溪宗 (대한불교전통조계종)

본 종은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圓滿한 根本教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종지로 하고 있으며 釋迦牟尼佛을 教祖로 太古普愚國師를 宗祖로 하여 韓國佛教中興祖 鏡虛禪師로 부터 法脈을 이어받은 滿空禪師, 飽山禪師, 牛角道一禪師의 傳法을 傳受하여 宗旨宗風을 세운 傳統宗團입니다.

전법대화상 : 우각당 도 일 대 선 사
종 정 : 혜강당 석능인대종사 (석가여래부촉법 제77대)

원로최고의원 : 각암. 지산 원 로 의 원 : 범아 보각 덕암 지원

원로의장 : 법장 종회의장 : 도안 총무원장 : 대웅 중앙연수원장 : 동담
사정원장 : 귀천 승정원장 : 덕암 법계고시위원장 : 혜암 중앙선원장 : 혜광
승가대학장 : 무척 교육원장 : 무아 포교원장 : 효천 율원원장 : 두현
호계원장 : 혜명 염불원장 : 상호 문화원장 : 연제

총무부장 : 도법 재무부장 : 보현 교육부장 : 응수 호법부장 : 보관
사회부장 : 법연 규정부장 : 혜관 비구니부장 : 길상 문화부장 : 지혜
사서실장 : 지담 문도총무 : 청아 사무국장 : 적광

경기교구종무원장 : 불산 인천교구종무원장 : 일경(신광식) 경남교구종무원장 : 무척
충북교구종무원장 : 길상 충남교구종무원장 : 지원 대구교구종무원장 : 법천
경북교구종무원장 : 석강 부산교구종무원장 : 심공 울산교구종무원장 : 무정
총본산행자교육원장 : 성도 미주교무종무원장 : 혜성

전국신도회 회장 : 김용규법사

전국포교선원 : 안양선원. 시흥선원. 천안선원. 부평선원. 주안선원. 의정부선원. 화성선원. 공항선원. 산본선원. 심곡선원. 성남선원. 권선선원. 연무선원. 계산선원. 연수선원. 백운선원. 신천선원. 부천선원

포교승려 및 포교사 : 불산. 석담. 혜공. 성원. 길산. 해인. 연담. 향산. 무성. 박승정. 오유정. 박병갑. 오현국. 임종국. 김진우. 정태호. 정철수. 조해숙. 김순애. 신주용. 우흥렬. 윤평중. 현종률. 김흥찬. 방선영. 서현식. 박석재. 홍성영. 나인정. 신명수. 이도경. 김상용. 기지영. 신재식. 원순례. 한병환. 박찬희.

총 본 산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5길 197번지 각황사 ☎ 053)325-0400. 010-7283-0089. 팩스 053)325-4848
전국신도회 |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7번길 17 205호 ☎ 031)498-5123. 팩스 031)498-4040

봉축 수상

부처님오신날, 축원 올립니다



진명 스님
前 조계종 문화부장



그림 · 김홍인

한국사회, 각종 문제 · 갈등 '얼룩'
일자리 못 구한 청년 100만 명
정치 혼란, 국제 정세 악화일로

올해 부처님오신날 여느 때보다
더욱 간절하게 희망을 기원한다
밝고 광명이 넘치는 사회가 되길

세상은 온통 연초록이다. 여린 잎새가 바람결에 일렁인다. 싱그러운 연둣빛에 눈이 부시고 마음은 평온하다. 대선정국에 있는 복잡한 세상의 일과는 무관하게 바람은 일렁이고 봄 햇살은 눈부시다.

얼마 전 지나가던 불자가 큰 길에 연등이 달려서 둘러보니 사찰 안내판이 있어 참배하러 왔노라고 했다. 도량에서 일을 하고 있던 중이라 자연스레 인사를 하게 되었다. 잔디밭에 서서 대화를 하던 중에 "스님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겠냐"며 "30년 이상을 한 업종에 종사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다. 막막하고 답답하다"며 이야기를 풀어 놓았다.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은 말할 것도 없고, 사드 문제로 중국과의 일도 어긋나고 그저 매일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자는 듯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 좋겠다고, 내일 아침에 해 뜨는 것이 두렵다고 고단한 심경을 털어 놓았다.

요즘 우리나라에 이런 심경을 가진 사람이 한 둘이겠는가. 지난해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중 청년들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이들 청년층 실업률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치솟은 상태라고 하는데, 특히 올 1분기(2017년 1~3월) 중 대졸 이상 학력의 청년 실업자 수는 최초로 5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국가 총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섰다는 보도를 보았다. 이런 경제적인 현실을 감안한다면 영세업자들은 유지하며 살아내는 것이 용하다는 생각이 든다.

저 파란지붕 아래 주인이 되고자 대선 후보들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외친다. 그 외침은 감동 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전국 하늘을 떠돌고 있다. 아마도 대선주자들의 토론을 보며 많은 국민들이 내쉬는 한숨은 지하를 뚫고도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지경이다.

과연 저 사람들 관심 안에 진정으로 국민들이 안중에 있는지 의문스럽다. 명쾌한 정책 대결이 없는 토론이며, 질문은 어디로 가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되풀이 하는 태도며, 젊은 날의 허물은 허물이 아닌 것처럼 뻔뻔하기 그지없는 변명에 능청스런 태도는 분명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처사로 보였다. 한탄스럽기 그지없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공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미 파란 지붕의 집은 주인을 잃었고, 가까운 북쪽에서는 철없는 아이가 불꽃놀이 하듯 미사일을 들고 천방지축 뛰어다니고 있다.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극에 달하게 하고 있으며, 가까운데다 덩치까지 큰 나라 중국은 그 발전의 속도가 가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정도다.

이처럼 날로 심화되는 우리나라 대내외적인 문제들, 청년 실업 문제며 심각한 국가 경제문제, 북한을 포함한 외교문제 등은 충분히 준비할 시간 없이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이며 어려운 숙제일 것이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은 이제 옛 말인 것 같다. 오히려 난세에 국민이 현자가 되어야 하는 시절이다. 한 사람은 탐욕에 눈이 멀어 국민과 국가를 무시하고 포기할 수 있는 행위, 눈 가리고 아웅다웅하는 행위, 정신이 500년은 나간 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은 국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의 난국을 바로잡기 위해 마음의 눈을 밝게 뜨고 관심을 놓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만들어 준 권좌에 앉은 사람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하며 무시하거나 군림하면 안 될 일이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권력이 국민을 길들여 왔다. 힘 있는 권좌는 부릴 대상이 아니라 두려워할 대상이라고 길들여 왔음에도 모두 그것은 자기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 법은 법을 아는 자들의 전유물이 되었으며, 법의 잣대와 돈의 힘은 힘없는 국민 위에 군림해왔다.

그러나 이제 대중들은 알게 되었다. 국민의 지혜로운 힘은 어리석은 나라님의 눈과 귀가 되어 오탁악세(五濁惡世)가 아닌 오청선세(五淸善世)가 되도록 어리석음을 깨우쳐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권력에 비굴하지 않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위치에서 어떤 일과 역할이 주어져도 당당할 수 있도록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주어진 자리에서 지켜야할 도덕성, 즉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의사는 의사답게, 법조인은 법조인답게, 사업가는 사업가답게, 종교인은 종교인답게 그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역할에 걸맞게 살아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스스로 지체 없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 자리를 뭉개고 앉아 비비적거리며 변명과 망어를 일삼는 자는 그 과보를 받을 것이다. 인과는 승속에 차별없이 이뤄진다.

올해는 여느 해보다 부처님오신날에 더 큰 희망을 갖게 된다. 두 동강난 우리나라의 허리가 빠른 시간 안에 치유되기를 빌고, 두 갈래로 갈라져 상흔이 깊은 국민들의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바람에 날리는 꽃잎처럼 가볍게 치유되기를 축원하며, 부디 국민들의 손이 정직하고 지혜로운 대통령을 선택하여 우리나라가 하루 빨리 이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가 밝은 광명이 비치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원 올린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직장 지원서를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마련되어 삼포, N포 세대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마음 놓고 사랑하고 결혼해서 2세를 걱정없이 키울 수 있는 나라, 지도에서 허리선이 사라진 우리나라, 한 나라의 땅덩어리 크기와 국민 머릿수나 경제의 힘보다 문화선진국 국민성이 존중받는 나라, 조금 더 성숙된 국민성으로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격려하며, 용서하고 위로 할 줄 아는 마음의 여유를 만들며 살 수 있는 나라,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그런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점이 국가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각성과 더불어 그런 대통령과 정치인을 만들어 낸 주인공이 바로 너와 나, 그리고 우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지난 과거의 허물에 매여 한 발자국도 옮기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고 부처님께서 남겨 놓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지혜롭게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다. 그러므로 기쁨과 슬픔을 가다듬어서 선도 없고 악도 없어야 비로소 집착을 떠나게 된다.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도 말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기다리지도 말라. 오직 현재의 한 생각만을 굳게 지키라. 그리하여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진실하고 굳세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다." 〈법구경〉 中

社說

불교, 미래 동력을 준비하자

요즘 사회 · 경제계의 화두는 단연 4차 산업혁명이다. 이미 간단한 사물인터넷 기술은 가정에 적용되고 있으며, 의료 · 법률업계에는 인공지능 '왓슨'이 도입됐다고 한다.

기존 인식이 근본부터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해 불교계는 '잰걸음'으로 쫓고 있다. 특히 불교학계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불교적 인식과 해석,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강좌와 세미나를 준비 중이거나 진행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노동 시간이 줄고 자신을 위한 시간들이 늘어나게 돼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문화와 치유 상담, 명상 등의 분야를 불교계가 선도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이젠 외부로 눈을 돌려보자. 청년 실업 인구는 지난해 기준 약 50만 명에 달한다. 현재 한국에서의 취업은 대기업과 공기업, 공무원에 국한된다. 창업하는 인재는 매우 드물다. 세계 500대 부자에 오른 한국 부자는 모두 상속자들이라는 점은 한국사회에서 창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을 보여준다. 상속자의 나라에서 창업자의 나라가 되려면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경제 구조가 돼야 한다. 윤성식 고려대 교수는 "불교의 혁신성, 다양성, 유연성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스타트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철학과 토양을 제공해준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올해 본지 봉축 특집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스타트업이다. 이들 주제를 선정한 것은 미래 불교의 발전 동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회 변화를 준비하고 선도하길 바랐다. 도전이 없으면 실패가 없고, 실패가 없으면 성공도 없다. 수많은 도전과 실패가 있어야 성공과 변화가 있다. 한국불교는 도전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차별없는 세상, 나부터 실천을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이다. 화창한 날씨 속에 형형색색의 연등이 사찰마다 걸리고,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는 법요식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다. 특히 4월 29일에는 세계 곳곳에서 모인 30만 명이 연등회에 참여해 한 마음으로 어울렸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대자비와 대지혜를 이루려는 듯 거리 곳곳마다 사람들의 표정은 환하게 피어났다.

2600여 년 전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손으로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셨다. 바로 이 땅 모든 존재의 존귀함, 평등함을 선언하신 것이다.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정국과 국내외 위기상황 속에서 모든 중생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불국토를 이루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가슴에 와 닿는다.

불교의 시작이 그렇기에 불교는 사람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처님오신날의 의미 또한 사람들에게서 찾아야 한다.

우리 주변부터 돌아보자. 단순히 피부색이 다르고, 또 취향이, 국적이, 심지어 성별이 다르다고 하여 혹시 차별하는 일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자.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행동이 다르다고 하여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일은 없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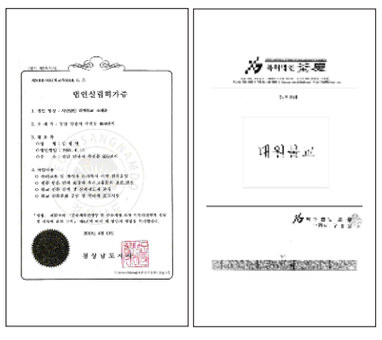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동체대비는 곧 이 땅의 평화로 이어진다. 부처님께서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큰 자비심을 베풀고 공양하자는 가르침을 내렸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가족과 이웃, 나라와 세계 간 평화를 추구하고, 인종과 국적, 성별과 나이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불국토를 이루기 위해 바로 나 자신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런 차별없는 생각을 실천하는 이가 바로 이 시대 살아있는 부처님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 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前 상임위원장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원정 석덕오 석원명 석수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설산

감찰원
감찰원장 석월오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법주

포교원
포교원장 석도일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광

교육원
교육원장 석유심

교구종무원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충북종무원장 석초오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총 무 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지혜
총무부장 석화성
교무부장 석지담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윤오
의전부장 석명오

문 도 회
문도회회장 석법현
문도회부회장 석법진
문도회총무 석해안
문도회감사 석지혜

중앙위원회
전국비구니원장 석도현
전국비구니회장 석지현(경주)
전국비구니총무 석우정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종단연합회회장 황정재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전국청년회장 한관영

(사) 대승교단
대원불교조계종 불교대학
명리학, 성명학 수강생 모집
수년간 명리학, 성명학을 배우고도 아직 통변이 되지 않는 분은 확실하게 지도함
H·P 010-3711-5072
▷수시접수가능◁
교육원장 : 석유심 합장
총본산 인터넷 주소: http//cafe. daum .net/dw4747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受持身是光明幢 受持心是神通藏



우리의 대스승이자 어버이이신 세존께서는 80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수행자로써 직접 발우를 들고 탁발을 나가셨다.

오늘날 일불제자라 일컫는 우리는 어떠한가? 밥 해 주고 빨래 해 주는 공양주를 두고, 큰 집에서 고급 승용차에 실크 가사, 장삼에 최고의 것을 누리며 살고 있다.

부처님 정법 가르침은 그 어디에도 없고, 비불교적인 행위만 불법을 가장해서 판을 치고 있다. 출가자가 스스로 밥도 못해 먹으면서 무엇을 지도 원리로 삼는단 말인가? 그러면서 말은 얼마나 재미있게 잘 하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말 잘하는 이는 늘어나고, 말잔치는 결국 도를 넘고 있다. 몇 달 전 동안거가 끝나고 신도 몇 분과 같이 학부의 선배이자 불교TV 방송에서 자주 뵐 수 있는 산중 노스님을 찾아뵙고 왔다. 2시간여 얘기하면서 당부의 말씀은 "내가 평생 법문을 하러 다녔지만, 이제야 깨닫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꼭 부처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하고, 실천 수행하고 난 뒤에 경험, 체험, 증험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 말씀은 경전이나 조사어록에서도 많이 나온다.

천수경 중에 바른 가르침을 토대로 대비심을 일으켜 바르게 수행하면 우리의 몸은 광명이 되고(受持身是光明幢), 우리의 마음은 신통장을(受持心是神通藏) 증득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부처님께서 그 경지에 갔을지라도 그것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했다. 그 신통력을 자신의 명예와 이익이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하셨다. 그런데 이 말세에 이러한 것을 증득한 수행자가 보이지 않는다. 입은 굳게 다물라고 했는데 말만이 난무하고 있다.

선가귀감에 〈學語之輩 說時似悟 對境還迷 所謂言行 相違者也〉라 했다. 〈말을 배우는 무리들은 말을 할 때는 깨달은 것 같으나 경계에 맞닥뜨리면 미혹함에 돌아가나니 이른바 말과 행실이 서로 틀리기 때문이니라.〉고 서산대사께서는 말씀하셨다.

다음은 겪었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2016년 하안거를 나고 있을 때 아는 스님이 부탁을 하는 것이다. 신병(조현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스님이 있는데 데려가도 되겠느냐고. 사실은 2014년에 부탁을 하길래 데려오라 했는데 오지 않아 잊고 있었는데 데려 오겠다 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 스님은 속세 나이 40대 중반으로 대형사찰에 상주하고 있었다. 이미 나한테 왔을 때는 증상이 심해 말을 못함은 물론 계속 자기 손으로 목을 쥐고는 고개를 들고 물고기처럼 1초 간격으로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같이 온 스님이 통역 아닌 통역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저녁공양은 해야 하기에 신도님께 죽을 부탁하니 신도님이 죽 집에 예약을 해 스님 넷과 신도 한명 등 5명이 가서 그 스님을 내 맞은편 자리에 앉게 하고는 고개를 바로 해서 내 눈을 쳐다보도록 했는데 자꾸 피하는 것이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음식을 먹지 못해 몸이 야윌 대로 야위어 수척했고 죽이 들어오자 공양 게송 후 수저를 들라고 하니 미동도 하지 않는 것 이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무엇이 떳떳치 못해 날 못 보느냐?"고 고함을 쳤다. 계속해 소리를 높이니 마지못해 눈을 마주치게 되자 숟가락을 들으라고 또 큰 소리를 치며 다시 권하니 주저했다.

"저 스님이 숟가락 들기 전에는 아무도 수저들지 말라."고 하니 그 스님은 할 수 없이 숟가락을 들어 죽을 떠 먹는데 얼굴이 울상이 되어 마지못해 수저를 들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는 다들 그 스님의 표정을 보면서 수저를 들었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났다. 그 스님이 한번 떠 먹고, 다시 한번 떠 먹고 하더니 이내 먹기 시작했다. 죽 한 그릇을 다 비우자 신도님이 가서 죽 반그릇을 더 덜어주니 순식간에 그릇을 다 비었다. 그러자 본인도 놀라고 같이 데리고 온 스님도 놀라서 그 스님을 쳐다보았다. 돌아오는 길에 다음날 아침 공양 때도 드시라고 신도님이 죽을 사주었는데, 다음날 새벽기도(안거중) 때 신도님들 보는데서 기도해 주자, 그날 아침은 죽이 아닌 밥 한 그릇을 잘 먹었고, 금붕어처럼 입을 벌리는 일도 없었다. 혹시 재현될지 모르니 3년 동안은 한 달에 한번 정도 내가 눈을 봐야 하니까 왔다 가라고 당부하며 내 보냈다. (○○스님)

◆ 해가 바뀌면 기독교인들이 신방을 가듯이 소승도 년 초가 되면 가정 법회 겸해서 일부 가정을 방문하는데 2016년 1월 초에 신도중에 토목사업을 하는 보살이 있어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기도가 끝나고 "보살님! 올해 공사 예약 받아 놓은 것 중에 산이 있는 곳이 있느냐?" 고 물으니 예약된 것 중에 앞으로 3번째 공사해야 될게 산이 있다고 했다. 그 공사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주로 관급공사와 관련된 것이라 안할 수가 없단다. 왜 그러시냐고 묻길래 모월 모일에 사고가 나니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리고 사고 당일 날 새벽에 꿈을 꾸게 될 것이니 그 때 꼭 꿈 얘기를 하라고 했으며, 같이 간 스님이 달력에 동그랗게 표시를 해 놓으라고 알려주었다. 시간이 서너달 흘러 울면서 전화가 왔다.

"스님! 나 좀 안아프게 살려주세요."하며 전화가 왔길래 어디냐고 물으니 ○○병원이라 해서 전화를 끊고 단숨에 달려가서 보니 오른쪽 팔을 잡고 고통을 호소했다. 내 손에 끼고 있던 단주를 손목에 채워주고는 그 손을 잡고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자, 순식간에 통증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금일 새벽 기도후 꿈을 꾸었냐고 물으니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작업을 진두지휘 하면서도 입으로는 진언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공사장 포크레인이 휙 돌면서 앞바가지가 팔을 치면서 옹벽과 바가지 사이에 팔이 끼게 되었다.

아침나절에 미리 얘기를 해주었다면 그날 하루를 쉬게 했을 것이다. 이 보살은 기독교 전도사였으나 이 스님과 인연 맺은 후론 1년에 200일 안거와 평상시 새벽기도를 하루로 빠지지 않고 하고 있다.(거제 010-8510-5187)

◆ 대구에 있는 신도님이 전화가 왔다. 월요일 새벽기도 후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꿈 얘기를 들어보고는 "보살님! 이번 꿈은 가족이 아니고, 보살님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참고로 그 회사는 꽤 규모가 있는 중기 대여 회사인데, 보살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보살님! 잘 들으세요. 메모도 하시고, 모월 모일에 그날 대형사고가 나니 장비도 문제지만 사람이 죽게 되니 보살님은 그날 하루종일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사장님은 기독교인이지만, 그날 하루만이라도 관세음보살을 찾으라고 하십시오." 라고 했다. 며칠후 전화가 왔다. 차와 장비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개천으로 차와 장비가 전복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다친데가 없고, 추후 장비 수리비만 8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터지자 그 때 보살이 사장님 보고 왜 그날 하루만 관세음보살 하라고 했는지를 설명하면서 스님 얘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일요법회에 중기 회사 대표가 직접 사과 3박스와 돈 20만원을 가져왔고 초파일 등도 달아달라고 했다.참고로 이 보살님은 멀리 있는 관계로 안거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대신 매일 새벽 (1년 200일) 강의한 것을 녹음을 떠달라고 부탁하여 1달에 3번 이상은 오는데 올 때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열심히 질문하고 있다. 아울러 그렇게 공부하는 모습에 신랑도 감응이 되어 몇 년째부터 새벽에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각자가 기도문은 다르다.
(대구 010-4807-6932)

◆ 소승이 서울에 있을 적부터 인연 되었던 보살이 울먹이며 전화가 왔다. (2016년) "스님! 우리 딸이 임신을 했는데 이제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이가 산모 뱃속에 붙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도님들께 물어보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런 일도 있나? 하며 다들 놀라워했다. (참고로 전화한 보살님은 한평생 대형병원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신 분이다.) 바빠서 올라가지는 못하고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었는데, 평상시 하던 기도문을 잠시 멈추고, 새로운 기도문을 가지고 일주만 딸네집을 왕래하면서 기도하라고 일러주었다. 주의사항도 함께.

▫ 주의사항

1) 기도기간중 점, 사주, 철학 등을 보러 다니는 삿된 이를 멀리하고 근처에도 가지 말 것.

2) 삼재(기도, 풀이) 부적 등을 가까이 하는 이도 멀리할 것.

3) 인간 방생이 아닌 물고기, 조류 방생 하는 이도 멀리할 것.

4) 인등, 입시기도, 재수대통 기도 등을 하는 사찰에 가는 이를 멀리할 것.

5) 산신, 용왕, 해, 달, 별, 바위 등을 좇아 다니며, 기복으로 비는 이 등 등.....을 멀리할 것.

그리고 1주일 후 전화가 왔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 보살님도 역시 규모가 있는 사찰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게 되었는데, 신랑이 병고로 죽어 49재를 지낸지 얼마되지 않아 밤만 되면 신랑이 전라의 몸으로 꿈에 나타나 이 보살을 주무르고 가면 몸이 아파 죽을 지경이라는 것이다. 그때 아는 스님이 나에게 부탁을 해서 오게 되었고, 그 절에서 주었던 부적, 달마도 등 등...을 가져오게 해서 다 태워버리고, 천도재를 지내주자 그때부터는 꿈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리고 그 때부터 기복이 아닌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유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다. (본 도량에서는 달마도 대신 달마어록을 나누어 주고 공부하고 있다.) (서울)

◆ 멀리 있는 관계로 자주 못 오고, 1달에 1번 정도 오는 보살인데, 상담을 원하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자주 아랫배에 통증이 있어서 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니 자궁에 11.5센치 되는 혹이 있다는 것이다. 병원은 급히 수술을 하자고 했으나 사실은 9센치가 넘으면 위험하다고 말리는 분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수술을 해야지 왜 왔냐고 하니 말이 없었다. (참고로 보살은 대형사찰의 지역 회장까지 하던 보살이었다.)"그래 알았으니 온 김에 기도나 받고 가라."하고 다음날 새벽기도 때 동참했던 신도님들과 같이 기도를 해 주었다. (이 일은 금년 2017년 동안거 때 있었던 일이다.) 기도받자 마자 배에 통증은 사라지고 불과 얼마 뒤에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 7센치로 줄어 있더라는 것이다.

믿지 못해 내려오게 하여 여기 대형병원에서 다시 검사해 보니 줄어 있는게 사실이었다. 소승이 있는 사찰에서는 신병이던, 육신의 병이던 간에 기도는 신도님들과 같이 빙 둘러 앉아서 기도를 해 주고 있다. 조현병(신병) 같은 경우는 구경만 하게 할 때도 있다. (안양 010-3143-5302)

◆ 어느 모임에서 아는 스님이 강원 도반스님 절에 행사가 있어 간다고 했다. 그 스님께 그 모임에 가지 말라고 하니 안된다고 했다. "왜 무슨 일이 있느냐?" 고 되묻길래 "스님! 내 말 잘 들어요. 그 날 교통사고가 나니 가급적이면 안 갔으면 합니다." 하고 일러 주었다. 며칠 후 전화가 왔는데, 도반스님 절에 가서 나오다가 차바퀴가 빠져 큰 차에 실려 왔다는 것이다. 그 인연으로 가끔 일러주고 있다. (서울 010-5518-6606)

◆ 어느 모녀가 찾아왔다. 작은 아들이 40세 초반 병고로 죽자, 모녀가 다니는 큰 절에서 49재를 지냈는데 밤마다 발가벗은 몸으로 큰 아들 꿈에 나타나서 혼자는 못가겠다며 형이랑 같이 가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49재를 지낸 그 다음날부터 이 꿈을 꾸는 큰 아들이 미칠 지경이란다. 그래서 그 절에서 사주, 철학, 삼재풀이, 삼재기도를 하며 부적을 주느냐고 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부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바로 부적을 내어놓고 집과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부적을 몽땅 가지고 오라고 하며, 아울러 꿈 해몽 책 등도 가지고 와야 천도재를 지내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천도재를 지내는 날 망자의 이모도 왔는데, 상단불공을 한참 하다가 목탁을 내려놓고는 뒤로 돌아 앉아 보살님(이모)을 향해 부적을 내어놓으라고 하니 없다는 것이다. 법당 한 켠에 있던 가방을 가지고 오게 해서 안에 있는 지갑을 열라고 하고서는 부적을 내어놓게 했다. 그때 좋은 표정은 아니었다. 그렇게 재를 마치고 나와 학장스님과 자매가 마주보고 공양을 하는데 이모라는 보살님이 계속 뭔가 종알대는 것이다. 자기 큰 딸이 (30대 중반) 남자가 없어 시집을 못가고 있다는 것이다. 몇 번 듣다가 숟가락을 탁 놓으며 "보살님! 날 똑바로 쳐다보세요. 뭐 딸이 남자가 없다고요? 없기는 뭐가 없어! 남자가 둘이나 있는데..... ○살 먹고, ○살 먹은 남정네가 둘이나 있는데 말 똑바로 하세요." 하며 호통을 치자,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며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전 가족이 잘 다녔다. (남양주)

◆ 아는 스님과 같이 신도님 집에 갔다. 보살님이 반갑게 맞아주길래 오늘은 보살님 아들을 보러 왔는데, 아들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니 2층에 있다면서 불러 내리려 했다. "내가 올라 갈테니 그냥 놔두세요." 하니 보살이 따라 올라오려 했다. 보살을 제지하며 아들을 만나서 근황을 묻고는 "오늘은 내가 일부러 널 만나러 왔으니까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모월 모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마라. 생명을 버리는 일을 절대하지 말라." 하자 따라온 스님이 달력에 매직으로 동그라미를 표시하게 했다. 그렇게 일러주고 내려오는 마음이 편치 않아 보살을 불러 어쩔 수 없이 내가 온 목적을 얘기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스님이 달력마다 표시하라 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옷 수선 차 그 이웃 신도님 집에 들렸는데, "스님! 며칠 전에 ○○ 가 음독자살을 하여 중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살이 발견했대요." 하는 것이다. 모른척하며 단숨에 그 집을 쫓아갔다. 그렇게 일러주었는데.....하며 얘기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참고로 그 집은 그 당시 딸은 시집을 갔고, 아들은 20대 후반 청년이었다. (서울 홍제동)

◆ 보살 한 분이 새벽기도를 절에 와서 하고 난 후 집에 가서 잠시 누웠는데 꿈을 꿨다며 찾아와서 자랑을 하는 것이다. 꿈 내용은 친정아버지가 윤이 나는 실크로 된 두루마기를 입고, 미소를 지으며, 들녘을 바라보고 있는데, 머슴들이 추수하느라 바빴고, 한편에는 볏섬들이 수북이 쌓여있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보살은 그 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 물으니 "스님 좋은 꿈이잖아요." 하길래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다시 물으니 싱글벙글하며 그렇다는 것이다."보살님!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명심해서 잘 들어요. 이 시간부터 빠른 시간 안에 보살님 집안에 큰 사고가 일어나니 오늘 하루는 ○○기도를 꼭 하세요." 했다. 보살은 벌레 씹은 표정을 하고 갔는데, 다음날 새벽기도 때 와서 하는 말이 새벽 1시에 큰 아들이 음주운전 하다가 다리 난간을 박차고 다리 밑으로 떨어졌는데 아들은 가벼운 외상정도이고, 차는 다부서져 폐차시켰다고 한다. 지금 그 아들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양평)

◆ 지자체가 처음 시행되던 시기에 내가 있는 지역에도 선거운동원들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 그날도 해가 저물 때 까지 운력을 하고 있었다. 안면이 있는 보살님이 낯선 보살님 4분과 같이 왔다. 웬일인가? 하고 물으니 차를 한잔하러 왔단다.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제일 연장자가 되는 보살님 한 분이 "스님! 이번 선거에서 누가 될 것 같습니까?" 하고 묻길래 "아니 지금 누가 출마하는지? 아직 발표도 안되었고, 벽보도 붙지도 않았는데....." 하면서 난처한 기색을 드러냈다. 아니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사주, 관상쟁이도 아니고, 설사 쟁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얼굴을 봐야 하지 않은가? 사실 그때 이 소승은 그 지역에 간지가 3달 정도 밖에 안되어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항이었고, 안면이 있는 보살도 법회 날 몇 번 왔다 갔을 정도였다. 그 당시에 절을 짓고 있었고, 임시 처소에 방 한 칸을 법당으로 쓰고 있었는데,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었다.한참을 망설이다가 "자! 보세요. 보살님들 난 사주, 철학, 관상, 점, 부적 등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알고 싶습니까?" 하고 물으니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일제히 "예"라고 답했다. "그럼, 좋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절대 소문을 내지 않는다면 내 말하리다." 하고 여러 번 다짐을 받고는 "여기 내 손을 잘 보십시오." 하며 손가락 넷을 폈다. 전부가 실망하는 눈치였다. 그 지역은 항상 집권여당 쪽이었는데 내가 4번이라 표시하니 "스님! 4번이면 무소속 아닙니까?" 한다. "난, 당은 모르겠고, 4번입니다."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말라."고 하며 단단히 일러 보냈다. 결국 시간이 흘러 4번 무소속이 됐다. (양평)

작년 겨울에 규모가 있는 큰 절을 자꾸 맡아달라고 하길래 여기 스님과 같이 그 절을 방문했었다. 차를 한잔 하면서 본론적인 얘기를 꺼내는 것이었다. 이 절을 맡아 달라는 것이었다. 본인은 거기서 30분 거리에 또 다른 큰 절을 지어놓았기에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 요구조건을 들어주면 그렇게 하겠다. 현대불교신문에 글을 썼듯이 신도회를 없애고, 사주, 부적, 삼재풀이, 삼재기도, 방생, 성지순례, 인등, 입시기도 등 등.....을 비롯해서 하지 않겠다. 아마 신문에 쓴 것처럼 하지 않을 시 몇 천에서 몇 만 되는 신도들이 다 빠져 나갈 것인데 감수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단, 바른 가르침에 귀의하고자 남는 불자가 단 10%가 아닌 1명만 남는다면 이 사찰은 성공한 사찰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잘 생각해 보고 연락을 달라 했으나 지금껏 연락이 없다. 4년 전에도 큰 절에서 이런 제의가 있었고, 서울에 있었을 때에도 여러 번 있었으나 다 거절했다. 나의 요구가 관철되어 부처님의 정법이 드날릴 수만 있다면 나는 어디든지 달려 나갈 것이다.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의 길이 되리니.

이 세상에서 승복을 입고 부처님의 정법을 선양치 않고 비불교적인 행위로 업을 삼는다면 이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닐 것이고, 언젠가는 죽음의 문 앞에서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

불.법.승 정법 실천도량
연 등 사
(선재불교대학)
경남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519-3 (충해공원내)
TEL. 055)633-6555

Industry 4.0 & 불교



기술 혁명의 시작… 불교, 변화를 준비하라

4차 산업시대, 불교 무엇을 할 것인가

 # 2037년 5월 어느 주말 아침 6시,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스마트 홈에 설정한 알람인 사찰 범종 소리로 눈을 떴다.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웨어러블 기기가 심박수, 혈당을 체크한다. 침대에서 나와 화장실로 가 간단히 세면을 하는 A씨에게 인공지능 '금강'이 오늘 스케줄과 함께 입고 나갈 옷 코디, 건강 상태를 조언해 준다.

화장실서 볼 일을 마친 A씨는 거실로 이동했다. 자신이 다니는 사찰의 아침 수행 클래스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스마트 글라스를 착용하니 곧바로 가상현실에 접속된다. 주위는 이내 자신의 거실이 아닌 사찰 법당이 된다. 지도법사인 인공지능 무명 스님의 친절한 수행지도가 이뤄진다. 수행을 마친 후에는 간단한 일상생활 상담도 가능하다.

이는 4차 산업기술이 완전히 자리매김했을 20년 뒤 한 불자의 일상과 신행 생활에 대한 예상도다.

지금 인간은 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미 간단한 사물인터넷 기술은 가정에 적용되고 있으며, 의료 · 법률업계에는 자연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IBM의 인공지능 '왓슨'이 도입돼 진단과 판례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보험업계 역시 보험 가입 상담이 가능한 인공지능 챗봇(채팅하는 로봇)을 도입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일까. 어원의 시작은 2011년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에서 제시된 '인더스트리 4.0'이다. 독일 정부는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설 것을 역설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부터다. 이를 언급한 주요한 인물이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이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는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 혁명의 직전에 와 있다. 이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은 과거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 전혀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술 혁명이라고 말한 4차 산업의 특징은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 · 처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이 발전해 대중화되면 인간은 이제 더 이상 단순 · 반복적 노동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며 근무시간이 줄고, 노동의 목적도 자기 표현과 실현으로 변화할 여지가 크다. 또한 편의성과 비용 절감을 위한 디지털 기술들은 공유경제 영역을 더욱 확장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노동 시간이 줄고, 자신을 위한 시간들이 늘어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불교에게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삶의 성찰과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 · 성찰하는 것이 중요한 문화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노동 환경과 생활문화가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문화와 정신수행이 더 큰 가치를 얻게 될 것"이라며 "정신 · 마음 수행 분야는 불교가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4차 산업에 대한 논의 중 가장 필요한 부분은 '불교가 어떻게 대응하고 이를 포교에 활용하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모든 산업 기술이 핑크빛 미래만을 보여주지 않는다. 가상과 실제의 경계가 무너진 상황이 가져올 인지적 혼란과 자동화로 인한 대량 실직, 양극화 등은 4차 산업혁명의 어두운 이면이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현재와 같은 속도로 기술이 발전했을 경우 10년 안에 전체 직업의 30%이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기업 아마존닷컴은 로봇과 드론 등을 이용해 역대 최대 규모의 배송 실적을 만들었지만, 이로 인해 전 세계직원 30만 명은 실직 위기에 놓였다.

4차 산업혁명, 극명한 '明暗'
노동시간 줄며 정신 가치 추구
불교 수행, 활용 가능성 높아
빈곤층 보시 강조한 초기불교
기업 제어 법제화 이론 제공

한국의 현대자동차 노조가 4월 29일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테이블에 '조합원 총고용보장 요구안'을 올린 이유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불안 때문이다.

나아가 저임금 노동자마저도 고용할 이유가 없게 된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의 기업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돼 이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저개발 · 개발도상국가는 더욱 가난해지거나 선진국에 예속되는 빈곤의 고리가 만들어진다.

4차 산업혁명의 예상되는 폐해에 종교는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윤리와 가치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해 세계 경제 포럼에 참가한 저스틴 웰비 영국 성공회 대주교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임박한 변화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대응이 아니라 '영적인 대응'이며, 이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불교학계도 이 같은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4차 산업의 장점과 폐해에 대한 문제의 핵심은 시민들이 재현의 위기에 현혹되지 않고 여실지견하며 권력과 자본에 올바르게 맞서는 것"이라며 "또한 자본의 논리가 4차 산업혁명의 생산과 분배를 관장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법 · 제도 ·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성우 동국대 교수는 지난 4월 21일에 열린 한국종교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서 발표한 논문 '4차 산업혁명과 불교윤리'을 통해 초기불교의 윤리와 욕구관은 더욱 가속화될 기업의 이윤 추구를 제어할 수 있는 가치라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초기불교에서는 빈궁한 계층에 보시하지 않는 행위는 사회 타락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으며, 인간의 욕구는 중도적으로 제어돼야 함을 강조한다"며 "기업의 제어는 법제화를 통해 가능한 것이지만, 이 같은 노력과 법제화의 이론적 토대는 불교적 윤리와 욕구에 대한 관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Inside

특집 · 불교&START-UP B8~11



특집 · 부탄의 부처님오신날 B15



특집 · 그리운 은사 스님에게 B19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2561(2017).05.03
부처님오신날
03(Wed).May.2017
(2561 Buddhist E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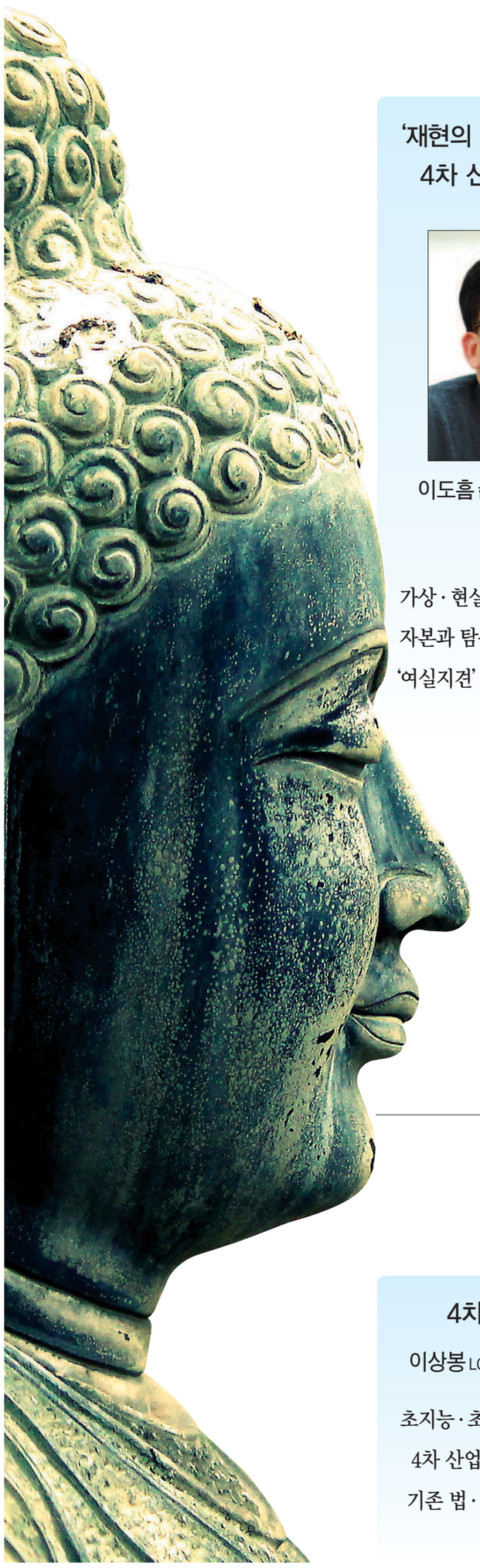
다시뛰자 대한민국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JOGYESA



Industry 4.0 위기인가 기회인가

4차 산업을 보는 다양한 시선들



경계 해체 시대, 新 윤리·가치관 필요

'재현의 위기론'으로 읽는 4차 산업혁명과 불교



이도흠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가상·현실 등 경계 사라진 자리
자본과 탐욕만 남아 혼란 예상
'여실지견' 사유·성찰 더 중요해

알파고 충격 이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수십 종의 단행본이 쏟아져 나오고 대다수의 학계와 단체들이 토론회를 하고 언론도 연일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실로 엄청난 담론이 쏟아지고 있지만 경제적, 산업적, 실용적인 측면에 치우치고 있다. 인공지능 컴퓨터와 로봇,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등이 지금까지의 인류문명과 판이하게 다른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 중심에 서야 하는 것은 인간이다. 이에 인문학, 그 중에서도 재현의 위기(the crisis of representation)론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밝음과 어둠에 대해 살피고 대안을 제시한다.

예전에는 두 남녀가 사랑하는 현실이 있고 이를 재현한 소설과 영화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청년들이 드라마와 영화 속의 사랑을 따라서 행한다. 현실이 영화나 드라마 텍스트로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텍스트가 현실을 구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9시 뉴스에서 빙송사 리포터의 발언과 현장의 동영상을 듣고 보며 그를 믿지만, 그것은 조작인 경우가 많으며 조작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기자나 방송사의 이해관계와 이데올로기, 시선에 따라 구성된 것이다. 똑같은 시위 장면이라도 경찰의 뒤에서 영상을 촬영하면 시청자 또한 경찰의 시선에서 '과격한 군중들의 행위'들을 바라보며, 군중의 뒤에서 촬영하면 군중의 시선에서 '공권력을 남용하여 무고한 시민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찰'로 바라보기 쉽다.

흑인을 폭력적으로 다룬 드라마가 흑인에 대한 백인의 편견을 낳고 이것이 결국 흑인을 폭력적이게 한다. 이처럼 재현의 위기론이란 현실이 미디어나 텍스트로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미디어나 텍스트가 현실을 구성하고 가상과 현실이 공존하거나 전도되는 현상을 설명하고 분석하는 이론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는 가상과 실제 현실이 뒤섞이고 전도된다는 점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게임 사이트 '세컨드 라이프(http://secondlife.com)'에 접속해 제2의 인생을 산다. 자신이 중증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어 여러 나라를 방문하며 축구경기를 하고 애인과 여행을 가고 이웃과 가든파티를 한다. 이곳에 상당수 나라들이 대사관을 설치하였고 삼성을 비롯하여 수많은 기업들이 지점이나 은행, 마트 등을 냈다. 이처럼 매트릭스는 이미 우리 곁에 있다.

가상과 현실이 뒤섞이면 가상이 현실을 조정하게 된다. 몇 년 전에 한 아이가 자기 동생을 여러 차례 칼로 찔러 죽였다. 게임 중독에 걸린 그는 며칠이 지난 뒤에도 자기 동생을 죽인 것이 아니라 게임 속의 악마를 죽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가상은 가상일 뿐이다. 가상세계에서 남북통일을 천 번 만 번 한다 하더라도 실제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실지견(如實知見)' 하지 않으면 게임과 실제를 착각하여 동생을 죽이는 것과 유사한 전도현상이 난무할 것이며 인간은 이제까지 맞은 어떤 것보다 더 심한 혼란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기계처럼 차가운 냉혈한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반면에 따스한 인간은 모두가 좋아한다. 우리는 기계와 생명을 구분하고 생명성을 추구한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면 기계와 생명의 구분이 없어진다. 흔히 생명에 대해 다섯 가지 요건을 근거로 정의한다. 생명이란 물질대사를 하고, 자기 복제 내지 번식을 하며, 다른 생명 및 자연과 상호작용을 하며 발달하고 진화를 하며, 그 자체로 정교한 조직체계를 갖추었으며 자율적인 자기결정을 한다. 강한 인공지능을 기계에 결합하면 이 기계는 생명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구사하게 된다.

지금 21세기도 인류가 맞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생명의 위기다. 매년 전 세계에서 600억 마리 이상의 동물을 도살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만 매년 식용으로 100억 마리 이상의 동물을, 한국에서 매년 10억 마리의 닭을 도살하고 있다. 국제자연보존연맹(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은 조사대상 동물 중 38%의 생명이 멸종위기에 놓였다고 발표하였다.

무엇보다도 생명이 권력에 의하여 관리되고 통제되고 있다. 여기에 생명의 구실을 모두 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계나 로봇이 출현한다면, 우리는 기계와 생명을 무엇으로 구분하고 어떤 생명성, 생명의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불교는 물 속의 미생물마저 죽이지 않기 위하여 여수낭(濾水囊)을 가지고 다니며 물을 걸러 마실 정도로 생명을 존중한다.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4차 산업이 몰고 올 생명과 기계의 경계 해체시대에 맞는 윤리와 철학을 세우고 이에 따라 인공지능 등의 발전을 제한하지 않으면 인류는 파국을 맞을 지도 모른다.

인지자본주의에서는 생명 자체가 기술적 개입의 대상이 됨으로써 생명은 자본이 된다. 인류의 공동유산인 유전자와 생명이 특허를 매개로 독점적인 상품이 되고 있다. 2015년 세계 제약 시장의 규모는 자동차나 반도체 시장의 2~3배를 능가하는 1조720억 달러(약 1,286조 원)에 달한다. 태양을 특허내는 것이 가당치 않은 것처럼 38억년 동안 생명들이 진화하여 이룬 것들을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부당하다. 그럼에도 셀레라 게노믹스 등 굴지의 생명기업들은 한 기업에서만 5,00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였다. 이처럼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 인간의 수명과 건강, 질병의 문제에 대한 자본의 장악력은 점점 심화될 것이다.

4차 산업이 디스토피아를 가져올 것인가, 유토피아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논쟁이 오가고 있다. 이를 결정하는 핵심은 세 가지다. 하나는 시민들이 재현의 위기에 현혹되지 않고 여실지견하며 권력과 자본에 올바르게 맞서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본의 논리가 4차 산업혁명의 생산과 분배를 관장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법, 제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정치에 맞서서 생명을 보듬고 살리는 생명정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기술 폐해 넘은 정신적 진보 함께 이뤄져야"

4차산업과 종교

이상봉 LG전자 에너지사업센터 사장

초지능·초연결·예측가능성 등
4차 산업기술이 보여줄 특징
기존 법·윤리 충돌 여지 많아

요즘 세계 산업의 주제는 단연 4차 산업혁명이다. 눈을 뜨면 4차 산업기술에 대한 언론 기사가 나오고 있다.

이미 인류는 1, 2, 3차 산업혁명을 겪었다. 이전 산업혁명은 "이것이 산업혁명"이라는 규정과 정의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현상을 산업혁명으로 구분·명명한 것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미리 명명하고 예측하고 있다.

2차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그동안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일을 기계가 대신함으로써 여러 일들이 가능해지며 산업이 부흥하기 시작했다. 경제가 발전하니 귀족이나 즐기던 문화가 일반인들에게도 제공되기 시작했다. 소위 접할 수 없던 것들을 접하기 시작한 것이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가 보편화 되면서 시작됐다. 우리는 3차 산업혁명의 생산성 증가를 체험한 세대다. 나의 경우 1983년 LG전자 전신인 금성사의 로봇 그룹에 입사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당시 로봇 설계도를 만드는 데 자와 연필이 필요했다. 일본 출장에서 만난 샤프펜슬은 놀라운 발명품이었다. 선을 일정한 굵기로 그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10년이 지나니 연필이 필요가 없어졌다. 모니터와 컴퓨터만으로 설계와 기안서 작성들이 가능해졌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된 것은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일하고 있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 혁명의 직전에 와 있다. 이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 등은 이전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B3면 하단서 계속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불기2561(2017)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같이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조계종 원로원장·회주 성 타

관 장	종 상	주 지	종 우
학 장	덕 민	부주지	정 문
총 무	종 천	교 무	정 수
재 무	성 심	포 교	성 요
호 법	성 담	사 서	정 빈
신도회장	이영숙		

부설기관

- 불국사 템플스테이 ☎ 054)746-0983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사 문화회관
- 성림 어린이집
-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 유치원
-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진현동)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



4차 산업을 보는 다양한 시선들

Industry 4.0 위기인가 기회인가

자가치유 · 명상… '정신 문화'를 선도하라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제시되면서 지구촌이 들썩이고 있다. 산업혁명은 인류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규정기술이 개발되면서 일어난 문명권의 가장 중요한 변화 양태였다. 불의 사용, 쟁기의 등장 등이 농업혁명의 규정기술이었다면 증기기관과 전기의 발명은 산업혁명을 일으킨 중요한 요소였다.

학계에서는 제1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18세기 후반에 시작된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으로 나타난 변화로 설명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석탄과 철강산업, 그리고 면직물 생산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장세를 이룩하였다. 제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20세기 초에 진행된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이다. 공장에 전략이 공급되면서 컨베이어벨트를 사용한 대량생산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제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에 시작된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이다. 이때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IT 기업이 부상하면서 미국이 초일류 강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2015년부터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도래하고 있는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 사이버 물리시스템(CPS),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로봇공학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과거와는 다른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자율적 심화학습이 가능한 인공지능과 이를 탑재한 로봇의 등장은 지구상의 직업구조를 완전히 재편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이 사회 전반을 바꾸어 버린다면 이에 대응하여 불교계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현 단계로는 새롭게 도래하는 사회가 어떤 모습일까를 추측하는 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금까지 인간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던 일들을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대신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도래한다면 인류는 삶의 양식에서 매우 혁신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일반 국민들은 노동 현장에서 벗어나 문화를 향유하고 정신적 가치가 있는 일에 더 몰두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정신적 갈등과 고통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육체적으로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정신적 나태와 일탈을 수반하게 됨으로써 고통의 강도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3가지 분야에 대한 연구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것은 문화, 치유상담, 그리고 명상 분야다. 문화는 삶의 양식을 결정하기도 하고, 삶의 과정에서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일상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문화부터 진선미를 추구하는 정신적 가치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문화는 다양한 양태로 형성되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이런 다양한 영역들 중에서 삶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미술과 음악, 향기와 식음료, 건강 증진에 필요한 요가, 그리고 지혜의 증장에 필요한 명상과 수행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양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인류가 직면할 정신적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을 찾기 위해서는 자가 치유 증진을 위한 상담방법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 재세시의 인도에서 가장 많이 출가한 계층이 왕족과 귀족계층이었다. 평민이나 노예 계급에서 출가자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출가자의 주류는 귀족계급과 장자들이었다. 이것은 삶의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경제성장과 풍요가 지속되면 자신의 정신적 고통과 번뇌 망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교적 수행에 관심을 갖는 계층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불교는 정신적으로 자가치유를 증진시키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치유상담, 소통 등의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정신적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간의 지적 욕구와 정신적 갈등은 극대화 되면서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바로 보고 싶어한다. 인류는 스스로 자문해 볼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이 누진명, 숙명명, 천안명 등과 같은 삼명(三明)의 지혜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세 가지 지혜를 갖추는 방법은 불교 전통의 명상법에서 찾을 수 있다. 때문에 스스로 내면의 정신적 혁명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불교의 전통 명상과 각국에서 발전한 수행법을 배우려고 할 수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2700년 전에 이미 당시의 문화 전통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설법을 하셨고, 그 가르침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정신적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불교계는 새로운 문화 전통을 만들어가고, 자가 치유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현대인들의 바람을 수용할 수 있는 명상법을 개발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깨우친 뒤 이를 응용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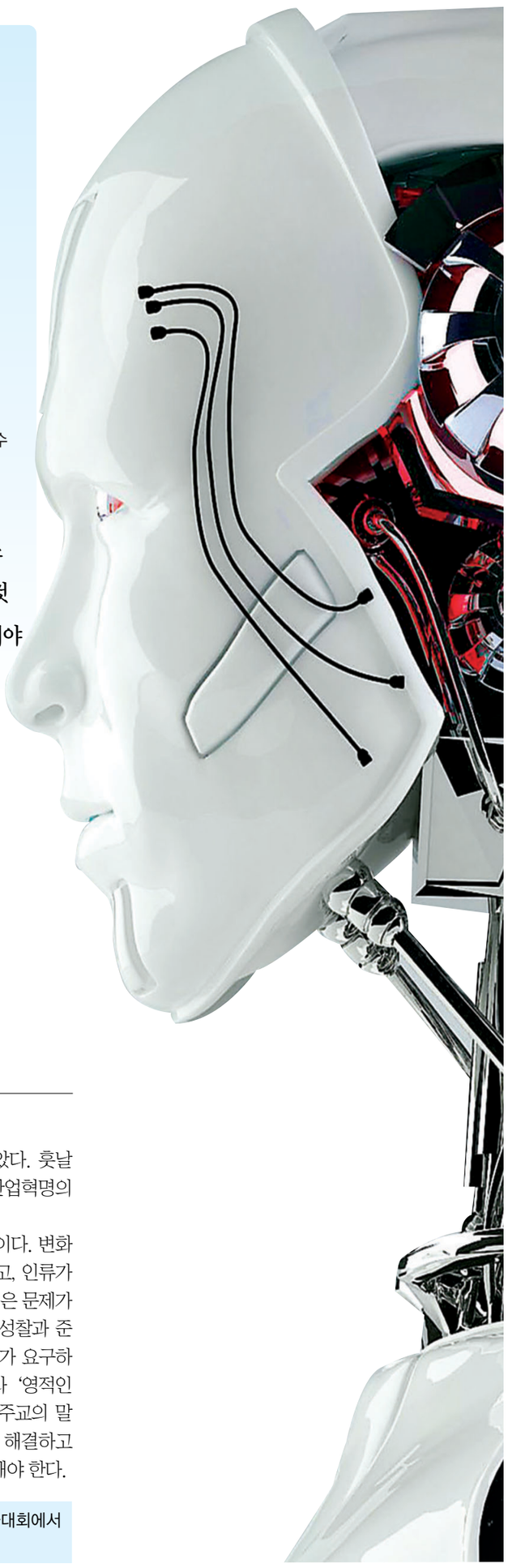
농업혁명이 산업혁명을 낳았듯이 산업혁명은 정신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다. 기존의 가치관, 삶의 방식, 생활환경 등이 모두 바뀌면서 인류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을 해결하는 종교가 살아남을 수 있고, 사회를 주도할 수 있다. 3000년 전 활발했던 주류 종교가 지금은 흔적을 찾기 어렵게 된 것처럼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종교는 곧 소멸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은 종교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부터 500년 전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처럼.

4차 산업혁명, 불교적 대응 방안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

미래엔 인간 노동 확연히 축소
자신 성찰하는 명상 인구 늘 것
佛法 바르게 배워 응용 노력해야



4차 산업혁명의 본질과 특징은 무엇일까. 기계와 같은 물리적인 실체, 인간과 동물이라는 생명학적 존재, 디지털이 융합이 4차 산업의 본질이다. 특징으로는 △초지능성 △초연결성 △예측가능성을 꼽을 수 있다. 이 같은 특징을 가진 4차 산업기술들이 바로 인공지능 · 사물인터넷 · 3D 프린트 · 에너지 저장기술 등이다. 자율주행 차량, 로봇, 스마트 공장들은 현재 구체적으로 가시화 된 산업제품들이다.

초지능성은 인공지능 로봇으로 볼 수 있다. 얼마 전 딥러닝 인공지능인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국이 화제였다. 결과는 이세돌이 1승 3패로 패했다. 이후 알파고는 60번 대국을 진행했고 전부 승리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바로 '딥러닝'이다. '딥러닝'은 알고리즘을 설정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4차산업 초지능성은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에 대한 것이다.

초연결성은 사물인터넷과 연관이 돼 있다. 과거 인터넷은 2명만 주고 받았지만, 지금은 120억 명의 대상에게 정보 교환이 가능해졌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인간의 삶은 풍요로워 질 수 있다. 인공지능과 스피커 · 휴대 전화 · TV · 사무실 등이 연결돼 스케줄 관리와 쇼핑 등이 이뤄진다. 인간에는 많은 시간적 여유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잉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할 문제가 된다.



4차 산업혁명의 결과가 인간 생활에 어떤 문제와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우선, 강한 인공지능 로봇을 하나의 인격체로 볼 수 있겠는가. 사고하고 감정이 있는 로봇을 이성적으로는 인격체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감정적으로는 인격체로 인정한다. 법적인 문제와 윤리적 문제 차이를 정리하지 않으면 인간이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은 분명하다.

양극화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다. 국가와 국가, 개인과 개인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것 역시 해결하며 4차 산업기술이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아직 4차 산업혁명은 도래하지 않았다. 훗날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이었다는 평가도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변화는 시작됐다는 것이다. 변화를 부정하고 폐해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인류가 받을 수 있는 이득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성찰과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한다. "임박한 변화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대응이 아니라 '영적인 대응'"이라는 저스틴 웰비 성공회 대주교의 말처럼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폐해를 해결하고 진보해 가는 지혜는 종교계에서 제시해야 한다.

이 글은 한국종교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진행된 기조 강연을 정리한 것입니다.





‘걸음마’ 4차 산업… 불교, 통섭 시도 ‘잰걸음’

불교계 4차 산업 현황은

불교학계

불교학회, 매달 관련 포럼
오는 12월 국제학술세미나
교불련 등도 강좌 · 학술행사

관련 산업체

동국대서 AR 동화책 선봬
불교 콘텐츠 기반해 ‘눈길’
다나 ‘360VR’ 박람회 호평

불교, 문화 콘텐츠의 寶庫

관련기술 만날 플랫폼 필요


㈜다나에서 개발한 ‘360VR’을 불교박람회 참석한 대중이 체험하고 있다.


한국불교학회가 오는 7월까지 개최하는 ‘4차산업과 불교’ 월례 포럼의 모습. 불교학계에서 4차 산업혁명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


동국대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이 개발한 AR-Book ‘불국사를 지킨 황금돼지 금황이’의 구동 모습. 관련 어플과 책이 있으면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단연 올해 한국사회의 화두다. 정치 · 경제 · 사회 전반에서 이에 대한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다. 기존 인식이 근본부터 변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불교계의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불교는 ‘잰걸음’으로 좇고 있다.

당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곳은 불교학계다. 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는 지난 3월 25일부터 오는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불교와 4차산업’을 주제로 월례 포럼을 개최한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기술 △스마트 시티 △가상 및 증강현실(VR · AR) 등 4차 산업기술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 한국불교학회의 월례 포럼은 관련 불교학 연구자들의 기술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불교학회는 오는 12월 1~2일 ‘불교와 4차 산업’을 주제로 대규모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국내외 관련 학자 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인 학술대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 기술에 대한 불교적 해석, 응용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다른 학술단체들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거나 준비 중이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심익섭)는 4월 20일 ‘전환기 한국불교-4차 산업혁명과 한국불교’를 주제로 불교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각범 KAIST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김세곤)는 4월 21일 ‘4차 산업혁명과 종교교육’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불교를 대표하는 학술계간지 〈불교평론〉은 올 겨울호 특집으로 ‘4차산업’을 다룰 예정이다.

사회적으로 4차산업에 대한 기술이 빠르게 발전 · 적용되는 상황에서 이를 불교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한 불교학계의 대응은 고무적이다.

‘인공지능로봇의 불성 연구’로 2008년 조계종 승가대학 학인 논문 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던 보일 스님(해인사 승가대학 강사)은 “불교는 세상의 이야기며, 변화에 맞춰 시대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종교다. 불교학계의 ‘4차산업’ 관련 논의는 늦은 감은 있지만 충분히 고무적”이라며 “한국불교도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기술이 불교 문화콘텐츠와 접목되는 사례들도 아직 초보 단계지만 시도되고 있다.

동국대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원장 김정환)은 최근 불교 동화 증강현실(AR)-BOOK ‘불국사를 지킨 황금돼지 금황이’(기획 · 개발 이영숙)’를 개발했다.

교육부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개발된 ‘황금돼지 금황이’는 불국사 대웅전에 있는 황금돼지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동화의 내용은 다른 돼지들과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던 황금돼지 금황이가 이무기로부터 불국사를 지킨다는 것으로 관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스마트폰을 동화책 관련 페이지에 가져가면 AR 동화가 보여진다.

‘황금돼지 금황이’는 불교를 기반한 스토리텔링과 AR이 결합된 복합적인 콘텐츠로, 기성 도서업계에서도 찾기 어려운 시도다.

김정환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장은 “이번 AR-BOOK 발간으로 불교 철학이 현대적 콘텐츠로 개발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면서 “불교를 기반한 후속 AR-BOOK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 불교 대중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계 IT 전문 업체인 ㈜다나는 가상현실을 기반한 ‘360VR’을 2016년부터 불교박람회서 선보이고 있다. VR기기를 통해 불국사, 마곡사 등 사찰 문화재와 발우공양 등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360VR’은 스님부터 재가자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처음에는 시큰둥한 스님과 불자도 막상 체험하면 모두 놀라운 경험이라고 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심지어는 합장을 하는 불자들도 있다는 게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올해에는 연등축제 전통문화마당에도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불교와 4차 산업기술의 접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불교는 문화콘텐츠의 보고(寶庫)로 4차 산업기술과 만날 때 대중적 파급력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4차 산업기술과 자본, 그리고 불교 문화콘텐츠가 만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불교계가 조성할 것도 제안했다.

‘황금돼지 금황이’를 개발한 이영숙 동국대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교수는 “불교의 다양한 연기 설화를 스토리텔링하고 캐릭터를 발굴하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다”면서 “미래 기술인 AR 등에 불교 문화콘텐츠를 접목하면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대성 ㈜다나 대표는 “불교를 기반한 문화 · 힐링 콘텐츠는 강점이 있지만, 관련 경제 규모가 적어 자체 개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자본과 관련 기술을 가진 검증된 업체들이 불교 콘텐츠와 접점을 이룰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불교계가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해외 4차산업 적용 사례는

VR 명상부터 로봇까지 불교 관련 콘텐츠 ‘다채’

불교와 관련해 4차 산업기술들이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곳은 명상 인구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서구 사회다. 특히 가상현실(VR) 기술과 접목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유서가 깊은 콘텐츠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이다. 미국 린든랩에서 개발한 온라인 VR 플랫폼인 ‘세컨드 라이프’는 전 세계 870만 명이 10년 넘게 즐기고 있다.

‘세컨드 라이프’에 접속, 자신의 아바타를 지정해 플랫폼에 들어서면 그곳이 자신의 새로운 세상이 된다. 공부를 해도 되고, 제품을 만들어 팔기도 한다. ‘린든 달러’라는 화폐가 통용돼 경제 활동도 할 수 있다. 그 가상공간 안에서 붓다 센터라는 대규모 불교 명상 사원도 찾아볼 수 있다. 이곳에서 전 세계의 불자들은 설법을 듣고 수행을 하며, 사찰 재정을 위한 보시도 한다.

VR 기어를 활용해 실제 명상을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은 최근 속속 개발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제작자들이 게임업체라는 것이다.

최근 주목받는 것은 창작 에이전시 ‘큐비클 닌자스’에서 개발한 VR 명상 게임 ‘가이디드 메디테이션 VR(Guided Meditation VR)’이다.

좌선, 와선, 행선까지 모두 지원해 VR 명상의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로 유저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주위 환경들도 변화가 가능하다. 울창한 나무숲, 청정한 개울가, 고요한 동굴, 영험한 사원, 풀들이 우거진 정글 등 17개의 다양한 장소에서 명상을 할 수 있다.

명상 분야도 설정이 가능하다. 선(禪)부터 무브먼트, 컴패션, 릴렉세이션 등 다양한 명상법을 분류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제공하며, 긴장 이완 · 집중력 향상, 활력 증진과 같은 자신의 상태에 맞는 명상법도 선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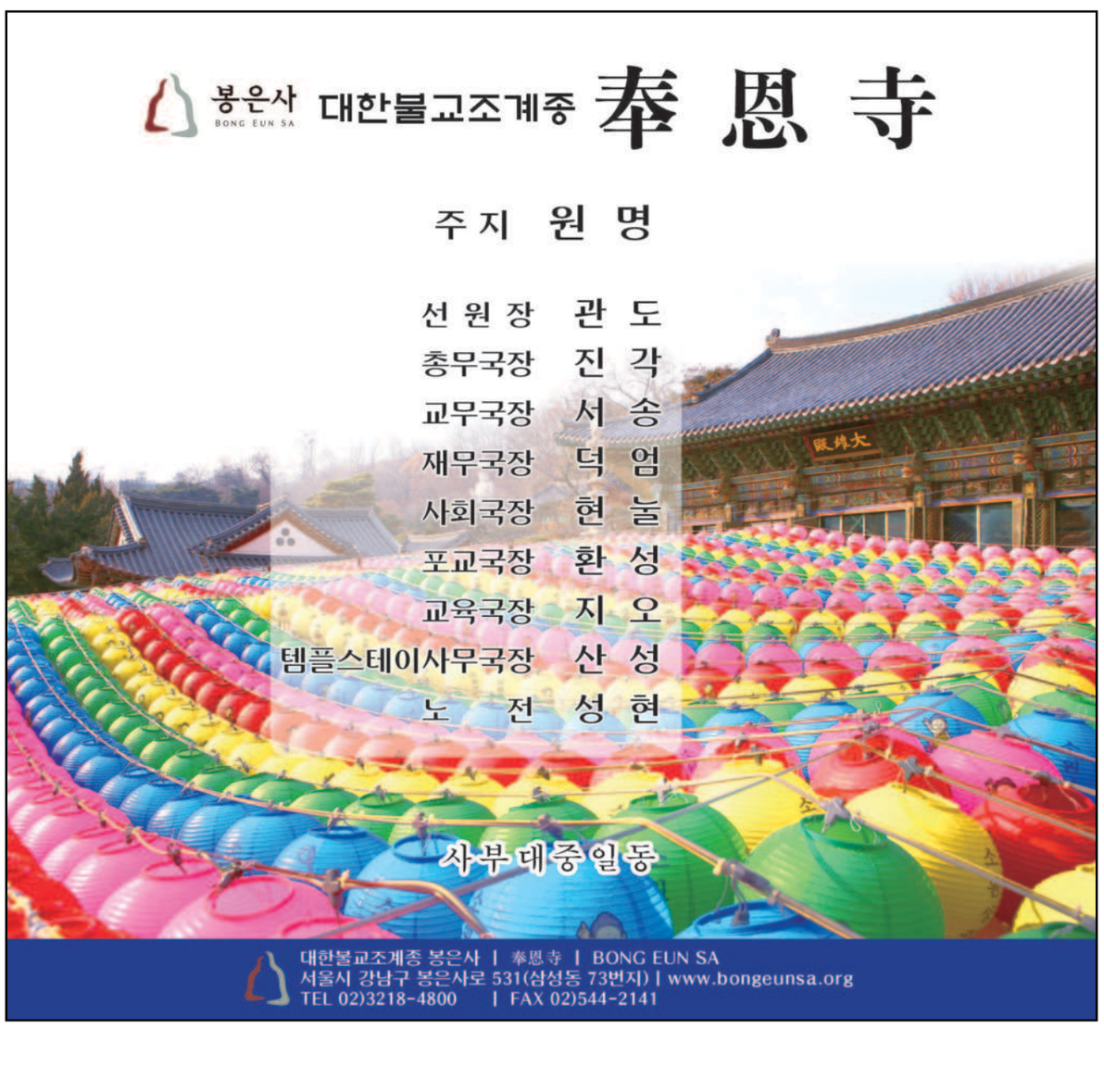
인공지능과 불교와 만남은 중국서 처음 시도됐다. 중국 베이징 용천사에는 일명 ‘알파승’ 인공지능 동자승 로봇 ‘셴얼 스님’이 있다. 약 60cm의 동자 로봇은 노란 가사를 입고 가슴에는 터치스크린을 부착했다. 2족 보행이 가능하며, 바퀴는 7가지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동자 로봇은 불교 또는 용천사 관련 20여 가지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지능도 가졌다.

향후 용천사는 동자 로봇의 기능을 개선해 새로운 승려 로봇의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디지털 문화 애호가로 널리 알려진 용천사 주지 셰청 스님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불교는 명상과 자기 수양을 통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뿐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게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며 “뉴미디어 · 인터넷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불교 교리와 지혜, 자비를 더욱 쉽게 전하는 것 또한 그 역할”이라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佛敎, 열린 자세로 과학과 적극 만나라

4차 산업혁명시대 불교 미래와 과제

4차 산업혁명시대는 이제 눈앞에 와 있다. 이미 사회 각 분야에서는 도래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관련 기술을 활용할 지를 논의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 · 처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4차 산업기술이 가져올 미래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혁명적 변화가 예상된다. 불교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스님과 재가 학자들은 각각마다 다양한 전망을 내놨다.

'인공지능로봇의 불성 연구'로 2008년 조계종 승가대학 학인 논문 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보일 스님은 폐쇄성이 사라져 선의 대중화나 세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보일 스님은 "현재 참선 시간을 재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시간을 세팅하고 참선하면 인터넷이 연결돼 전 세계에 나와 같은 시간에 몇 명의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정서적 친밀감과 연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진다"며 "전문 수행집단이 승가와 비전문 수행집단과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수행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 전문가인 지승도 한국항공대 교수는 4차 산업기술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장점 등을 예상했다.

지승도 교수는 "가상현실과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하면 마음의 메커니즘을 세밀하게 재현할 수 있고, 수행의 효과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이용하면 불교신도 관리나 포교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교의 현대적 방편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움이 중요하다"면서 "지혜의 측면에서는 거꾸로 불교의 도움이 결정적이다.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미래과학의 핵심은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기술은 초연결성 · 초지능성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어떻게 불교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화엄 · 연기에 대한 해석들을 제시했다.

박수호 중앙승가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아함경〉에서 이야기하는 연기가 4차 산업기술을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이론적 토대를 만든다"면서 "사람을 둘러싼 모든 것에 따라 존재가 규정되고, 연기적인 그물망 타고 밖에 영향 미치고 끊임없이 상호작용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4차 산업기술의 기본적 틀을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헌 세종대 교수는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 초연결망의 특징이다. 이는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는 사회"라면서 "연결망 사회를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 만물이 상호작용을 하며 연기 법칙 안에 있는 것이다. 연기는 연결망 사회 세계관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보일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과학기술에 방향성 제시 역할

불교 · 과학 융섭 인재 양성해야

보일 스님은 화엄의 '상즉상입(相卽相入)'을 통해 설명했다. 모든 현상의 본질과 작용은 서로 융합하여 걸림이 없다는 '상즉상입'은 4차 산업기술과 유사점이 많다는 것이다. 스님은 "4차 사업기술은 모두 연기적 세계관으로 확장해 인식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각각의 꽃을 피우고 있으나 근원은 하나임을 잊지 않고 연대하는 소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윤리나 가치관 변화 · 발전과 정비례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올 폐해로 지적되는 것이 대량실직으로 인한 양극화와 생명 경시 등이다. 이미 대량실직은 눈앞에 닥친 일이 되어가고 있다.

지승도 교수는 과학과 문명의 발전이 행복과 비례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과학 기술이 발전하는 이유는 색(色)의 본성 때문"이며 "문제는 본질인 공성을 모른채 색에만 집착하는 인간의 의식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생각했던 원자력이 병기로 전환될 때의 무서움을 예로 든 박수호 연구위원은 "기술은 항상 양면성이 존재한다. 결국 '사람이 어떻게 사용 · 활용하는가'만이 문제로 남는다"면서 "불교도 같은 맥락에서 기술의 본질과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의 예상하면서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승도 한국항공대 교수

VR, 마음 메커니즘 재현 가능

'불교 과학화' 미래 포교 모델

이상헌 교수는 "기술 발전은 인간의 필요가 아닌 욕망서 기인된다"면서 "욕망으로 특정 개인, 집단에 종속된 기술을 따듯한 기술,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일 스님은 과학 기술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 성난 말의 비유를 들었다. 성난 말의 다리를 부러뜨려 조복시킬 것이 아니라 성난 말의 등에 올라타서 길들여 초원을 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과학 기술에 대한 유익한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님은 "폭주기관차 같은 과학 기술을 브레이크로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정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불교와 과학이 어떤 지점에서 만나고 충돌하는지를 학자와 스님들 모두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학 기술의 활용에 있어서도 욕망의 증진이 아닌 공공성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들도 나왔다. 보일 스님은 "과학 기술의 동기와 발전이 인류의 공공선, 자비에 귀착하는지, 아니면 자본 증식에 목적이 있는지를 살피면 답은 간단히 나온다"면서 "자비심을 잘 살피면 충분히 해악은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박수호 중앙승가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4차 산업기술 '초연결성' 특징

끝없는 상호작용 연기로 해석돼

이상헌 교수도 "분명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성은 극대화 될 것이다. 문제는 향상된 기술 혜택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이다"며 "대량실직을 야기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이야기되고 있다.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눈 앞에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까.

지승도 교수는 불교가 열린 자세로 과학과 적극적인 만남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지승도 교수는 "4차 산업시대를 필두로 서서히 드러날 미래과학은 한마디로 '공성'"이라고 단언하며 "지금이야말로 불교의 과학화에 매진할 때다. 젊은이들에게 불교야말로 첨단과학이자 궁극의 과학임을 바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마인드&라이프 학회는 뇌공학 · 인공지능 · 양자역학 · 심리학 · 인지과학 등 관련 학자들과 스님을 비롯한 불교학자들이 주기적으로 만나 실질적인 연구와 실험 그리고 토론 등을 통해 불교와 과학 간의 간극을 줄여 나가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미래과학의 토대를 세우는 일임과 동시에 불교 포교의 현대적 모습이다. 한국불교도 그와 같은 시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세종대 교수

근대 기술 발전, 욕망에 기인

욕망의 기술을 인간에 돌려줘야

박수호 연구위원은 "불교가 기술 변화에 대해 무조건 수용 아닌 선별적 수용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불교는 외부적인 변화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면서 흐름들을 주도하지 못했던 게 한계였다. 4차 산업혁명은 함께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불교 나름대로의 논리와 전략과 흐름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일 스님은 시대에 맞는 불교로 거듭날 것을 제안했다.

스님은 "부처님의 유훈은 세상은 빠르게 변하니 수행과 정진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부처님의 법을 전함에 있어 끊임없이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경고였다"면서 "결국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업데이트, 자기 쇄신이 있어야 부처님 법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승가도 융복합적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뇌과학 등 첨단 학문을 배우고 밖에서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외전을 본다고 비판할 일이 아니다"며 "이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Buddha's Birthday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강학과 수선, 문화와 복지공동체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도솔산 선운사

주 지 경우
사부대중 일동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 복지재단
- 선운사 성보박물관
-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 고창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 선운사 승려노후수행마을
- 선운사 기초 푸드뱅크
- 고창군 노인복지관
- 고창군 육아 종합지원센터
- 선운사 초기불교승가대학원
- 백파사상연구소
- 고창군 푸드마켓

평생 수행과 교화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4교구 승려노후 수행마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 063)561-1422 Http://www.seonunsa.org/

철 골조로
사찰 신축 전문
지붕개량 전문

장점
- 목조보다 50% 비용 절감
- 지진에 강함
- 비틀림이 없음
- 공사기간 단축



대수건설 010-3911-1775. 011-9726-9288



佛紀 2561年 丁酉年 | 전면광고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 B6

성내는 자에게 같이 성내지 않으면 두 가지 승리를 얻는다. 스스로를 이기고
성내는 자를 이기는 것이다. 〈상응부경전〉

익산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일행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익산 관음사

주지 덕림

대중 일동

이리 불교대학

학 장 덕림
부학장 송동기

■ 전북 익산시 갈산동 31-9
TEL 063)854-1578. 842-6652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금 선 암

주지 덕산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192-1
TEL 063)221-8486

보리도량

금강승가회

회장 송월
총무 법전
재무 선재

사부대중 일동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불교

전주불교연합회

■ 전주시 덕진구 매봉로 40
TEL 063)714-3309

대한불교조계종 제 24교구

성 불 사

주 지 종 명
명예회장 진여심
신도회장 정각행
거사회장 성문수

사부대중 일동

■ 전북 군산시 경암동 서래내길 34
TEL 063)445-3266
http://seongbulsa.org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함라산 숭림사

(보물 제 825호 보광전)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주지 지광

신도회 관음회 일동

■ 전북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5번지
TEL 063) 862-6394
홈페이지 : http://www.sunglimsa.com/

지장보살의 사상을 실천코자 노력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오봉산 영선사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꿈을 실천하고 있는
등용청소년공부방

매 방학기간
'국가사회 동량 양성기원
방학 학업 특별용맹정진'
봉행됨

사단법인 사람과 희망

■ 전북 남원시 인월면 상우리 산 32번지
TEL 063)636-2195
http://www.youngsunsa.org/
http://cafe.daum.net/youngsunsa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정 각 사

주지 일행

사부대중 일동

■ 063) 857-6533

정각복지센터

주간보호방문요양

■ 전북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65-5
TEL 063) 841-1355

동양최대 마애반가 지장기도도량

순창 장덕사

주지 청암

지장법륜회
신도회 일동

■ 전북 순창군 순창읍
장덕마을길 37-19
TEL 063)653-1525

한국불교태고종

오성산 성흥사

주지 송월

사부대중 일동

■ 전북 군산시 성산면
큰골길 32-65
TEL 063)453-0050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천호산 백운사

회주 우성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익산시 여산면
천호산길 155-23
TEL 063) 836-8047

2017 부처님오신날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남원시 봉축법요식 · 연등축제

- 일시 : 2017년 4월 30일 15시
- 장소 : 남원 사랑의 광장
- 행사 : ◇ 체험행사
  (족욕, 만다라 만들기,
  목탁치기, 단주만들기)
  ◇ 기념법회
  (법문 : 도법큰스님)
  ◇ 제등행진
  ◇ 풍등소원등 날리기
  ◇ 요천장엄
- 식전공연 : 석식 (짜장면, 꿀떡)
- 주관 : 남원시 봉축위원회
- 후원 : 남원시 남원 불교사암연합회
  남원 불교신행단체연합회

대한불교조계종

용 문 사

주지 청안

사부대중 일동

예천용문사에는 국내 유일한 보물
대장전의윤장대와 목조삼존불이 있으며
대장전안에는 불교경전을 넣고 손잡이
를 돌리면서 극락정토를 염하는 유일한
중요문화재이며 회전식 장경각이다.
성보박물관에는 탱화와 영정. 불상 등
많은 불교유물이 전시되어있다.

**「 사찰문화를 체험할수있는
템플스테이도 운영 」**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
TEL 054)655-1010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산 축서사

주지 무여

문수선원.
불교대학.대학원
축서사바라밀 합창단

사부대중 일동

축서사 극락원
(수목장)자연과함께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장묘문화

■ 경북 봉화군 물야면 월계길 739번길
전화 054)672-7579

대한불교조계종 제 17교구

남 고 사

주 지 **원 혜**

사부대중일동



■ 전북 전주시 동서학동 2가 724
☎ 063)284-9640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 18호

영산작법보존회

회 장 **혜 정**
부회장 **혜 안**

총 무 **정 수** 교 무 **법 전**
재 무 **지 오** 교육원장 **지 산**

사부대중일동



마이산 쌍 봉 사

주 지 **보 경**

사부대중일동



■ 전북 진안군 마이산로 37-21
☎ 063) 432-0880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능가산 내 소 사

주 지 **진 성**

사부대중일동

■ 전북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243
☎ 063)583-7281 http://www.naesosa.org/



해동제일명승 관음기도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내장사

내 장 사

주 지 **도 완**

사부대중일동

■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산로 1253(내장동 590)
☎ 063)538-8741~2 http://www.naejangsa.org/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능가산 개 암 사

사부대중일동

■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개암로 248번지 ☎ 063)583-3871
http://www.gaeamsa.org/



신비령산 소원천지탑
음이온 명상치유 선도량

마이산탑사

회주 **혜명스님**
주지 **진성스님**

총무 **정해스님** 홍보 **진송스님**
교무 **보문스님** 기획 **정원스님**

▶ 봉 사 ◀

연탄나눔 봉사
갑룡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진안군 어르신 생신잔치 봉사
전주교도소 불교반 특별법회
사랑의 백미나눔
대구분원 혜인정사 색소폰 봉사밴드
대구분원 혜인정사 연 꽃 봉 사 단
마이산탑사 색소폰 봉사밴드
마이산탑사 나누우리 봉사단



■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367 ☎ 063)433-0012
www.maisantapsa.co.kr



상생의 불교경제, 키워드는

불교&Start Up

프롤로그

부처님 당시 신흥 상공업자로 등장하여 경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장자계급은 혁신적이고 중도적인 종교 불교에 열광했다. 당시 기존의 브라만교에 대항하는 혁신적 종교인들을 사문이라고 불렀는데 부처님은 사문 중에서 신흥 상공업자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았다. 신흥 상공업자들은 오늘날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으로 대변되는 인터넷, 디지털 기업과 유사하다.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IT 기업들은 불교에 호의적이며 회사 내에 명상이 보급되도록 장려하는 기업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부처님 당시 신흥 상공업자들이 불교에 열광했던 역사적 경험과 유사하다.

혁신 · 자유의 철학과 깨우침 제공

어떤 불교학자는 신흥 상공업자들의 문화에 부합하는 교리를 제공한 것이 불교가 신흥 상공업자들의 지지를 획득한 중요한 이유라고 주장한다. 2600년 전에 등장했던 혁신적인 종교와 혁신적인 경제계급의 모습은 여러모로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일구어내어야 하는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흥 상공업자들은 불교에 거액을 기부하고 불교의 전파에 헌신하여 불교를 발전시켰고 불교는 이들에게 혁신적이고 자유로운 철학과 깨우침을 제공했다.

부처님 당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날과 흡사한 측면이 있다. 첫째 농업생산성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농업으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되자 신흥 상공업자들이 대거 등장한다. 신흥 상공업자란 주로 상업과 공예, 수공업에 종사하는 새로운 경제활동계급이었다. 마치 오늘날 인공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둘째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부를 축적한 새로운 경제계급과 가난한 사람과의 빈부격차 문제가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는 사실이다. 인도는 당시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의 4계급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농업과 상업은 바이샤의 임무였다. 바이샤 계급 중에 상업, 공예, 수공업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이 대거 등장하자 브라만과 크샤트리아 계급도 돈 벌이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이들 새로운 부자 계급을 불교 경전에서는 장자라고 부르고 있다.

셋째 브라만, 크샤트리아 계급도 돈 많은 수드라 계급에 굽혀야 할 정도로 돈이 사회적 신분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도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가치는 돈 앞에 속절없이 무너진다. 과거에는 명문가라고 하면 돈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오늘날은 '삼성가' '현대가'처럼 오직 부자들에게만 가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당시 인도는 경제의 규모가 급팽창하면서 사유재산제도, 화폐, 금융업이 등장하며 오늘날의 자본주의와 유사한 경제시스템이 구축된다. 부처님은 매우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상업이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富는 富를 통해 증대된다"는 기록이 보일 정도로 돈이 돈을 버는 승자독식 현상이 나타났다. 자본주의는 시장의 승자에게 富를 몰아주는 제도이기에 필연적으로 승자독식과 빈부격차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시장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불교는 승자독식과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불교자본주의적 해법을 담고 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를 개혁할 수 있다.

정법국가는 상속자 아닌, 창업자의 나라

부처님은 정법국가를 설하였다. '치우치지 않으며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정법국가는 자본주의의 승자독식과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이다. 불교 경전에 담겨 있는 불교자본주의 정신은 천민자본주의를 진정한 시장자본주의로 개혁할 수 있는 해법이다.

경제에 있어서도 정치에 있어서도 윤리가 제일 중요하다. 시장자본주의의 멘토로 꼽히는 아담 스미스는 유난히 윤리를 강조했다. 아담 스미스는 빵가게 주인은 이기심 때문에 빵을 만든다는 유명한 말을 했지만 윤리가 실종된 시장자본주의는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도덕감정론'이라는 기념비적 명저를 썼다. 시장자본주의가 윤리에 의해 인도되지 않으면 시장자본주의는 천민자본주의로 전락한다. 시장자본주의는 자유

부처님 재세시 인도경제 · 산업
4차 산업 초입의 지금과 같아
정법 국가의 기본은 공정 · 혁신
불교가 창업의 새 롤모델 돼야

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윤리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 있어야 한다.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도 윤리가 뒷받침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상생이라는 불교 단어야 말로 치우치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법국가를 상징하는 단어다. 모든 존재가 연기 화합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연기의 세계에서 상생은 가장 중요한 자본주의 윤리이다. 상생이 대한민국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는 새로운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재벌 체제 하에서 얼마나 성공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상생이라는 불교경제의 윤리가 올바르게 정착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주가가 오르고 GDP가 상승해도 국민의 피부에는 와닿지 않는다.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의 20%는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의 30%는 삼성과 현대가 맡고 있기에 재벌과 대기업의 성장은 국민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재벌과 대기업이 성장하여도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표현도 있다.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타트업 기업이야말로 재벌과 대기업에 치우친 대한민국에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역동적 해법이다.

블룸버그의 보도를 보면 세계 500대 부자에 오른 한국 부자는 모두 창업자가 아니고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상속자이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경제가 발전하고 재벌이 있었던 일본도 세계 500대 부자에 오른 5명 모두 창업자였다. 이것만을 놓고 보면 우리의 경제보다 일본의 경제가 더 역동적이다. 2016년에 이르러서야 게임사업자인 권혁빈이 5명의 부자에 포함되었는데 한국에서 번 돈이 아니라 중국에서 번 돈으로 랭킹에 올랐다. 한국에서 창업자가 돈을 번다는 것은 꿈도 못꿀 일이다. KBS에 보도된 미국 피터슨 경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2014년 한국 억만장자 중 상속 부자비율은 74.1%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는데 일본 19%, 미국 29%, 67개국 평균이 30%인 것에 비하면 해도 해도 너무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닌데도 이렇다면 정의, 경쟁, 혁신이 실종된 천민자본주의의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상속자의 나라에서 창업자의 나라가 되려면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시장자본주의를 이 땅에 구현해야 한다.

21세기 혁신 생태계 바탕에 '불교' 있기를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신성장기업과 벤처기업은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신성장기업과 벤처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인프라와 생태계가 구축되면 신성장기업과 벤처기업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을 일구어내고 경제를 성장시킨다. 부처님 당시에 새롭게 등장한 신흥 상공업자들은 말하자면 신성장기업과 벤처기업처럼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게 도시를 조성하고 생태계를 구축한 군주는 경제가 발전하여 강대국으로 발전해갔다. 대한민국도 스타트업을 통하여 신성장기업과 벤처기업이 육성되면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일구어낼 수 있다. 정부가 이러한 생태계를 조성하지 못한다면 불교계라도 나서서 불교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는 불교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면 어떨까?

부처님은 출가자에게는 돈을 만지지도 말고 돈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했지만 재가자들에게는 열심히 돈을 벌라고 하셨다. 부처님은 농업, 상업, 목축업, 금융업, 부동산 임대업 등 다양한 사업을 재가자에게 권고하셨기에 오늘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권장하실 것임에 틀림없다. 불교는 시장자본주의에 지친 현대인에게 새로운 삶의 양식과 문제해결의 처방을 제공해줄 수 있다. 불교의 혁신성, 다양성, 유연성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스타트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철학과 토양을 제공해준다.

불교 스타트업 기업을 통해 불교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불교가 고루하고 현실도피적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불교 믿으면 가난해진다'라는 말은 친시장, 친자본적인 불교교리에 맞지 않는 모함이다. 부처님 당시에 신흥 상공업자들의 종교였던 불교가 이제 다시 대한민국 경제에서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불교 스타트업 기업도 그 작은 시작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불교 스타트업 기업은 불교교리에 입각한 불교경영의 모범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 불교는 인도, 중국, 한국, 일본에서 중생의 경제적 고통을 해결하고자 불교경제공동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불교 스타트업의 성공을 통해 21세기 불교경제공동체의 첫걸음을 기대해본다.

윤성식 고려대 교수

Buddha's Birthday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주지 김월도



총 무 신거성
교 무 최문법
재 무 박대거
부 전 전선관
부전거사 유사유
신도회장 김수웅

사부대중 일동

◆ 정기법회 : 매월 첫째, 셋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옥불보전

(우 0676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 / TEL 3460-5300, FAX 3460-5200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
주지 도후
사부대중일동

불기2561(2017) 부처님오신날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www.naksansa.or.kr
관음진신주처 관음성지 오봉산낙산사



■ 무산사(양양포교당)
· 낙산유치원
· 낙산사불교대학
· 템플스테이
· 강원파라미타청소년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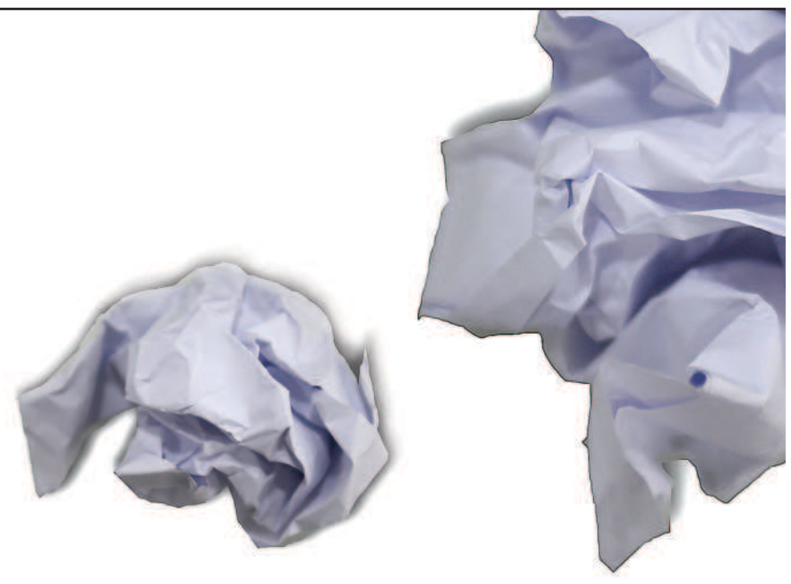
■ 무산 복지재단
· 낙산요양원
· 노인복지센타
· 양양군노인복지관
· 무산지역아동센타
· 의상도서관
· 양양시니어클럽
· 아동청소년장학사업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 033)672-2447~8 www.naksansa.or.kr

낡은 인식 버려야 佛敎 스타트업 성장 발전 가능

불교&Start Up 현황과 가능성





세계가 스타트업 열풍이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HW, SW는 물론이고 커머스, 컨텐츠, 게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타트업 기업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했지만 아직 자금조달 이전의 단계의 신생 벤처기업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생겨난 용어다. 최근에는 IoT 등 IT에 관심이 높아지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갖춘 젊은이들이 스타트업에 도전하고 있다.

이런 스타트업 열풍에서 한국불교로 눈을 돌려보자. 너무나 조용한 산사로 다시 들어온 느낌이다. 불교의 유무형 자산과 가치 등에 기반한 스타트업 생태계는 황무지 그 자체다. 사회에서는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접목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교계는 아직 인식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이 시대 부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어떤 일을 하실까. 당대에 생각지 못한 혁신적 아이디어로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는 스타트업 창업자가 되지 않았을까.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 스타트업을 고찰해 보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기지개 켜는 불교 산업 · 시장

현재 불교계 비즈니스 시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커져가고 있다. 불교계 대표 박람회인 국제불교박람회 참가업체 통계를 보면 2013년 176개 업체, 2014년 242개 업체, 2015년 259개 업체, 2016년 287개 업체, 올해는 역대 최대인 총 318개 업체가 참여했다.

국제불교박람회 조직위원회 측은 "해외를 비롯해 최다 업체가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최다 관중을 기록했다. 불교계 산업과 문화 저변이 확대되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불자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다. 불교계인 사람과사회적경제본부 창업아카데미의 3년간 수강생 추이를 보면 2011년 40명을 시작으로 2012년 81명, 2013년 72명, 2014년 73명, 2015년 70명, 2016년 301명 등 지금까지 아카데미 11기에 걸쳐 총 360여 명이 배출됐다. 스님들도 창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2014년 10명을 시작으로 2015년 10명, 2016년 7명, 2017년 6명 등이 창업아카데미를 수강했다.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 드물어

하지만 불교계 비즈니스 시장이 커지고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의 출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 국제불교박람회에 참가한 국내 단체나 업체 202곳 중 스타트업 기업으로 분류 가능한 업체는 불교교구 제작업체 무아, 세라믹 불구 가공업체 세라믹 랩 루멘, 명상용품사이트 젠힐링샵, 디지털 상품 출원 만다라하우스, 법복 유통업체 아리랑의봄 등 9개 정도에 불과했으며 이 중 IT분야는 다나와 마인드디자인 등 단 2곳 이었다. 참가비 등의 조건이 있는 박람회에 스타트업 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것을 감안하더라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박람회를 주관한 마인드디자인의 김혜다 팀장은 "참가업체를 연도별로 분류하거나 스타트업 기업을 따로 분류하진 않지만 손에 헤아릴 만큼 몇 개 업체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불교 스타트업 저변 부족이 원인

불교계 스타트업 기업이 적은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아직 불교를 활용한 창업에 대한 불교계 저변이 좁기 때문이다.

불교계 O2O(온라인 to 오프라인) 스타트업을 진행했던 한 창업가는 "익명을 요구하며 "마치 마른 황무지에 밭을 일구는 느낌이었다. 당초 기획보다 수요가 매우 적었다"고 말했다. 공방 중개를 하는 이 업체는 현재 문을 닫은 상태다.

박주언 사람과사회적경제본부장도 "신도조직이나 사찰을 활용하자는 생각으로 사업을 한 분들이 막상 판로 등이 막혀 고배를 마시기 일쑤"라며 "개인이 사업을 진행하기보다 조합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그나마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불교는 스타트업 불모지
자금 지원 전무
사찰 활용 미약
네트워크 구축해야



자금 · 인적 네트워크 지원 필요

사회에서는 스타트업의 성공확률을 10% 안팎으로 보고 있다. 이들 스타트업이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금 지원이다. 창업진흥원의 '2015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 장애요인으로는 자금 확보가 6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재기에 대한 두려움이 27.9%, 지식 및 경험 부족이 21.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전무하다. 2012년부터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서울시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대출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딧'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로 일반 창업자가 지원을 받기엔 어려움이 있다. 사람과사회경제본부가 2012년부터 교육을 진행한 이후 사회적기업 15곳이 만들어 지는 등 불교계 창업이 대부분 사회적기업 형태를 띄는 이유도 사회적기업이 불교 가치를 발현하기 적합하기도 하지만 정부예산 지원을 비롯해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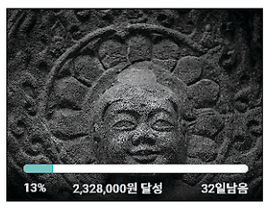
이밖에 스타트업 기업의 기획자와 개발자 등을 묶는 '팀빌딩'을 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 구글의 경우 명상관련 전문가 모임인 Gpause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으며, 여기서 만난 많은 이들이 함께 명상 관련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하고 있다.

불교계 IT기업인 다나를 창업한 최대종 대표는 "사찰을 다니며 IT교육을 해나가면서 시장을 개척했다. 이런 상황이기에 오히려 개척만 한다면 외부와 같이 경쟁이 심하지 않다. 외부에서도 한 분야를 일군 것에 대한 평가가 높다"며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에게 불교계 창업에 과감히 도전하라고 추천하고 있다. 불교계도 이런 움직임에 맞춰 창업투자나 사람들이 교류하는 자리라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님과 불교공부를 하려는 이들을 맺어주는 붓다클래스를 운영 중인 강민지 공동대표도 "이 시대에 기존 종교 콘텐츠들은 마치 화성의 공기처럼 적응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다"며 "하지만 불교는 이미 2500년 전 독창적인 사상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변화의 주역이다. 사업으로 불교를 전파하는 일은 지속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보다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에 불교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스타트업 도우미,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본금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 우리나라 창업의 평균 소요자금 규모는 2억4900만원이다. 현재 중소기업청에서만 34개의 창업 · 벤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와디즈의 '마애불' 펀딩

이와 함께 온라인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도 있다. 바로 크라우드펀딩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일반 투자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다수로부터 소액을 모은다는 뜻이다. 크라우드펀딩을 중개하는 업체는 와디즈, 오픈트레이드, 인크 등이 있다.

최근 명상 앱(App)을 만든 '마보'(대표 유정은)는 크라우드펀딩으로 1,4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모금했다. 당초 목표액의 723%였다.

불교에는 크라우드펀딩과 비슷한 '설판(設辦)'이 존재했다. 수익자 부담 대중모연 방식인 크라우드펀딩은 이미 불교에 있는 개념인 것이다. 최근에는 불교계 한 언론이 책을 이 설판을 통해 출간하기도 했다. 국내 대표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와디즈에는 배종훈 작가의 불교미술프로젝트와 류태열 작가의 마애불 사진작품집 출간이 펀딩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킥스타터에서는 미국불교를 다룬 다큐 'Seeking Heartwood'를 비롯한 다양한 펀딩이 진행 중에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 각 산 흥 천 사
사부대중일동
"흥천사에 오시면 당신의 꿈이 이루어 집니다"
서울시 성북구 흥천사길 29(돈암동)
TEL 02)929-6611
흥천사에서 운영하는 느티나무 어린이집

대한불교조계종 우리말금강경 특별기도 영험도량
수 국 사
주 지 호 산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서오릉로 23길 8-5(구산동) ☎ (02)356-2001 Fax (02)359-6297

불교 스타트업 기업 8選

스타트업 기업들은 2010년대 IT열풍 이후 함께 등장했다. 당시에는 IT기반 회사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였다. 최근에는 IT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 걸친 업종까지 지칭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스타트업 폭발시대'다. 각국의 정부 관계자들은 모두 신경제를 이끌 성장동력으로 스타트업이 가진 파괴력에 주목하고 자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세계 각지의 똑똑한 젊은이들은 스타트업을 '쿨(Cool)'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창업에 뛰어들고 있다. 스타트업에서 세계적인 공룡기업으로 단시간에 성장한 실리콘밸리의 구글, 페이스북 같은 업체들은 실력 있는 스타트업들을 거액에 사들이면서 창업자들에게 대박 신화를 안겨주기도 한다.

스타트업 불모지인 불교계에도 싹은 텄다. 다양한 스타트업을 통해 불교의 가치를 알리고자 하는 기업들을 소개한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한다. 불교계에서도 이러한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길 기대해본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전통공예 편집샵 '일상여백'에서 마인드디자인과 플랫폼 식구들이 밝게 웃고 있다. 마인드디자인은 불교 스타트업을 넘어 전통문화를 알리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스타트업 불모지에도 싹은 피어났다

무아



무아는 청년불자들이 모여 불교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상품으로 제작하는 청년 벤처로 2015년 12월 탄생했다. 현재 다양한 캐릭터와 캐릭터상품, 어린이포교를 위한 법회 교구와 교육콘텐츠 개발에 나서고 있다. 또 대중들이 불교를 즐겁고 유쾌하게 느낄 수 있는 영상 콘텐츠와 상품들을 개발해 제작해 나가고 있다. 무아의 대표적인 상품은 어린이법회 교구 시리즈인 무아놀이와 일반 대중들을 위한 취미미술체험상품인 마인드래치다. 무아놀이는 다양한 불교교리를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교구이며 마인드래치는 궁궐 단청에서 사용된 칠보문양을 현대적으로 디자인하여 만다라와 결합한 취미미술체험상품이다.

주인공



아트플랫폼 주인공은 2016년 설립된 사찰 전시전을 담당하는 협동조합이다. 주인공에는 신용일, 이용섭 등 20여 명의 전통 · 현대 · 불교미술 작가들이 소속돼 있다.

불교미술포럼 '주인공다방'을 통해 전통 · 불교미술의 중흥을 도모하며, 작가들이 주인이 되는 공유갤러리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 전시전마다 크라우딩펀딩 사이트 와디즈를 통해 펀딩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28일에는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등에서 제1회 서울템플아트페어를 개최한 바 있다. 개별 작가 전시전의 문턱이 높아진 지금, 작가들의 사찰과 연계한 다양한 스타트앱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나



전통문화와 IT를 접목한 기업으로 스타트업 단계를 벗어나고 있다. 현재 불교계 사찰 홈페이지 등 IT기반 다양한 제작활동과 함께 템잡(불교취업정보센터), 템플러스(사찰안내도우미 서비스), 템몰(불자복지몰), 템스토리(스님들의 이야기), 다나방송 시스템 등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절로'를 통해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절로 서비스는 사찰과 불교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게시판 내용을 자동으로 절로에 등록하도록 한다. 또 홈페이지가 없는 사찰과 불교단체를 위하여 절로CP라는 앱도 보급하고 있다.

마인드디자인



전통문화 박람회 및 캠페인 행사, 전통문화상품 개발과 디자인 브랜딩 등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불교계 소셜벤처기업이다. 특히 국제불교박람회를 주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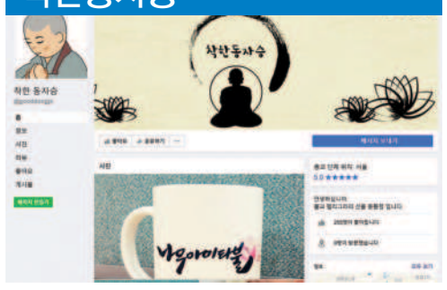
마인드디자인은 김민지 대표가 졸업작품으로 만든 불상을 모티브로 만든 쥬얼리에서 비롯됐다. 은과 백금으로 도금하고 큐빅을 박은 액세서리가 인기를 끌면서 마인드디자인이 시작됐다.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시장구조를 만들기 위해 유통법인 '마인드플랫폼'을 설립, 전통공예품 온 · 오프라인 매장인 '일상여백'을 오픈했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전통공예 디자이너의 제품을 소개하는 플랫폼이자 공간이다.

마음의숲



마음의숲은 김명권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가 대표로 있는 심리상담 전문기업이다. 2012년 창립 이후 국내 최초로 노사 · 학회 협력으로 구축된 기아차 '마음산책'을 운영하고, 2013년 국민은행 심리상담제도 힐링카페, 두산 인프라코어 심리상담제도 두허그 등을 위탁운영했다. 현재 대법원과 고용노동부, 울산조선업 등 직장인심리상담(EAP)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마음의숲은 온 · 오프라인에서 직무스트레스 검사를 실시, 보고서로 작성해 관리한다.

착한동자승



불교 캘리그래피 선물용품점으로 캘리그래피는 독특한 손 글씨로 된 디자인이다.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불자들이 새겨야 할 것들을 꼽아 디자인해 판매하고 있다.

불교문화상품공모전에 출품해 입상도 했다. 연꽃이 새겨진 좌복과 담요를 한 세트로 제작한 '연화좌'를 출품해 입상하기도 했다. 아직은 판로가 확보되지 않은 스타트업으로 현재 착한동자승 페이스북(www.facebook.com/gooddongja)을 통해 주요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오붓



2016년 설립한 연꽃쿠키를 파는 1인 기업이다. 대표 박신영 씨가 특허를 받은 연꽃쿠키는 연잎과 백련초 등 천연재료를 활용했다. 기업 이름인 '오붓'은 오월의 붓다의 줄임말로 박 씨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꽃의 향취를 즐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붓을 창업했다.

현재 페이스북(www.facebook.com/ohboot)이나 전화주문을 받는 것 외에 사찰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베이커리 제품을 납품하는 길도 모색 중이다.

헤드스페이스(headspace)



헤드스페이스는 명상으로 맺어진 피어슨과 스님인 퍼디컴이 명상 수업을 계기로 의기투합해 만든 미국 명상앱이다. 퍼디컴은 명상을 가르치고, 피어슨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다. 헤드스페이스는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두며, 1,2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수백 가지 명상 세션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큰 만족감을 부여,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성장했다.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과 운동선수들이 이 앱을 즐겨 이용하고 있다.





불교 & Start Up

"어떤 씨 뿌릴지 고민하는 불교계는 들으시오"

스타트업 멘토들은 이렇게 말했다

2017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영역의 풍향계도 쉴 새 없이 흔들리는 중이다. '스타트업'을 기치로 우리나라 경제는 새로운 성장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들어서 있다. 이런 국면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 스타트업의 가능성에 대해 불교계 안팎의 스타트업 멘토들의 조언을 모아보았다. 이들의 말 속에서 불교계가 나아가야 할 힌트를 얻어보자.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정명경영 김재춘

"영리사업 일수록 불교 가치 전하는데 중점"

비영리사업 위주 활성화 모색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 소장

불교계 스타트업은 '삼보(三寶)'에 대한 가치를 중점에 두어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불교 팔아 장사한다'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부처님 말씀과 팔정도의 정명(正命)을 토대로 사업과 제품을 개발하고, 그 운영방식은 비록 승가공동체는 아니지만 '율장'의 근본 정신을 차용한다면 진정한 '불교계 스타트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돈이 된다고 불교나 종단의 이름 아래에서 불교적 가치와는 다른 사업(예를 들면, 군수사업, 주류사업, 동물도살사업, 비환경 사업 등)을 하거나, 그 운영의 방식이 성접대, 불법로비, 노동 착취 등을 토대로 진행된다면 어찌 불교 기업이라 하겠는가.

또한 불교와 불교문화를 구분하여야 하며 불교 자체를 사업화하는 것은 많은 논의와 고민이 통해 소극적으로 하여야 하고, 불교문화를 사업화 하는 것은 '전통문화의 재해석, 현대화, 대중화'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이다.

모든 종교는 전국적인 조직망과 우호적 잠재고객들, 그리고 신문, 라디오, TV 등 관련 커뮤니케이션 채널, 공간 등의 물리적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몇 천 년간 이어져온 유무형의 자산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올바른' 불교계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은 불교계가 가진 정보(사람, 물자, 공간, 지식 등)를 공유하는 체계를 갖춰주고, 이 부분을 연계해줄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도 있다면 좋을 것이다.



협동조합 박주언

"'데드밸리(Dead Vally)' 넘기기, 개인보다 조합이 유리"

협동조합 비롯 경제공동체 육성

박주언 사람과사회적경제본부 본부장

'스타트업'은 창업 초기 단계를 말한다. 사실 창업 준비기간인 1~2년 전까지와 창업 후 3~5년까지를 보는 시각이 많다. 이중 스타트업이 3년 차가 되면 '데드밸리'가 온다. 판로도 막히고 주체도 동력이 떨어지고, 자본도 떨어지는 시기다.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다보면 많은 이들이 이런 이유로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특히 불교계는 신도들의 신행활동이란 인식만 갖고 있다가 불교 자산을 활용한 비즈니스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라든지 판로, 개발비, 네트워크 등이 대규모 자본에 따라 갈 수 없고, 종교에 기반한 아이템을 가진 이들이 있지만 불교에 필요한 지에 대한 시장파악도 아직 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에서 개인들이 진행하는 스타트업은 실패 확률이 높다. 자본과 판로 등 '데드밸리'를 넘기기 어려워서다. 그렇기에 가급적이면 협동조합 형식이 바람직하다. 유무형의 특성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 융합 사업으로 경쟁력 있게 접근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공동의 가치실현을 기준으로 모인 것이기 때문에 동업 관계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원만하다. 동종 업종이든 이종 업종이든 지향하는 사람들끼리 융합을 통해 차별화를 이뤄내야 한다. 결국 불교계에서 스타트업을 활성화 시킨다면 이런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인적 토대, 제도 등을 뒷받침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것이 경제공동체가 되고 재가자 모임이 되어 부처님 당시의 장자계층과 같이 될 것이다.

불교사상 · 콘텐츠 제공, 결국 포교

오승훈 공익마케팅스쿨 대표

불교 스타트업은 불교의 사상적 배경과 일반인들이 접촉할 수 있는 또 다른 창구다. 즉 불교 스타트업이 일종의 포교사다.

불교의 사상적 배경은 먼저 사유와 함께하는 철학적 깊이란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너무 깊고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 노화됐다는 선입견도 있다. 불교 스타트업은 이런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4060세대는 기성불교계에서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이다. 하지만 2040세대는 다르다. 불교 사상과 문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스타트업은 미래세대 포교를 위한 하나의 좋은 방편이기도 하다.

불교계에서 이런 불교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실패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3년을 넘기지 못한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뛸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상적 배경을 제공해야 한다. 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 이해가 낮은 불교 스타트업이 있다면 그 가르침을 알려주어야 한다. 기업 운영 과정에서 사상적 배경을 배제할 수 밖에 없지만 지원단계에서 해결한다면 스타트업이 사상적 배경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불교문화와 사상을 활용하는 원천 소스를 많이 만들었으면 한다. 기업은 이런 원천 소스를 기반으로 재가공해 생활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불교 콘텐츠를 정리하고,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불교계에서 필요하다.

아젠다 양기민

"사회 필요처에 임팩트 투자 불교 가치 효율적 실현"

불교스타트업으로 사회적 문제해결 가능

양기민 씨즈 청년네트워크 사업단장

불교가 추구하는 가치를 창업을 통해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젠다'를 지원하는 임팩트 투자 방법이 있다. 임팩트 투자는 사회 문제이거나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이런 과제를 해결하고 싶은 창업 팀들의 제안을 받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면 지원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랜드 계열 스타트업 투자단체인 '미스크'(MYSC)가 있다. 미스크는 성장보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고 주로 노인 · 장애인 · 경단녀 · 탈북자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다. 소셜 벤처는 정부가 손대기 어려운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임팩트 투자는 이런 소셜 벤처에 투자해 전체 생태계가 돌아가도록 돕는다.

불교계 입장에서도 창업인에 대한 지원은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 단순히 '불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 불교의 가치를 알리는 일에 투자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실 창업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이중 불교계 스타트업은 불자들이 활동하는 것, 불교의 가치가 확대되는 것, 불교의 역량들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불교계 스타트업 기업들의 대부분이 사업이 지속되다 보면 외부로 기업 영역이 확대된다. 결국 불교 가치의 확대 방면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가치 확대 국면에서 복지의 관점에서 창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면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가야 한다.



원천소스 오승훈

"불교 스타트업은 또 다른 포교, 콘텐츠 정리해 제공"

◆ 가치혼합경영연구소는

가치혼합경영연구소는 효율성이라는 영리적 가치와 공익성이라는 비영리적 가치를 융합하여 공익적 활동이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 연구전문기관이다. 사회적경제, 비영리, 공공기관, 종교 분야에서 컨설팅, 멘토링, 강의, 연구개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통합적 자문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 공익마케팅스쿨은

공익마케팅스쿨은 '마케팅의 공익적 활용'을 이슈로 활동하는 단체다. 2013년 1월 시작된 공익마케팅스쿨은 대학생들에게 마케팅 교육을 하고, 이를 배운 이들이 공익적 활동에 직접 마케팅을 활용한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와 소아암 환아들을 위한 캠페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드림업 프로젝트' 등 다양한 단체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 사람과사회적경제본부는

전신인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불교사회적경제지원본부가 개편된 조직으로 불교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포함한 각종 창업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창업아카데미 등을 통해 창업컨설팅을 하고, 자원연계, 네트워크 지원, 도심사찰과 연계한 판로 확대 등도 지원한다. 또 공공기관 지원공모사업이나 사회적 경제 시니어 관련 교육도 맡고 있다.

◆ 씨즈는

사단법인 씨즈(Seeds)는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다. 씨즈는 청년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할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속 가능하도록 보조하기도 한다. 5년간 300여 스타트업과 사회적 기업이 씨즈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현재 씨즈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민간단체들과 협업으로 꾸려나가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 전화 053)767-3100 | 팩스 053)765-1600





佛紀 2561年 丁酉年 | 전면광고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 B12

마음의 변덕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라. 항상 마음을 잘 다스려서
부드럽고 순하고 고요함을 지니도록 하라. 〈잡아함경〉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함월산 기림사

'목탁소리가 끊이지 않는 수행 정진과 기도의 도량'

한문불전 성림금강 불교대학

사부대중 일동

■ 경북 경주시 양북면 호암리 417
TEL 054) 744-2292 FAX 054) 744-226
www.kirimsa.net



대한불교천태종

대 성 사

주지 김영재

< 부설 >
· 동해유치원 053)652-5760
·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TEL 053)624-0542 / FAX 053)623-0265
홈페이지 www.daesung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오 어 사

주지 각 원

사부대중 일동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어로 1
TEL 054)292-2083 / FAX 054)292-2083



사단법인 대한불교능조계종 총본산

자 인 사 (구, 구룡사)

총무원장 구 룡
주 지

■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 120길 91-1
TEL 053)984-1125 / FAX 053)984-1129
H·P 010-7142-1339 buffa2002@naver.com



지장불교조계종

팔공총본산 지 장 선 원

총무원장 지 공

법회안내

◇신중기도 점찰법회 : 매월 첫째 일요일
◇지장기도 천도법회 : 매월 셋째 일요일

지장보살 원불 영옥봉안 납골당

■ 대구광역시 동구 갓바위로 35 (진인동 234)
TEL 053)986-0151, 983-0152



희망과 나눔을 함께하는

영천불교연합회

회 장 태관

회원일동

■ 경북 영천시 청통면 거조길 400-67
TEL 054)335-1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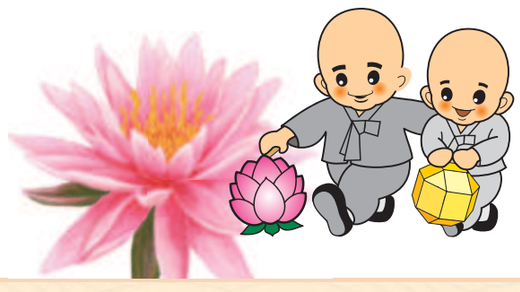


홍기종합건설(주)

대 표 황동열

문화재수리업 토목건축공사업

■ 경남 김해시 칠산로 511-46 (풍유동)
TEL 055) 329-2597~8 / FAX 055) 329-2596
E-mail : munhwajae2597@hanmail.net
웹하드 ID : hk2597 / PW : 3333



대한불교조계종

한 마 음 선 원
울 산 지 원

지원장 혜 안

사부대중

■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 (천곡동)
TEL 052)295-2335 / FAX 052)295-2336

혜 관 정 사

주 지 관 효

대중일동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보목동 서이오름로 10
TEL 064)733-3918





佛紀 2561年 丁酉年 | 전면광고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 B13

아버지가 없다면 태어날 수 없고 어머니가 없다면 성장할 수 없다. 즉 생명은
아버지의 혈통으로부터 받고 육체는 어머니의 태에서 받는 것이다. 〈부모은중경〉

대한불교조계종
정혜결사도량 오백나한기도도량

팔공산 거조사(암)

영천불교연합회회장
주 지 태 관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
TEL 054)335-1369
FAX 054)335-2609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말사

관오사·관오불교대학

회 주 : 자 광
대표이사 : 지 도
주 지 : 지 우
선 덕 : 명 언

▷불교대학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저녁 6시
▷대 학 원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저녁 7시
▷토요명상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26길9
TEL 053)471-6640

대한불교조계종

관 운 사

주지 지 산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38
TEL 054)931-7777
FAX 054)933-0808
www.gwanusa.org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광덕사

주지 운 성

신 도 일 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90-2
TEL 053)763-0068

'부처님의 가피를 가족과 함께하는…'
대한불교조계종

문수급식센터

센터장 효 신

급식센터봉사자 일동

「매월 둘째 토요일-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점심무료급식」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470-5
TEL 053)637-0900

대한불교조계종

법 성 사

주지 부 용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6동 386-3
TEL 053)553-5371

대한불교조계종

보 경 사

회주 법 달
주 지 철 산

사부대중 일동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TEL 054)262-1117 FAX 054)262-0149

'수행과 교육의 산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동화사 직할포교당

보현사

신 도 일 동

■ 대구광역시 중구 문우관길 65
TEL 053)431-5400
FAX 053)255-5629
Email : bohyunsa5400@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경북불교대학

"나와 이웃과 자연이 함께하는 삶"

학 장 운곡 돈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444
TEL 053)792-1353, 1181
FAX 053)791-4951

천년기도성지, 삼국통일의 염원이 담긴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천년고찰 팔공산

불 굴 사

주지 덕 조

신 도 일 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 5
TEL 053)854-0440
http://cafe.daum.net/bulgulsa.ok

대한불교조계종

서 봉 사

회주 경 희
주 지 명 연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439-2
TEL 053)471-4812
FAX 053)471-4813

대한불교조계종

송 림 사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61-6
TEL 054)976-8116
FAX 054)976-6802

대한불교조계종

아 미 사

주지 덕 현

신도 일동

■ 대구시 동구 지묘동 팔곡로
91길 14(지묘236)
TEL 053)983-1816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산 옥천사

주 지 원 각
사부대중 일동

「옥천사 마음챙김 템플스테이」

■ 경남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로 471-9
TEL : 055)672-0100
055)672-6296(템플스테이)
FAX : 055-672-0481
www.okcheo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용 문 사

주지 응기應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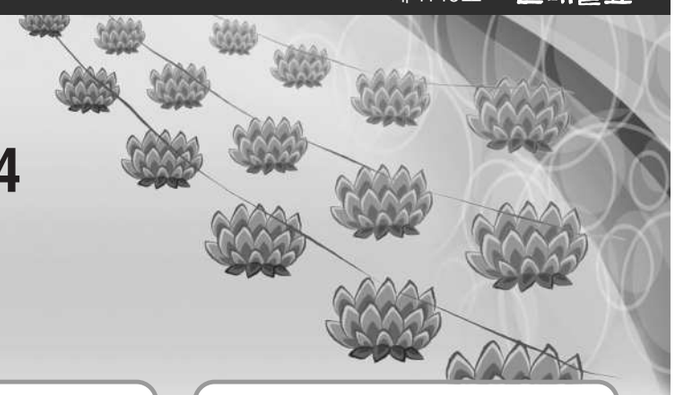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화원휴양림길 132
TEL 053)531-9390
010-6237-5499



佛紀 2561年 丁酉年 | 전면광고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 B14

농부와 같이 전생에 선근을 심어 놓지 아니하고 현생에 잘 살려고만 하니
어찌 수난의 고통이 따르지 않겠는가. 〈금강연화대장경〉



대한불교조계종
부처님진신사리 모신 적멸보궁
비슬산 용연사

주지 능도
신도일동

▷불교입문과정
▷불교학당
▷경전반 운영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882
TEL 053-616-8846
FAX 053-616-8846

대한불교조계종
월 인 사

주지 포전 혜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로 85길 52
TEL 053)767-3971

대한불교조계종
임 휴 사

주지 보정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1321
TEL 053)632-4844,641-4844
FAX 053)639-5033

대한불교조계종
청도사암연합회
화악산 적천사

청도사암연합회회장
주 지 정광

사부대중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리 981
TEL 054)373-0307

대한불교조계종
청량선원(팔공산)

사부대중 일동
[부설] 아헹가 요가

■ 아헹가 요가 서울 상담센터
☎ 02)540-0955
■ 아헹가 요가 대구센터
☎ 053)753-3550
■ 아헹가 요가 대구 달서센터
☎ 053)633-3353
■ 아헹가 요가 부산센터
☎ 051)526-5262

■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1-17

대한불교조계종
성주 취운향당

주지 능혜

■ 경북 성주군 선납면 도성리 845
TEL 054)933-6371~2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산 통천사

주지 선지
(대구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부처님 진신사리 모신 적멸보궁』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3-1(아양교옆)
TEL 053)941-3503, 053)953-4481

대구불교총연합회신도회

회장 류병선

www.yeonvia.com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4길 39
TEL 053)710-3700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지원장 혜문

사부대중

■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 054)232-3163
FAX 054)241-3503

보건복지부지정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본부장 박종명
장기기증 / 헌혈지원사업
환우지원사업 / 결연사업

■ 후원계좌 안내
대구은행 188-13-073651
농 협 301-0031-1553-61
국민은행 805501-01-375024
예금주: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324(구.신암동)
TEL 053)945-0007/FAX 053)945-0008
■ 산하기관 :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
TEL 053)944-0007

보현사 신용협동조합

스님…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스님들의 고민 !!!
30년의 전통 전국유일의 불교신협
보현사신협이 확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찰매매 잔금 대출
불사자금 대출
기타 대출상담

自利利他 (자리이타)
남도 이롭게 하면서 자기 자신도
이롭게 하는 것이다.

■ 대구 중구 중앙대로 67길 10(상가 101호)
보현사신협 문의 : 053)428-1133

사단법인 한국불교전법조계종
관 음 사

주지 혜덕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91
TEL 053)325-9520
휴대폰 010-3936-9511

재단법인 선학원
기 원 정 사

주지 우록

■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152-5
TEL 053)982-9329
FAX 053)983-1698

(재)대한불교관음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대덕산 백련사

종무원장 법웅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진밭길 2948-24(백련사)
TEL 053)781-3784
053)781-3111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한불교진각종 대구교구청

교구청장 정효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3동 584-1
TEL 053)255-1450,1411
FAX 053)252-9703
홈페이지 www.jingak.or.kr



둑갈뽀 부탄국왕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괘불 앞에서 렉돌 의식을 올리는 모습. 광장을 가득 메운 부탄국민들의 진중한 표정이 엄숙함을 자아낸다.



부탄불교 총본산 따시최종. 부처님오신날을 기리기 위해 부탄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이 모여든다.



괘불 네텐추두뙁돌.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탈춤.

국왕·국사 등 전 국민 모여 佛法 기려

대승불교국가 부탄의 부처님오신날은?

탄생 · 성도 · 열반재일 한꺼번에

불교에서 부처님오신날의 기원은 비크럼삼밧 달력의 바이삭(Baisakh) 달을 기준으로 삼는다.

남방불교 전통에서는 보통 5번째나 6번째 음력 월의 보름날을 부처님오신날로 기념하고 있다. 이날을 '붓다 푸르니마(Buddha Prunima)'라고 부르는데, 푸르니마가 바로 산스크리트어로 보름을 뜻한다. 다른 이름으로 부처님오신날(Buddha Jayanti)이라고도 부른다.

동아시아 중에서도 중국과 한국만이 중국음력의 4월 8일을 부처님오신날 기준으로 삼고 있고, 일본은 1873년부터 양력 4월 8일을 부처님오신날로 하고 있다. 대만은 부처님오신날을 양력 5월의 둘째 일요일로 정해 각자의 문화에 따라 부처님오신날을 기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대승불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불교왕국 부탄에서는 어떨까? 한국은 탄생재일(음력 4월 8일), 성도재일(음력 12월 8일), 열반재일(음력 2월 15일)을 각각 따로 모시지만, 부탄은 부탄달력 4월 15일에 세 기념일 모두를 한꺼번에 묶어 큰 축제를 연다. 올해 부탄의 부처님오신날은 양력 6월 21일이다. 이날을 '뒤첸응아좀(Duechen Nga Zom)'이라 부르며 태어남도, 깨달음도, 열반도 하나라고 여긴다. 적멸을 뜻하는 것으로 생사윤회를 벗어난 최고 깨달음의 경지를 가리키는 말이니 곧 하나가 아니겠는가.

부탄 전 지역의 종(Dzong, 지역의 정부종합청사와 교구본사가 함께 있는 요새형태의 성)에서는 큰 행사가 펼쳐진다. 부탄불교의 가장 중요한 행사일인 만큼 학생과 어린이들은 부처님 설법을 처음 들은 5대 비구처럼 꼴나데장뽀(Khor Ngade Zangpo)라고 불리는 옷을 꾸며 입고 종과 사찰을 다닌다.

부탄의 수도 팀푸에 위치한 중앙종합청사이자 부탄불교의 총본산인 따시최종(Tashichh-odzong)에서는 네텐추두뙁돌(Neten Chudru Thongdroel)이라 불리는 거대한 석가모니부처님과 16나한도 괘불을 모신다. '뙁돌'이라는 의미는 직역하면 '해탈을 보다'라는 뜻으로써 이 괘불을 봄과 동시에 3업을 청정히 하고 해탈을 이루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괘불이 모셔지면 바로 부탄의 국왕(둑갈뽀)과 국사 스님(제켄포)이 차례로 나와 괘불 앞 불단에 머리를 지긋이 대고 가피를 청하며 렉돌(Regdrol) 의식을 올린다. 이로써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된다. 1년에 한 번 공개되는 괘불의 가피를 받기 위해 전 국민들이 모여들고, 기도하고 버터램프에 불을 붙이기도 한다.

국왕과 국사 스님이 렉돌 의식을 한 후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이 차례로 나와 괘불에 렉돌 의식을 올린다.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국민들이 부처님의 탄생, 성도, 열반을 기린다. 국사 스님과 부탄승단의 5대 장관급 고승들 및 20대 방장, 회주 스님 등이 앉아서 법회를 집전하며, 국민들은 차례로 큰스님들에게 자신의 신구의(身口意) 3문을 바치는 의식을 치른다.

기념일, 부탄달력 4월 보름

총본산 따시최종서 성대한 축제

연 1회 공개되는 괘불 모셔놓고

기도하고 수행하며 가르침 숭상

올 봉축행사는 6월 21일

아이들 전통의상 입고 사찰 방문

축제서는 흥겨운 춤사위 이어져

채식하고 진언 염송하며 즐겨

선 · 악행 100만배 되는 날

네텐추두뙁돌 괘불을 살펴보면 석가모니부처님과 두 상수제자를 표현한 상게초꼴쑴(Sangay Tsokhor Sum)이 눈에 띈다. 한국불화에서는 석가모니불과 함께 선교를 상징하는 노인 형상의 마하가섭존자와 젊은 형상의 아난다존자를 주로 모시지만, 부탄에서는 지혜제일 사리불존자와 신통제일 목건련존자를 모신다. 그 다음으로 16나한을 나타낸 네텐 추둑(Neten Chudrug), 부처님의 치아사리 상게이 외성(Sangay Yeosungs), 부탄 창건주 샵둥나왕남갤을 그린 샵둥 캄숨 질논(Zhabdrung Khamsum Zilnon)이 모셔진다.

렉돌 의식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탄의 국사 스님인 제켄포는 툽왕네텐추둑(Thubwang Neten Chudrug)이라 불리는 16아라한 의식을 집전한다. 아울러 전 세계 불교국가들이 함께 기뻐하는 이날을 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제켄포와 부탄승단의 웅장한 염불음악이 울려 퍼진다. 따시최종의 중앙광장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을 기리기 위해 다음의 순서대로 탈춤이 진행된다.

△샤참(사슴탈춤) △펠링징숨(3종의 징춤) △파참(노란치마와 금색왕관을 쓴 영웅의 춤) △샤와샤치(사슴과 사냥개의 춤) △담옌헴(류트의 춤-긴 검정치마, 노란 셔츠, 황색 코트를 입고 추는 칼춤) △즈샤나(흑모춤) △즈샤나 응아참(북과 함께 추는 흑모춤) △케참(노란 스커트, 동물탈, 오른 손에 칼을 들고 추는 춤) △뽀래이보레이(귀족과 숙녀의 춤) △다미트시 응아참(담치의 북춤) △두르닥(하얀 치마를 두른 해골탈춤) △퉁암(분노존의 춤) △락샤 망참(염라대왕의 춤) △최오세이(종교음악) △붐땅뗄참(붐탕의 탐싱춤-하얀 탈, 노란 치마, 요령과 북) △두르닥(지신의 춤) △깅당최링(호랑이 가죽 둘러쓰고 북을 쥐고 있는 분노존의 탈춤) △구루N)계(파드마삼바바의 8변화신 춤) △릭마추둑(16나한의 춤)

이날은 모든 선행과 악행의 업이 100만배가 되는 날이라고 하여 부탄 전역에서는 국민들이 축제에 참가 후 고기를 먹지 않고, 진언을 염송하거나 염불을 하면서 축제를 즐긴다. 또 기도하고 수행하며 선업을 쌓는 계기로 삼는다.

대승불교국가 부탄에서 국왕부터 국사 스님, 장관단, 일반국민에 이르기까지 한자리에서 진정 부처님의 탄생, 성도, 열반을 기리는 '뒤첸응아좀' 같은 날은 부처님의 자비광명 아래 부탄인들을 하나로 화합하는 아름다운 날이 아닐 수 없다.



윌리엄리 부탄문화원장

해운대 해운정사

주 지 도 무

신도회장 박대성

사부대중 일동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2로 40-6 (해운정사) 전화 051)746-2256 / FAX 051)741-8882 홈페이지 : www.seon.or.kr

대한불교조계종 제 12교구 본사

해인사 원 당 암

"혜암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도량"

사부대중일동



〈법회안내〉

▪ 철 야 용맹정진	·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7일 철야 용맹정진	· 음력 7월 1일 ~ 8일 / 음력 12월 1일 ~ 8일
▪ 재가불자 참선결제	· 동안거 결제 음.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 결제 음. 2월 15일 ~ 3월 29일 · 하안거 결제 음. 4월 15일 ~ 7월 15일 · 산 철 결제 음. 8월 15일 ~ 9월 30일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치인리) http://www.wondangam.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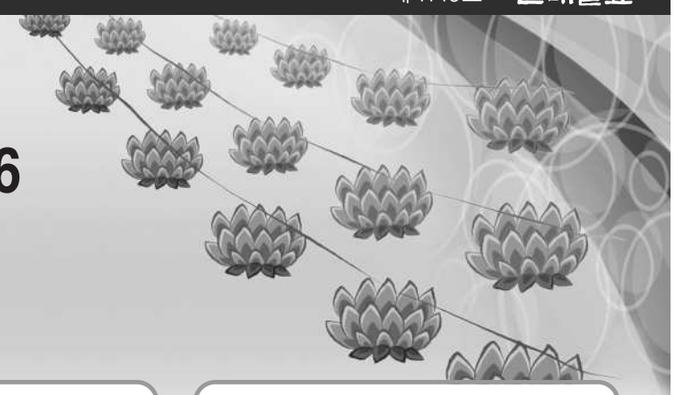
전화 055)932-7308 / 전송 055)931-7515 (상담시간 : 오전 8시 ~ 오후 6시)



佛紀 2561年 丁酉年 | 전면광고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 B16

들어서 이익이 없는 천만 마디 말보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단 한마디가 낫다. 〈법구경〉



"33관음 대불 도량"
"기도 가피가 빠른 도량"

우리절 성관음사

주지 일우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237-33
신행상담 TEL 053)655-3380

대한불교원효종 부산교구종무원

자 비 원

'불자의 안식처'

종무원장 석 불
주 지 법 선
사무국장 이홍순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동구 조천4동 883-8
TEL 051)644-8361
FAX 051)642-8361

봉> 부처님오신날 <축

영덕불교사암연합회

회원일동

'차별없는 세상
스님들이 솔선수범
(率先垂範)'

■ 법화종 동해 현담
010-7109-3281

대한불교법화종

천 불 사

주지 법 원

■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32-1
TEL 054)933-7881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

종무원장(칠곡 비룡사) 강관정
행정부원장 (대구 관음사) 임법운
재정부원장 (김천 소원사) 김자운
지방종회의원종회의장 (안동 연봉사) 권법도
종회부의장 (대구 적멸보궁) 강원봉
감사위원장 (대구 삼룡사) 정혜운
총무국장 (대구정토선원) 박진일
교무국장 (김천 월정사) 서지산
재무국장 (대구 진불사) 이원성
규정국장 (안동 금계사) 김도우
전법사 교임국장 (대구 광법사) 김법광

임직원 일동

■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인동가산로 1045 (구. 송학리 235-3)
TEL 054)975-4339 / FAX 054)975-0206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신도회

신도회장 한판덕

사부대중

■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 1(도학동 35)
TEL 010-3510-9985
사무국장 이달용

高靈瓦 Goryeong Rooftile



(주)고령기와가
불교 건축문화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주)고령기와는 국내 1위
한식형 그을림기와 전문업체로서
지난 60년간 국내 주요 사찰을 비롯해
궁궐 및 각종 문화재 복원사업과
그 외 주요 건물에
기와를 생산, 공급해 왔습니다

(주)고령기와
Goryeong Rooftile Co., Ltd.
www.rooftile.co.kr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400-1번지
Tel 054-954-8008(代) Fax 054-954-8308

합동석물(주)

석재가공 석공사
전문건설업체

대표 탁진규

■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TEL 054)955-8200~1
FAX 054)955-8202

감포도량 무일선원 & 세계명상센터

명상힐링학교 모집

- 입학 : 양력 5월 6일(토) 2시 입재
  - 5월 21일(일) 10시 회향
- 기간 : 15일
- 학비 : 30만원
- 조건 : 65세까지의 남 · 녀, 조계종 출가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선착순 남녀 각 12명 (남자는 삭발함)
- 지도 : 無一 우학 큰스님
- 과목 : 참선, 무문관체험 (1박 2일), 명상힐링, 특강, 울력, 큰스님 마을상좌 수계, 목탁염불습의, 발우공양, 큰절 견학
- 문의 : 010-8852-0075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감포도량 법사스님)

※ 국내 · 외 한국불교대학 지원 모집

기도성취및천도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가야산 영 통 사

주지 혜 오

■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사2길 44
054)933-8475(팔자치료)
FAX 054)933-8476
010-8955-9800

팔공산 갓바위 앞산

용 주 암

주지 韓成鶴

사부대중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 44

'효' 종찰 기도도량

까치산 길 조 암

주지 보 현

「길따라…
土樂 토락」

■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 3리 471
TEL 054)931-5204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구 룡 사

주지 효 재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 2리 328
TEL 054)975-9045, H·P 010에 9045 또 9045

대한불교조계종

보 리 사
보리불교대학

학장 증 악
대중일동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신묘장군대다라니독송법회(문화강좌안내)
선체조 / 다도 / 어린이 천자문 교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58-10
TEL 053)522-7611 FAX 053)522-7612

대한불교조계종

석 가 사

주지 경 암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97-3
TEL 053)791-8137
FAX 053)792-0784

대한불교조계종

성 화 사

주지 진 공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1동 521
TEL 053)625-9030

대선불교조계종

수도산 금 봉 사

* 동산 대종사 주석했던 사찰 *

주지 도문(혜동)

법회안내
매월(음) 15일(보름법회)

■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590-433
TEL 053)424-0876
H·P 010-6786-5830

대한불교선각종

영천보현산 등 명 사

조 실 석정암
주 지 석혜명

신도일동

■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오동리 603-2
TEL 054)337-4572 / H·P 010-5506-9448

포항 자 명 선 원

■ 경북 포항시 중앙로 131번길 46-2
TEL 054)281-7712, 7719

우리불교 우리절

용암산 미 륵 사

주지 석청송

■ TEL 053)981-1199
FAX 053)982-0683

불 종 사

주지 현 진

■ 경북 경산시 남방동 276-2번지
TEL 053)802-4043

관음기도도량

수 국 사

주지 지 원

■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 3리
TEL 054)932-9847



佛紀 2561年 丁酉年 | 전면광고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 B17

몸과 입과 뜻으로 행하는 것 중 계행과 보시만이 가장 높거늘 너희는 무엇을 뜻하고
생각했기에 착한 일을 하지 않느냐. 〈불설분별선악소기경〉

대한불교조계종

갑 사

템플스테이 우수 운영사찰

갑사 용솟음 템플스테이

사부대중일동

■ 충남 공주시 계룡면 갑사로 567-3
전화 041)857-8981~2
www.gapsa.org



대한불교조계종 弘法寺

國際佛光會 韓國釜山協會

(사)한나래문화재단
(사)한나래교육재단

한나래지역아동센터 HANNARAE COMMUNITY CHILD CENTER

걸망메고 떠나는 홍법사 108 산사순례

(매년 음력 10일)

주 지 深 山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로 33번길 202 (두구동)
www.busanbuddhism.net
전화 051)508-0345 / 팩스 051)508-6561
e-mail : 5080345@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관 촉 사

"은진미륵불 1011주년"

사부대중 일동



■ 충남 논산시 관촉로 1번길 25
전화 041)736-5700
팩스 041)733-4169

대한불교조계종

대 운 사

복합문화공간

KUmuda(쿠무다)

불기2561(2017)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같이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채움 나눔

주 지 주 석
사부대중 일동

GIVE

● 대 운 사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곳
당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곳
그래서 더 행복이 충만한 곳

● 복합문화공간 KUmuda (쿠무다)

책과 커피 그리고 감성이 있는 공간
쿠무다는 북콘서트, 전시회, 공연등이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www.daeunsa.net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1-21
051)701-7559

울산유일의

영구봉안 납골당

정토사 극락원

도심에 위치
왕래와
참배 용이



의장등록 제0362069 정토사 유골함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217번길 15 (옥동)
전화 052)258-9944, 212-7000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산 불 암 사



회 주 두산 일면
주 지 선도
총 무 법륜
신도회장 허일심화

불암사 부설
송산노인종합복지관
관장 법 일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산로 190 | 전화 031)527-8345
■ 불암사부설 송산노인종합복지관 031)852-2595

불기 2561(2017)년 부처님오신날

동국대학교 개교111년

부처님 마음으로 함께하는 동국인!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전영화 외 회원 일동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302호
☎ 02)733-0303, 3991

ACE 잘 가르치는 대학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세상을 움직이는 참 빛, 양성 대학

Dongguk University Gyeongju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가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융합인재를 키웁니다.

2018학년도 융합학부제 신설, 융합학부 내에서 전공 자유선택해서 졸업
기초교육 강화, 전공심화 교육으로 제대로 공부시키는 대학

2018학년도 새로 바뀌는 융합학부 및 전공		
과학기술대학	생명신소재융합학부	신소재화학전공
		의생명공학전공
		바이오제약공학전공
	창의융합공학부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기계시스템공학전공
		안전공학전공
	ICT·빅데이터학부	빅데이터·응용통계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상경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정보경영학전공

web.dongguk.ac.kr

2018학년도 동국대 의과대학 의예과 신입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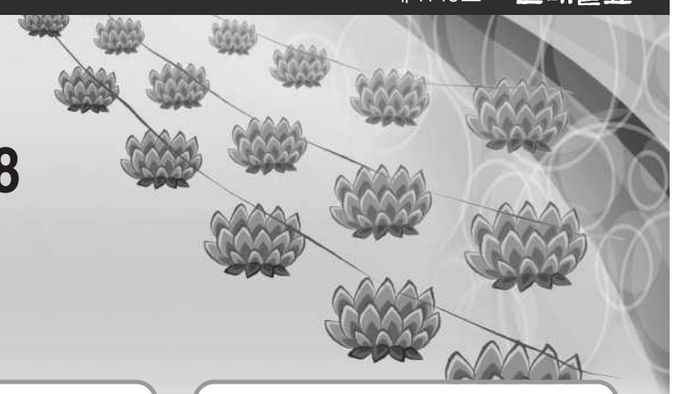
• 교육부 선정 8년 연속 '잘 가르치는 대학' ACE 대학(2011~2018) • 교육부 대학특성화(CK) 사업 선정(2016) • 고용노동부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업 선정(2016)



佛紀 2561年 丁酉年 | 전면광고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 B18

화를 떠나라, 아만(我慢)을 버려라 모든 속박을 끊으라 헛된 망상과 소유에 집착 없는
이에게 고난은 결코 닥치지 않으리라. 〈법구경〉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사)지구촌공생회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복지법인 나눔의 집

위 단체는 영화사에서 후원합니다

조실 송월주 스님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광진구 영화사로 107
TEL 02)444-4321, 7215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회 주 대궁 종상
주 지 성 행
신도회장 무상행

사부대중일동

- 청계사 부설 -
지적장애인생활시설 녹향원
의왕시립희망나래종합복지관

■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11번지
TEL 031)426-2348, 2221 / FAX 031)426-3666
http://www.chungkeisa.com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진산 종하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관악구 승방1길 109-80(남현동)
TEL 02)582-8609
www.kwaneumsa.net

대한불교조계종

봉 국 사

주지 월서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202(정릉동)
www.bongguksa.com
TEL : 02) 919-0211
FAX : 02) 919-0216

대한불교조계종
중부제일의 독성기도 도량

삼각산 삼성암

주지 수봉 세민

사부대중 일동

음력 초하루 신중기도
음력 초삼일 독성3일기도
음력 16일 산신기도

■ 서울시 강북구 안수봉로 23길 235
전화 02)988-9300
wwww.samsungam.org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

주지 계 호

사부대중 일동

[부설] 보현정사 포교원 , 코끼리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진관무위원,
진관지역아동센터
불광노인복지관 · 불광데이케어센터
(사)진관사국행수륙재보존회,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
구파발 어린이집

■ 서울시 은평구 진관길 73
TEL 02)359-8410
www.jinkwansa.org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도량

신 흥 사 청소년수련원

부처님 교화공원
템플스테이사찰
신흥사 불교대학
경전연구반

주지 오성일

대중일동 · 신도일동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신흥사길 17-34
TEL 031)357-2695, 357-3916

대한불교조계종

삼선포교원
삼선불학승가대학원

대중 일동

■ 서울 성북구 동선동 3가 255번지
TEL 02)923-0582

부처님오신날 대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미륵정토종

미 륵 정 토 사
무한참나선원

사부대중 일동

■ 미륵정토사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양화길 19
TEL 041) 855-3566
■ 무한참나선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94
TEL 02) 912-1050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세계무형문화 유산 등재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천년고찰 봉원사

회 장 석선암
보유자 김구해
부회장 이기봉
총 무 조현성
교 무 김태호
재 무 조효광
사 회 이석천
사무장 엄혜담

봉원사 대중일동
관음회 화엄회 합창단 일동

■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전화 02)392-3007~8 전송 02)393-9450
www.bongwonsa.or.kr

해동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석혜암

종도 일동

■ 총무원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시대길 73-26
H · P 010-8224-1688

禪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경

종도 일동

■ 총무원 : 부산시 사하구 대티로 63번길 75-1 도경사
TEL 051)206-3488

재단법인 한국근본불교조계종

불 탑 사

회주 혜명

대중 일동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설악로 2073의 134
TEL 033)671-7753 010-4208-3622

대한불교조계종

수 안 사

회주 세민

사대부중 일동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68길 30
TEL 02) 587-4677 FAX 02) 522-5666

노 적 사

주지 종후

사부대중 일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대서문길 315-11호
TEL 02)353-4924

안성 백련사

주지 태암

사단법인복지법인 둥지마을
사부대중 일동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산 171번지
TEL 031)674-1861 031)674-1860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법주 법산 경일

이사장 이종현 봉축위원장 안동일

www.dongsanbud.net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TEL 02)732-1206 FAX 732-1207

정 안 사

주지 정안
신도 일동

■ 전북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 310번지
TEL 063)466-6055

우바새·우바이의 '스승님 前 上書'

불자라면 누구나 부처님오신날에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참된 불자로 살아가고자 서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현실에서 이끌어주는 존재가 바로 스승이다. 그렇기에 스승은 제자에게 또 다른 부처님이 되곤 한다. 불가(佛家)의 구성요소가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 사부대중이듯 스님과 재가불자의 인연은 출가수행자와는 다른 애틋함이 녹아 있다.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바세계를 떠난 스승을 추억하는 재가불자들의 마음을 담았다. 〈편집자주〉

"인생 지표 남기고 스님께선 어디로…"

통광 스님 & 김성림 前 조계종 중앙신도회 수석부회장

통광 스님, 봉축 연등과 장엄등이 빛나고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는 화려함이 짙을수록 스님이 더욱 그립습니다.

전란으로 폐허가 된 칠불사 터에서 중창을 시작하실 당시 작은 방 하나 허허벌판에 세워져 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1980여년 부산에서 출발한 방생회 모임 일원으로 처음 갔던 칠불사는 지금과 달리 초라했지요. 그때 안내자는 칠불사가 1세기 경 가락국 시조 김해 김수로왕의 일곱 왕자들이 찾아 본래자성 자리를 찾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가야불교의 발상지이며 가야 불교의 성지라고 말이죠. 스님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김해 김씨인 저로선 인연이란 생각에 단순히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렇게 스님과의 인연이 시작됐고, 덕분에 저도 칠불사 불사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스님께선 6.25전쟁과 지리산 공비 토벌 참화로 가람이 모두 불타 폐허만 남은 곳에서 천일기도를 하며 작은 초막을 시작으로 문수전, 대웅전, 설선당, 요사채를 복원해 나가셨지요. 1983년 지방문화재 144호로 지정된 아자방 복원과 지금 칠불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30여 년 중창 불사의 역사를 지켜본 것은 환희 그 자체였습니다. 목수의 노임으로 부산을 찾아오셔서 탁발하실 때 그 노고를 지켜보며 마음이 쓰릴 때도 있었지만 함께 불사에 동참할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쁜 마음이 정말 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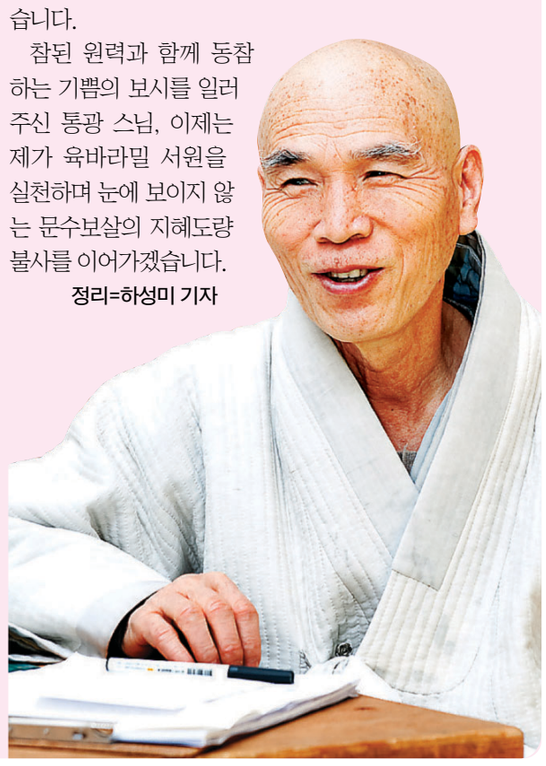
차의 성지인 칠불사에 차밭을 일구겠다는 스님 말씀도 기억납니다. 그때 차밭을 사서 보시한던 것은 정말 제 인생의 큰 기쁨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려운 불사 형편에도 봉축법회 때 의용 소방대원들이 찾아오자 봉투를 마련해 큰 보시금을 주시며 격려하시던 모습을 떠올리면 참된 불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인연은 계속 이어져 부산으로 오실 때면 저희 집에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을 종이에 적어 나눠주셨죠. 그리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던 내용이 아직도 저희 가족들에게는 삶의 지침이 됩니다. 재복보다는 심복, 마음을 잘 써야 한다는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제 마음에 새겨 두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스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강백이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10년 전쯤 우연히 서울에서 들은 스님의 명성이 되레 어색할 정도였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스님께선 자신을 내세우신 적이 없었습니다.월정사에서 탄허 스님의 화엄경 강의를 듣고 강맥을 이으셨던 것도, 한학을 7세에 다 마치신 것도 모두 다른 분들에게 듣고 알았습니다. 다들 몰랐느냐고 묻는 말에 그저 전 웃기만 했습니다. 스님은 제게 인생의 지침을 알려주는 나침판이자 쉼을 주시는 나무그늘과 같았습니다.

참된 원력과 함께 동참하는 기쁨의 보시를 일러주신 통광 스님, 이제는 제가 육바라밀 서원을 실천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문수보살의 지혜도량 불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정리=하성미 기자



"도반으로 대해주신 스승님 은혜"

청화 스님 & 배광식 참수레 이사장

스승이신 청화 스님. 스님께서 사바세계를 떠나신 지도 벌써 십수년이 흘렀건만 저는 아직도 30여 년 전 스승님을 뵈었던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도인 스님 뵈러가자"는 평생도반 수형보살 권유에 따라 곡성 태안사를 찾으며 인연이 시작됐지요. 저는 당시 스님이 해회당 마루를 걸레로 훔치고 계시던 모습에서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스님은 저희에게 "우리는 부처님 당시나 신라 때나 다 같이 공부하던 도반"이라며 무척 잘 대해주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1987년 부처님오신날 즈음이었습니다. 그해 부처님오신날은 어린이날과 겹쳤는데 제 둘째아이 명준이 유치원서 만든 색종이 고깔모자를 쓰고, 연등을 든 채 석촌호수를 한 바퀴 돌았을 때입니다. 유치원 행사가 끝나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7시간을 달려 태안사에 갔지요. 스님은 명준이를 보더니 "명준동자 모자가 참 좋구나! 먼 길 오느라고 힘들었지?"하시며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스님의 토굴에서 한참 말씀을 듣다가 방문 밖으로 나오니 스님의 검정고무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준이 스님 신발을 신고 토굴 앞마당을 이리저리 걸어 다니고 있었지요. "왜 네 신발을 놔두고 스님 신발을 신고 다니니?"하고 제가 물으니, 명준은 "나도 이 다음에 커서 큰스님처럼 되고 싶어서요!"라고 대답해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인연은 미국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스님은 1992년 미국 포교를 위해 캘리포니아 카멜의 삼보사에 주석하셨고, 저는 1994년 교환교수로 미국에 가게 돼 스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 서부 쪽 대학을 택했습니다. 스님께선 오래 전 떠나셨지만 저는 아직도 스님이 주신 〈금강심론〉과 손수 번역하신 〈정토삼부경〉을 공부합니다. 30년간 매일 읽은 공덕 덕분인지 얼마 전에 졸저 〈금강심론 주해〉를 펴냈습니다. 모자란 점이 많지만 스님의 은혜에 실개천만큼 작은 보답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처님오신날입니다. 뜻 깊은 날을 맞아 1986년 6월 1일 발행된 '금륜회보 제2호'에 실린 스님의 법문으로 기려봅니다.

"아아! 부처님이 오신 날, 만 중생이 저마다 진리로 태어난 지혜의 날,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도 호리회한이 없는 대자대비로 태어난 사랑과 봉사의 날, 이날은 바로 인간의 진정한 존엄성을 찾은 천부적인 인권의 날이며, 모든 불행의 씨앗인 억겁으로 쌓인 번뇌를 모조리 해탈하는 자유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마다에 자비와 지혜로 아롱진 등불을 켜들고, 온 누리의 구석구석을 찬란하게 비추며 환희용약하는 영원히 행복한 광명의 축제입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마하반야바라밀!"

정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멍게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혜산 스님 & 이동배 정광고 교법사

스님, 저 진상(眞常)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스님과의 추억을 다시금 떠올려보는데 저는 참 부족한 제자였습니다. 제 스스로 별명을 '멍게(멍청하고 게으른)'라고 지을 정도이니까요. 1982년 완도 시골에서 상경해 스님을 처음 뵈었을 때 스님께서는 정말 친절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 이후 출가해 계를 받고, 10.27법난 규탄대회로 인해 구속됐을 때도 스님께서 저를 도우려 백방으로 노력해주신 점 지금도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과이력으로 군법사 임관이 무산될 위기도 스님 덕분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국 출가수행승이 아닌 재가자의 삶을 택한 데 대해 많이 아쉬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하지 못한 말, 이 기회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제 스스로 군법사 전역을 앞두고 승려로서 살아갈 것인지, 일반인으로 돌아갈 것인지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곤 결론 내렸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스님이 되지 않을 바에는 출가자의 길을 걸어선 안 된다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스님께서는 저희 내외에게 식사도 대접해주시곤 했고, 사형사제가 모이는 자리에 저를 불러 "진상이는 우리 문중"이라며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정을 많이 주셨던 스님이기에 지금도 내소사 앞을 지날 때면 스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돌담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공양주 보살님 한 명과 스님, 그리고 저. 단출하고 보잘것 없는 시골사찰이었지만 하나씩 꾸며나가던 그 추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때도 제가 스님께 편지를 하나



남겼네요. 민주화의 물결이 넘실대던 그때 사회에서 불교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다 스님께 장문의 편지 하나 남기고 서울로 올라가 불교중흥운동을 펼쳤죠. 제게 무슨 탈이라도 생기진 않을까 상경을 만류하시던 그 모습, 스님의 인자함을 닮고자 제가 이제 제자들 걱정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스님은 이판과 사판에 모두 밝은 분이셨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공무원 생활을 하다 출가하신 스님은 아무 것도 없는 사찰을 일구는데 공을 세우셨고, 대중법문은 대중의 근기에 맞춰 늘 쉽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당시 스님께서는 지금의 신행혁신운동인 '붓다로 살자'와 같은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부처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시던 스님 말씀, 항상 깊이 새겨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스승님께서 "사랑하는 진상아"하고 저를 불러주시던 그 말이 다시 듣고 싶습니다.

정리=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Buddha's Birthday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

대구·경북교구 종무원

법화종요
실상묘법 교유연화 즉지일심 해통만경
처염상정 만경법당 원여법계 제함식중
방화즉과 실상당체 동증여래 무상정각

종무원장(대구 북구 구암동 구화사) 도광
종무의장(경북 성주 선남 천불사) 법원

기획국장(경북 경산 와촌 벽암사) 덕원
총무국장(대구 남구 봉덕동 대룡사) 지월
교무국장(경북 경산 유곡동 도솔암) 현봉
재무국장(대구 달성 옥포 진명사) 해정
사회국장(대구 서구 평리동 수참사) 영암
포교국장(경북 영주 평은 초월정사) 혜월
감찰국장(경북 군위 효령 해월사) 해월

- 임직원 일동 -

■ 종무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51-102 (신천동로 중동교밑)
전화 053-766-7231 / 팩스 053-766-7232

Buddha's Birthday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동 명 사

종정 법운

종도 사부대중 일동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복성리 1095)
전화 054)974-2605 / 팩스 054)974-2705




사찰음식
Korean Temple Food
스님의
손에서
맛으로
피어나다
#힐링 #행복 #건강 #여유 #자연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템플스테이
TEMPLESTAY
사찰음식
VONDINA
발우공양

People

진정한 나눔 깨닫는 봉사는 '힐링 휴가'



김주일 국장의 데스크초대석

이승연 삼천포서울병원 이사장 (의료법인 승연의료재단)



"누구든 봉사를 시작하면 멈출 수 없게 됩니다. 봉사도 일종의 중독증 같은게 따르기 때문이죠.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 특히 힘들고 어렵게 자신을 희생하며 좋은 일을 하고 난 뒤의 보람이란 잠깐 스쳐가는 즐거움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짜릿하고 오래도록 행복한 쾌감을 안겨주지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 가는 필리핀 의료 봉사를 힐링 휴가라 생각하고 참여합니다. 봉사도 해본 사람들이 그 맛과 즐거움을 알고, 또 좋은 일에 재산을 기부하는 일도 해 본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이치와 일맥 상통합니다. 돈 좀 벌고 상황이 나아질 때부터 나누고 살겠다면 평생 나눔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나눌 것이 없어도, 삶이 힘들어도 지금 나누는 삶을 시작하세요. 분명 편안하고 안이한 일상서 벗어나 뜻있는 삶의 도전이 될 것입니다."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삼천포서울병원과 삼천포요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승연의료재단 삼천포서울병원 이승연(58) 이사장. 그는 시간을 쪼개 병원 개원 후 3년 뒤인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매년 필리핀 빈민 지역을 찾아가 의약품 지원과 아동 무료진료 등 해외 의료봉사활동을 한다. 2009년 첫 해외 의료봉사 때엔 20명 내외였던 봉사단이 이제는 8년만에 3배 규모로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당뇨족부괴사병의 난치성 중점 특수치료센터를 운영중인 노하우로 로무알도(62), 조세린(58), 모르시아(66) 등 필리핀 현지인 환자를 순차적으로 초청해 치료하기도 했다. 당시 의료봉사단의 현장 진료서 한명은 발가락이, 또 다른 환자들은 발뒷꿈치 괴사가 진행중이었다. 이대로 두면 절단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 병원측은 여권과 비자발급 등 입국절차를 밟아 병원내 고압산소치료시설(챔버)을 활용해 치료했다.

이를 진두 지휘한 이승연 이사장은 "당뇨족부괴사로 인한 사지 절단을 막을 유일한 치료법이 우리 병원서 시행하는 고압의학치료죠. 많은 부담과 문제에 직면 했지만 외면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며 "잠수병과 버거씨병, 당뇨족부괴사, 가스중독, 피부 재생 등 난치성 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국내 최고 수준의 특수고압산소치료센터를 구축한 자신감과 환자를 외면해선 안된다는 사명감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라고 당당한 어조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경제적 비용도 큰 부담이었죠. 여권 · 비자발급 비용, 체류비용, 진료비 등 직접 비용만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며 "검사서 완치까지 장기간 한국에 머문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국내 초청 치료를 결정해 환자의 개별 건강과 영양상태 점검 후 단계별 치료를 진행했죠. 대성공이었습니다."라고 회고하며 보람을 표했다.

개원 후 3년뒤인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필리핀 빈민 지역 찾아가 의약품 지원과 아동 무료진료
"약 한 알 받기위해 뙤약볕서 종일 기다리는 모습 보고 결심"
지난해 필리핀 족부괴사환자 네명 국내로 초청 무료 수술

이외에도 구순구개열(일명 '언청이') 11세 소년 산델(Camacho Sander Lex)군도 함께 초청해 무료로 수술시켰다.

이승연 이사장이 이처럼 필리핀 해외 봉사를 결심한 것은 우연이었다. 2009년 필리핀을 처음 방문 했을때 현지서 봉사 활동을 하는 동향 출신 치과의사 후배의 권유가 시발점이었다. "처음엔 단순히 의약품을 지원하는 차원이었만, 현실을 직접 보고난 뒤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지원도 늘렸죠. 웬만한 야산 크기의 쓰레기 더미서 생활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도 마닐라 중심가서 자동차로 30여분 거리인 마닐라 케존시는 수도인 마닐라 외곽 도시임에도 빈민가나 다름이 없습니다. 숨쉬기 조차 어려울 만큼 악취가 진동하고 파리와 해충들이 들끓더군요. 비위생적인 공간서 사람과 동물이 뒤엉켜 살고 무질서가 판치는 모습이지만 누구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아픈대로 그저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경이롭더군요."

귀국하자마자 이승연 이사장은 바로 그해 11월 의료진과 행정지원자 등 20명으로 봉사단을 꾸려 다시 필리핀을 찾았다. 그리고 마닐라 케존시서 3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펼쳤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해외 의료봉사활동은 필리핀 사람들에겐 꿈과 희망을, 병원측엔 사랑의 인술을 펼치며 진정한 자비 나눔 실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됐다. 이 이사장은 "약 한 알 받기 위해 적도의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하루 종일 기다리던 필리핀인들의 애절한 눈빛을 보고선 다시 안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 간 의료진은 정말 열심히 였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잊고 점심시간마저 없었습니다. 악조건 속에서 진료하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깨달았죠. 이런 의료진의 헌신, 환자의 절실함이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인구 12만 소도시의 2차 진료기관인 우리 병원으로선 매회 5000만원의 경비와 의료진을 일정 기간 봉사에 투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죠. 병원 가족 모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의지로 가능했습니다."

C2면에 계속

이승연 삼천포서울병원 이사장은 1960년 창원시 마산 출생으로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후 1986년 대한적십자 경남지사 직원으로 공채됐다. 1992년 통영적십자병원에 파견, 1994년부터는 관리자로 병원경영 전반을 맡았다. 2006년 승연의료재단 삼천포서울병원을 개원했다. 현재 삼천포서울병원과 승연복지재단 삼천포요양원, 삼천포서울간호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사회활동으로 사천시희망나눔회 회장, 사천시 봉사단체 삼벌회 고문, 사천시 동삼회 고문, 사천시합창단 단장, KBS진주방송국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수상경력으로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 표창,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대한적십자사 총재 표창, 경남도지사 표창, 통영시장 표창 등을 받았다.

INSIDE

C4 기획연재 박원자의 '인생을 바꾼 108배'
C6 기획연재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C7~10 봉축특집 각 종단 봉축법어 및 봉축사
C13 기획연재 윤범모 교수의 '불도기행'

“고통받는 환자 방치는 폭력”…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가능

‘이승연 삼천포서울병원 이사장’

C1면에서 계속

이 이사장의 이런 봉사 정신은 사실 모태신앙인 불교서 비롯됐다. “저는 고향인 마산서 독실한 불자인 어머님을 따라 마산 삼악사와 무학암을 다녔습니다. 물론 그때는 불심이 있었다고 보기 힘든때였지요. 하지만 절에 가면 항상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러던 제가 본격적으로 절에 간 것은 결혼 이후 30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경남 의령 정곡중학교 국어교사인 아내의 제자가 비구니 스님 사찰인 불령암서 키우는 여학생이었어요. 마침 제가 통영 적십자병원 관리자로 근무하던 시절이었죠. 승진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마음도 가라앉힐 겸 3일동안 그 절서 머물며 조석예불도 스님들과 함께 드리고 기도도 했지요. 아마 제가 원해서 직접 산사체험을 한 건 그때가 처음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로 시험 봐서 그런지 다행히 최연소로 사무관 승진을 했죠(웃음). 그 이후로도 힘들고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절에 가서 마음의 답을 찾는게 일상이 돼 버렸죠.”

이승연 이사장은 삼천포로 내려와 2006년 병원을 개원한 후에는 지역 사찰인 운흥사와 구례 사성암 등에 나간다. 특히 구례 사성암에는 세월호 희생자 및 잠수부들을 위한 인등을 달았다. 잠수부들을 위한 마음은 그의 특별한 인연서 비롯됐다.

과거에 이승연 이사장은 미국적십자사 수상안전, 해군SCUBA(심해 잠수사)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전문사범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다. 그 경험으로 주변서 돈만 들어간다고 말렸지만 그는 2013년 당시로선 국내서 드물게 잠수병치료시설을 갖춘 고압산소응급치료센터를 운영했다.

“우리나라는 3편이 바다로 둘러싸여 언제든 해양관련 수난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잠수사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선 고압산소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물론 고가의 장비에 비해 환자수가 적기 때문에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병원에 있어야 할 시설입니다.” 그의 예상은 2014년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침몰사고때 빛을 발했다. 당시 구조작업에 투입된 민간잠수사 잠수병 환자 43명 전원이 이 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서 치료 및 수술 후 완치돼 사회에 정상 복귀 된 것이다. “당시 직원들이 고생 많았죠. 계속 들어오는 환자들을 돌보느라 의료진들은 퇴근도 못하고 밤에도 대기해야 했지요. 챔버도 8시간씩 쉬었다 가동해야 했는데, 응급환자들이 많아 계속 가동하다보니 기계에 무리가 가서 수리비만 1억 5천만원 넘게 들어갔어요. 금전적으론 손해가 컸지만 그래도 대도시의 큰 병원들이 해내지 못한 일을 우리가 했다는 자부심이 상당해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 이사장의 뚝심과 노력 덕분에 2006년 개원한 이래 삼천포서울병원은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잠수어업인 지정병원, 보훈의료 위탁 지정병원 등의 정책사업을 수행하며 지역 최고 병원으로 자리매김 했다. 특히 삼천포서울병원은 우리나라에선 드물게 버거씨병(폐쇄성 혈액순환장애)과 당뇨, 족부괴사병 등 난치성 중점 치료센터인 특수치료 · 고압산소치료센터를 개설 운영한다.

또한 이승연 이사장은 농 · 어촌 주민들이 대부분인 사천시 지역에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원 취지에 맞게 사천뿐 아니라 남해와 고성군 등 인근 지역민들을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펼친다. 지역민들의 건강 지킴이로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전직원들이 땀방울을 쏟고 있다. “의료혜택 낙후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데서 출발한 우리 병원이 이제 해외로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합니다. 돈보단 인술을 펼친다는 마음가짐으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외에도 이 이사장은 수협 어업인 의료 봉사 활동, 관내 초등학교 농구부 후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매년 등록금 전액 지원,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기부는 물론 각종 사회단체에 기부 및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한다.

이런 행보로 삼천포서울병원은 지난 2007년 대한민국 지식 경영 대상 수상, 2008년 전국 응급의료기관 평가 우수응급의료기관 선정됐으며, KBS 사랑의 리퀘스트에 병마와 싸우는 모녀의 가슴 아픈 사연을 신청해 후원금을 지급 받도록 하는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또한 사회봉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에는 천태종 대종사 전운덕 스님과 함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상을 수상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표창에서 “지식과 재능을 나눔으로써 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길 희망하며 한국과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에 감사하고 계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양국의 우의를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승연 이사장에게 마지막으로 그의 꿈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국내적으로는 현재 우리병원 옆 소방서가 이사를 가면 그 곳에 의료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필리핀 현지에 ‘간이병원’ 설립도 구상중이죠. 궁극적으로는 처음 개원했을 때의 초발심으로 돌아가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역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죠. 고통받는 환자를 방치하는 것은 폭력이며,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의료기관의 막중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삼천포=김주일 기자



제7차 필리핀 해외의료봉사단을 구성해 필리핀 케존 지역에 의약품과 무료봉사를 펼친 이승연 이사장.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기부를 하는 이승연 이사장.



당뇨족부괴사 환자 500명 완치 기념 사진 촬영 모습.

모태불교서 시작된 불교 인연
삶의 난관 부딪히면 절 찾아 기도
시간 날때마다 운흥사 등 사찰 순례

지역민에게 질좋은 의료서비스
남해와 고성군 등 찾아 매달 무료 진료
난치성 중점 특수 치료센터 개설 운영

취재후기

> “내가 가진 것 남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행복한 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께 받은 〈무궁발전〉이란 글귀가 적힌 액자 앞에서 의미를 설명하는 이승연 이사장.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비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불자 CEO를 찾고 있었다. 3개월 전부터 전국에 있는 취재원들에게 수소문 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본지 독자 한분이 제보를 주었다. 경남 삼천포서 의료재단을 운영하는 이사장이 있는데, 부부가 불심이 강한 불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민들은 물론 해외봉사도 열정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귀띔했다. 검증 해보니 지역에선 이미 유명인사 였지만, 그가 불자라는 사실을 아는이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봉축을 앞둔 4월 24일 4시간여 버스를 타고 그가 있는 삼천포로 달려갔다. 기자 생활을 20여년 했지만 처음 가보는 도시였다. 삼천포는 사실 몇 년 전 히트친 모 종편 드라마서 나온 주인공 닉네임과, ‘삼천포로 빠지다’는 표현 즉 ‘길을 잘못 들다’ ‘이야기가 곁길로 빠지다’ ‘어떤 일을 하는 도중에 엉뚱하게 다른 일을 하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도시라는 이미지만 뇌리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인구 12만의 ‘삼천포’는 경상남도 남서쪽 끝자락에 자리한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다. 기후가 온화하고 해안 경치가 빼어나며 먹을거리가 풍부해 그 어느 지역보다 살기 좋은 고장이다.

그곳서 만난 가슴 따뜻한 사람이 바로 경남 사천시 소재 의료법인 승연의료재단 삼천포서울병원 이승연 이사장 이었다. 첫 인상은 약간 투박해 보였지만 그는 당당히 불자라고 밝히며 두 가지 꿈이 있다고 했다. 하나는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드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봉사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는 지난 2006년,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일념으로 삼천포서울 병원을 설립했다. 당시 지인들은 대도시 큰 병원들도 적자에 시달리는데 시골이나 다름없는 그곳서 무슨 병원이냐며 만류했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더군다나 그는 의사출신도 아니었다. 하지만 최고의 시설과 의료진, 여기에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충분히 인정받고 뿌리 내릴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개원 당시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농촌지역의 중소 병원이 처한 부정적 선입견과 싸워야 했다. 제대로 된 진료를 받아 보지도 않고 무조건 의료 수준이 대도시보다 낙후됐다는 식의 편견은 그를 늘 괴롭혔다. 그리고 그 골은 생각보다 깊었다.

지치기도 했지만 이 이사장은 그럴 수록 더 힘을 냈다. 직원들을 끝없이 독려하고 먼 시골서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질좋은 의료서비스로 보답했다. 끊임없이 노력하면 그 보답은 성공이란 열매를 보시한다고 하지 않던가. 올해로 개원 11주년을 맞은 삼천포서울병원은 명실공히 지역거점병원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노인요양원도 함께 운영하면서 최고의 병원이란 찬사를 들을 만큼 성장했다.

이승연 이사장은 “고향도 아닌 타지서, 그것도 작은 소도시서 당당히 꿈을 펼칠 수 있던 것은 개인적으로 어려운 고비때마다 절에 가서 부처님께 의지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한 공덕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아울러 그동안 함께 노력한 300여 병원 가족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공을 부처님과 직원들에게 돌렸다. 인터뷰 말미에 이승연이사장은 “내가 가진 것을 남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행복한 일이며,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벌고 그것을 어려운 이들에게 회향하는 삶을 살다 가고 싶다”고 바램을 밝혔다. 그의 방을 나오면서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께 받았다는 〈무궁발전〉이란 글귀가 적힌 액자가 눈에 크게 들어왔다. 그의 앞날을 예고하는 듯 했다. 봉축 즈음에 독자들을 대신해서 참 불자를 만난 건 행운이었다.

삼천포=김주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본사
효찰대본산

용주사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화성시 용주로 136
전 화 : 031-234-0040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五臺山月精寺

회주 **연암 현해**
주지 **퇴우 정념**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 033-339-6800

❖월정사 프로그램
월정사 출가학교 033-339-6777
월정사 템플스테이 033-339-6606

❖부설 기관
연꽃 어린이집 033-335-8853
월정사 복지재단 033-655-0510
동부노인보호기관 033-655-1389
월정사 노인요양원 033-334-9595
만월 노인요양원 033-823-1151
한강시원지 체험관 033-332-7757
문수청소년회 033-646-1318

www.woljeongsa.org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속리산 法住寺

조실 **천호 월서**
회주 **미룡 월탄**
주지 **무산 정도**

사부대중일동

종무소 : (043)543-3615, 8655 / 원주실 : (043)543-4755
템플스테이 : (043)544-5656 / wwww.beopjusa.or.kr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405

• 철야기도법회 :
매월 16일(음)
오후 7시 ~ 새벽 3시까지
미륵정근기도
자비도량참법기도



"우리 모두가 부처님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본사

황악산 직지사

조실 **영허**
회주 **혜창**
주지 **웅산**

사부대중일동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www.jikjisa.or.kr
종무소 : 054)429-1700~3 FAX : 054)436-3174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불기 2561(2017)년

부처님 오신날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 법원
팔공총림동화사 방장
주 지 능담 효광

동화사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1 (도학동 35) / www.donghwasa.net
TEL : 053)980-7900 / FAX : 053)985-4406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銀海寺

회주 **중화 법타**
관장 **송천 돈명**
도감 **법문**

주지 **운곡 돈관**
부주지 **봉성 전주 안성 오본 원국 지법 성용 혜진 서성 승선**
총무국장
기획국장
교무국장
재무국장
사회국장
포교국장
호법국장
연수국장
원주국장

www.eunhae-sa.org

◆ 학교법인 동곡학원
영천 선화여자고등학교
054)333-3431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치일리 479)
전화 054)335-3318 팩스 054)335-0293



“스님, 제 아들을 좀 살려 주이소”



박원자 작가의
인생을 바꾼 108배

⑨ 부처님 가피와 어버이 마음



그림 · 박구원

신록이 눈부신 5월이다. 푸르른 산사도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다. 얼마 전 영주 부석사에 갔다가 극락루를 지나는데, 정말 극락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신록 위로 펼쳐진 극락의 모습을 폰에 담아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냈더니, 다들 멋진 선물을 받은 것처럼 좋아했다.

함께 간 일행이 없었으면 무량수전 창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아래서 108배를 하고 나왔을 것이다. 절을 하지 못한 채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려 하는데, 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이 들어오더니 좌복을 놓고 조용히 절을 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절을 하는 저 모습이 지혜와 자비를 모두 갖춘 부처님과 가장 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봄이 시작되면서 단양으로, 팔공산으로, 여러 절을 다녀왔는데도, 이 글을 쓰는 지금 신록으로 물들어 있는 산사가 여전히 그립다.

절이 어느 때보다 아름답기 때문일까, 5월에는 부처님오신날을 비롯해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들어 있다. 해서 5월에 쓰는 첫 번째 글은 세상 어머니들의 108배에 대해 쓰려고 한다. 어머니들의 108배는 자식들을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 자식을 위한 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절을 한 분께 들은 이야기다.

오래전 월남전이 한창일 때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월남전에 보내놓고는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다. 낮엔 밭일을 하느라 잠시 잊어버릴 수 있었지만, 밤에 잠자리에 들면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 걱정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웃집 사람이 ‘저, 백련암에 도인 스님 한 분이 사시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고 하니 한번 가보라’ 고 귀띔을 해주었다. 귀가 번쩍 뜨였다. 밭을 매던 호미를 내던지고 백련암으로 올라갔다. 마침 산책을 마치고 암자 뜰 앞에 서 계시던 성철스님을 만났다. 마당 흙바닥을 아랑곳하지 않고 넙죽 절을 올리고 다짜고짜 사정을 말했다.

“시님, 지 아들을 좀 살려 주이소. 지가 시키는 대로 다 할라요.”

성철 스님이 초로에 접어든 여인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뙤약볕에 그을린 시커먼 얼굴에 쭈글쭈글 한 손, 허름한 옷매무새로 보아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다급한 심정으로 뛰어올라온 게 틀림없었다.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늦게 둔 막둥이 아들이 전쟁에 나가 있다 아입니까. 지가요, 시님, 밤이면 잠이 안 옵니다. 세상사 마, 좋은 게 하나도 없십니다.”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안다. 자식이 아픈 것 보다 내가 더 아픈 게 부모 마음이라는 걸, 자식이 행복하지 않으면 부모가 더 불행한 걸 말이다. 그런데 하물며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 자식을 보내놓고 어떤 음식인들 맛있을 수 있겠으며, 편한 이불 속에서 잠이 제대로 오겠는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사연을 더 들어볼 것도 없었다. 성철 스님이 물었다.

“아들을 살려야 되겠지요?”

“그라믄요, 시님. 아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다면 지가 무슨 일이든 할랍니다.”

“그라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집에 쌀이 좀 있지요? 쌀을 좀 퍼가지고 와서 밤을 좀 해갖고 법당 부처님 앞에 올리시오.”

“그거야 몬 하겠십니까. 당장 해올리지요.”

쏜살 같이 집으로 달려가 쌀독에서 쌀 한 됫박을 퍼가지고는 다시 백련암으로 올라갔다. 얼마를 걷고 뛰었는지 생각도 나지 않았다. 자식만 살릴 수 있다면 먼 거리를 걷는 게 대수이겠는가. 정성스레 밥을 지어 그릇에 담아 부처님 앞에 올려놓고는 스님이 계신 방문을 열었다. 평소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지만 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시님, 시키는 대로 밥을 지어 올렸습니다. 인자, 부처님이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는 거지요?”

성철 스님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허허, 소리를 내어 웃었다.

“하이고, 이 보살 좀 보소. 공짜로 아들을 살리려고 하네? 보이소. 저 법당에 올라가면 여러 사람이 절을 하고 있을 기요. 퍼뜩 가서 3천배를 하고 내려오시오.”

절이라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3천배를 하려면 쉬지 않고 해도 7시간은 족히 걸린다는 걸 알 리가 없었다. 아니, 안다고 해도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3천배가 아니라, 3만배를 그 자리에서 하다가 죽어도 하겠다고 덤빌 존재가 세상의 어머니들 아닌가.

“야, 시님. 하겠십니다. 고맙십니다.”

“배고프다고 밥 먹으러 내려오고, 똥마렵다고 변소 가고, 힘들다고 쉬었다가 하면 다 허사인 줄 아시오.”

“알겠십니다. 시님, 시키는 대로 하지요.”

밤을 새워 절을 했다. 생전 처음 해보는 절이었지만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했다. 왠지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에 나와 잘못한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지나갔다. 전쟁터로 나간 자식에게도 잘 못한 게 한둘이 아니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런데 마음만 아픈 게 아니었다. 차츰 다리도 끊어질 듯 아파왔다.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자식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텼다.

월남 전쟁터 나간 아들 걱정에
성철 스님 찾자 “3000배 해라”
“아들 살아 돌아와 가피 깨달아”

3천 번의 절을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 그래도 끝은 있어 동이 틀 무렵 절이 끝났다. 법당 아래 계단을 설설 기어서 내려오는 모습을 성철 스님이 보고는 시자에게 명했다.

“야야, 저 보살, 고마 차부(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거라.”

무뚝뚝하기만 스님도 밤새 자식을 위해 절을 한 어머니의 마음을 읽었던 것이다. 그 뒤 그 백련암으로 올라오는 그 어머니의 발걸음이 잦아졌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밭농사를 짓는 틈틈이 쌀을 이고 백련암으로 올라와 정성을 다해 밥을 지어 올리고는 절을 했다. 어느 날은 혼자 108배를 하고 내려가고, 어느 날은 신심 깊은 사람들과 섞여 3천배를 하기도 했다. 절을 하는 동안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고, 집에 돌아와서도 자식 걱정이 덜했다. 내 자식은 살아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는 안심했다. 남들이 하는 주문(능엄주)도 외웠다. 한글을 떼지 못한 어머니는 손자뻘 되는 동네 아이들을 불러 사탕을 나눠주고는 부탁했다.

“얘들아, 이것 좀 읽어다오.”

아이들이 읽어주는 능엄주를 한 줄 두 줄 외우다 보니, 어느 날 다 외우게 되었다. 일을 하면서 주문을 외우고, 절에 와서 108배를 하면 시름이 사라졌다. 그렇게 안심을 얻고 절을 하면서 지내는 사이 아들이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월남에서 돌아왔다. 고마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아들이 말했다.

“총탄이 빗발처럼 날리는 속에서 적군과 싸우는데 엄마가 ‘얘야, 이리로 와라’ 하고 막 부르는 거야. 나도 모르게 엄마 목소리를 듣고 따라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시체 더미에 있었어요. 둘러보니 산 사람은 나 하나 뿐이었어.”

그 뒤 그 어머니는 108배의 위력을 실감하고는 때때로 백련암에 올라가 절을 하며 누가 연세가 드신 분이 어찌 이리 절을 열심히 하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다.“아들이 살아 돌아와 말하는 걸 듣고 부처님 가피가 무엇인줄 알았다 아입니까. 큰시님이 아무 것도 모르는 나에게 절을 시키지 않았더라면 촌에서 농사짓는 것밖에 모르는 내가 어떻게 3천배를 하고 능엄주를 외울 수 있었겠십니까? 그 은혜는 내가 죽을 때까지 몬 잊는 거라요. 그래서 바쁜 농사철엔 몬 와도 좀 한가할 때는 이리로 와서 절을 하는 거라요. 절, 참 좋소. 내 아들도 살렸다 아입니까? ”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할 것도 없이 타인과 소통하며 슬프고 기쁜 일을 함께 나누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108배는 그 마음을 실현하는 수행이다.

자식으로 인해 어머니들은 수행을 한다. 또 한 어머니의 이야기다. 자라면서 속 한번 썩이는 일 없이 착하게 자라고 천하에 둘 도 없이 총명했던 딸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 급성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다. 손을 써볼 겨를도 없이 단 몇 달 만에 딸을 잃은 어머니는 도무지 살 방도를 찾을 수 없었다. 108배를 시작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그분이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108배를 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지 못했다면 살지 못했을 거예요. 꼭 108배들을 하세요.”

자식이 수행을 하게 하는 스승이라는 말은 틀리지 않다. 내 경우도 딸로 인해 하루 3백배를 한 게 어느덧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다. 큰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날 무렵, 해인사 금강굴에 계신 불필 스님을 찾아뵌 적이 있다. 스님께서는 나의 딸에게 입시가 끝날 때까지 하루 3백배를 할 것을 명하셨다. 입시공부를 하는 동안 매일 절을 하면 네가 원하는 모든 일이 이뤄질 것이며, 힘든 입시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3백배 숙제를 내준 것이다. 백번 옳은 말씀이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딸애는 한 달 정도 열심히 하더니 슬그머니 그만두었다. 나도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입시생으로서는 무리이다 싶어서 강권하질 못했다. 그런데 스님께서 간곡한 말씀과 함께 내린 과제를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어떻게 하지 고심하다가 딸을 대신해 3백배 숙제를 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내가 매일 수행과제로 3백배를 하는 건 순전히 딸 덕분인 것이다.

곧 부처님오신날이다. 아직 108배를 시작하지 못했다면, 세상 사람들의 정화를 위해 오신 부처님을 기억하며 108배 한번 올려보시길.

불기2561(2017)부처님오신날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財團法人
茗園文化財團
MYUNG WON CULTURAL FOUNDATION
(재)명원문화재단 이사장 김의정
명원문화재단은
한국차의 선구자 명원 김미희 선생의 뜻을 이어 전통다례예절 지도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례를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하여 매년 청소년차문화대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의정 이사장은 대한민국옥관문화훈장을 수여하였으며 무형문화재 궁중다례의식 보유자입니다.
우리 차와 예절의 생활화와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하여 전통다도예절지도자 자격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명원문화재단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272 / 전화 02)730-7191~2
명원다례전수관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30-507 / 전화 02)742-7190~2

구국성사 용성진종대종사 대각사상으로
수행·포교하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1962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추서
1990년 10월 9일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 추서
불기2561(2017)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같이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이사 불심 도문
이사 봉안 효경
이사 서해 홍교
이사 선효 성학
이사 장산 도업
이사 서주 태원
이사 금아 혜국
이사 장산 성춘
이사 무심 보광
이사 벽암 지홍
이사 월천 혜총
감사 월암 덕상
감사 대해 일광
용성문도회 회장 경선
대각회분원 회장 지암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목동 법안정사 · 횡성 대각정사 주지 혜총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71
TEL. (02)765-2701, FAX. (02)741-1385



방장 지유 대종사
주지 경선

금정총림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www.beomeo.kr
종무소 ☎ (051)508-3122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직무대행 중봉 성파
주지 향전 영배

영축총림 통도사 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 583)
전화 055) 382-7182
팩스 055) 382-7196
홈페이지 www.tongdo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조실 현봉 근일
회주 송암 혜승
동당 원조 각성
주지 남전 호성
부주지 등운
대학원장 등현

총무국장 도륜 기획국장 성공
교무국장 명인 사회국장 등안
호법국장 정우 포교국장 동우
재무국장 두현

고운노인요양원원장 석우
의성노인복지관관장 선주
영주장애인복지관관장 도선
사찰음식체험관관장 원해
연화마을관장 구견
안동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최유형
안동장애인복지관관장 이호걸

◆사찰음식체험관 :
사찰음식강의, 청국장, 두부만들기체험
◆템플스테이 :
프로그램형, 상시형, 휴식형 템플스테이
신묘장구대다라니철야정진 매월 첫째주 토요일

사부대중일동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 (구계리 116) ☎ 054)833-2324
• 사찰음식체험관 ☎ 054)834-2324 템플스테이 833-6933 / 전송 834-6935 (www.gounsa.net)

유가종찰 · 미륵성지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모악산 금산사

조실 태공 월주
회주 금산 도영
주지 자산 성우

총무 원혜
기획 화평
교무 응묵
재무 혜오
사회 덕림
호법 원성
포교 구담



신도회장 청광 김백호 외 사부대중 일동

부설 전북불교회관 | 서원노인복지관 | 룸비니 어린이집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 15길 1 전화 063)548-4440~2 / 팩스 063)548-1390
홈페이지 www.geumsansa.org 이메일 geumsansa@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古佛叢林白羊寺

방장 학봉 지선
주지 토진

총림대중일동

홈페이지 : www.baekyangsa.or.kr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종무소 061) 392-7502
전 송 061) 392-2081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 화엄사

조실 혜광 종산 대종사
문장 금성 명선 대종사

주지 영관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종무소 061)783-7600 / 템플스테이사무국 061)782-7600
홈페이지 www.hwaeomsa.com

동북아 불교 원력, '世界一花' 피워내다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⑧ 도다이지(東大寺)

나라(奈良) 사찰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도다이지(東大寺)를 고르는 일본 사람이 가장 많은 것 같다. 요새 외국인 관광객의 인기도 끌고 있어 휴일과 평일까지 여행 시즌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도다이지와 도다이지 주변이 언제든지 붐빈다.

도다이지는 728년에 요절한 쇼무(聖武) 천황의 황태자 모토이(基) 천황을 추도하기 위하여 건립된 긴쇼산지(金鐘山寺)가 시작이다. 741년에 쇼무 천황이 고쿠분지(國分寺) 건립에 대한 조서를 발표했다. 고쿠분지란 오곡풍요(五穀豊饒), 국가진호(國家鎭護)를 위해 나라(현재 부나 현에 해당함)마다 세워진 사찰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조서로 긴쇼산지가 야마토코쿠(大和國, 현재 나라현) 고쿠분지인 긴코묘지(金光明寺)로 승격되었고, 이후에 사찰의 명칭이 도다이지로 바뀌었다. 당시는 천재지변이나 전란으로 불안한 사회이었기에 쇼무 천황이 국가가 평화롭게 번영하는 것을 기원하여 노사나대불 제작에 대한 조서를 발표했다. 조서에는 "돈이나 권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중의 마음과 힘을 모아 대불을 제작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자"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말로는 '십시일반(十匙一飯)'이라는 표현이 생각난다. 대불 제작이 국가 프로젝트이면서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협력을 청한 점이 도다이지 대불 제작 특징이다. 권선은 일본 각지를 돌아다니고 민중을 교화하거나 다리를 놓는 등 사회사업을 열심히 했고 민중한테 큰 신뢰를 얻고 있었던 명승 교키(行基) 스님이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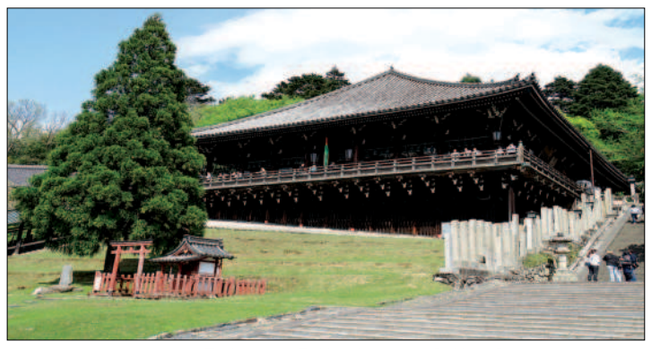
대불 제작이 3년간에 주조 과정을 8번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동원된 연인원이 무려 260만 명이었고 사용된 동이 500t이었다고 한다. 752년 대불개안공양회(大佛開眼供養會)가 성대하게 열리고 인도 스님인 보다이센나(菩提僊那)가 개안을 했다. 이 법회에서 일본, 중국을 비롯한 무악(舞樂)이 봉납되었다니 참으로 화려하고 국제적인 개안식이 아니었을까.

국제적이라고 하면 도다이지 건립의 주역 네 명이 국제적이다. 발원을 한 쇼무 천황, 개산조사(開山祖師)인 로벤(良弁) 승정(僧正), 권선을 맡았던 교키 스님, 개안을 맡았던 보다이센나를 도다이지 건립의 사성(四聖)이라고 부르는데 쇼무 천황 외에는 로벤 승정과 행기 스님은 한반도에 유래가 있는 도래인 출신 일족이고 보다이센나는 인도 출신이다. 도다이지 건립하는 데 대공사 주역을 맡았던 사람도 도래인 출신이고, 도래인 출신인 불사, 주조사(鑄造師) 등 기술자들도 활약했다. 도다이지는 해외에서 건너온 사람이 없이 건립할 수 없었던 것이다.

도다이지는 국가 안녕을 기원하는 사찰인 동시에 불교의 교리를 연구하는 곳으로서 화엄종(華嚴宗)을 비롯한 남도육종(南都六宗, 남도는 나라 지역), 그리고 헤이안 시대 이후는 진언종(眞言宗), 천태종(天台宗)을 포함한 팔종(八宗)을 연구하는 학문 사찰이 되었다. 도쇼다이지를 소개했을 때 썼는데 감진(鑑眞) 스님도 도다이지에서 많은 사람한테 수계를 내렸다.



도다이지 본당에 있는 대불. 높이만 16.2m에 달한다. 당시 개안식은 인도 스님이 개안하는 등 국제 행사로 성대히 봉행됐다.



도다이지의 나가쓰도(二月堂). 매년 관음보살에게 죄업을 참회하는 '슈니에'가 열리는 곳이다.



도다이지로 가는 역에 분수대 위의 교키 스님의 동상. 스님은 백제 도래인의 후손으로 도다이지 창건 권선을 맡았다.

官 주도 불사, 백성에 협력 요청
권선 · 창건자 모두 도래인 후손들
기술자들도 한반도서, 국제 공조

관음보살에게 참회하는 '修二會'
한번도 거르지 않은 법회 '눈길'

도다이지가 역사상 병화로 전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이 두 번이 있는데, 하나는 1180년이고, 다른 하나는 1567년이었다. 1180년엔 대불전을 비롯한 가람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그러나 다음 해부터 복원이 시작되어 조겐(重源) 쇼닌(上人)을 중심으로 권선이 진행되었다. 대불 수리는 마침 규슈 하카타에 있었던 송(宋)나라 공장(工匠)이 맡았고, 1185년에 새로 만들어진 대불 개안(開眼)이 진행되었다. 10년 후엔 대불전 낙성을 축하하는 법회도 열렸다.

이후 1567년에도 대불전을 비롯한 주요 건물이 소실되었다. 당시 복원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재건은 소실된 지 100년 이상 후에 있어야 시작했고, 1692년에 수리된 대불의 개안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그 때 나라에 30만 명이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니 대불이 백성들의 신앙을 많이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불에 이어 대불전도 재건되었지만 당시 큰 나무가 거의 없고 자금도 부족해 대불전 정면이 원래 폭의 약 3분의2 정도로 축소되었다. 측면 길이와 높이는 창건 당시 그대로 복원되었다. 현재 대불전 정면이 약 57m, 측면이 약 50m, 높이 약 47m로 세계에서 목조 건축물로서 최대급 크기이지만 창건 당시는 더 컸던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대불전 대수리를 했을 때 대불전 앞에 있는 참배로도 정비되었는데 인도, 중국, 한반도 그리고 일본의 돌이 사용되었다. 불교가 일본으로 전래된 길을 이 돌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도다이지에 여러 행사가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유명하고 민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오미즈토리(お水取り)'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슈니에(修二會)'이다. 슈니에의 정식적인 명칭이 '십일면관음회과법요(十一面觀音悔過法要)'이고, 752년에 시작된 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돼 왔고, 올해 2017년이 제1266회이다.

슈니에는 평소에 범한 잘못을 관음보살 앞에서 참회하고, 맑고 깨끗한 마음과 몸을 얻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자는 법회다. 고대인이 재앙이나 역병, 전란이 즉 국가의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국가의 병을 슈니에를 통해서 없애고, 천하태평, 오곡풍요 그리고 민중의 행복을 기원했다는 것이다.

매년 음력 2월에 열린 이 법회는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니가쓰도에서 진행됐다. 이는 나라를 비롯해 간사이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봄의 도래를 알려주는 행사이기도 하다. 슈니에는 렌교슈(練行衆)라고 부르는 승려 11명을 뽑아 렌교슈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전년 12월부터 여러 준비를 한다. 렌교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이 사람들을 대신에 참회해 관음보살한테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이른바 관음과 사람을 잇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 매년 3월 1일에서 14일까지 저녁이 되면 송명(松明, 관솔불)이 잇달아 니가쓰도 아래에서 계단을 통해 무대에 올라가 정말 장관이다.

이 행사는 굉장히 인기가 있어 멀리에서 일부러 오는 사람도 적지 않다. 특히 12일에 더 큰 관솔불이 사용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보러간다. 옛날에 시작한 물과 불로 재앙을 없애고 행복을 기원하는 슈니에는 현대인들에게도 아주 매력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슈니에 외에 추천하는 것은 대불전 관상창(觀相窓)이 열리는 날이다. 1월 1일 오전 0시에서 아침 8시까지 관상창이 열리고, 대불전 밖에서 대불을 예불할 수 있다. 장엄히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 정말 좋다. 8월 15일에 만등공양(万燈供養)라는 행사가 있을 때도 저녁에 관상창이 열린다. 기본적으로 1년에 1월 1일과 8월 15일 2번 열리지만 이외에도 관상창이 열릴 때가 있다. 평소에 방문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체험이 될 수 있지만, 행사가 있을 때 시간을 맞춰서 찾아가면 색다른 도다이지를 느낄 수 있어 더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도다이지 경내와 주변 볼거리

도다이지에 갈 때마다 느낀 게 대불전에 많은 방문객이 있는 반면에 대불전 외의 도다이지 경내 볼거리에는 대불전처럼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는 것이다. 정말 아쉬운 일이다. 도다이지를 방문할 때는 남대문을 통해서 대불전에 가고, 다음엔 대불전 동쪽에 있는 니가쓰도(二月堂), 홋케도(法華堂)를 보러가는 것을 추천한다. 대불전에서 니가쓰도로 잇는 길도 걸으면 참 좋다. 니가쓰도는 슈니에 때 올라갈 수 없지만 평소에는 무료로 올라갈 수 있다. 관음보살이 비불(秘佛)이고, 건물 안에 못 들어가지만 예불 공간인 무대는 괜찮다. 니가쓰도 무대에서 대불전을 비롯한 도다이지 경내 건물도 바라볼 수 있어 고도 나라의 분위기가 가득하다. 니가쓰도는 17세기에 슈니에 때 불이 나 소실되었기 때문에 재건된 건물이지만 니가쓰도 남쪽에 있는 홋케도는 나라 시대에 지은 것이며 도다이지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 병화로



큰 피해를 입은 도다이지에서 나라 시대에 세워진 건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정말 귀중하다.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다면 북서쪽에 있는 데가이몬(転害門), 쇼소인(正倉院)도 가보시기를 바란다. 데가이몬은 도다이지 창건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여덟 개 기둥이 있는 훌륭한 문이다. 데가이몬 동쪽엔 쇼소인이 있다. 756년에 쇼무 천황이 세상을 떠난 후 고묘 황후가 천황의 유물을 도다이지 대불에 바치고 쇼소인에 보관했던 것이 보물 창고 쇼소인의 시작이다. 지금은 도다이지가 아니라 구나이초(宮?廳) 관할로 되어 있다. 평일에 10시부터 15시까지 쇼소인 외관을 무료로 공개한다.

쇼소인 보물이 지금 쇼소인 가까이에 있는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에 보관되어 있는데 매년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까지 나라국립박물관에서 쇼소인전이 열리고 이 보물들이 공개된다. 실크로드를 경해서 전한 보물도 있어 쇼소인이 실크로드 동쪽의 종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고대인이 전한 국제성이 풍부한 아름다운 보물을 보러가는 것을 추천한다.





분열 · 갈등 극복해 화합의 시대 만듭시다

중생 무명 집착 벗어나 지혜의 눈 갖추라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부처님께서 처음 탄생 하실 적에 마야부인 옆구리로 금빛 몸 나투시니 아홉 용이 한꺼번에 향수를 뿌렸고 성큼 성큼 사방으로 걸음 하니 둘레에는 연꽃이 솟아올랐네. 최후로 제일기(第一機)의 법(法)을 베푸시니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홀로 높음이라 하심이여!(天上天下 唯我獨尊) 고금(古今)을 통해 이를 지나갈 자 누가 있으리오. 거룩하고 거룩하십니다.

오늘은 무명(無明)의 사바세계에 지혜(智慧)의 광명(光明)으로 부처님께서 강탄(降誕)하신 인류정신문화의 날이며 환희가 충만한 날입니다. 고통의 바다에 빠진 중생들을 위해 대자대비(大慈大悲)의 연민으로 참나 선언과 참된 생명본연을 만유법계에 천명(闡明)하신 것입니다. 이는 본래 생사가 없건만 몸소 생사로써 중생들이 무명의 집착에서 벗어나면 '본래 부처' 임을 보여 주시기 위해 출세한 거룩한 서원(誓願)입니다.

모든 인류(人類)시여!
큰 지혜와 공덕(功德)을 누리고저 할진대, 일상생활(日常生活)속에서 오매불망 간절히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인가?' 하고 의심하고 의심할 지어다. 금생에 지혜의 눈을 갖추지 못한다면 어느 생에 다시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으리오! 필경일구(畢竟一句)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萬古碧潭空界月(만고벽담공계월)은
再三撈 蛤應知(재삼로록시응지)리라.
만년이나 오래된 푸른 못 속 허공중의 달은
두 번 세 번 건져 봐야만 비로소 알리라.

삼라만상이 평등하고 차별 없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꽃잎에 맺힌 이슬은 붉은 구슬처럼 빛나고, 푸르른 신록이 마치 비단을 펼친 듯이 온 세상을 장엄하고 있습니다. 봄볕이 산과 골짜기를 가리지 않고, 나무와 풀을 따로 비추지 않는 것처럼, 천지의 이치는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 없으니 삼라만상의 모습이 또한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본래 자유롭고 평등한 불성(佛性)의 소유자이며, 모두가 존귀하고 스스로 온전하여 소중한 존재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인류에게 전하는 깨침의 사자후입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존재의 실상을 밝혀 주셨지만 세간과 중생들은 언제나 상(相)을 내는 일로 분주합니다. 서로 장벽을 만들고 편을 갈라 반목하면서 스스로 그 속에 갇혀버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들은 갈등과 불화로, 국가와 민족은 대립과 전쟁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공멸의 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온갖 차별하는 마음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시비분별을 멈추면 본래부터 완전한 자성(自性)이 모습을 드러내고, 자성이 청정한 줄 알게 되면 순간순간 대하는 온 중생을 부처로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본래 면목을 드러내니 누구 하나 주인공 아님이 없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이라는 이치를 바로 알면 지혜와 자비의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광명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우리 모두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사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온 누리와 시방법계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기를 천만 불자 및 국민여러분 모두와 함께 봉축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무척이나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국내외 경기 불황으로 서민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정치적인 불안이 우리 사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국민의 여망에 의한 국가지도자가 새로 선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국가적 역량이 모아질 것입니다. 새로운 도약으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이 되면 우리는 연등을 밝힙니다. 연등은 번뇌와 무지로 가득 찬 사바세계를 진리의 광명으로 밝게 비추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등을 켜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가진 내면의 지혜를 밝히고 부처님의 자비로움으로 온 세상이 밝고 향기로운 세계가 되기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천만불자와 국민 여러분!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꽃이 피면 향기가 연못에 가득합니다. 진흙 속에서도 항상 맑은 본성을 간직하고 있는 연꽃처럼 우리도 청정한 마음과 보시행의 실천으로 나라가 부강하고 국민이 건강한 향기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합시다.

참 생명, 참 행복의 길로 나아가자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불자와 국민 여러분! 청정한 대지 위에 환희의 노래 울려 퍼지고 만 중생의 복락이 일만의 꽃으로 피어나니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일체의 탐욕과 번뇌를 내려놓고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합시다. 부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만생명의 존귀함을 가르치시고 그 존엄한 생명의 실상이 무수무량의 지혜와 자비임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생의 무명이 깊고 깊어 참 생명의 실상을 외면한 채 욕심내고, 성 내고, 화를 내며 무명의 업장을 키워가니 중생계는 어느 하루 편할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증유의 혼란과 고통의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만들어가려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우리는 좀 더 마음을 열고 지혜를 밝혀 나와 이웃과 우주가 하나임을 깨치고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며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의 환희와 축복으로 우리 모두 마음을 열어 손에 손을 맞잡고 부처님이 열어 보이신 참 생명, 참 행복의 길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주인공으로 삼시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부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부처인 세상은 차별이 없으며 분별도 없고 모두가 주인공인 밀엄정토입니다.

우리가 처한 시대적 가르침으로 깨우쳐주신 부처님을 찬탄하며 맞이하는 오늘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지혜를 밝힙시다.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받들어 나와 이웃, 생명을 가진 모든 유정들이 부처인 것을 알아 자비심으로 은혜를 나눕시다.

지혜롭고 자비한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는 보살행(菩薩行)이야말로 참다운 공양이요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불자의 자세입니다.

바른 믿음과 깨달음, 올곧은 실천과 증득으로 인과의 이치를 가르치신 부처님처럼 우리도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며 부처님의 가없는 자비광명과 진각성존 회당대종사의 무진서원으로 인류에 평화가 깃들고 국가와 사회, 가정에도 서원하는 것이 모두 성취되고 복덕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

모두 화합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



부처님께서는 온 우주의 모든 생명에게 자유, 평등, 행복이라는 희망을 열고, 참 나를 찾아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화와 갈등은 탐, 진, 치(貪.嗔.癡) 삼독이 그 원인입니다. 탐욕(貪慾)으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나고, 성냄으로 인하여 싸움이 일어나고,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사리(事理)를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괴로운 과보(果報)는 반복되며 중생은 고해(苦海)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층 · 지역 · 빈부 · 이념 · 종교 등의 모든 갈등이 서로 표출되어 충돌을 일으키고, 인류는 불안과 공포(恐怖)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들은 부처님의 자비와 보시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나누고, 서로 감싸 안으며 화합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섭시다.

진리의 법음이 온 세상에 울리고, 진리의 법등이 온 세상을 밝히는 불국토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서원합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눈을 뜨고 하늘을 보라 빛나는
태양은 늘 우리를 비추고 있으니.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와 이웃을 인도하여
청정한 불국토를 실현하는 일
그 자리에 부처님은 오십니다.

어둡고 차가운 그늘에 가려
힘들고 지친 이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 부처님은 오십니다.

진흙 속에서 때 묻지 않는
연꽃의 청정함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기도하는 그 자리에 부처님은 오십니다.

중생이 부르기 전에 이미 와 계신
그런 부처님을 만나는 날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엽시다

회정 정사
진각종 총인



눈을 뜹시다.
마음의 눈 뜨고 자기를 바로 봅시다.
귀를 엽시다.
마음의 귀 열고 내면의 소리를 들읍시다.

마음을 열어 자기를 바로 보고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 참 주인공인 자성법신(自性法身)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을 받들어 찬탄하는 오늘 인연과(因緣果)의 이치를 바로 보고 깨달아 청정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이 자리가 참되고 바른 진리이며 진정한 이치인 심인(心印)의 자리입니다. 심인(心印)은 무명을 밝히는 지혜요 나눔을 행하는 자비이며 정진을 이끄는 용기입니다.

삼밀수행(三密修行)으로 심인(心印)을 찾고 저마다의 가슴속에 자성(自性)의 등을 밝혀 자기 수행(修行)과 실천(實踐)으로 지혜(智慧)와 복덕(福德) 충만하게 하며 뜻하는 바를 원만히 성취할 수 있도록 서원(誓願)하고 정진(精進)합시다.

개개인 삶 반성하고 수용력 길러 이웃과 함께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왜, 오늘 부처님은 사바에 오셨는가? 중생의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인 번뇌는 왜 일어나는가? 그 무슨 사유로 삶과 죽음의 극단을 경험하게 되는가?

부처는 이상향의 정토를 가르쳤는데, 중생은 무명(無明)의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삼독(三毒)의 암흑으로 무지한 혼돈의 바다에 빠져서, 빛을 찾으려는 노력조차 불가능한 범부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모든 중생이 행복이라는 희망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2500년 전부터 영산회상(靈山會相)에서 혼신의 힘으로 사자후를 토하고 있는데, 중생은 궁극의 불성(佛性)을 인지하려는 노력조차 못하는 범부이기 때문입니다.

부처가 중생과 하나의 진리체임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인간으로 현신하시어 수많은 교화방편을 보이셨는데, 중생은 영겁동안 쌓아온 불가사의한 업연(業緣)의 장막에 가려서 밝은 빛을 보지 못하는 범부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불비시식(不非時食)과 발우공양으로 자제력을 겸한 건강수행은 물론 자연환경 가꾸기까지 실천하셨는데, 중생은 화려한 음식으로 포식하고, 일회용품 남용 등으로 자신은 물론 지구촌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는 범부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인류 상생의 공동체 영위를 위해서, 경계가 없는 동체대비(同體大悲)를 말씀하셨는데, 중생은 나르시시즘(自己愛)의 이기심으로 철옹성을 쌓아서, 수용하고 화합하려는 마음내기가 어려운 범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하기에 부처님께서 오신 거룩한 뜻의 실천이 더욱더 절실하고 빛이나 보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깨침의 연기사상은 현대과학으로도 하나씩 증명이 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진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중생은 부처님의 실천적 수행과 말씀을 따름으로써,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수용력을 길러 이웃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는 밝은 마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불국토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불자들 마음에 다시금 되새겨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뜻한 손길 전합시다

효강 정사
총지종 종령



오늘은 찬란한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신 부처님께서 연꽃처럼 맑은 향기와 대자대비하신 원력으로 무명의 어둠에 쌓여있는 어리석은 중생을 구제하시고자 나투신 참으로 뜻 깊고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답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하고, 우리 모두는 어떠한 형태로든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함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함께할 수 있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의 작은 도움을 기다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보지 못할 뿐입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어떤 이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자비행의 상호작용 속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우리 불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주위를 돌아보고 따뜻한 손길을 전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인간답게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만유법계 가득한 부처님의 진리

지극한 원력 세워 실천합시다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 스님



부처님께서는 탄생게서 "삼계는 모두 고통이니 내가 마땅히 안락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력을 지닌 삶은 아름답습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원의 현신은 삼계 중생들을 모두 안락케 하리라는 원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지극한 원력을 세우고 끊임없이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뜻깊은 날, 세상의 모든 이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기도드리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깃든 동국대학교가 삼보의 이름으로 더욱 빛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눈 맑으면 세상 맑아진다

불교조계종 종정대행 혜인 스님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세계 평화와 자유 인종의 차별, 종교의 차별, 직위고하의 차별, 임금과 신하의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세계를 말한다. 세속의 종교는 차별이 있으나 부처님 경계에서는 대자유와 평화만 있을 뿐이다. 태양이 누구에게나 빛을 주지만 태양은 주었다는 생각 없이 빛을 발한다. 자유세계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로운 평화의 기회, 정의로운 사람의 희망 역시 정의롭고 함구적인 평화였다. 모든 인류가 평화와 우애와 정의에 대한 자비로운 공통의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 마음이 곧 진여

국제선불교조계종 종정 목탁 스님



인간의 마음이란 그 스스로의 성품이 본래부터 맑고 깨끗하고 때가 끼지 않은 진여의 理體와 한량없는 德用까지도 갖추어 있으니 이것이 곧 불생, 불멸하고 고요하니 이를 自性 淸淨 涅槃이라 합니다. 붓다께서는 인간 무명의 장벽을 뚫고 위없이 바르고 큰 깨달음을 이루는 놀라움을 사바세계 만 중생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이는 佛向上(부처로 가는길)임을 자각하라는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생에게 내리는 가르침과 거룩한 축복을 존귀한 임 오심의 인연으로 현세의 극락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진실된 삶으로 하루하루를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스님



"한 구름에서 같은 비를 내리지만 약초와 나무들은 근기에 따라 제각기 받아들인다." 이 말씀은 법화경에서 설하신 내용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는 봄비와 같이 대지를 촉촉이 적시듯 모든 중생들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십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바쁘게만 살았지 내 마음 다스리는 일에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더욱더 정성을 다해 진실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자신의 근기를 올린다면,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봄비와 같은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삼독심 내려놓고 초심으로

(사)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스님



그 날, 지리산 자락에 봄비가 슬피 울던 날, 무상한 둥지 다툼에 인왕새 의왕에 떨어졌네. 오! 개구업 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눈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귀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마음수리 사바하
욕지전생사 금생수자시(欲知前生事 今生受者是)
전생을 알고저 하면 지금의 삶이 전생이고
욕지래생사 금생작자시(欲知來生事 今生作者是)
내생을 알고저 하면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일세.
탐 · 진 · 치 내려놓고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나누는 마음으로 등불 밝히자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 스님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오늘은 번뇌와 무명 속에서 고통 받는 인간과 일체중생의 깨달음을 위하여 부처님께서 오신 광명의 날입니다. 모든 생명이 부처로 새롭게 태어나는 성스러운 날입니다. 밝은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는 일체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누는 마음으로 무명을 떨치고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받들어 온 누리에 부처님 오심을 찬탄합시다. 이렇게 좋은 날 부처님께 예경하고 소원성취 이루시길 바라며 이웃을 위해 보리심을 행하도록 합시다.

깨달음의 노래 함께 부르자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승 스님



青山依舊映世上 鶴去人亡石逕迷
獨立傷心思故跡 疑是身空物亦空

청산은 예전처럼 세상에 비치는데, 학은 떠나 사람도 없이 돌오솔길만이 희미하네. 상심한 채 홀로 서서 옛 자취를 생각하니 내 몸도 공하고 만물도 다 공한 듯하네. 우리 불자들의 서원과 발원으로 이 사바예토가 고통이 없는 참된 불국정토가 되도록 노력정진해야 합니다. 이 땅에 다시 부처님이 오신다면 지금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가 보살성문이며 부처님이니 참다운 깨달음의 노래가 울려 퍼지도록 진리의 합창곡을 소리 높여 불러야 합니다.

부처님은 온 법계 가득 차

대한불교총화종 종정 남정 스님



佛身充滿於法界 불심충만어법계
普現一切衆生前 보현일절중생전
隨緣赴感靡不周 수연부감미불주
而恒處此菩提座 이항처자보리좌

부처님은 온 법계에 가득 차 있으며 항상 모든 중생들 앞에 나타나시네
인연 따라 다달아서 두루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여기 항상 보리좌에 계시네

사바에 진리 대광명 빛나네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심월 스님



日白塵心白 風淸世慮淸
修行無別意 夜夜窓前白
태양이 밝으니 마음도 밝아지고
바람이 맑으니 생각도 맑아지네
수행하는 별다른 뜻은 없으니 밤마다 창문 앞에 밝게 비치리라

지옥 중생으로부터 천신, 생명 있는 중생과 보살 성문이 부처님 오심을 기뻐하니 사바에 무명 번뇌가 걷히고 진리의 대광명이 빛을 발하네. 청정국토가 바로 부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천 길 낭떠러지 한 발 딛는 묵조선객에게 이르니 룸비니 동산에 피었던 무우수 꽃은 그대로 아름답네.

성불의 진리는 주어진 행복

(사)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우러러 받듭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천의 스승이며 사생육도의 어버이시고 만고광명의 등불이신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고자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며 가진 자는 남을 도와주며 서로서로를 보듬고 살아갑시다. 이렇듯 성불의 진리는 만고에 변함이 없어 우리에게 주어진 큰 행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오신날 의미 되새기자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취운 스님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 이 기쁜 날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각자 서원을 세워 성불하는 계기를 바랍니다. 법당 안의 불상이 부처가 아니고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이런 마음의 실체는 공입니다. 자신이 만들어 내는 마음에는 그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을 깨우쳤다고 얘기하고 견성성불 했다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실체를 부처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부처님오신날 큰 서원으로 당장 자신의 마음을 관조(觀照)하고 단박에 깨우쳐서 우리 모두가 성불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인과의 법칙을 깨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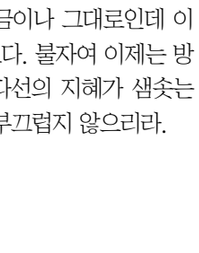
(사)대한불교승가회 이사장 무공 스님



천지만물이 모두 인과의 이치에 있고, 자리에 앉으면 일어설 것이며 섰으면 누울 것이고 누우면 반드시 일어설 것이며 이것이 곧 인과의 법칙이다. 법이란 마음과 경계를 모두 잊어버려야 참 법이며 구함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멸하지 않을 것이니 생멸이 없는 그것이 바로 부처인 것이다. 생(生)한 바가 있으면 멸(滅)할 바가 있고 생한 바가 없으면 멸할 바도 없고, 유(有)와 무(無)를 함께 없애 버리면 바람이 수면(水面)으로 지나가도다.

좋은 날 등불을 밝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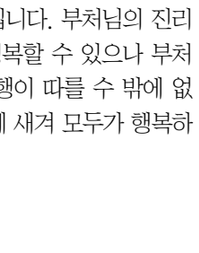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정광 스님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간 세상에 태어나시어 천상천하에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붓다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누구나가 불성을 깨쳐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극히 밝고 선량하여 미묘한 신령의 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불성을 개발하여 되찾는다면 붓다가 된다는 이 거룩한 교훈을 다시 한 번 경각해야 하겠습니다. 좋은 날 우리 모두는 등불을 밝히고 나와 이웃 나아가 세상 모두가 부처님 광명과 가호가 충만하기를 다함께 기원합시다.

하염없는 진리 누구나 배운다

(사)대한불교해동종 종정 혜봉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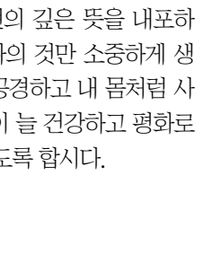


釋迦如來無說說 석가여래무설설
一切衆生不問問 일체중생불문문
各各學無爲 각각학무위
心空及第歸 심공급제귀

석가여래께서 말 없는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체중생은 들음 없이 들으시네
제각각 하염없는 진리를 배우나니 마음을 비우고 급제하여 돌아가네

대 해탈의 삶을 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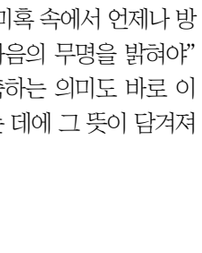
(사)한국불교종단연합회장 성철 스님



우리가 생사가 없는 확고한 금강 같은 지혜를 터득할 때 삶과 죽음의 생사를 초월하여 진정한 행복추구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의 인식 자체는 모두다 몽중생사이며 참 진리에는 태어남도 없고 또한 본래 죽음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실상은 영원하고 나고 죽음은 본래 허망한 것이라는 대명제를 깨쳐 본무생사의 실상을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형식과 가장으로 삶 찾지마라

대한불교본조계종 종정 회암 스님



나는(我) 괴로움(苦諦), 괴로움의 집기(苦集), 괴로움의 멸함(苦滅) 괴로움의 멸함에 이르는 길(苦出要諦)을 기(記)한다.

무슨 까닭인가. 이것은 뜻에 맞고 법에 맞으며 범행의 첫 머리며 그것은 무욕, 무위, 적멸, 지식, 정각, 사문, 열반이기 때문에 기(記)하는 것이다. 즉, 글이며 문자일 뿐이니 부처님의 탄신은 나의 마음으로 기쁨이 나의 덕(德)이니라. 형식이나 가장으로 삶을 찾지마라.

정법에 집중하라

세계승가회장 수완나 스님

喜法臥安이요 心悅意淸이라
不說讚嘆이요 眞覺心讚이라

가르침의 감로수 마시는 님. 맑고 고요해 편히 잠을 자노니 거룩하신 부처님! 입으로만 찬탄 말고, 진공묘유 깨달아 가슴으로 찬탄하세.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인데 이를 깨닫고 꿰뚫는 이, 한없이 부족하도다. 불자여 이제는 방편에 속지 말고 정법에 집중하라. 붓다선의 지혜가 샘솟는 수행은 자타를 성불케 하리니 스스로 부끄럽지 않으리라.

자신부터 반성하는 시간을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의 삶과 말씀을 되새겨 지금의 나를 반성하고 이 어두운 중생사회가 밝아지도록 하는 주인공이 스스로 되어야 합니다. 화합과 단결하는 곳에서 밝은 법이 나옵니다. 그래야 사회가 안정되고 안정된 사회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진리에 순응하는 사람은 복덕이 따르고 행복할 수 있으나 부처님의 진리에 벗어나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마음에 새겨 모두가 행복하고 자유롭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극락정토 실현 노력해야

(사)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대화 스님

2561년 전 4월 초 8일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설파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탄생계는 모든 생명이 비로불 전신체로 다 같이 존귀하니 상호 존중과 배려로 다툼과 고통이 없는 세상 즉 정토구현의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견만 주장하고 나의 것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상대를 공경하고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써 가정과 직장 사회와 마음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워 이 땅위에 세상 극락정토가 실현되도록 합시다.

마음의 무명을 밝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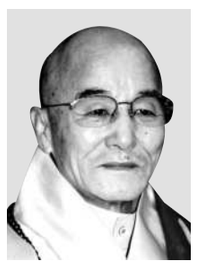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 복지재단 회장 무산 스님

다시 부처님오신날을 맞으며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은 부처님 오심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되새겨 보는 일이다. 즉 대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 라는 허구를 자각하고 대자유인이되는" 것이다. "나는 집착과 미혹 속에서 언제나 방황하고 상처 입은 어리석음을 벗고 마음의 무명을 밝혀야" 한다. 오늘 우리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의미도 바로 이러한 인류최대의 자유자재인을 기리는 데에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수행하고 나누며 사회에 회향합시다

대천세계 밝게 비추네

(사)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장 송산 스님



世尊坐道場 세존좌도량
淸淨大光明 청정대광명
比如千日出 비여천일출
照耀大千界 조요대천계

세존께서는 도량에 앉아 계시고 청정한 대 광명을 놓으시네
비고 하건데 천개의 해가 뜨는 것 같이 대천세계를 밝게 비추네

천진한 내 성품 찾아라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불 스님



삼계도사 세존께서 꽃을 들어 보이신데, 과거여래, 현재성현, 미래 학인들, 번뇌 망상 끊어내고, 무변법신 이루우고, 천진 면목 내 성품을 분명하게 증득하네. 부처님오신날 오탁 세상에 물들지 않고 여여히 빛나고 있는 천진한 내 성품을 찾아 합니다. 한결같은 부처님의 마음을 닮도록 수행 정진해야 합니다. 마음은 깨우기 나름입니다. 허물이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개선을 생각해야합니다. 항상 불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부처님전에 기원드립니다.

탄신을 봉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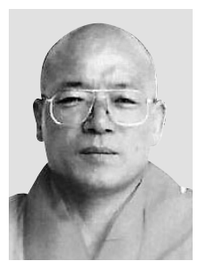
(사)대한불교선교종 종정 법운 스님



부처님께서 외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한 인간적으로는 인권선언이며 인류에는 평등선언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억겁으로 쌓인 무명과 번뇌를 벗어나서 참다운 인간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생로병사를 비롯한 모든 인생고를 여의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롭고 안온한 인생의 고향을 찾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었기에 환희로운 영광의 날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향기 지구촌에 널리 퍼져 고통 받고 폭정에 시달리는 가까우면서도 머나먼 저 북쪽에도 모두 말고 밝은 삶이 되소서.

염불공덕으로 만 중생 해탈을

(사)대한불교법음종 종정 청암 스님



無禪有淨土 무선유정토
萬修萬人去 만수만인거
但得見彌陀 단득견미타
何愁不開悟 하수부개오

참선수행은 부족 하더라도 쉬지 않는 염불공덕이 있으면 만 사람이 닦아 만 사람이 극락 가서 오로지 아미타불을 꼭 만나게 되나니 깨닫지 못할까 근심할 것 무엇이랴. 부처님오신날 인연에 우리 모두 쉬지 않는 일념 염불공덕으로 모두 해탈 이루어 부처님처럼 닮아가는 뜻 깊은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높고 낮음 없음을 새기자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신풍 스님



百川入海同一咸味(백천입해동일함미) 四姓出家 同一釋氏(사성일가동일석씨)

백방에서 흐르는 냇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동일하게 짠 맛이 나고, 네 종족이 출가하여 불제자가 되면 동일하게 석씨가 된다. 우리는 일불제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교주로 하여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주지하다시피 불교는 높고 낮음이 없고 있고 없음이 없는 불이정신이 살아있습니다. 항시 건강하시고 청안하시기를 합장 축원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

어지럽지 않은 마음 길러야

(사)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유심 스님



무엇이 禪定(선정)이라 하는가, 밖으로 모습을 떠나는 것이 禪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음이 定이니 밖의 모습에 집착하면 안으로 마음이 어지럽고 밖으로 모습을 여의면 마음이 곧 어지럽지 않으리라. 본 성품이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고요한 것인데 다만 경계를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지러워진 것이다. 만약 모든 경계를 보더라도 마음이 어지럽지 않다면 이것이(참된 정)이 될 것이다.

마음의 등불 하나씩 밝히자

(사)대한불교금강종 종정 무학 스님



心淨卽國土淨 心平卽國土平(심정즉국토정 심평즉국토평) 邪正由心 淨穢在我(사정유심 정예재아) "마음이 맑은 즉 국토가 맑을 것이요, 마음이 평안한 즉 국토가 평안할 것이니, 삿되고 바름이 모두 마음으로 말미암음이요, 깨끗하고 더러움이 모두 내 속에 있더라"라는 의미입니다. 친애하는 불자여러분! 우리나라가 곧 부처님의 나라요 중생의 나라이니 마음의 등불을 저마다 맑고 아름답게 밝혀서 대한민국을 불국정토로 만듭시다. 친애하는 불자여러분! 발심하여 기도하고 정진하여 대각을 이룹시다.

부처님처럼 살아갑시다

(사)대한불교금강조계종 종정 서호 스님



이 우주의 주인이요 인천의 스승이며 사생육도의 어버이시고 만고광명의 등불이신 부처님께서 애민중생 제도하고자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귀천한 사람이라도 인간은 부처와 부모와 같이 모셔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며 가진 자는 남을 도와주고 살아갑시다. 중생들이 서로 싸우고 침해하는 것은 일심동체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니 서로의 마음을 알고 보면 싸우려야 싸울 수 없으며 해치려야 해칠 수도 없습니다. 정유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돕고 부처님처럼 살아갑시다.

자비심 기르는 한 해를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정 능인 스님



오늘은 생사가 반복하는 윤회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해탈을 완성한 부처님께서 오신날입니다. 부처님을 거울삼아 부단히 지혜를 길러 억겁을 익혀온 악습의 무명, 번뇌를 녹여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비심은 나를 기쁘게 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며, 나를 부처님세계에 더욱 가까이 가게 해 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스러운 자비심 올해 더욱 키워보시지 않겠습니까? 불자님의 가정에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진리 따라 조화로운 삶을

원융교단 (사)대한불교조계산문 무문총림 대법주 보당 스님



부처님을 맞이하는 봉축일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에 소망을 담고 각오를 담아 다가오는 인연세상의 희망을 일구고 소망을 실현시키고자 다짐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一切法은 衆緣所集이요 共所作故니 無有一緣所生故라. 즉, 모든 것은 여러 가지 인연이 모여서 더불어 생겨나는 법이라서 한 가지 인연으로 생겨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국토는 모든 환경의 인연 조건들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항상 가르침에 귀의하여 고통 없고 조화로운 삶을 만들어 나갑시다.

참된 삶 위해 나누고 기도하자

(사)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운남 스님



부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중생이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탈하기를 염원하시 대자대비 원력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행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생은 항상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꿈같은 것이요, 이러한 꿈같은 인생살이에서 깨어나야 큰 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처이며 내 가족, 내 이웃 모두가 부처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버리고 밖에서 나를 찾다보니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명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삶을 위해 남을 위해 나누고 기도합시다.

나라 위한 봉축평화 기도발원

(종)대한불교삼보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법장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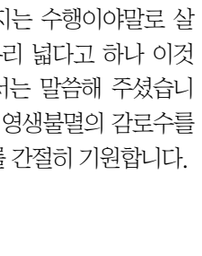


大韓國隆昌 民生安寧願
有一切功德 慈眼施衆生
福聚海無量 是故應頂禮

대한민국 융창과 국민의 생활 안녕을 발원합니다. 일체의 큰 공덕을 갖추시고, 지혜의 눈으로 중생을 보시니. 우리에게 줄 복덕이 바다 같아, 하심하고 머리숙여 절합니다. 내 아미타불을 찾아 깊이 믿지 않는다면, 눈 밝은 스승을 옆에 두고도 그 도력을 알 수 없으며, 만나도 지나치고 말듯이, 헛수고만 하는 법이라. 불자는 진실하고 참되게 믿어야 만이 복덕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마음자리 알아 자유인 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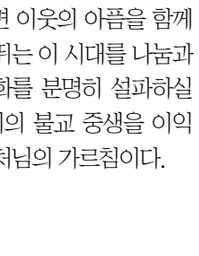
대한불교원융종 종정 성관 스님



부처님께서는 자유와 평등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따라 정진함으로써 사바세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은 팔만대장경으로 설하셔 놓았습니다. 결국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은 나로 인한 것이며,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오신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이끄는 마음을 알려 주시고 그 마음자리를 안다면 대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두루 하시기를 발원합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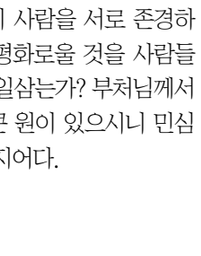
대한불교법성종 종정 만원 스님



정유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나의 잘못이 티끌만 치도 없는지 살펴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잘못은 대비심으로 살피고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며 참회하는 참 마음으로 사는 불자가 됩시다.

자성으로 발원해 희망의 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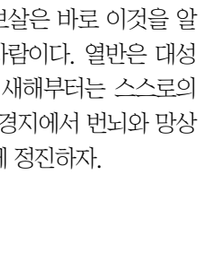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석가모니부처님은 거룩하신 빛으로 온 법계에 나투시었습니다. 그 빛은 오늘에도 널리 비추시고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온 누리에 충만하신 성스러운 부처님의 광명을 인연 있는 사람이거나 인연이 없는 사람이거나 모두에게 골고루 전하여서 세세생생 깨달음의 길로 인도합시다. 부처님의 찬란한 진리 광명으로 지난날의 허물을 참회로써 씻어주고 더럽혀진 인간의 심성을 바로 잡아 참된 삶을 이을 수 있도록 지성으로 발원하여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 갑시다.

복과 지혜 가득한 세상되길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



불멸등혜장명등(不滅燈兮長明燈) 인인개개인인등(人人皆皆人人燈)
장명등혜불멸등(長明燈兮不滅燈) 세세년년세세등(世世年年世世燈)

언제까지도 꺼지지 않을 등불이여, 사람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등불일세. 길이길이 밝아 꺼지지 않는 등불로 세세년년 밝게 비치니 영원의 등불이어라 자비의 등불을 밝히어 관불하여 신구의 삼업 탐진치 삼독을 소멸하고 복과 지혜가 가득하여 세상 일이 다 풍요로워 지기를 부처님전에 기원 하옵니다.

항시 깨어있는 사람으로

(사)대한불교염불종 종정 성인 스님

우리 불자님들은 항시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항상 일상생활에서 떳떳하고 자유롭게 살아간다면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부처님이 제자 일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행이야말로 살아 있는 수행입니다. 생사고해가 아무리 넓다고 하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불국토 발원이 이루어져서 영생불멸의 감로수를 맛보고 환희에 젖는 초파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중생 이롭게 불교 현대화를

(사)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 회장 각성 스님

부처님이 오신 참뜻은 삼라만상에 대한 무한 자비의 실천이다. 하물며 인간이야 더 말할 수 있겠는가? 인간존중의 사자후, 인간의 자유와 평등, 평화의 구현 그것이 곧 부처님의 크나큰 미소였다. 부처님이 오늘에 계신다면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폭력과 살상, 망어와 사건이 날뛰는 이 시대를 나눔과 자비와 화합으로 이끄는 현대의 불교화를 분명히 설파하실 것이다. 즉 불교의 사회적 기여와 대비의 불교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 나투신 뜻 새기자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종정 연화 스님

아! 말세로다 사탄의 세상이로다
偉哉 佛敎 每尊人
中道 人和 四海親
左右 人心 殺投爭
現佛 濟衆 平天下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람이 사람을 서로 존경하면 치우침 없는 인화로써 온 세상이 평화로울 것을 사람들은 어찌하여 좌우로 갈라져 투쟁만을 일삼는가?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나투신 큰 뜻은 중생구제에 큰 원이 있으시니 민심은 마땅히 인화로써 천하를 태평케 할지어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정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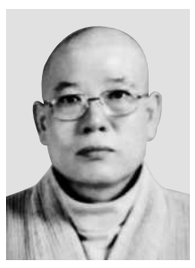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불교의 진리는 자신에 의한 성불이요, 오직 인간의 내재적 자아의 각성에 의한 해탈과 열반이다. 열반이란 번뇌와 집착을 끊음이다. 다른 사람이 번뇌를 끊어주는 것이 아니요, 바로 나 자신이 번뇌를 끊어주는 것이다. 보살은 바로 이것을 알고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이다. 열반은 대성도(大成道)며 성도는 해탈인 것이다. 새해부터는 스스로의 자성을 밝히는 노력을 다하여 해탈의 경지에서 번뇌와 망상과 죄업을 떨치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에 정진하자.

나를 알고 이웃 배려하는 자비행 실천을…

이기심 버리고 이웃 생각하자

대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보 스님



모든 생명이 약동하는 이 아름다운 봄날에 꽃비 흩날리며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진 또 정진할 것을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오직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헛된 말에 귀를 열어 현혹되지 말고 하심의 자세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무명이라는 어둡고 어두운 곳을 밝게 밝혀 진정한 참 나를 찾읍시다. 아집과 편견과 이기심을 버리고 남과 이웃을 생각하고 위하여 인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노력합시다.

下心 도리 행하는 불자되자

대한불교현조계종 총무원장 성종 스님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그 거룩함을 찬탄하지만 세계는 분열과 시기로 상생의 길을 스스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오신 참 뜻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의 어버이이신 부처님께서 고통의 바다에서 허덕이는 우리 중생을 열반의 저 언덕으로 인도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화합과 상생으로 유명무실한 보살행을 하지 말고 나를 버리고 남을 진정으로 위하는 하심의 도리를 행하는 참 불자가 됩시다. 자리이타의 자비광명을 기원합니다.

정진으로 성불 금자탑을

(사)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성 스님



두 길로 가려하면 한길도 못 가나니 한 길로 가고 가되 바른길 찾아가며 무위로 가는 곳이 당처안심 그 자리네. 學道는 쉽다 해도 득도하기 어려우며 得道는 쉽다 해도 수도하기 어려우며 修道는 쉽다 해도 行道는 어렵다네.

불성인 나를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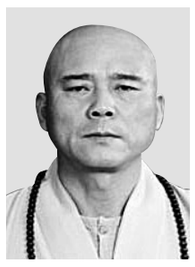
(사)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파 스님



팔만대장경에 의하면 나는 끝없는 번뇌와 망상, 그리고 시비를 가리며 싸우는 혼탁한 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나는 태양처럼 밝고 소소영영한 나입니다. 즉 본래의 나는 바로 절대적인 수명으로 육신의 죽음에도 여전히 불성으로 존재합니다. 고통스럽게 생사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윤회도 알고 보면 내안의 미혹이 만든 끔직한 결과라고 부처님께서는 항상 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버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진정한 불성인 나를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항상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소서.

우리도 부처님같이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지민 스님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우리 눈앞에 탄핵으로 물러선 박근혜 前대통령의 구속문제와 더불어, 북한과의 변화, 대통령 선거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하나도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우리 자신을 위한 철저히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만일 부처님이 계시다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행을 하실지 잘 살펴 우리들이 최선의 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봉축하며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더 부처님처럼 보살님처럼 닮아지도록 더욱 노력정진해 나갑시다.

등불 밝힌 이유를 알아야

대한불교자비공덕회장 대풍 스님



우리 불자들은 초파일이면 항상 그렇게 했듯 등을 올려 밝힙니다. 왜 등불을 밝히는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등불을 밝히는 것은 무명을 태워 광명의 세계에 들어가 지혜를 밝힌다는 것입니다. 연등만으로 무명을 다 걷어낼 수는 없겠지만 마음의 불을 밝혀 지혜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을 부처님같이 공경하고 받들어 모신다면 이 세상은 비로소 살기 좋은 부처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어리석은 생각을 몰아내고 슬기롭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관심·자비로 참 뜻 전하자

(재)진각미란다 이사장 이용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과거에 만든 습관적인 번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교화하는 '미란다 불교 민영교도소'는 불국토로 향하는 자비와 희망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재소자들을 교화하는 것은 자비행의 실천입니다. 교화는 물론 출소자에게도 배려와 나눔, 관심과 자비로써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면 진정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참 뜻일 것입니다.

동체대비로 한국사회 재구성

종교세계신문사 발행겸 편집인 윤기순



고통 받는 중생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과연 불교가 금과옥조처럼 주장하는 자비의 실천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이제 미래사회 발전을 위해 개인과 사회를 분리하지 않고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는 동체대비를 구현해야 한다.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 종교지도자가 자리이타의 근본정신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봉축의 위대함도 그야말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린 얼마나 자비로웠나 다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생각해 보자.



佛紀 2561年 丁酉年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유일한 진실을 어기고 거짓을 말하는 자, 저 세상을 포기한 자에게는
행해지지 않을 악이 없다. 〈법구경〉

학교 법인 **금정학원**
이사장 경 선
교 장 정진완
교 감 권장석
교법사 이석언
행정실장 김세경
교직원. 반야불자회 파라미타불교반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금강암
주지 정 만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
TEL 051)508-4509
FAX 051)508-4870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대한불교 조계종 **길상사**
[부설] 삼계선원 · 불교대학
성현덕회 · 단월회 · 지장회
참선반
주지 만제 혜수
사부대중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로69번길 15(삼계동)
TEL 055)333-8202
FAX 055)333-8203

사회봉사단체
부산불교 보현회 보현정사
회 장 안성이
재 무 조영희
총 무 전영자 윤점자 최본자성
감 사 김선언 홍보부장 유기선
청년회회장 정진호
회 원 일 동
■ 부산시 동구 좌천동 532-1
TEL 051)636-4531

대한불교조계종
태화산 서악사
주지 도륜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안동시태화동 서악길 67-14
TEL 054-852-9126

대한불교조계종
자비도량 원오사
회주 고원 명정
주지 정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윗반송로 124-5
TEL 051)542-7979, 545-7949

대한불교조계종 직할포교당
진여원불교대학
(사)진여사회복지원
회 주 혜 총
원 장 남보타월
봉사단장 정보덕심
사부대중일동
■ 부산 광역시 북구 구포2동 930-8
TEL 051)338-1008. 337-1080

대한불교조계종
청 량 사
주지 운암 현엽
신도일동
■ 부산시 강서구 제도로 29
TEL 051)271-27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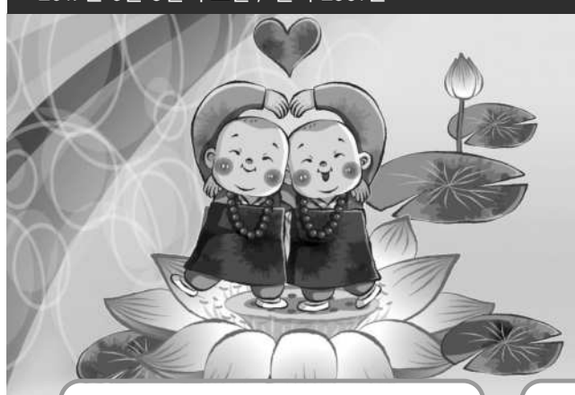
큰 사람을 키우는 민족사학
자비와 지혜를 배우는 전법도량
학교 법인 능인학원 **능인중·고등학교 상아유치원**
이 사 장 자 현
능인중학교장 김상만
능인고등학교장 조상승
상아유치원장 정인애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7(지산동800)
TEL 053-235-4481, 053-232-9102 FAX 053-763-1807

대한불교조계종
화엄도량 부석사
주지 근일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로 345
TEL 054-633-3464

나의 체질을 아시나요?

100세 시대는 체질을 알아야 미리 예방하여 병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수십년간 인체에 대하여 공부한바로 나의 체질을 알아야 병을 고칠 수 있고 체질을 알아야 맞는 음식, 맞는 과일, 맞는 차를 먹을 수 있고 병은 체질에 맞는 한약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답니다. 나의 체질이 궁금하시면 전화주세요.

■ H·P 010-3522-2429



佛紀 2561年 丁酉年 | 전면광고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 C11

모든 죄악을 짓지 않고 모든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성취하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깨달은 님들의 가르침이다. 〈법구경〉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광주포교당

성 거 사

주 지 혜 공

사부대중일동

■ 광주광역시 남구 서2동 143-2
TEL 062)676-1080

대한불교조계종

비 전 사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489-22번지
TEL 062)951-3562

지장도량

미 륵 사

주지 혜법

사찰음식 전문점
수 자 타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469-3
TEL 062)222-1145

한국불교태고종

만 덕 사

주 지 시 각

운영위원장 정법심

신도회 일동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1로 74-11
TEL 062)652-4920

대한불교조계종

법 림 사

대해노인복지센터

주지 무진

■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649-1번지
TEL 062)234-2207

대한불교 조계종

문 빈 정 사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TEL 062)222-2202

대한불교조계종

만 경 사

주 지 증 현

■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산49-4
TEL 062)263-3180

대한불교조계종

연 화 사

주 지 명 신

[부설]
연화유치원, 어린이집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 2동
448-2번지
TEL 062)227-7295
유치원 227-0173

한국불교태고종

법 륜 사

주 지 월 인

신도일동

광주전통불교영산보존회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23호
작법기능보유자

대한불교조계종

정 안 사

주 지 동 초

신도회 일동

■ 광주광역시 북구 분토길 90
TEL 062)265-0801

대한불교조계종

신 흥 사

주 지 법 공

신도일동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101-1
TEL 061)554-2634

대한불교조계종

신 광 사

회주 경주

주 지 동 현

대중일동 합장

■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66번길 42-10
TEL 062)261-1529

대한불교조계종

향림사 포교당
금 당 선 원

주 지 진 표

신도 및 활짝회 일동

■ 광주 남구 독립로53번길
24-1
TEL 062)653-8108

한국불교태고종

보은산 금곡사

주지 보각스님

■ 전남 강진군 군동면 파산리
1012-2번지
TEL 061)433-3407

아 주 미 디 어

대표 오태준

콘서트. 체육대회,
대학축제, 지역축제
음향, 무대, 조명, 의자

■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42-6
TEL 062)381-8052
FAX 062)381-8056
010-3624-2321



佛紀 2561年 丁酉年 | 전면광고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 C12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맨 땅위에 누워 있어도 오히려 편하고 즐거움이 되지만,
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천당에 있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불유교경〉

대한불교조계종

소 원 정 사

연꽃향기 자비나눔본부

주지 **도계**



■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79-5번지
■ 전 화 : 062)279-3332

한국불교태고종

광주 전남교구 종무원

원로회의장 **김지암**
원로회부의장 **권금용**

종 무 원 장 **임호산**
부 원 장 **박월인**
총 무 국 장 **박보각**
재 무 국 장 **황법진**
규 정 국 장 **지정각**
문 사 국 장 **김보겸**
교 무 국 장 **박도진**

중 앙 종 회 의 원

차 석 부 의 장 **김시각**
법사분과위원장 **남법진**
재 경 분 과 위 원 **김승범**

지 방 종 회 의 장 **김시각**
지방종회부의장 **남법진**
총무분과위원장 **유혜종**
재무분과위원장 **김승범**
규정분과위원장 **장지명**
교무분과위원장 **김도안**

총무분과위원 **심지암**
총무분과위원 **김원일**
총무분과위원 **노보현**
재무분과위원 **노자원**
재무분과위원 **여지공**
재무분과위원 **박법일**
규정분과위원 **문연봉**
규정분과위원 **박성법**
교무분과위원 **정원문**
교무분과위원 **서승휘**

■ 주 소 : 광주 광역시 서구 금호운천길 85-15
■ 전 화 : 062)375-1820 팩스 062)381-0944

한국불교태고종

세 심 정 사

회주 지 암

주지 보 응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길 57-15

대한불교조계종

광 덕 사

주 지 효진

■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31-5
TEL 062)652-6050

대한불교조계종

연 화 사

부설 아이온유치원

주 지 지 원

■ 광주 남구 광복마을7길 17
TEL 062)652-4763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 지 소 운

관음사 신도회
관음사 불교대학(원)
붓다스마일 합창단
연꽃향기 성지순례회

■ 광주 동구 충장로46번길 7
TEL 062)223-7666

한국불교태고종

율 곡 사

주 지 혜 령

광주전통불교영산보존회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23호
범음기능보유자

율곡범음대학 의식교육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269-4번지
TEL 062)263-4575

생명평화를 애호하는 불교NGO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부설)어린이청소년공동체 나무숲



상임대표 **시 각**
공동대표 **무 등, 행 법, 효 진, 정범도**
운영위원장 **이해모**
사 무 처 장 **임수연**
팀 장 **허승희**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96-1(계림동)
전화 **062-223-3623**
팩스 **062-223-3624**

무등산 두암동

꽃 피 움 절

선각불교문화원

회주 자 공

주지 목 언

■ 광주광역시 동구 두암2동 7번지
TEL 062)263-0108

대한불교조계종

보 광 사

주 지 신 원

신도일동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매곡길 49-15
TEL 061)381-4242

대한불교조계종

천 룡 사

주 지 무 등

- **원지회 (원만상호지니려는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 **다라니 독송회**
  (신묘장구 대다라니 독송기도회)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
- **신행기도회**
  매주 둘째주 일요일

■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길 26-23
TEL 062)234-1338 / FAX 062)234-0108

‘종교 화합·공존’ 메시지를 만나다



윤범모 교수의 ‘佛道紀行’
– 붓다가야에서 토함산 석굴암까지

⑧ 엘로라 석굴

깎아내린 절벽, 검붉은 색의 바위덩어리, 그 울퉁불퉁한 단애(斷崖), 그렇고 그런 자연 속의 한 장면 같다. 하지만 이곳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 유산이다. 둘도 없는 보배 중의 보배이다. 엘로라. 인도 허리부분쯤의 데칸고원, 바로 아우랑가바드의 북서쪽 20km 지점이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세계적 석굴사원인 아잔타와 80km 정도 떨어진 거리이다. 아잔타와 엘로라. 이들이 이웃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데칸고원은 훌륭하다.

나는 데칸고원을 걷는다. 푸르른 초원과 뜨거운 태양을 안고 걷는다. 자, 엘로라, 서부활극시대 꿈의 황금도시 엘도라도가 아니라, 세계 석굴사원의 보석, 거기가 바로 엘로라이다.

엘로라는 왜 보석보다 아름다운가. 인도 3대 종교의 집합소이기 때문. 오늘날 종교 분쟁의 현장을 보면서 종교의 화합정신과 존재 가치를 염두에 두게 하는 현장이다. 엘로라는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이들 3개 종교가 사이좋게 나란히 있다. 어떻게 이런 사실이 가능할까. 바로 범신론의 넓은 도량이 밑바탕을 이루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의 사찰에서 불교, 유교, 도교를 하나의 전각 안에 봉안한 사례를 연상할 수 있다. 이들 종교 또한 유일신 사상이 아닌 범신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아무튼 엘로라의 특징은 타종교와의 화합과 공존, 게다가 거대한 석굴사원이자, 석조미술의 백미를 간직하고 있는 미술관이다.

인도에서 석굴사원이 조성되기 시작한 때는 기원전 2세기 말 혹은 1세기 초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후 기원후 9세기까지 석굴사원의 전성기를 맞았다. 데칸고원 서부지역에 밀집되어 있음도 흥미롭다. 이렇듯 석굴 공사의 용이함은 바위 성분이 화강암이 아니고 현무암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거대한 바위를 뚫고 정교하면서도 예술성 높은 ‘작품’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기계의 도움은커녕 순전히 인력으로만 이룩한 엄청난 난공사였다.

조그만 망치 하나로 이룬 거대한 건축, 어떤 것은 학교 교실보다 다섯 배 혹은 열 배 이상 큰 규모, 게다가 정교한 탑상 조각과 무수한 릴리프, 아름다움의 보물창고와 같다. 이런 석굴 하나 완성하는 데, 30년, 아니 100년도 더 걸렸다.

그러니까 3대 이상 대물림하면서 정성을 기울였다. 신앙심의 성공이다. 정말 신앙심 없으면 이룩할 수 없는 난공사 중의 난공사였다. 오늘날 자본의 논리로만은 이룩할 수 없을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석굴은 위에서 아래로 파 들어가면서 실내공간을 만들고, 어느 정도 공간이 만들어지면 불탑과 불상을 조각하고, 또 여러 군데에 문양 등 화려한 장식을 새겼을 것이다. 일반 건축물 형식의 석굴. 목조건축은 풍화와 화재로 사라지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석굴은 시간을 빗겨가게 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엘로라는 2km 길이에 34개의 석굴을 가지고 있다. 종교에 따라 3등분으로 구획정리할 수 있다. 제1석굴부터 제12석굴까지는 불교석굴이다. 이들 가운데 제1~



엘로라 석굴 전경. 바위산을 깎아 낸 자리에는 불교와 힌두교, 자이나교 등 인도 3대 종교의 사원이 들어섰다.

불교·힌두교·자이나교가 나란히
인도 3대 종교, 공존하는 석굴
범신론 기초… 미술적 가치 높아
34개 석굴 중 불교석굴은 12개
제10석굴, 외관 아름다움 ‘유명’

제10굴은 5세기에서 7세기의 작품으로, 그리고 제11~12굴은 8~9세기의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13석굴부터 제29석굴까지는 힌두교 석굴로 7세기 내지 9세기 작품이다. 나머지 5개의 석굴 즉 제30석굴부터 제34석굴은 자이나교의 석굴로 9세기 내지 12세기에 조성되었다. 자이나 석굴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같은 지역에 이렇듯 타종교의 사원들이 나란히 자리잡고 있다는 것. 현대인에게 뭔가 반성하게 하지 않는가. 그래서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변화할 뿐이란 말, 맞는 것 같다. 우주 만물은 변한다. 발전이라는 개념은 좀 교만스런 표현일 수 있다. 세상 천지에 변하지 않는 존재는 아무 것도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엘로라 석굴의 원래 입주자는 현재 아무도 없다. 오늘날 엘로라 전성기 후예의 존재는 알 수 없다. 종교의 사원조차 영속성을 잃었다. 오늘의 엘로라는 도처에서 몰려오는 관광객으로 가득할 따름이다. 석굴사원은 유명 관광지로 용도 변경되어 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인가. 현재 그곳은 불교도, 힌두교도, 자이나교도 없다. 그냥 석굴만 있다. 아니, 예술품만 남아 있다.

엘로라 석굴 가운데 대표작은 제16굴을 꼽는다. 카일라사나타 즉 ‘안락한 주거 전당’이란 의미이다. 수미산 즉 카일라스를 안고 있는 거대한 규모이다. 높이 33m, 바닥 길이 54m, 정면 길이 46m 등등, 착공 이후 220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설도 있다. 이 석굴은 라슈트라쿠타 왕조의 크리슈나 1세(재위 756~773년) 시대의 작품이다. 8세기 중엽이라, 그렇다면 우리의 통일신라와 겹치는 시대가 아닌가. 또 그렇다면, 토함산 석굴암과 겹치는 시대가 아닌가. 아하, 나는 제16석굴 사원 안을 거닐면서, 토함산 석굴암을 생각했다. 비록 힌두교 사원이지만 석굴사원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했다. 물론 커다란 비교는 무엇보다 규모이다. 천연 바위를 뚫고 조성한 제16석굴에 비하여 토함산 석굴암은 비록 작지만 인공 축조의 건축이라는 점, 이 점을 염두에 두게 했다.

엘로라의 특징은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 스토리텔링의 보물창고와 같다. 그것도 여러 종교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 훌륭한 이야기 책이 아닌가. 이야기를 조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시설된 갖가지의 시각적 산물, 바로 예술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것 같다.

특히 이야기의 주체 즉 사람들 표현은 백미 중의 백미이다. 나그네의 시각으로, 좀 속되게 표현한다면, 관능적 여체 표현도 눈길을 묶어둔다. 그만큼 인체 표현의 박진감 있는 사실성과 표현력을 과시하는 부분이다.

엘로라의 불교사원으로 가보자. 제10석굴은 외관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하다. 외부는 자연석 상태로 거칠게 있으나 안으로 들어가면 본격 건축이 조성되어 있다. 차이티야 형식의 예불 공간이다. 내부는 그야말로 아름다움의 극치이다. 석수의 노련한 기교가 가득 담겨 있다. 규모와 더불어 섬세한 장식 문양과 구조가 돋보인다.

제11석굴은 3층 구조의 승방이다. 외부는 천연 바위 상태이나 좁은 계단을 올라 진입로를 따라 들어가면 요새와 같은 건축이 나온다. 겉에서 보면 마치 현대식 아파트 같다. 복도를 따라 방이 연결되어 있다. 거기다 일렬로 세운 가지런한 기둥과 실내 구조는 합리적이다. 열주(列柱)는 제26석굴의 경우 두드러진다. 실내 양측에 서 있는 기둥들, 그리고 그 위에 가득한 다양한 문양들, 장엄하다. 내부 안쪽 중앙에는 불단이 조성되어 있다. 제5석굴은 학인 스님의 공부방이다. 도열한 실내의 기둥을 따라 좌우 2줄씩 분할된 공간은 마치 교실과 같다.

엘로라 석굴을 거닌다. 인도 불적 순례여행의 남단이다. 그러니까 네팔의 붓다 탄생지 룸비니에서부터 쿠시나가라, 바이샬리, 바라나시, 나란다, 보드가야, 산치 그리고 더 남하하여 아잔타를 거쳐 엘로라에 도착했다. 인도 지도에서 중간부분 쯤 이다. 서쪽으로 가면 아라비아 바다의 뭄바이로 연결된다. 오늘날 파키스탄 지역의 간다라와 비교되는 별도의 이색지대이다. 바로 석굴사원 지대, 데칸고원의 풍미이다. 엘로라 석굴을 거닌다. 나는 왜 이 순간에 중국의 소동파가 생각날까. 그의 시 ‘수조가두(水調歌頭)’를 읊조려 본다. 술잔을 들고 달과 친구 삼은 순간의 모습이다. 폐허의 엘로라 마당에서 떠오른 시 구절이다.

“밝은 달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술잔을 들고 푸른 하늘에 묻노라/ 천상의 궁궐에서는 오늘 저녁이/ 무슨 해인지 모르겠네/ 나는 바람을 타고 돌아가고 싶지만/ 당나라 궁전은/ 높은 곳이라 추울까 걱정이네/ 일어나 춤추며 맑은 그림자 희롱하니/ 어찌 인간 세상에 있는 것만 하겠는가// 달은 붉은 누각 돌고 돌아/ 비단 창문까지 낮게 떠서/ 잠 못 이루는 이를 비추네/ 응당 이별의 한이 있을 리 없건마는/ 어인 일로 언제나 이별할 때는 둥근 것일까/ 사람에게는 기쁨과 슬픔, 이별과 만남이 있고/ 달에는 어둡고 밝음, 둥글고 이지러짐이 있네/ 이처럼 세상사는 예로부터 온전하기 어려웠으니/ 다만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오래 살아서/ 천 리 밖에서도 함께 저 달을 감상하길 바라네.”

〈미술평론가, 동국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사진=황헌만 사진작가



엘로라 제10석굴의 전경. 차이티야 형식의 예불 공간으로 석수에는 당시 장인들의 노련한 기교가 담겨있다.

20년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 여행사 YESGOOD.CO.LTD
문의 전화 02-365-7747
오시는 길: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 앞 대불광빌딩2층
www.mahayeon.com

인연이 닿아야 갈수있는 곳
천불천탑의 부처님 나라 미얀마
미얀마 6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미얀마 7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따야]
미얀마 7일(3대 성지)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미얀마 5일 [양곤-바간-헤호]

한국-부탄 수교 30주년 할인 행사
행복한 불교왕국으로의 행복한 순례
부탄
마하연 부탄 전세기 확정!
》6월 17일, 22일, 27일
7월 02일, 07일 (단 5회)
》239만원 (3성호텔)
》269만원 (4성호텔)
*가이드&기사팁 $60 불포함 상품입니다.

부처님의 탄생지에서 열반지까지
인도 네팔 8대 성지 순례 11일

남방불교의 진수
스리랑카 6일
하늘과 맞닿은 불교성지
티벳(하늘열차) 8일
부탄-네팔 8일

라오스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진 라오스의 심장 팟루앙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6일 HOT
하롱베이-씨엠립

세계3대 불교사원 보로부두르
인도네시아 7일
족자카르타-발리
대만 5일
3대사찰 순례
태국 5일
방콕-아유타야-파타야

4대 불산 중국 990,000~
·[지장도량]구화산-[관음도량]보타산6일
·[문수도량]오대산/북경/ 5일
·[보현도량]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지장도량]구화산/황산/상해 4일/5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태항산-천계산-요산(208m중원대불)
·공중도시 면산-태항대협곡 5일
·청도/곡부/태산6일(웨리크루즈)
·[관음도량] 보타,낙가산/상해 4일/5일

붓다

요금제로 통신비 절약하고! 매월 편리하게 시주도 받고!

붓다폰은 불자 전용 휴대폰으로서,
불교인에게 **전용 요금제 및 전용 앱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혜택

붓다폰 전용요금제 이용 시, 매월 사찰에 일정 금액 자동 시주!
붓다 10GB 100회선 매달 가입시 연간 7,800만원 자동 시주!

붓다폰 전용요금제

요금제명		데이터	음성·문자	기본요금	할인요금
붓다폰 전용 요금제	붓다 300MB	300MB	음성/문자 기본제공	~~32,890원~~	31,790원
	붓다 2GB	2GB		~~43,890원~~	42,790원
	붓다 6GB	6GB		~~54,890원~~	52,690원
	붓다 10GB	10GB+무제한		~~65,890원~~	62,590원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붓다폰앱

- 부처님말씀
- 불교교리
- 생활법문
- 법회영상
- 명상음악
- 경전 독송 서비스 등

Google play 붓다폰앱
앱 게임 영화 도서 뉴스스탠드

minigate

불자 전용 붓다폰 (가입문의 : 1588-7376)

우리 사찰에도 붓다폰 등록 / 가입하시려면 010-5937-7777 연락주세요.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고(苦)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있구나. 네가 사는 곳에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사는 곳이 네가 사는 곳이었구나. 그랬구나. 언젠가 둘 중 하나는 내일이 없을 텐데. 그 내일 때문에 '너'와 '나'가 생겼구나. 세상이 너와 나로 채워졌으니 쉽지가 않은 것이구나. 너 살던 곳에 내가 살고, 내가 살던 곳에 네가 사는 것인데. 쉽지가 않구나.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신현득 작가의 동화 팔만대장경

⑨ 소도 칭찬을 좋아한다

착한 말은 선한 인과를 가져옵니다

탁실라(북인도의 문화증심지. 현재 파키스탄 편잡주) 나라에 내기를 좋아하는 장자가 있었습니다. 황소 한 마리를 길렀는데 크고 힘센 소로 자라났습니다.

"이만하면, 탁실라에서는 우리 소를 당할 소가 없다. 내기를 걸어야겠어."

자신이 생긴 장자는 한길에다 100채의 수레를 이어 놓고, 외치며 다녔습니다.

"누구든지 힘센 소가 있거든 나서시오! 이 100채의 수레를 끌 수 있나 내기를 합시다! 황금 1000량을 걸고 하는 내기요!"

탁실라에는 힘센 소를 가진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힘센 소 임자 10명이 내기에 나섰습니다. 황금 1천량을 모아놓고 이긴 소 임자가 그 돈을 가지는 시합입니다.

10명의 소 임자 중에는 소를 사랑하기로 이름난 바라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 이름이 '한뿔잡이' 였습니다. 바라문은 한뿔잡이를 몹시 사랑해서 날마다 좋은 먹이를 주고, 쓸어주고, 만져주고 했습니다.

그렇게 소와 친하다보니, 소의 말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소임자인 바라문이 소에게 말했습니다. "한뿔잡이야. 우리도 100채 수레끌기 내기에 나서보자. 네가 힘이 세거든."

"좋아요. 자신 있어요. 해봅시다. 움무우!" 한뿔잡이가 사람의 말, 소의 말을 섞어가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라문의 소 한뿔잡이가 수레끌기 내기에 나섰습니다. 탁실라 온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힘센 소의 힘자랑을 구경했습니다. 차례를 정해놓고 수레 끌기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소가 나섰습니다. 힘을 다해서 끌었으나 100채의 수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소도 100채의 수레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셋째도 넷째도 그러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도 그러했습니다. 한뿔잡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끌어라 끌어라! 한뿔잡이야. 한뿔잡이야! 끌어!" 옆에서 소임자 바라문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바라문이 너무 서두는 바람에 한뿔잡이가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것도 못 끄느냐? 힘을 내봐. 힘을 내봐. 끌어! 있는 힘이 그것 뿐이냐? 끌어! 끌어!"

수레 100대가 움쩍 움직였습니다. 얼마쯤 움직이다가 그만, 더 구르지 못했습니다. "실망이다 이놈아. 끌어 끌어! 그것도 못 끄느냐? 실망이다 이놈아!"

아무리 다잡아도 수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실망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장자의 소 차례입니다.

장자의 소는 100채의 수레를 끌고 여러 걸음을 움직이다가 멈추었습니다. 내기는 장자의 소 승리였습니다. 황금 1000량은 장자 차지가 되었습니다. 장자와 장자의 소는 의기양양하게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바라문은 크게 뉘우쳤습니다.



그림 · 강병호

"내가 우리 한뿔잡이에게 칭찬을 아꼈기 때문이야. 칭찬을 해야 힘을 내는 건데 수레를 끌지 못한다고 나무라기만 했어."

소에게 물어봐도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주인아저씨는, 칭찬에 약해요. 꾸중만 하시니 힘을 낼 수가 없죠. 움무우!"

소의 말 절반, 사람의 말 절반으로 소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크게 깨달은 바라문을 그날부터 소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먹이를 주며 소를 칭찬했습니다.

"오늘부터 한뿔잡이를 '좋은뿔' 이라 부르기로 한다. 많이 먹고 힘내라. 좋은뿔아!"

그리고 장자를 찾아가서 '100수레 끌기 내기'를 한 번 더 해보자고 제의했습니다. 자신이 있는 장자가 마다할 리는 없지요. 이번에는 상금을 배로 올려, 황금 2000량으로 했습니다.

얼마 뒤 탁실라 나라 사람이 모두 모인 가운데 두 번째 '힘센소 100수레끌기 내기' 가 시작되었습니다. 상금 2000량이 걸렸습니다. 자신 없는 소와 임자는 나오지 않고, 장자의 소와 바라문의 소만 시합에 나왔습니다.

두 소만의 시합이 되었습니다. 바라문의 소 좋은뿔이 먼저 멍에를 메고 100채 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좋은뿔 잘 끈다. 좋은뿔 장하다. 영차 잘 끈다! 힘차게 끌어라!"

그러자 100채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둘둘둘둘, 수레가 힘차게 굴렀습니다. "잘한다. 좋은뿔! 장하다 좋은뿔! 힘세다 좋은뿔! 끌어라 좋은 뿔!"

100채의 수레가 소리를 내며 계속 굴렀습니다. 빠르게 멀리까지 끌었습니다. 탁실라 사람들이 같이 손뼉을 치며 좋은뿔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뿔 힘세다! 좋은뿔 이겨라!"

그 바람에 좋은 뿔은 힘이 부쩍부쩍 솟아 더 멀리까지 끌었습니다. 다음에 나선 장자의 소는 좋은 뿔처럼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승리는 좋은뿔 차지였습니다. 구경 나온 탁실라 사람들이 "좋은뿔 만세"를 같이 불렀습니다.

상금 2000량은 바라문 것이 되었습니다. 100수레를 힘차게 끌었던 좋은뿔은 이름난 소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이 비구스님들에게 좋은 말 쓰기를 가르치기 위해 들려주신 동화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좋은 말을 할 것이요, 나쁜 말은 삼가야 한다. 축생에게도 그렇거든 하물며 사람에게랴!"

출처: 〈사분률(四分律) 제11권〉



매월 전국 기도도량 찾아 구법순례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 구법의 길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 불자들도 우리나라의 여러 기도도량 가운데 53사찰을 선정하여 매월 순례기도를 떠납니다. 53기도도량순례에 꼭 동참하시어, 그 인연공덕으로 제불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하고, 모든 소원이 원만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53기도도량
- 통도사(佛) 해인사(法) 송광사(僧) 삼보사찰
- 미래의 부처님이 상주하는 미륵도량
- 중생의 병고 구제하는 약사도량
- 중생에게 지혜를 주는 문수도량
- 지옥의 육도중생 구원하는 지장도량
- 부처님의 진신사리 모신 적멸보궁
- 아미타불 극락정토 상징하는 미타도량
- 33응신으로 중생구제하는 관음도량
- 중생의 서원 실천하는 보현도량
- 불법수호하며 중생제도하는 나한도량

가입문의 | 02)900-0193~4 / 02)936-5936 (도안사)

선묵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53선지식을 찾아가는 53 기도도량

108산사순례기도회
www.108sansa.com
Tel.(02)900-0193 Fax.(02)900-0195

불기 2561 (2017)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같이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대한불교 조계종 기원사

사부대중일동

한국불교꽃예술연구원
보림꽃예술중앙회

꽃꽂이 강의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392-106
☎ 02)918-0034



불기 2561년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영원한 오늘

부처님 오신날

일체가 나 아님이 없고
내 도량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으니
평등공법으로 모든 생명 건지는
한마음 밝은 등불을 밝힙시다

주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황사평6길 176-1 (영평동)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동삼동)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04번길 23-1 (치평동)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 (천곡동)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 (중동)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위안양골길 157-61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 (우현동)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109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하평5길 29 (포남동)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여황로 131 (도천동)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952-19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직통)070-7883-5239 TEL:(1-718)460-2019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E-mail : hanmaumla@naver.com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55-11)3337-529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282(석수동) T. 031-470-3100 F. 031-470-3116